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7輯

김해 장유신도시 개발지구내 유적
김해 능동유적 II
-석곽묘

전 호 태
김 영 민
우 순 희
신 준 섭
이 아 진
윤 효 정

2012

울산대학교박물관

〈일러두기〉

1.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며 등고선의 수치는 해발이다.
2. 유구는 '가', '나', '다' 지구로 나뉜다. 『김해 능동유적 I-목곽묘』는 '나' 지구이다.
3. 유구의 縮尺은 석곽 1/40, 가마·기타유구 1/60이며 유물의 축척은 토기 1/3, 철기·석기 1/2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 축소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척표시를 하였다.
4. 유물 수습 후 복원불가능한 유물은 도면없이 도판으로 대체한다.

目 次

I. 머리말	1
II. 유적의 환경과 입지.....	6
III. 조사내용	13
1. 유적현황 및 토층	13
2. '가' 지구	14
1) 삼국시대 유구.....	14
1석~9석(석곽묘, 가-1석은 석실묘)	14
1호 토광묘	30
1· 2호 토기가마.....	31
2) 조선시대 유구	35
1· 2· 3· 4호 석열.....	35
3. '나· 다' 지구	39
1) 삼국시대 유구	39
1~42석(석곽묘)	39
2) 조선시대유구	113
1~3호 기와가마	113
4. 수습유물	126
1) '가' 지구 수습유물	126
2) '나' 지구 수습유물	126
IV. 분석자료	131
1. 김해 능동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131
2. 능동 목곽묘 보완 자료	135
1) 능동 목곽묘 출토 轡	135
2) 목곽묘 출토유물 추가 보고	140
V. 맺음말	142

圖 面 目 次

圖面 1. 유적 위치와 주변유적분포도 8	圖面 32. 나-3·4호 석곽묘 출토유물..... 45
圖面 2. 유적 지형도..... 9	圖面 33. 나-4호 석곽묘 46
圖面 3. 능동유적 '가' 지구 유구배치도 10	圖面 34. 나-5호 석곽묘 47
圖面 4. 능동유적 '나·다' 지구 유구배치도... 11	圖面 35. 나-4·5·6호 석곽묘 출토유물.... 48
圖面 5. 기준 토층도 13	圖面 36. 나-6호 석곽묘 49
圖面 6. 가-1호 석실묘 14	圖面 37. 나-6·7호 석곽묘 출토유물 50
圖面 7. 가-1호 석실묘 출토유물 16	圖面 38. 나-7호 석곽묘 51
圖面 8. 가-2호 석곽묘 17	圖面 39. 나-7호 석곽묘 출토유물 52
圖面 9. 가-3호 석곽묘 18	圖面 40. 나-8호 석곽묘 53
圖面 10. 가-2·3호 석곽묘 출토유물 19	圖面 41. 나-9호 석곽묘 54
圖面 11. 가-3호 석곽묘 출토유물 22	圖面 42. 나-7·8·9·10호 석곽묘 출토유물 55
圖面 12. 가-4호 석곽묘 23	圖面 43. 나-10호 석곽묘 56
圖面 13. 가-3~5호 석곽묘 출토유물 24	圖面 44. 나-10호 석곽묘 출토유물 57
圖面 14. 가-5호 석곽묘 25	圖面 45. 나-11호 석곽묘 57
圖面 15. 가-5~8호 석곽묘 출토유물 26	圖面 46. 나-11호 석곽묘 출토유물 58
圖面 16. 가-6호 석곽묘 27	圖面 47. 나-12호 석곽묘..... 59
圖面 17. 가-7호 석곽묘 27	圖面 48. 나-12호 석곽묘 출토유물 61
圖面 18. 가-8·9호 석곽묘 29	圖面 49. 나-13호 석곽묘..... 61
圖面 19. 가-1호 토광묘 30	圖面 50. 나-14호 석곽묘..... 62
圖面 20. 가-8·9호 석곽묘, 1호 토광묘, 1·2호 토기가마, 4호 석열 출토유물... 32	圖面 51. 나-12·13·14호 석곽묘 출토유물..... 64
圖面 21. 1호 토기가마 33	圖面 52. 나-15호 석곽묘 65
圖面 22. 2호 토기가마..... 35	圖面 53. 나-14·15호 석곽묘 출토유물 66
圖面 23. 1호 석열 36	圖面 54. 나-16호 석곽묘..... 67
圖面 24. 2호 석열 37	圖面 55. 나-15·16·17·19호 석곽묘 출토유물 68
圖面 25. 3호 석열 37	圖面 56. 나-17호 석곽묘 69
圖面 26. 4호 석열 38	圖面 57. 나-18호 석곽묘 70
圖面 27. 나-1호 석곽묘 39	圖面 58. 나-19호 석곽묘 70
圖面 28. 나-1호 석곽묘 출토유물 40	圖面 59. 나-19·20호 석곽묘 출토유물..... 71
圖面 29. 나-1·2호 석곽묘 출토유물 41	圖面 60. 나-20호 석곽묘 72
圖面 30. 나-2호 석곽묘 43	
圖面 31. 나-3호 석곽묘 44	

圖面 61. 나-21호 석곽묘	74	출토유물	106
圖面 62. 나-20·21호 석곽묘 출토유물	75	圖面 91. 나-40호 석곽묘	107
圖面 63. 나-21호 석곽묘 출토유물	76	圖面 92. 나-40호 석곽묘 출토유물	108
圖面 64. 나-22호 석곽묘	77	圖面 93. 나-40·41호 석곽묘 출토유물	109
圖面 65. 나-23호 석곽묘	78	圖面 94. 나-41호 석곽묘	110
圖面 66. 나-24호 석곽묘	78	圖面 95. 나-41·42호 석곽묘 출토유물	111
圖面 67. 나-22·24·25호 석곽묘 출토유물	79	圖面 96. 나-42호 석곽묘	112
圖面 68. 나-25호 석곽묘	81	圖面 97. 1호 기와가마	115
圖面 69. 나-26·28호 석곽묘	82	圖面 98. 2·3호 기와가마	117
圖面 70. 나-25·26·27호 석곽묘 출토유물	83	圖面 99. 1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120
圖面 71. 나-27호 석곽묘	84	圖面 100. 1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121
圖面 72. 나-27호 석곽묘 출토유물	87	圖面 101. 1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122
圖面 73. 나-27호 석곽묘 출토유물	88	圖面 102. 2·3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123
圖面 74. 나-27호 석곽묘 출토유물	89	圖面 103. 3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124
圖面 75. 나-27·29·30·31·32호 석곽묘 출토유물	90	圖面 104. 3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125
圖面 76. 나-29호 석곽묘	91	圖面 105. 3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가’ 지구-수습유물	128
圖面 77. 나-30호 석곽묘	92	圖面 106. ‘나’ 지구 수습유물	129
圖面 78. 나-31호 석곽묘	92	圖面 107. ‘나’ 지구 수습유물	130
圖面 79. 나-32호 석곽묘	93		
圖面 80. 나-32호 석곽묘 출토유물	95		
圖面 81. 나-33호 석곽묘	96		
圖面 82. 나-34호 석곽묘	97		
圖面 83. 나-32·33·34·35호 석곽묘 출토유물	98		
圖面 84. 나-35호 석곽묘	99		
圖面 85. 나-36호 석곽묘	100		
圖面 86. 나-37호 석곽묘	101		
圖面 87. 나-35·36호 석곽묘 출토유물	102		
圖面 88. 나-36·37호 석곽묘 출토유물	103		
圖面 89. 나-38·39호 석곽묘	104		
圖面 90. 나-37·38·39호 석곽묘			

圖 版 目 次

圖版 1. 김해 능동유적 원경(1)과 근경(2)	147
圖版 2. 가-1호 석실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가-2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148
圖版 3. 가-3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가-4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149
圖版 4. 가-5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3), 가-6호 석곽묘 전경 및 출토유물(4), 가-7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 가-8·9호 석곽묘 전경(7)	150
圖版 5. 가-8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 가-9호 석곽묘 전경(3)과 출토유물(4), 가-1호 토광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151
圖版 6. 가-1호 토기가마 전경(1), 연소실(2), 소성실바닥(3), 소성실천정(4), 추정연도부(5), C단면(6), D단면(7)	152
圖版 7. 가-2호 토기가마 전경(1), a단면(2), b단면(3), c단면(4), d단면(5), 장축토층(6)	153
圖版 8. 1호 석열 전경(1~3), 2호 석열 전경(4)	154
圖版 9. 4호 석열 전경(좌)·4호 석곽묘(1), 4호 석열 전경(우)·유적기준 토층(2)	155
圖版 10. 나-1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및 동장벽(5), 남단벽(6)	156
圖版 11. 나-2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나-3호 석곽묘 전경(5)과 서장벽(6), 북단벽(7), 출토유물(8)	157
圖版 12. 나-4호 석곽묘 전경(1), 서장벽(2), 북단벽(3), 출토유물(4~6)	158
圖版 13. 나-5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 동장벽(3), 남단벽(4), 나-6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 동장벽(7), 남단벽(8)	159
圖版 14. 나-7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나-8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160
圖版 15. 나-9호 석곽묘 전경(1), 동장벽(2), 북단벽(3), 출토유물(4), 나-10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161
圖版 16. 나-11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나-12호 석곽묘 전경(5)	162
圖版 17. 나-12호 석곽묘 서장벽(1), 북단벽(2), 출토유물(3~6), 나-13호 석곽묘 전경(7)과 출토유물(8·9)	163
圖版 18. 나-14호 석곽묘 전경(1), 서장벽(2), 남단벽(3)과 출토유물(4~7)	164
圖版 19. 나-15호 석곽묘 전경(1), 나-16호 석곽묘 전경(2)과 출토유물(3·4)	165
圖版 20. 나-17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 서장벽(3), 북단벽(4), 나-18호 석곽묘 전경(5), 동장벽(6), 북단벽(7)	166
圖版 21. 나-19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 서장벽(3), 북단벽(4), 나-20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9)	167
圖版 22. 나-21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5)	168
圖版 23. 나-22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3), 나-23호 석곽묘 전경(4), 서장벽(5),	

남단벽(6)	169
圖版 24. 나-24호 석곽묘 전경(1), 서장벽(2), 남단벽(3), 출토유물(4·5)	170
圖版 25. 나-25호 석곽묘 전경(1), 부장공간 내 유물(2), 출토유물(3), 서장벽(4), 남단벽(5)	171
圖版 26. 나-26호 석곽묘 전경(1), 동장벽(2), 북단벽(3), 출토유물(4·5), 나-28호 석곽묘 전경(6), 서장벽(7), 남단벽(8)	172
圖版 27. 나-27호 석곽묘 전경(1), 서장벽(2), 북단벽(3), 남단벽(4), 남동모서리(5), 남서모서리(6), 출토유물(7~10)	173
圖版 28. 나-29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 나-30호 석곽묘 전경(3)과 출토유물(4), 나-31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174
圖版 29. 나-31·32호 석곽묘 전경(1), 나-32호 석곽묘 전경(2)과 출토유물(3~6)	175
圖版 30. 나-33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3), 나-34호 석곽묘 전경(4), 남단벽 보강석(5), 북단벽(6), 출토유물(7·8)	176
圖版 31. 나-35호 석곽묘 전경(1), 서장벽(2), 남단벽(3), 출토유물(4·5)	177
圖版 32. 나-36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5), 나-37호 석곽묘 전경(6)과 출토유물(7·8)	178
圖版 33. 나-38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3), 서장벽(4), 북단벽(5), 나-38·39호 석곽묘 전경(6)	179
圖版 34. 나-39호 석곽묘 서장벽(1), 북단벽(2), 출토유물(3), 나-40호 석곽묘 전경(4), 서장벽(5), 북단벽(6), 출토유물(7~9)	180
圖版 35. 나-41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나-42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	181
圖版 36. 나-1호 기와가마 전경(1), 연소실 천정 및 분구 막음목 제거 후 전경(2), 분구 막음목(3), 막음목 제거 후(4)	182
圖版 37. 나-1호 기와가마 전경 서-동(1), 완전 노출전경(2), A토층(3), B토층(4), C토층(5), 연소실 노출 서-동(6)	183
圖版 38. 다-2호 기와가마 전경(1), 소성실 전경(2), A토층(3), B토층(4)	184
圖版 39. 다-3호 기와가마 전경(1), 소성실 전경(2), A토층(3), B토층(4), C토층(5), 연소부 노출(6)	185
圖版 40. 가-1호 석실묘 출토유물	186
圖版 41. 가-2·3호 석실묘 출토유물	187
圖版 42. 가-3호 석곽묘 출토유물	188
圖版 43. 가-3~5호 석곽묘 출토유물	189
圖版 44. 가-5~8호 석곽묘 출토유물	190
圖版 45. 가-8·9호 석곽묘, 1호 토광묘, 1·2호 토기가마, 4호 석열, 나-1호 석곽묘 출토유물	191

圖版 46. 나-1호 석곽묘 출토유물	192
圖版 47. 나-1·2호 석곽묘 출토유물	193
圖版 48. 나-3·4호 석곽묘 출토유물	194
圖版 49. 나-4·5·6호 석곽묘 출토유물	195
圖版 50. 나-6·7호 석곽묘 출토유물	196
圖版 51. 나-7·8호 석곽묘 출토유물	197
圖版 52. 나-9·10·11호 석곽묘 출토유물	198
圖版 53. 나-11·12호 석곽묘 출토유물	199
圖版 54. 나-12·13·14호 출토유물	200
圖版 55. 나-14·15호 석곽묘 출토유물	201
圖版 56. 나-15·16·17·19호 석곽묘 출토유물	202
圖版 57. 나-19·20호 석곽묘 출토유물	203
圖版 58. 나-21호 석곽묘 출토유물	204
圖版 59. 나-21·22호 석곽묘 출토유물	205
圖版 60. 나-22·24·25·26호 석곽묘 출토유물	206
圖版 61. 나-26·27호 석곽묘 출토유물	207
圖版 62. 나-27호 석곽묘 출토유물	208
圖版 63. 나-27호 석곽묘 출토유물	209
圖版 64. 나-29·30·31·32호 석곽묘 출토유물	210
圖版 65. 나-32·33·34호 석곽묘 출토유물	211
圖版 66. 나-34·35·36호 석곽묘 출토유물	212
圖版 67. 나-36·37호 석곽묘 출토유물	213
圖版 68. 나-37·38·39호 석곽묘 출토유물	214
圖版 69. 나-40호 석곽묘 출토유물	215
圖版 70. 나-40·41호 석곽묘 출토유물	216
圖版 71. 나-41·42호 석곽묘, 1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217
圖版 72. 1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218
圖版 73. 1·2·3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219
圖版 74. 2·3호 기와가마, '가' 지구 수습유물	220
圖版 75. '나' 지구 수습유물	221
圖版 76. '나' 지구 수습유물	222

I . 머리말

金海 陵洞遺蹟은 행정구역상으로 慶南 金海市 長有面 三文里 92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본 유적에 대한 조사는 1996년 12월 2일부터 1997년 2월 10일까지 1차 조사가 이루어졌고, 일부 토지미보상지역에 대해서는 1997년 7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가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능동유적은 우리 박물관이 설립된 이후 공식적으로 실시한 첫 발굴조사였다. 따라서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차 발굴조사는 釜山大學校 博物館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했으며, 2차 발굴부터 우리 박물관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전담하였다.

능동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는 전체 조사 유구중 목곽묘를 중심으로 2001년에 1차로 발간한 적이 있었다. 이에 이어서 기존에 보고하지 못했던 석곽묘와 토기가마, 그리고 조선시대의 기와가마터를 포함한 전체 유적에 대한 최종 마무리 보고서를 간행하고자 한다.

능동유적에서 조사된 유적의 내용은 1차 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 '나', 두 개 지구로 나누어지며, '나' 지구에서 북으로 240m 거리를 두고 '다' 지구가 위치한다. '가' 지구에서는 삼국시대의 土壙墓 1기, 石槨墓 8기와 石室墓 1기, 토기가마터 2기, 조선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열 4개소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나' 지구에서는 木槨墓 27기와 石槨墓 42기, 朝鮮時代 기와가마터 1기가, '다' 지구에서는 '나' 지구의 기와가마와 같은 시기의 기와가마터 2기가 조사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2001년에 보고된 『김해 능동유적 I - 木槨墓』¹⁾에 이은 두 번째이자 최종 보고서인데 목곽묘(27기)를 제외한 '가·나·다' 지구에 포함된 삼국시대 석곽묘 50석·석실묘 1석·토광묘 1기·토기가마 2기, 조선시대 기와가마 3기·석열 4기 등의 유구를 보고한다. 출토유물은 448건 563점으로 토도류 344건 367점, 금속류 99건 143점, 옥석류 5건 53점이다. 1차 보고서(목곽묘)의 출토유물 토도류 143건 150점, 금속류 84건 103점, 옥석류 3건 3점(식)을 합하면 능동유적의 전체 유물은 토도류 486건 515점, 금속류 183건 243점, 옥석류 8건 56점으로 총 677건 819점이다.²⁾

능동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들로서 삼국시대의 무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해지역은 가야의 주요활동무대였다.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양동유적 등 가야의 지배층 무덤들이 김해시가지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능동유적이 조사된 이곳 장유신도시지역에서도 일찍이 인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대청유적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이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내덕유적에서는 삼한시대 전기의 목관묘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삼국시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기의 유적들이 확인된 바 있다. <도 1>에서와 같이 김해지역의 유적분포양상은 가야이전에서부터 삼국시대 이후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적들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능동유적이 조사된 이곳 장유지역의 신도시조성과 관련된 유적의 조사결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박물관에서 조사한 능동유적은 '가' 지구에서 주로 6세기대의 유구들이 조사되었지만 '나' 지구의 목곽묘와 석곽묘는 대개 5세기대의 유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유구에서 확인된 유물들의 검토를 통해 볼 때 가야식 토기의 잔재가 강하게 남겨져 있지만 신라토기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즉 금관가야의 전형적인 토기라고 할 수 있는 '외절구연고배'가 지속되면서도 고배를 비롯한 장경호 등에서 신

1) 울산대학교박물관, 2001, 『김해 능동유적 I - 木槨墓』學術研究叢書 第8輯. 본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박물관의 홈페이지 (<http://museum.ulsan.ac.kr>)에 전문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2) 1차 보고서 『김해 능동유적 I』 목곽묘 출토유물 중에 미보고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유물-토도류 4점, 금속류 15점 총 19점을 이번 보고서에 추가 보고한다.(pp.135~141)

라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이 간취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능동유적은 광개토대왕의 남정(400) 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신라토기의 영향이 일반화되는 5세기 중엽 이후의 유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능동유적은 규모로 보아 지방 중소 촌락의 집단묘역으로서 단위유적이 전체적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존속시기는 1세기 미만으로 그리 길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조사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다면 주변지역에서 고분군을 조성한 집단의 주거공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경작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거공간과 함께 본 유적이 같이 조사되었다면 당시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조사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었다는 점과 본보고서를 통하여 이번 조사결과를 갈무리할 수 있음에 위안을 삼고자 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관련기관인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지원이 있었으며, 본사업의 시공사인 (주)우방 현장직원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다. 해당직원들에 대해서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과정의 행정적인 부분과 조사과정에 아낌없이 지도를 해주신 부산대학교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한편 현장에서 조사된 가마, 즉 삼국시대의 토기가마와 조선시대의 기와가마의 연대분석을 위해서 考古地磁氣調査를 실시하였는데, 成亨美선생님(현 동양대학교 문화재발굴보존학과 교수)과 尹先선생님(당시 釜山大學校 地質學科 教授)께서 현지를 답사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해당유구의 연대를 유추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1차 조사과정의 조사단구성은 아래와 같다.

- 단 장 : 전 호 태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 지도위원 : 故 한 병 삼 (전 문화재위원)
 - 임 효 재 (당시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김 병 모 (현 고려문화재연구원 이사장)
 - 정 징 원 (당시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현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연구위원 : 김 영 민 (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 연구보조원 : 이 경 인 (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배 순 희 (현 한국문물연구원 연구원)
 - 천 선 행 (현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BK21사업단 연구교수)
- 보조원 : 김 현 철 (현 가교문화재연구원 유적조사실장)
 - 남 연 의 (현 한국문물연구원 연구원)외 사학과 학생 다수

그리고 2차 조사과정의 조사단구성은 아래와 같다.

- 단 장 : 전 호 태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 연구위원 : 김 영 민 (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 연구보조원 : 이 경 인 (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배 순 희 (현 한국문물연구원 연구원)
 - 천 선 행 (현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BK21사업단 연구교수)
- 보조원 : 김 현 철 (현 가교문화재연구원 유적조사실장)
 - 남 연 의 (현 한국문물연구원 연구원)외 사학과 학생 다수

아울러 1, 2차에 걸친 조사과정에 釜山大學校 老古學科의 김한상(현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수민(당시 부산대학교 고고학과)이 현장조사에 참가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외 조사과정에 현지를 방문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본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 遺物의 정리, 복원은 신준섭, 권지영(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최승희(당시 울산대학교박물관 연구원)가 주로 하였으며 김영록(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강정미(현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원), 김나영(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보경(현 우리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이 보조하였다. 遺物의 實測은 송정식(현 가교문화재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신준섭, 이아진이 주로 하였으며, 백상화와 이다애가 보조하였다. 유물의 보존처리는 박도현(경주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 연구원)이 유물촬영은 안지혜(당시 울산대학교박물관 연구원)가 전적으로 맡아서 수고해 주었다. 유구배치도와 유구의 제도는 우순희(전 울산대학교박물관 연구원), 신준섭, 이아진, 윤희정이, 도판의 편집은 이아진이, 도면의 편집은 신준섭이 주로 하였다.

원고는 일차적으로 우순희와 신준섭, 이아진이 초고를 작성하였고 이를 김영민이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호태가 수정, 가필하였다.

그리고 능동유적에서 발굴된 유구와 유물출토 현황을 총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1>이다.

<표 1> 김해 능동유적(Ⅰ·Ⅱ) 유구/유물 현황표

연번	유구명	시대	목곽(석곽)규모			묘광규모			출토유물	보고서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1	1목곽	삼국	300	98		355	150	42	장경호2, 연질호, 연질옹2, 철검	능동Ⅰ
2	2목곽	삼국	(340)	135	26	(390)	184	40	대부호, 고배, 연질호, 연질옹, 수습호, 고배, 장경호, 통형기대	능동Ⅰ
3	3목곽	삼국	300	100		352	145	46	고배4, 호, 장경호, 철검, 도자, 철촉5, 주조철부2	능동Ⅰ
4	4목곽	삼국	270	94		310	136	40	고배4, 장경호, 대부직구호, 대부완, 파수부완, 연질옹2, 도자	능동Ⅰ
5	5목곽	삼국	280	110		326	180	55	고배3, 대부완, 연질옹, 환두대도, 도자, 철부, 철모, 철검	능동Ⅰ
6	6목곽	삼국	240	70		290	112	12	고배2, 단경호, 장경호2, 연질옹3, 철부, 철검, 방추차2	능동Ⅰ
7	7목곽	삼국	(220)	96		274	150	30		능동Ⅰ
8	8목곽	삼국	316	124		390	155	35	대부장경호, 고배2, 수습방추차, 어망추	능동Ⅰ
9	9목곽	삼국	(70)			(130)	190	18	대각편2	능동Ⅰ
10	10목곽	삼국	384	130	(60)	458	200	60	교구4, 십금구, 재갈, 철부2, 철정7, 이식, 경식 2식-유리구슬219, 관옥3, 7각형유리제5, 곡옥2, 유리옥495 수습-고배2, 호, 발형기대	능동Ⅰ
11	11목곽	삼국	306	118		360	170	25	대각편3, 광구소호, 연질옹, 유자이기2, 철부, 철검2, 철기, 주조철부, 도자, 공부편, 철편, 철촉5, 재갈	능동Ⅰ
12	12목곽	삼국	340	100		400	162	35	발형기대, 장경호, 호, 연질옹, 방추차, 도자	능동Ⅰ
13	13목곽	삼국	330	100		400	150	35	유개고배, 연질호, 장경호, 철부, 수습호	능동Ⅰ
14	14목곽	삼국	308	85		350	130	20	고배, 컵형토기, 도자, 수습-소형기대	능동Ⅰ
15	15목곽	삼국	350	100		(416)	180	35	파수대부완, 고배2, 컵형토기, 유개고배3, 단경호2, 광구소호, 소형기대2, 장경호, 대부호, 연질호, 호2, 기대, 도자, 철촉2, 철정, 철검	능동Ⅰ
16	16목곽	삼국				(420)	106			능동Ⅰ
17	17목곽	삼국	240	100		300	144	20	호2, 고배2, 연질호, 도자, 철촉, 철기편, 봉상철기, 주조철부편	능동Ⅰ
18	18목곽	삼국	250	90		300	132	15	고배3, 연질옹, 연질호, 방추차, 도자, 수습-경식	능동Ⅰ

연번	유구명	시대	목곽(석곽)규모			묘광규모			출토유물	보고서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19	19목곽	삼국	300	88		430	170	60	유개고배, 고배7, 개2, 대부장경호, 연질발, 장경호, 장경호2, 호2, 발형기대2, 연질호, 대호, 철부, 철검, 도자, 봉상철기	능동 I
20	20목곽	삼국				(100)	(210)	15	도자, 철촉2	능동 I
21	21목곽	삼국	215	84		270	140	40	고배2, 연질옹2	능동 I
22	22목곽	삼국	262	64		318	126	18	도자	능동 I
23	23목곽	삼국	(30)	134		(60)	182	15	파수대완	능동 I
24	24목곽	삼국	226	54		278	92	22	고배2, 유개대부호, 연질옹	능동 I
25	25목곽	삼국	360	105		(395)	180	40	대각편, 철정11, 철검, 철부2, 유자이기, 대도, 불명철기, 철착2, 철촉3, 도자, 소찰 다수확인, 꺾쇠9, 재갈, 내부-철부, 철촉2, 교구부속구2	능동 I
26	26목곽	삼국		(48)		(260)	95	20	고배, 유개대부호, 호2, 유리제구슬2	능동 I
27	27목곽	삼국	(60)	50		(90)	82		고배2, 광구소호, 소형기대, 대부완, 철정편, 철검	능동 I
28	가-1석실	삼국	280	(150)	20	200		35	유공광구소호, 유개단각고배3, 개4, 단각고배2, 대부장경호, 철모, 철검, 수습-고배2, 대부장경호	능동 II
29	가-2석곽	삼국	220	106	30	15	50	40	연질토기, 고배, 방추차, 파수부옹	능동 II
30	가-3석곽	삼국	324	165	25	245		35	대부장경호4, 유개고배6, 유개파수부옹, 파수부옹, 개4, 고배4, 장경호, 연질옹편, 방추차, 대각2, 철기2, 도자3, 철탁2, 이식	능동 II
31	가-4석곽	삼국	(330)	(150)	30			50	연질옹, 유개고배, 도자, 호편	능동 II
32	가-5석곽	삼국	200	100	20	150	45	30	철부, 연질옹 구연부편, 철기 수습- 단경호2	능동 II
33	가-6석곽	삼국	(40)	(35)					고배, 대부장경호, 개	능동 II
34	가-7석곽	삼국	380	125	30	210		40	대부장경호, 유개고배2, 장경호	능동 II
35	가-8석곽	삼국		130	20		50	25	대부장경호, 대부직구호, 고배 대각편, 파수부옹, 수습-고배대각편2	능동 II
36	가-9석곽	삼국		(95)	20			20	대부완, 유개고배, 고배, 옹	능동 II
37	나-1석곽	삼국	420	220	50	380	95	45	통형기대, 단경호2, 연질옹2, 고배3, 방추차, 수습-단경호2, 장경호	능동 II
38	나-2석곽	삼국	370	140	35	285	65	40	철검, 철촉군, 도자, 수습-연질토기편	능동 II
39	나-3석곽	삼국	410	165	30	285	85	55	연질호, 수습-연질옹, 대부호, 고배, 장경호	능동 II
40	나-4석곽	삼국	370	185	50	280	80	60	연질옹2, 고배3, 장경호2, 호, 도자, 수습- 대부장경호	능동 II
41	나-5석곽	삼국	325	150	40	230	70	50	연질옹	능동 II
42	나-6석곽	삼국	345	195	50	280	80	60	고배4, 등잔형토기, 통형기대, 연질호편, 연질발, 방추차	능동 II
43	나-7석곽	삼국	375	170	40	335	100	50	장경호, 연질발, 단경호, 고배, 컵형토기, 철촉군, 대도, 철검, 철모, 철촉, 수습-도자, 단경호2, 개, 연질옹, 고배3	능동 II
44	나-8석곽	삼국		145	45		75	55	장경호, 고배, 수습-고배3	능동 II
45	나-9석곽	삼국	270	150	30	215	75	50	대부장경호	능동 II
46	나-10 석곽	삼국	315	150	25	150	75	35	장경호2, 고배, 연질옹, 수습-방추차, 장경호, 단경호, 고배	능동 II
47	나-11 석곽	삼국	335	145	20	265	90	25	고배2, 단경호2, 장경호, 노형기대, 광구소호, 소형기대, 도자, 철모, 철검	능동 II
48	나-12 석	삼국	375	150	35	270	70	45	연질옹3, 광구소호2, 소형기대2, 고배, 파수대부완, 불명철기, 도자	능동 II
49	나-13 석곽	삼국	455	230	30	325	95	50	꺾쇠2, 수습-도자	능동 II
50	나-14 석곽	삼국	400	185	50	300	80	70	고배5, 컵형토기, 철촉, 철촉군, 철검, 환두대도, 파수대부완, 연질옹, 발형기대, 대부장경호, 장경호	능동 II

연번	유구명	시대	목곽(석곽)규모			묘광규모			출토유물	보고서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51	나-15석곽	삼국	380	135	15	320	75	30	수습-방추차, 소형기대	능동II
52	나-16석곽	삼국	395	140					고배3, 연질옹2, 호	능동II
53	나-17석곽	삼국	325	145	30	245	75	40	장경호, 연질호, 수습-단경호, 고배2	능동II
54	나-18석곽	삼국	345	145	35	260	75	35		능동II
55	나-19석곽	삼국	450	185	40	370	80	50	철부수습-단경호3, 장경호 방추차, 도자	능동II
56	나-20석곽	삼국	410	190	25			40	연질옹, 대도, 철족군, 수습-철촉, 도자	능동II
57	나-21석곽	삼국	415	185	15		90	30	장경호3, 연질호3, 통형기대, 발형기대2, 고배, 단경호, 수습-고배	능동II
58	나-22석곽	삼국	345	135	20	300	70	30	철부2, 고배2, 연질발, 수습-도자	능동II
59	나-23석곽	삼국	290	135	25		55	35		능동II
60	나-24석곽	삼국	345	165	45	240	80	60	철모, 철촉, 철기편, 연질옹2, 고배, 개, 연질호저부편	능동II
61	나-25석곽	삼국	400	170	55	280	65	60	연질옹, 연질호편, 도자, 철검, 파수대부완, 수습-철촉	능동II
62	나-26석곽	삼국	340	170	50	260	90	60	방추차, 연질옹, 대부완, 고배	능동II
63	나-27석곽	삼국	510	225	65	405	90	75	등자, 관정3, 철모3, 철촉2, 교구, 철부, 철검, 도자2, 철검, 철기, 고배, 수습-고배5, 개6, 단경호5, 연질발, 연질옹2, 완, 철촉, 철기2, 비, 철검, 등자	능동II
64	나-28석곽	삼국	235	105	35	155	50	30		능동II
65	나-29석곽	삼국	325	(105)	10	260		30	대부파수부용, 수습-연질옹편	능동II
66	나-30석곽	삼국	220	105	20				호편	능동II
67	나-31석곽	삼국	225	125	15			20	연질옹, 연질토기편, 철촉, 도자	능동II
68	나-32석곽	삼국	350	170	50	240	80	55	고배4, 단경호2, 대부장경호, 연질옹, 방추차, 환두대도, 교구, 도자, 철족군, 철검	능동II
69	나-33석곽	삼국	210	80	30	160	35	35	연질고배, 방추차2, 경식, 연질옹	능동II
70	나-34석곽	삼국	280	125	45	195	55	55	고배2, 연질호, 장경호	능동II
71	나-35석곽	삼국	380	215	40	295	95	45	고배, 대부완, 대검, 도자, 철모, 유자이기	능동II
72	나-36석곽	삼국	315	160	20	240	75	30	대부직구호, 고배2, 파수부용, 철검, 철촉3, 도자2, 교구, 철검, 경식	능동II
73	나-37석곽	삼국	315	155	20	235	90	30	고배2, 연질옹, 단경호2, 철촉3, 대도, 철검	능동II
74	나-38석곽	삼국	135	200	55	70		65	발형기대, 장경호, 단경호	능동II
75	나-39석곽	삼국	280	165	30	185	70	55	컵형토기, 연질토기편, 철부, 수습-고배	능동II
76	나-40석곽	삼국	(320)	180	55			60	고배3, 단경호5, 통형기대, 도자, 경식, 수습-대부직구호, 고배대각편	능동II
77	나-41석곽	삼국	320	130	25	240	80	30	고배4, 대부직구호, 연질옹, 방추차, 소형노형기대, 경식(곡옥1, 경식제한옥27)	능동II
78	나-42석곽	삼국	340	(110)	30	290		35	고배2, 광구소호, 소형기대, 경식, 수습-철부, 철검	능동II

연번	유구명	시대	규모(cm)			출토유물	보고서
			길이	너비	깊이		
79	가-1호 토광묘	삼국	170	52	10	유개고배2, 대부직구호, 이식, 도자	능동II
80	가-1호 석열	조선	1120	(290)	지상		능동II
81	가-2호 석열	조선	(540)	(178)	지상		능동II
82	가-3호 석열	조선	(664)	(220)	지상		능동II
83	가-4호 석열	조선	(680)	(342)	지상		능동II
84	가-1호 토기가마	삼국	800	140~185	60	수습-토구, 방추차	능동II
85	가-2호 토기가마	삼국	(650)	(170)	80	수습-완2	능동II
86	나-1호 기와가마	조선	1120	200~220	50~80	수습-수키와4, 암키와5	능동II
87	다-2호 기와가마	조선	1280	160~200	40~140	수습-수키와2, 암키와	능동II
88	다-3호 기와가마	조선	(1280)	180~210	90~205	수습-수키와5, 명문기와	능동II

Ⅱ . 유적의 환경과 입지

김해 능동유적은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92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주변의 자연환경은 동쪽에서 남쪽으로는 盤龍山(236.8m), 屈岩山(662m), 花山(798.4m)이 산맥처럼 이어져 있으며, 북쪽으로 매봉산(336m)이 위치한다. 하천의 경우, 유적의 남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비교적 규모가 큰 대청천이 동북방향으로 흘러 낙동강의 지류인 潮溝江과 합류한다. 이 조청강은 동남쪽으로 이어져 낙동강과 합쳐져 남해에 이르고 있다. 이 일대는 김해시와 창원시의 경계를 이루는 산악지대와 김해 평야의 중간지역으로 일부는 저습지를 이루고 논농사와 과수원 경작으로 이용되어 왔다.

유적이 입지한 곳은 김해시와 창원시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720m 정도의 용지봉에서 급격한 경사를 이루면서 동쪽으로 뺨어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조사지는 조사 전까지 과수원으로 경작 되면서 곳곳에 과수 구덩이가 파여져 있었으며, 유구의 대부분은 도굴과 과수 이식작업 과정에서 파손이 극심하게 이루어졌다.

유적이 입지한 지역의 주변에는 많은 수의 유적이 산포하고 있다. 본 유적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의 범위 내에는 신석기시대의 농소패총(부산대학교박물관, ①)과 화목동 주거지유적(경성대학교박물관, ②)을 비롯하여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11개소, 삼한~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분묘유적인 양동리고분군을 포함한 고분 12개소, 패총 및 생활유적 4개소 등 다양한 시기의 유적이 밀집해 있으며 이외에도 지표조사 등을 통한 유물산포지들을 포함하면 현재 확인된 유적의 수만도 40여 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삼국시대의 고분군들이 밀집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이러한 유적들은 古金海灣 沿岸地域의 평지나 低丘陵上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일대가 고대의 생업활동에서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번호: <도면 1>의 구분번호)

김해 능동유적을 비롯하여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유적으로는 경성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윗덕정고분군(⑤)과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아랫덕정유적(④), 내덕리고분군(③),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대청유적(⑥)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시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유적은 내덕리고분군과 윗덕정고분군으로 내덕리고분군의 경우는 능동유적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3km에 위치하고 있다. 능동유적과는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윗덕정고분군은 남쪽으로 직선거리 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덕리고분군과 능동유적에 비해서는 비교적 다소 이른 시기부터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랫덕정유적은 능동유적과 비슷한 시기의 주거유적이 조사 되었다.

김해 능동유적에서는 목곽묘와 석곽묘 이외에도 삼국시대의 토기가마와 조선시대 기와가마가 확인되었다. 유적 주변으로 삼국시대 토기가마에 관한 유적조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이 일대에서 확인되는 고분군의 양상을 볼 때 촌락단위의 소규모 토기가마에서 당시의 생활토기와 부장용토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취락유적인 아랫덕정유적과는 2.5km 내에 인접하고 있어 능동유적과 생업활동이 연계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능동 유적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1km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대청리유적(⑦)이 조사되었는데 이곳에서 조선시대의 기와가마가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확인된 기와가마의 경우 시기와 구조가 능동유적의 기와가마와 흡사하다. 고고지자기분석(pp. 131~134)결과 15세기에 만들어진 기와가마로 확인되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와가마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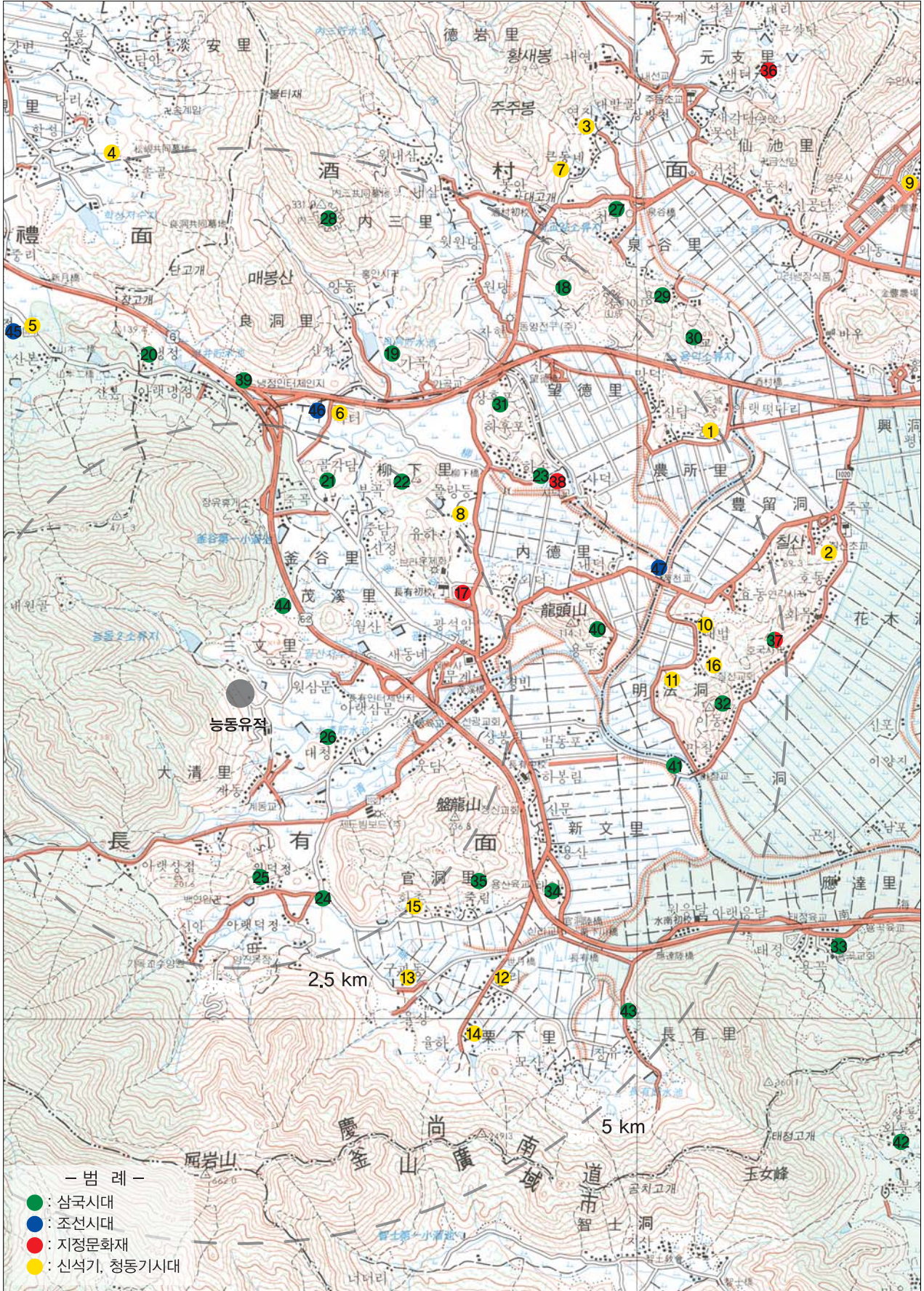
발굴조사된 유적과 지표조사상에서 확인된 유적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발굴조사된 유적 구분표 (도면 1의 유적번호와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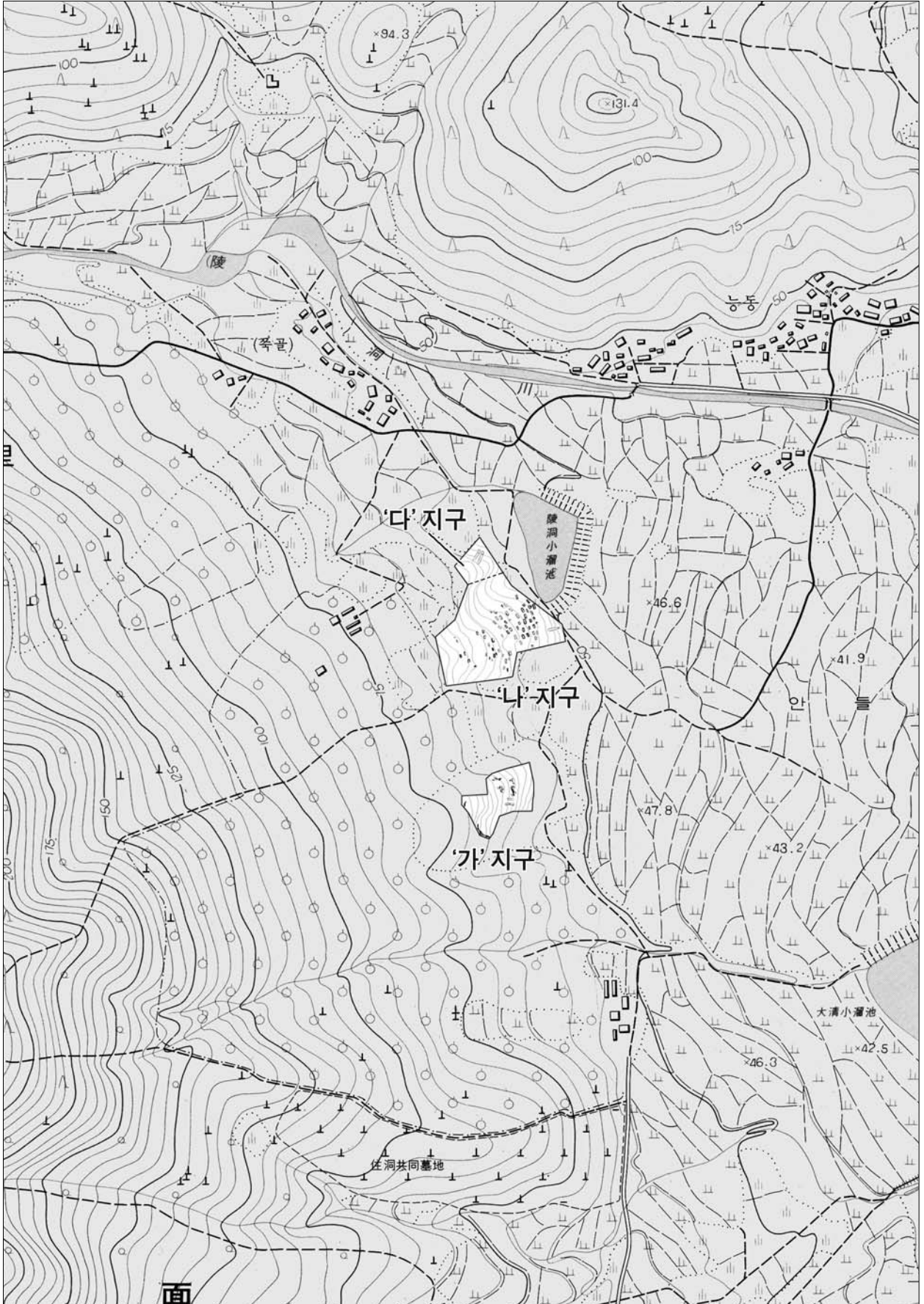
구분	유 적 명	시 대	조 사 내 용	비 고
1	농소패총	신석기	패총	부산대학교박물관
2	화목동주거지	신석기~조선	건물지, 수혈, 노지	경성대학교박물관
3	연지지석묘	청동기	지석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4	김해리 송현리 공장신축예정부지내 유적	청동기~삼국	주거지, 구, 주혈	경남발전연구원
5	김해 산본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청동기~조선	청동기,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
6	부곡지석묘	청동기	지석묘	경남문화재연구원
18	김해 망덕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삼국	고분군	경남문화재연구원
19	양동리 고분군	삼한~삼국	고분군	동의대학교 박물관
20	냉정유적	삼국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
21	부곡 고분군	삼국	고분군	경남문화재연구원
22	유하리 전 왕릉	삼국	고분	동의대학교박물관
23	내덕리 고분군	청동기~삼국	주거지, 고분	동의대학교박물관
24	아랫덕정건물지	삼국	건물지	동의대학교박물관
25	관동리 윗덕정 고분군	삼국	고분군	경성대학교박물관
26	김해 대청유적	청동기~조선	주거지, 무덤	부산대학교박물관
		조선	요지	우리문화재연구원

〈표 3〉 지표조사된 유적과 시도기념물 구분표 (도면 1의 유적번호와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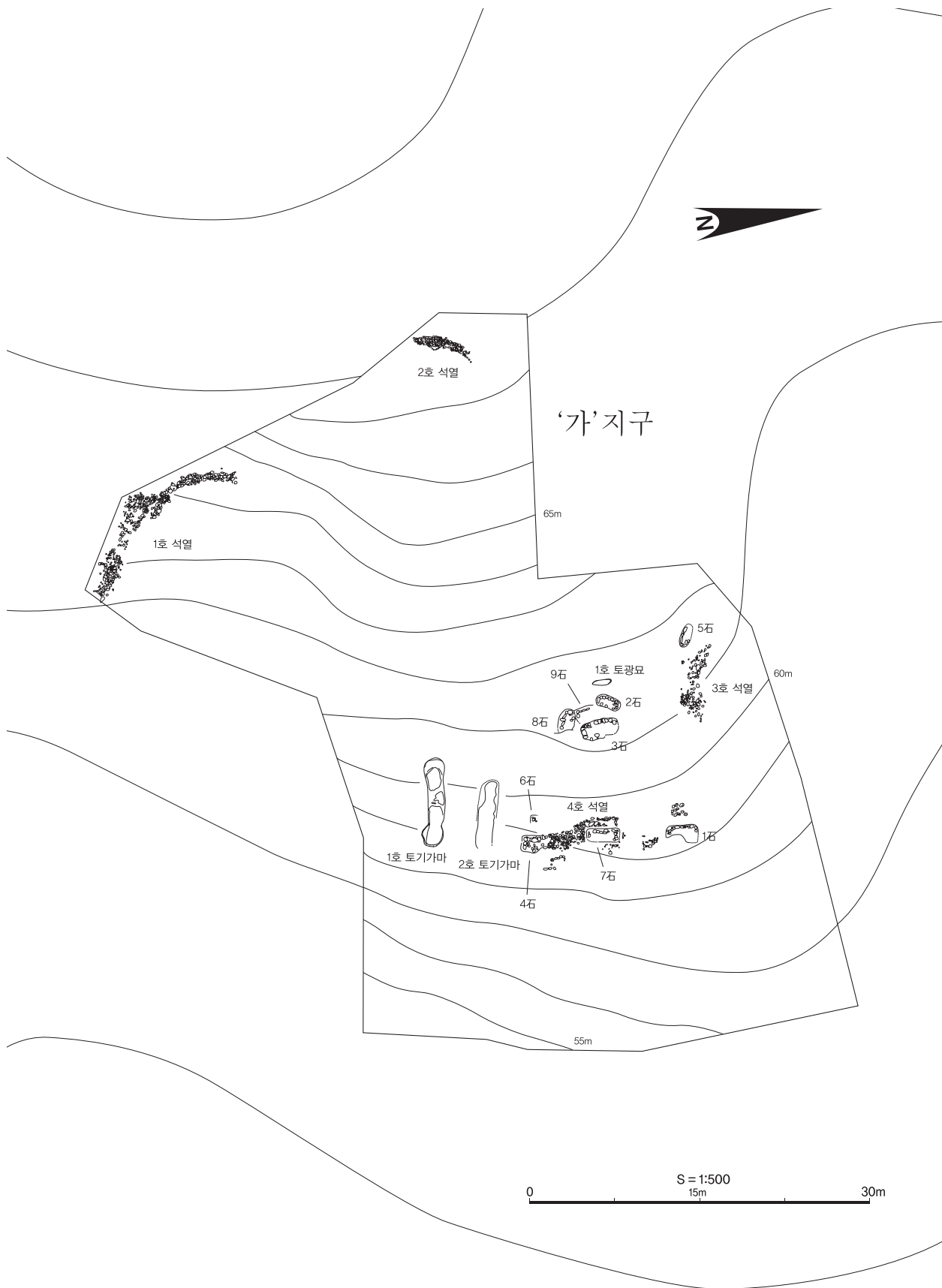
구분	유 적 명	시 대	조 사 내 용	구분	유 적 명	시 대	조 사 내 용
7	연지토기산포지	청동기	토기산포지	32	칠산동패총	삼국	패총
8	유하리지석묘	청동기	지석묘	33	응달리 고분군	삼국	고분군
9	내등지석묘	청동기	지석묘	34	용산 고분군 및 패총	삼국	고분군, 패총
10	명법2동지석묘	청동기	지석묘	35	관동 고분군	삼국	고분군
11	명법1동지석묘	청동기	지석묘	36	원지리 고분군(시도기념물)	삼국	고분군
12	신리 지석묘	청동기	지석묘	37	칠산동 고분군(시도기념물)	삼국	고분군
13	구관동 지석묘	청동기	지석묘	38	유하 패총(시도기념물)	삼국	패총
14	율하 지석묘	청동기	지석묘	39	양동리 유물산포지	삼국	유물산포지
15	구관동 지석묘	청동기	지석묘	40	용두산 유물산포지	삼국	유물산포지
16	명법2동무문토기산포지	청동기	유물산포지	41	칠산동 유물산포지	삼국	유물산포지
17	무계리 지석묘(시도기념물)	청동기	지석묘	42	부산 미음동 와룡리 토기산포지	삼국	유물산포지
27	천곡 고분군	삼국	고분군	43	장유 유물산포지	삼국	유물산포지
28	가곡산성	삼국	석축산성	44	능동 토기산포지	삼국	유물산포지
29	용덕패총	삼국	패총	45	산본리 유물산포지	조선	유물산포지
30	망덕 고분군	삼국	고분군	46	양동리 민묘군	조선	유물산포지
31	후포 고분군	삼국	고분군	47	내덕리 유물산포지	조선	유물산포지



圖面 1. 유적(●)위치와 주변유적분포도(1/50,000)



圖面 2. 유적 지형도(1/5,000)



圖面 3. 능동유적 '가 지구 유구배치도(1/500)

Ⅱ . 조사내용

1. 유적 현황 및 토층 (도면 3~5)

조사지역은 '가', '나', '다' 의 3개 지구로 나누어 진다.

'가' 지구는 조사구역중 가장 남쪽 구릉으로 해발 58~62m 사이에 위치한다. 1호 石室 1기를 비롯한 2~9호 삼국시대 石槨墓 8기, 토광묘 1기, 토기가마 2기가 조사되었으며 조선시대 석열 4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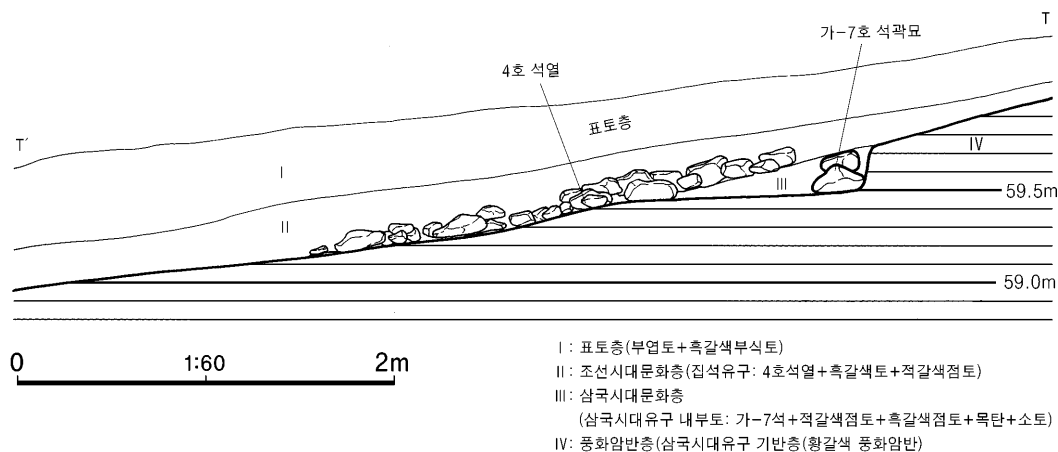
'나' 지구는 '가' 지구와 얇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북쪽 구릉 사면부에 해당한다. 해발 48~51m에서 조선시대 기와가마 1기(1호)가 조사되었고, 해발 51~61m에서 5세기대 석곽묘 42기와 목곽묘 27기가 분포한다. 이중 목곽묘 27기의 보고는 이미 이루어졌다.(김해 능동유적 I) 특이할 점은 석곽묘 42기와 목곽묘 27기는 동일 표역에 형성된 동시기의 무덤들이나 서로 중복되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지구는 '나' 지구 북쪽으로 인접한 구릉으로 해발 53~55m에 걸쳐서 조선시대 기와가마 2기(2, 3호)가 확인 된다.

유적의 문화층을 이루는 퇴적토양의 양상은 '가' 지구 삼국시대 7호 석곽묘와 조선시대 4호 석열이 중복된 지점에서 잘 나타난다.(아래 도면 5) 지구 전체에서 확인되는 토양은 4개 층으로 나눌 수 있다. I 층은 현대문화층으로 과수부지로 이용되는 시점에 사용된 표토층이다. 수목 이식작업 과정에서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문화층을 파괴하고 퇴적되어 있다. 부엽토와 부식기가 강한 토양이 혼재되어 형성되어 있다. II 층은 조선시대 문화층으로 삼국시대 이래로 재퇴적을 반복하면서 형성된 문화층을 파괴하고 퇴적되어 있다. '가' 지구에서 확인되는 조선시대 석열은 유적의 기반층(IV 층)인 풍화암반층과 맞대어 있으며 삼국시대 석곽을 파괴하고 들어서 있다. 석열에서 확인되는 할석들은 석곽을 이루던 할석들로 고분군은 이 시대에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생각된다.

III 층은 삼국시대 문화층으로 실질적인 문화층은 조사구역내 부분적으로 잔존할 뿐 대부분 유실되었다. 유구 내부토로 잔존하며 목탄·소토 등이 혼입된 상태로 적갈색과 흑갈색 점토층을 이루고 있다. 유구는 기반토인 IV 층(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되어 있으며 경사진 아래 쪽은 조선시대 문화층에 의해 유실된 것이 대부분이다.

IV 층은 풍화암반층으로 삼국시대 유구는 암반층을 굴착하여 수혈선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유구 또한 이 기반층을 굴착하거나 면에 접해 있어 제토면은 풍화암반층을 노출하여 수혈선을 확인하였다.



圖面 5. 기준 토층도 (도면 26 참조: '가' 지구 4호석열 단면도)

2. '가' 지구

1) 삼국시대 유구

(1) 가-1호 석실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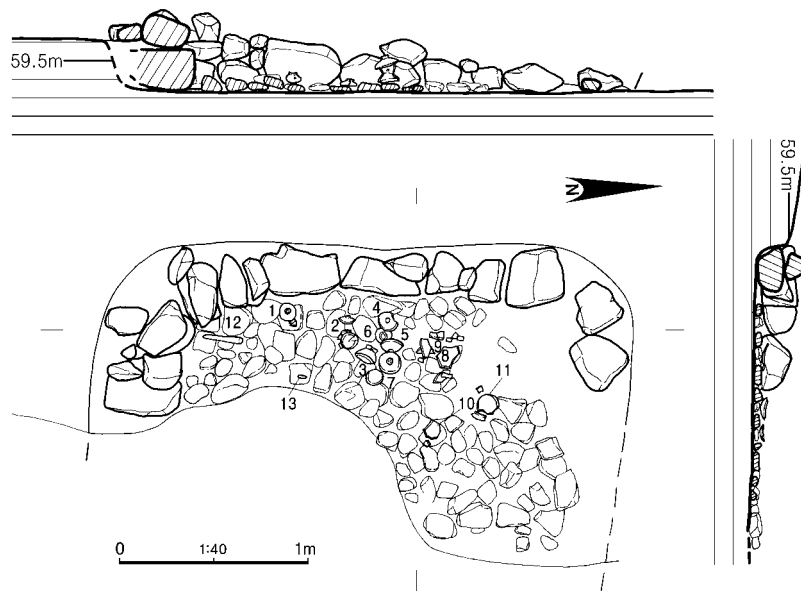
가. 유구 (도면 6, 도판 2)

해발 59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2° 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쪽으로 7호 석곽과 인접해 있으며, 서쪽과 남쪽 주변에 조선시대의 석열로 추측되는 돌들이 부정형으로 확인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80cm, 잔존너비 150cm, 깊이 20cm이며, 석실의 규모는 길이 200cm이고, 동쪽의 장벽은 부분적인 유실로 인해 너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잔존깊이는 35cm이다. 서쪽 장벽과 남쪽 단벽은 1~2단이 남아 있었는데 1단의 벽석은 30cm내외의 할석으로 가로쌓기 하였고, 2단은 10cm정도의 할석으로 세로쌓기 하였다. 봉토의 흔적은 삭평으로 인해 확인 되지 않았으며, 유구의 잔존 깊이로 보아 반지하 구조의 석실묘로 추정된다.

유구의 주변에서 주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석실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며, 석실의 잔존 구조를 보면 묘광은 벽석 1단 정도의 깊이로 비스듬히 굴착한 뒤에 바닥을 정지하였다. 입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물이 서쪽 장벽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시상은 동쪽 장벽으로 치우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물이 집중 부장된 곳과 유실된 동쪽 장벽까지의 폭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방형에 가까운 석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바닥에는 10cm의 내외의 편평한 할석들을 북쪽단벽 모서리를 제외한 전체 바닥에 깔았다. 북쪽단벽 모서리의 경우는 교란으로 인해 시상석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서쪽 장벽을 따라 시상석 상부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유공광구소호 1점, 유개단각고배 3점, 개 4점, 단각고배 2점, 대부장경호 1점, 철모 1점, 철검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석실의 조사과정중에 고배 2점과 대부장경호 1점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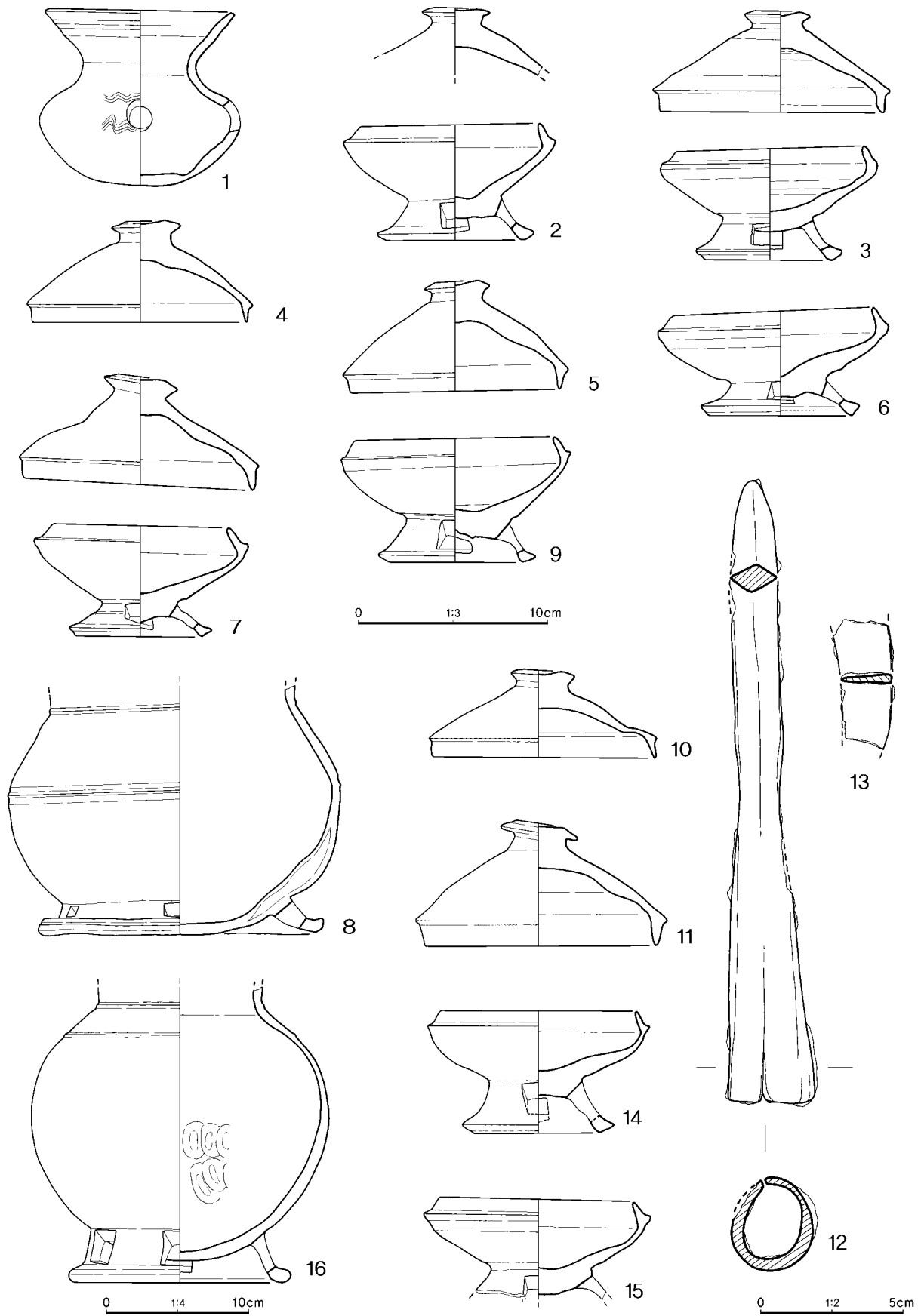


圖面 6. 가-1호 석실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7-2	40-2	2	유개 단각고배	(3.7)			개: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중첩소성한 흔적 남아 있음	
				6.2	9.4	7.1	고배: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3, 대각부 1/3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 외면, 속심 모두 짙은 회청색. 구연부는 다소 찌그러짐 배신 내면 녹갈색 자연유 부착 대각부에 방형 투창 2개 배치	
5.4	11.8			개:도질소성. 소성양호.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구연부가 다소 찌그러짐. 꼭지와 개신부 상위에 원형의 암자색 잔존				
6.1	9.8	6.7		고배: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부 1/6결실. 장식 운모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배신부 내면 녹갈색 자연유 부착. 대각부 방형 투창 2개 배치				
7-7	40-7	7		6.2	12.1		개:도질소성. 소성양호. 꼭지 일부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신부가 황타원형으로 찌그러짐	
				6	9.3	6.7	고배: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2, 대각부 1/3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시계반대방향의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방형 투창 2개 배치	
7-6	40-6	6		단각고배	5.8	10.5	7.6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짙은 회청색. 시계반대방향의 회전물손질 정면. 구연 외면 녹갈색 자연유 일부 부착. 대각부 방형 투창 3개 배치
7-9	40-9	9			6.7	10.6	7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부 1/3 결실. 장식 다량 혼입. 외면, 속심 짙은 회청색. 배신 내면 자색. 대각부에는 방형 투창을 2개 배치
7-4	40-4	4		개	5.4	11.4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꼭지부분 암자색
7-5	40-5	5			5.9	11.1		도질소성. 소성보통. 꼭지 일부 결실. 장식 혼입, 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내면 원형의 암자색 잔존. 시계반대방향의 회전물손질 정면.
7-10	40-10	10	4.7		(11.8)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1/2, 꼭지 일부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꼭지와 개신부 일부 원형의 자색 존재. 시계반대방향의 회전물손질, 신부 약간 찌그러짐	
7-11	40-11	11	6.7		12.3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3, 꼭지 일부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짙은 청회색. 꼭지, 속심 짙은 회백색. 시계반대방향의 회전물손질 정면. 신부 찌그러짐	
7-1	40-1	1	9.5		9.6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경부 1/2 결실. 장식, 운모 혼입. 외면은 짙은 회청색. 내면과 속심은 옅은 회청색. 구경부 내면과 동상위 외면은 표면박리 극심. 동중위에 1.5cm의 원형 투창. 투공위 2치구의 파상문. 아래에는 3치구의 파상문을 시문.	
7-8	40-8	8	대부장경호	(17.7)	19.2	(23.4)	도질소성. 소성보통. 동체부 2/3, 대각부 1/4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 옅은 자색. 동체부 기포 형성. 내면 녹갈색 자연유 부착. 대각부 방형 투창을 5개 배치.	
7-14	40-14	수습	고배	6.5	(10.4)	(6.6)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2/3, 대각부 1/2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모두 옅은 회청색, 시계반대방향의 회전물손질 대각부 방형 투창 2개 배치한 것으로 추정	
7-15	40-15	수습		(5.5)	10.3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1/4, 대각부 완전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시계반대방향의 회전물손질. 대각부 방형 투창 3개 배치 추정	
7-16	40-16	수습	대부장경호	(20.9)	(20.9)	14.4	도질소성. 소성보통. 동체부 1/2, 구경부 완전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대각부 장방형 투창 7개 배치	

도면 7-12(도판 40-12)는 단면 능형의 철모이다. 관부가 희미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공부는 일자형이다. 길이 21.6cm이며, 출토위치는 12이다. 도면 7-13(도판 40-13)은 철검편으로 추정되며, 신부 일부만 잔존한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며, 잔존길이 4.4cm, 두께는 0.3cm이다. 출토위치는 1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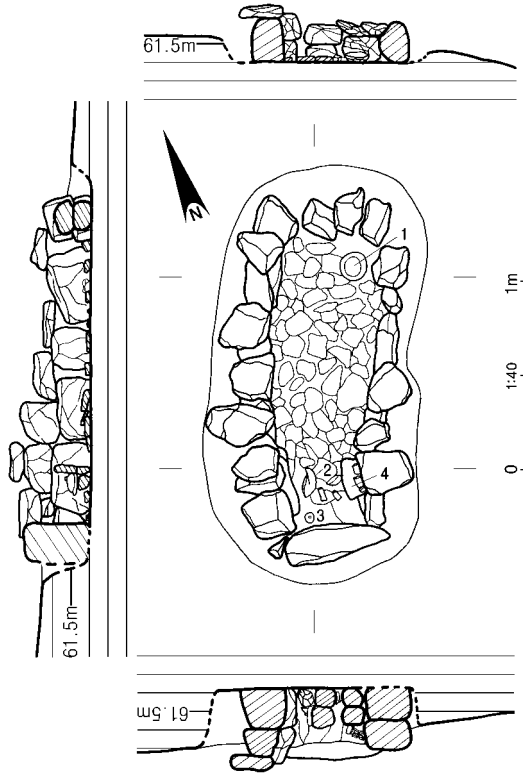


圖面 7. 가-1호 석실묘 출토유물

(2) 가-2호 석곽묘

가. 유구 (도면 8, 도판 3)

해발 61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27°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서쪽으로 1호 토광묘가, 동쪽으로 3호 석곽묘가 1m정도 거리를 두고 입지해 있으며, 남동쪽으로 8·9호 석곽묘가 40cm 거리를 두고 밀집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2호 석곽묘의 경우 3호 석곽묘를 중심으로 8호·9호 석곽묘들과



함께 주변을 둘러싸는 배치를 보인다. 9호 석곽묘가 많이 훼손되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축조당시에는 2호·8호·9호 석곽묘가 맞닿은 상태로 3호 석곽묘의 주위를 감싸는 배치였을 것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105cm, 깊이 3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150cm, 너비 50cm, 깊이 40cm이다. 남서쪽 단벽은 1단이 남아 있었는데 할석 1매로 1단을 구성하였다. 북동쪽 단벽과 동남쪽 장벽들은 폭 20cm내외의 할석으로 1단은 가로쌓기, 2단은 세로쌓기로 축조하였다. 북서쪽 장벽만 할석이 3단으로 세로쌓기 하여 일부 남아있다. 유구의 바닥에는 10cm 내외의 할석을 전면 에 깔아서 시상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남서쪽 단벽과 동남쪽 장벽을 따라서 고배 2점, 방추차 1점, 파수부용 1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8. 가-2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실측 불가	41-16	1	연질토기편				연질소성, 소성불량,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황갈색, 파편상태로 기형 파약 곤란, 동상위는 회전물손질로 타날 흔적을 지우고, 동중위 이하로는 타날 흔적을 남긴 단경호로 추정
10-1	41-1	2	고배	6.5	(9.7)	6.7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3/4, 대각부 1/3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방형 투창 2개 배치
10-2	41-2	3	방추차	3.9	1.2		완형, 표면 일부 결실, 황갈색, 단면 장방형.
10-3	41-3	4	파수부용	11.2	11.3	7.7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1/2, 원형 파수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길은 회백색, 동체 외면 3조침선 시문, 시계반대 방향 회전물손질 정면

(3) 가-3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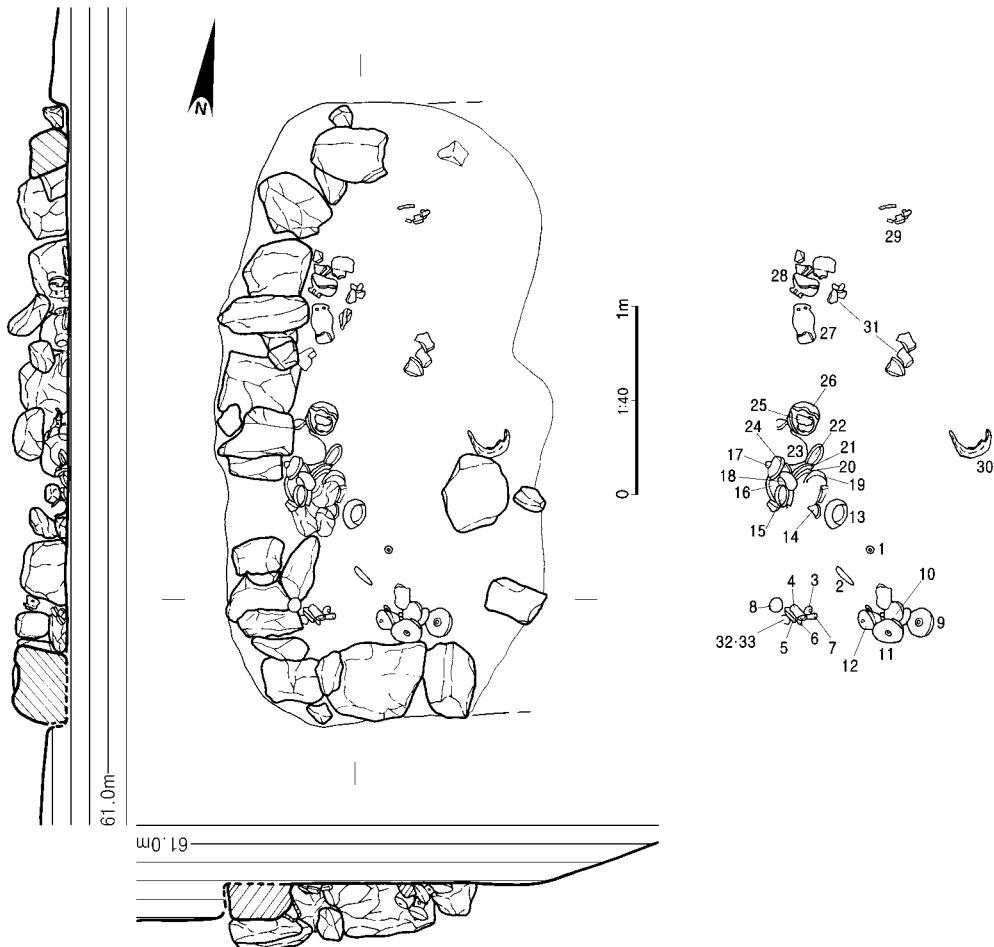
가. 유구 (도면 9, 도판 3-1~4)

해발 61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9° W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북서쪽모서리에서 1m정도의 거리로 두고 2호 석곽묘가, 남서쪽모서리에 8·9호 석곽묘도 1m정도의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2호·8호·9호 석곽들이 거의 맞닿아서 규모가 큰 3호 석곽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배치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유구는 3호 석곽묘를 중심으로 배치된 배묘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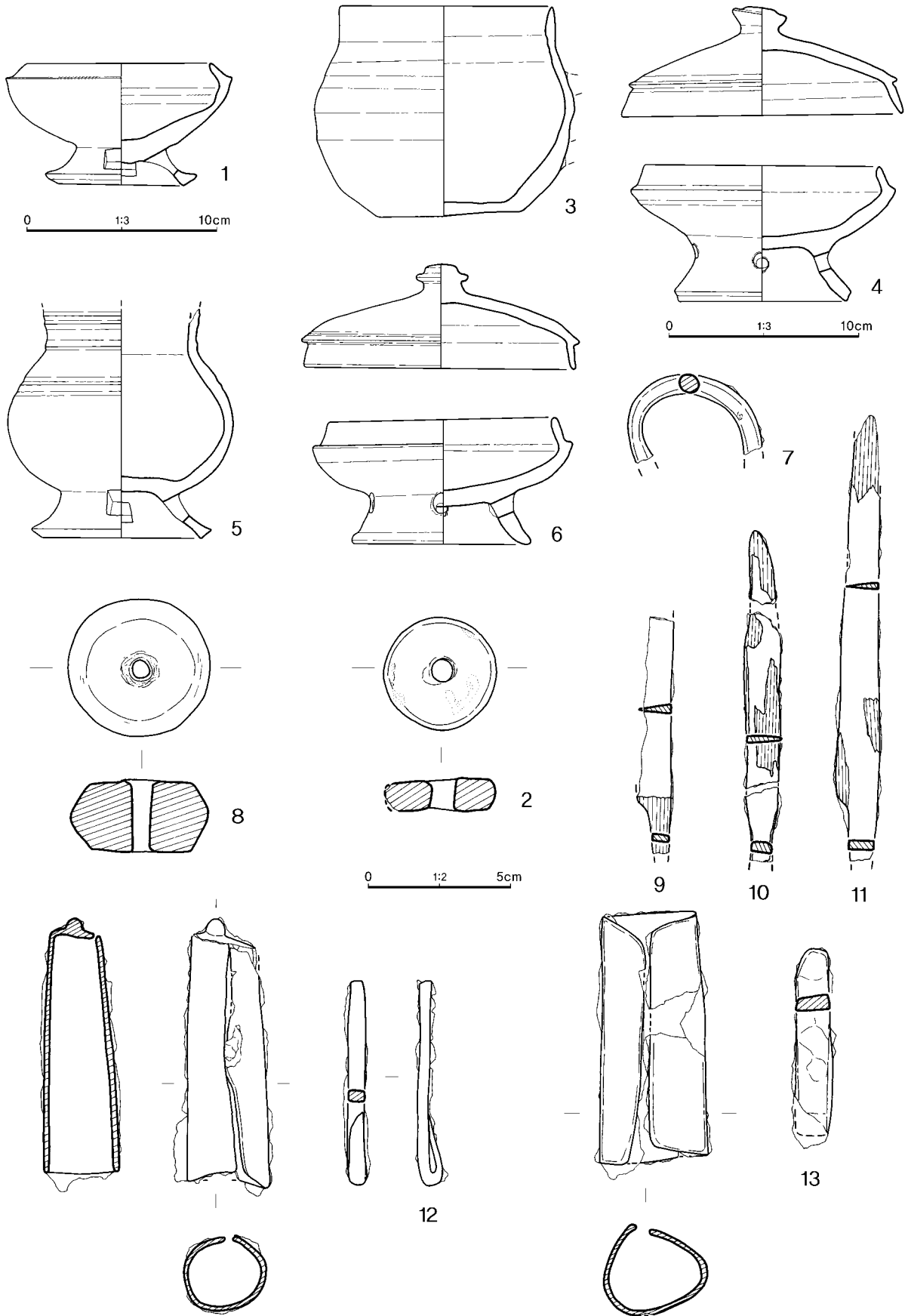
묘곽의 규모는 길이 325cm, 너비 165cm, 깊이 25cm이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245cm이며 동쪽 장벽이 경사면을 따라 유실되어 정확한 너비는 알 수 없다. 잔존 깊이는 35cm이다. 북쪽 단벽일부와 동쪽 장벽은 경사면을 따라 유실되었는데 남쪽 단벽에는 비교적 큰 60cm의 할석으로 1단을 구획하였으며, 일부 2단의 벽석들이 확인되는 서쪽 장벽에서 1단은 30cm내외의 할석으로 가로쌓기 하였고 2단은 세로쌓기로 축조하였다.

유구의 바닥에 시상석은 깔려있지 않았고, 남쪽 단벽에서 50cm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식이 출토되었는데 이로 보아 두향은 남쪽을 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물은 벽석을 따라서 집중되어 확인되었는데 유실된 북쪽 단벽과 동쪽 장벽의 주변에서도 대각편, 철기, 개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석곽의 벽석들을 따라 유물이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쪽 장벽을 따라서 대부장경호 5점, 방추차 1점, 이식 1점, 유개고배 6점, 유개파수부옹 1점, 파수부옹 1점, 개 4점, 고배 4점, 대각 2점, 연질호편 1점, 도자 3점, 철기 2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9. 가-3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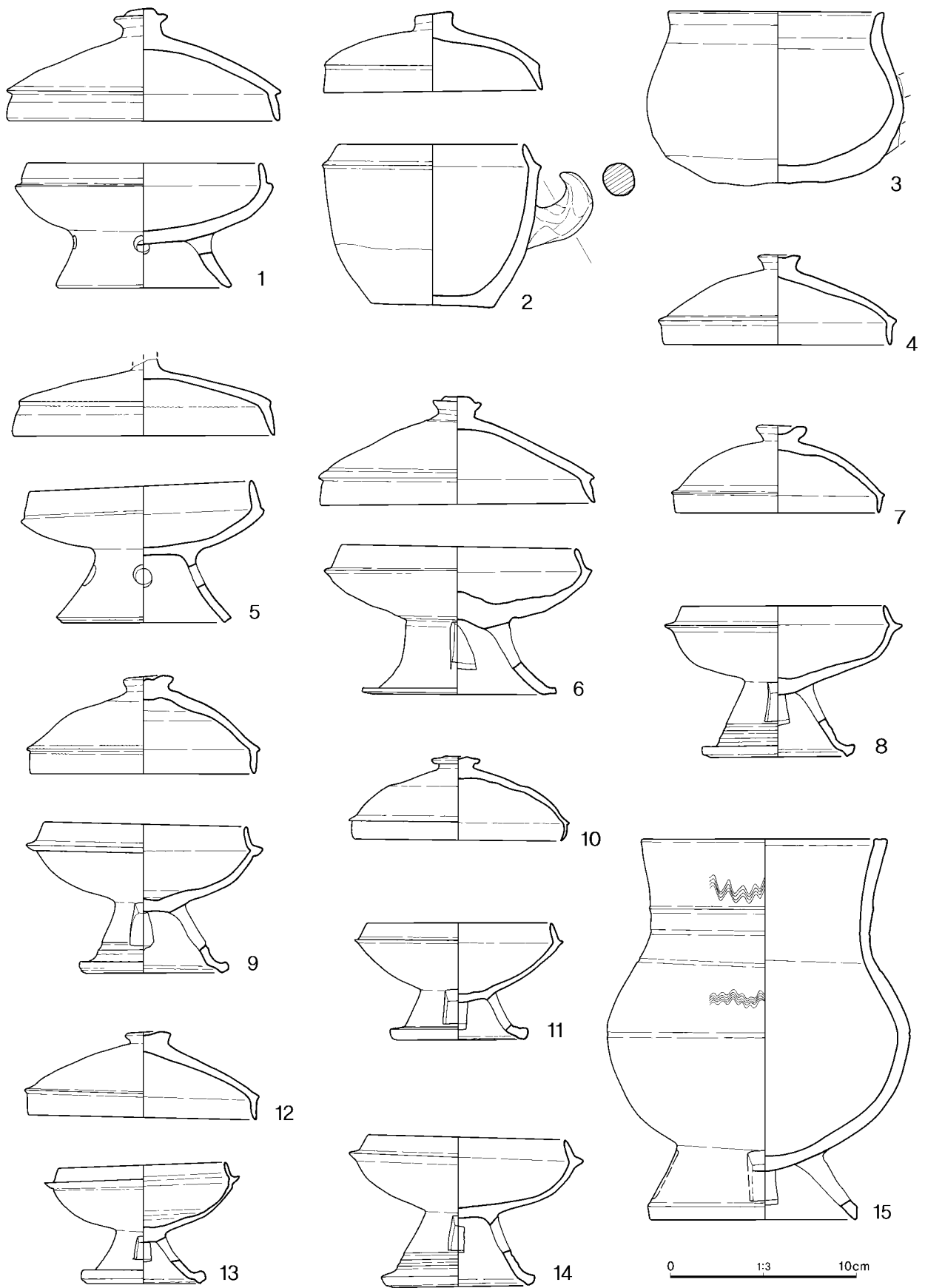


圖面 10. 가-2·3호 석곽묘 출토유물(가-2호:1~3, 가-3호:4~13)

나. 유구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10-6	41-6	9	유개고배	5.6	14.2		개: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도치소성혼 잔존
				6.8	11.8	9.1	고배:도질소성. 소성보통. 운모,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대각 일부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원형 투창 4개 배치
10-4	41-4	10		5.9	14.8		개: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외면 일부 자색.도치소성구연부 내면 박리극심
				7.3	12.4	8.9	고배: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배신 내면 일부 암자색.외면 깎기 흔적 잔존.대각부 원형 투창 3개 배치
11-1	41-14	11		6.1	14.5		개: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 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도치소성
				6.9	12.5	9.1	고배: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대각단 일부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원형 투창 4개 배치
11-5	42-3	15		(4.2)	13.9		개:도질소성. 소성양호. 절반 잔존.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7.7	(11.9)	8.8	고배: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2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11-6	42-4	16		5.9	14.8		개: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색. 도치소성. 내면 녹갈색 자연유 부착
				8.2	12.6	9.4	고배: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사다리꼴 투창 2개 배치
11-9	42-7	19	5.4	12		개: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밝은 회청색. 도치소성	
			8.2	10.8	7.2	고배:도질소성. 소성보통. 대각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밝은 회청색. 대각부 장방형 투창 2개 배치	
11-4	42-2	14	개	4.9	12.2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엷은 회청색. 신부와 구연부 경계 부분 침선 시문
11-12	42-10	22		4.8	12.2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혼입. 내 외면, 속심 회청색. 도치소성. 회전물손질 정면
11-10	42-8	20		4.6	11.1		도질소성. 소성양호.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11-7	42-5	17		4.8	10.9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일부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청색. 외면에 회전목리흔
11-8	42-6	18	고배	8.2	11	7.4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대각 일부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대각부 장방형 투창 2개 배치
11-11	42-9	21		6.3	10	7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장방형 투창 3개 배치
11-13	42-11	24		6.6	8.9	6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일부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장방형 투창 3개 배치
11-14	42-12	25		8.3	10.6	7.3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1/4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에 3조 돌대. 장방형 투창 2개 배치
13-1	42-14	26	장경호	22.5	(13.5)	(14)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경부 1/2, 대각부 3/4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속심 짙은 회갈색. 구경부 1조 침선 시문. 침선 상하위에 5치구 파상문 시문. 동체부에도 동일한 시문양식. 대각부 장방형 투창 4개 배치. 동최대경 : 18.0
10-5	41-5	8	대부장경호	(12.1)	(12.0)	8.5	도질소성. 소성보통. 동체부 2/3, 대각단 일부 결실. 운모 혼입. 내 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동상위 표면 박리 극심. 대각부 방형 투창 3개 배치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11-15	42-13	23	대부장경호	20.6	13.1	11	도질소성, 소성불량. 대각 1/2, 구연단 일부 결실, 내·외면, 속심 질은 회백색, 전체적으로 표면박리 극심. 구경부 돌대와 침선 각 1조, 3치구의 파상문 시문. 동체부2조 침선 시문, 침선 사이에 4치구 파상문 시문, 대각부 장방형 투창 4개 배치.동최대경 : 16.3
13-2	43-1	27		17.8	12	11.4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일부 결실, 내 외면, 속심 회청색, 구경부 중앙 2조 돌대, 돌대 아래 4치구 파상문 시문, 구경부와 동체부 경계에 1조, 그 아래 2조의 돌대 시문, 돌대 사이에 4치구 파상문 시문, 대각부 방형 투창 3개 배치, 동최대경 : 15.3
13-4	43-3	28		19.6	(12.2)	12.3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3/4, 대각 3/4, 동체 일부 결실, 장식 혼입, 내 외면, 속심 회청색, 구경부 중앙 2조, 동체부 경계 2조 돌대 시문, 돌대 사이 3치구 파상문 시문, 동체부 1조 돌대 시문, 돌대상 하에 3치구 파상문 시문, 대각부 방형 투창 4개 배치.동최대경 : 15.2
13-5	43-4	29	대각	(5)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부 1/4 정도 잔존, 장식 혼입, 내 외면, 속심 회청색, 장방형 투창 배치, 투창수량 파악 불가
13-6	43-5	30		(5.2)		(18.1)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부 1/2 정도 잔존, 장식 혼입, 내 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색, 방형 투창을 배치, 투창수량 파악 불가
13-3	43-2	31	연질용편	(5.5)	(13.4)		연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일부 잔존, 석영, 장식 혼입, 내 외면, 속심 황갈색, 회전물손질 정면
11-2	41-15	12	유개파수부용	4.3	11.7		개: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일부 결실, 석영 장식 운모 혼입, 내 외면, 속심 적갈색, 횡타원형으로 찌그러짐, 표면박리 극심
				8.9	9.9	6.5	용:연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1/4 결실, 석영 장식 운모 혼입, 내 외면, 속심 적갈색, 우각형 파수 부착, 저부는 도치상태에서 깎기 후 시계반대방향 회전물손질 정면.
11-3	42-1	13	파수부용	9.5	11.5		도질소성, 소성양호, 원형 파수 결실, 장식 혼입, 내 외면은 질은 회청색, 속심은 암자색, 표면박리 극심, 동체부 횡타원형으로 찌그러짐, 저부는 깎기 후 회물손질 정면
10-8	41-8	3	방추차	4.9	2.5		도질제, 소성 양호, 흑회색, 단면은 사다리꼴, 회전물손질정면
10-7	41-7	1	이식	2.3		0.4	금동제, 1/2 가량 결실, 청동부식으로 인하여 금박이 벗겨진 상태, 세환(細環),
10-9	41-9	2	도자	(8.2)	1.1	0.3	신부, 병부 결실, 신부 마모 극심, 신부 단면 이등변삼각형, 경부 목질흔 잔존
10-10	41-10	5		(11.6)	1.2	0.4	거의 완형, 신부 단면 이등변삼각형병부 단면 장방형,신부 부분적 목질 부착,
10-11	41-11	6		(15.5)	1.2	0.3	병부 결실, 신부 일부 잔존, 신부 일부 목질흔 부착.
10-12	41-12	4	철탁	9.2	2.8	2.7	단면은 원형, 판상으로 잘라서 원형으로 말아 제작, 상단부에 돌기상의 누가 확인됨
			설	7.2	0.6	0.4	단면은 장방형, 끝부분이 말려 오려진 형태, 철탁과 연결된 부분 확인되지 않음
10-13	41-13	7	철탁	8.7			신부 일부 결실, 탁신은 원통형으로 단면은 찌그러진 원형, 개구부외경: 3.2×3.6
13-8	43-7	32	철기	(2.7)	0.4		단면 방형.
13-9	43-8			(3.1)	0.5		단면 원형
13-10	43-9			(3.3)	0.6		단면 장방형.
13-11	43-10			(2.8)	0.5		단면 방형, 철축 편으로 보이며 경부만 남아 있는 상태.
13-12	43-11			(2.2)	0.5		단면은 방형.
13-7	43-6			33	(3.8)	0.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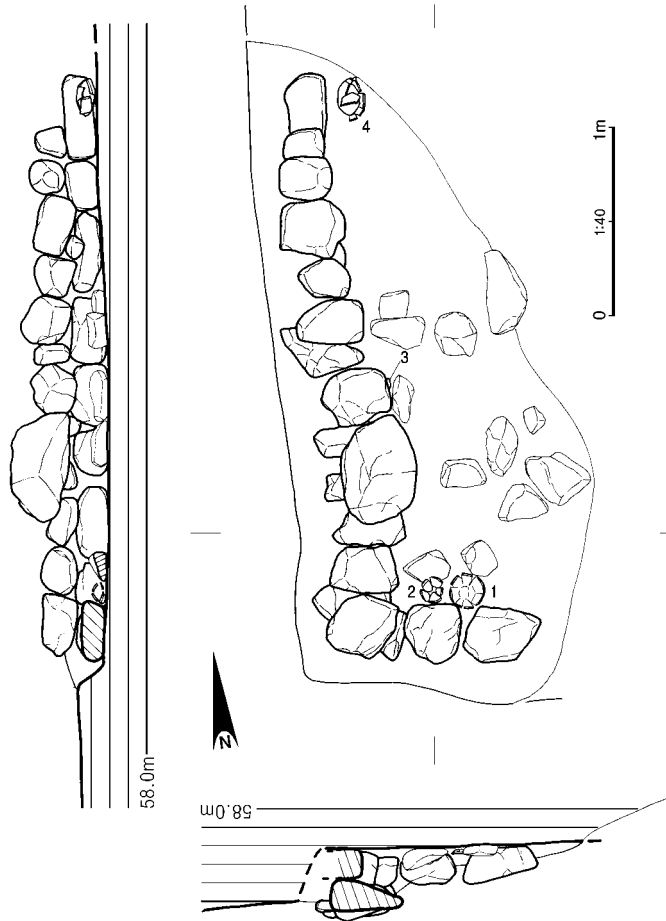


圖面 11. 가-3호 석곽묘 출토유물

(4) 가-4호 석곽묘

가. 유구 (도면 12, 도판 3-5~7)

해발 58.5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6° 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조선시대의 유구로 생각되는 4호 석열에 의해 유구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서쪽으로 6호 석곽묘가, 남쪽으로 2호 토기가마터가 위치



圖面 12. 가-4호 석곽묘

하고 있다. 묘방의 규모는 잔존 길이 330cm, 잔존너비 150cm, 깊이 30cm이다. 석곽의 규모는 북쪽 단벽과 동쪽 장벽이 유실되어 길이와 너비는 알 수 없고 잔존하는 깊이는 50cm이다. 남쪽 단벽과 서쪽 장벽의 일부가 잔존하는데 남쪽 단벽은 1단만이 남아 있으며, 서쪽 장벽은 2~3단이 확인된다. 남쪽 단벽은 20cm 내외의 할석으로 가로쌓기를 하였으며, 서쪽 장벽은 1단은 20cm내외의 할석으로 가로쌓기하고 2단~3단은 20cm 내외의 할석으로 세로쌓기를 하였다. 1단과 2단 사이의 공간에 작은 할석들로 채워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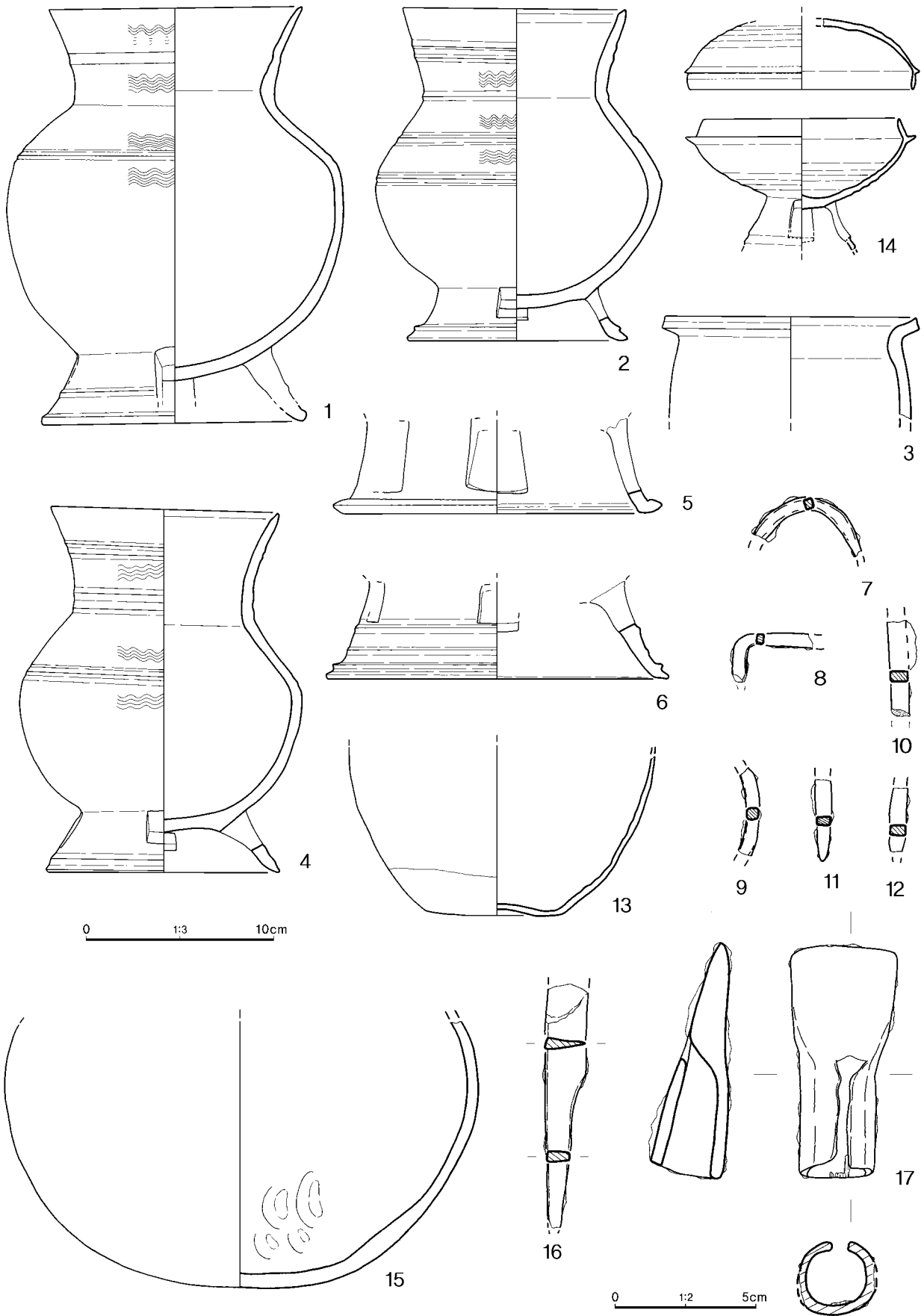
유구의 바닥에는 시상석이 따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약20cm정도의 편평한 할석들이 흩어져서 남쪽의 일부에서 확인이 되었다. 이들 할석들은 유구의 바닥면을 정지하여 내부의 목관의 수평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구의 남쪽 바닥에서 확인된 할석은 관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유물은 서쪽 장벽에서 남쪽 단벽을 따라서 확인이 되는데 연질옹 1점, 유개고배 1점, 도자 1점, 호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13-13	43-12	1	연질옹	(8.6)		7.3	연질소성. 소성양호. 동하위 일부와 저부만 잔존.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적갈색. 속심은 옅은 회색. 저부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13-14	43-13	2	유개고배	(3.8)	11.9		개:도질소성. 소성보통. 신부 1/3, 꼭지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도치소성
				(7.1)	10.5		고배: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1/4, 대각부 하단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장방형 투창 3개 배치



圖面 13. 가-3~5호 석곽묘 출토유물(가-3호:1~12, 가-4호:13~16, 가-5호:17)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13-16	43-15	3	도자	(8.6)	1.5	0.4	신부 일부 결실, 신부 단면 이등변삼각형, 병부 단면 장방형, 병부형태 말단부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13-15	43-14	4	호편	(14.3)			와질소성, 소성양호, 동중위 이하 저부만 잔존,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동최대경 : (25.4)

(5) 가-5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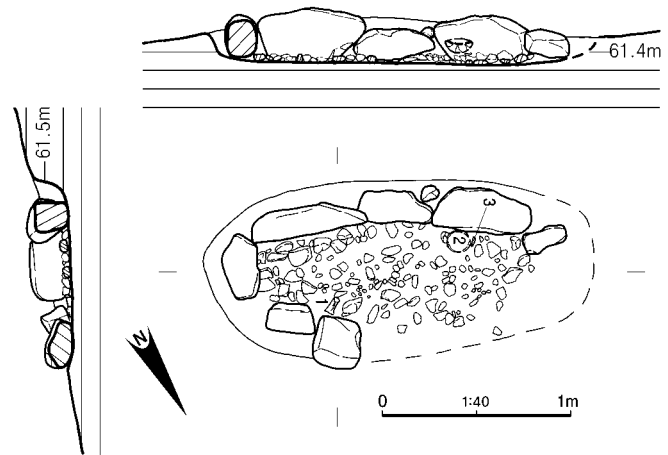
가. 유구 (도면 14, 도판 4-1~3)

해발 61.5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60°W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서쪽으로 1m정도의 거리로 두고 조선시대의 유구인 3호 석열과 인접해 있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100cm, 깊이 2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150cm, 너비 45cm, 깊이 30cm이다. 북쪽 장벽 일부와 서쪽 단벽이 유실되었으며 남쪽 장벽과 동쪽 단벽은 1단의 벽석들만 남아 있었다. 1단의 벽석들은 전체적으로 40cm내외의 비교적 큰 할석들로 가로쌓기 하였으며 동쪽 단벽의 경우 35cm의 할석 1매로 구획되었다.

시상석은 5cm 내외의 작은 할석들로 바닥 전체에 깔려있는데 동쪽 단벽을 따라서는 비교적 큰 10cm 내외의 할석들이 집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무질서하게 깔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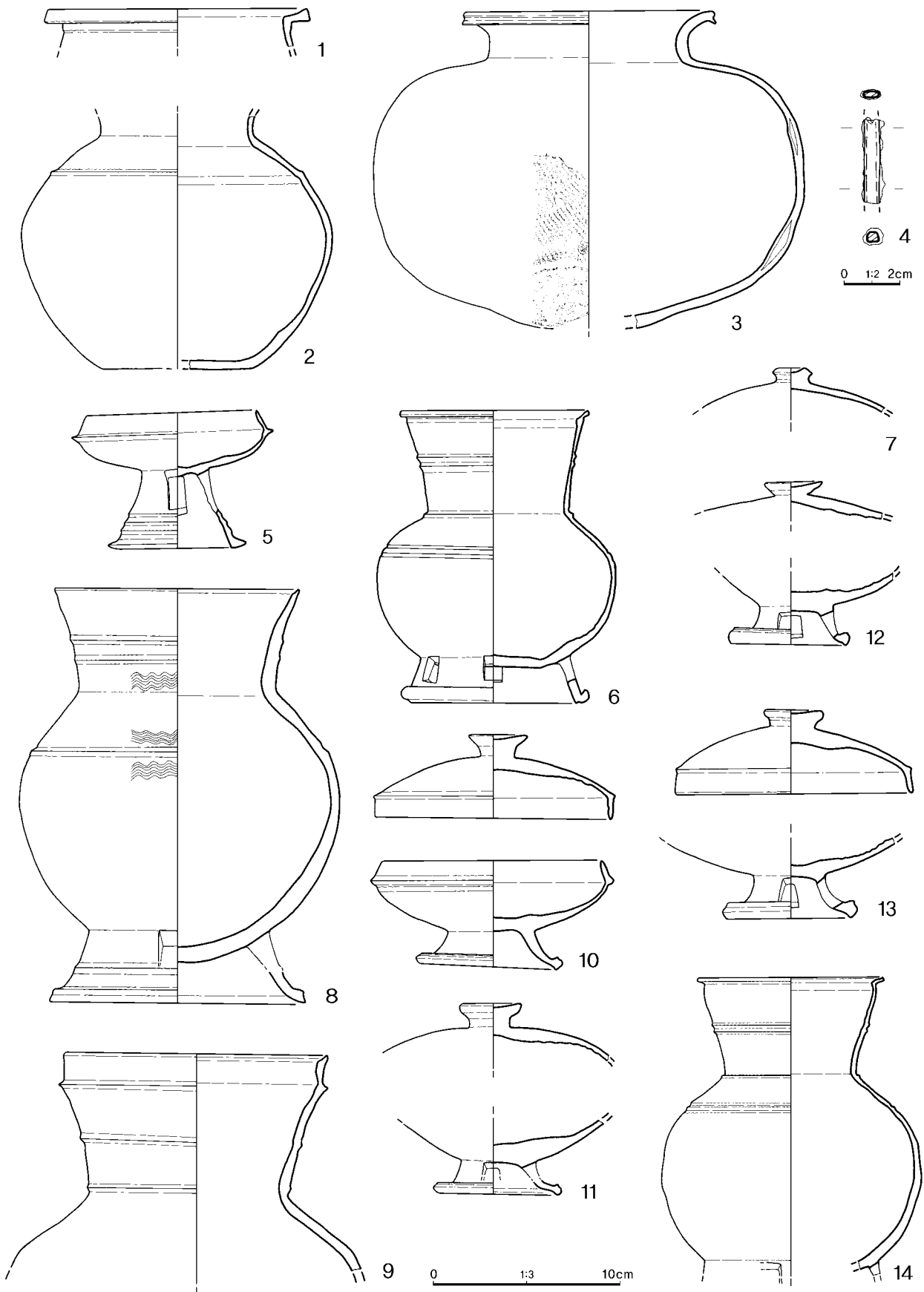
유물은 북쪽 장벽에서 남쪽 장벽을 따라서 철부 1점, 연질옹구연부편 1점, 철기 1점이 출토되고, 조사 과정에 단경호 2점이 수습되었다.



圖面 14. 가-5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15-1	43-17	2	연질옹구연부편	(2.1)	(1.4)		연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일부 잔존,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적갈색, 회전물손질 정면, 동체부 파편이 다수 잔존하나 복원 불가
13-17	43-16	1	철부	7.7		3.7	상태양호, 단조, 공부 목질 잔존, 공부 : 2.7×2.6×0.35
15-4	44-2	3	철기	(3.0)	0.25~0.4		신부만 잔존, 용도미상
15-3	44-1	수습	단경호	(22.7)	(17.8)		도질소성, 소성불량, 전체 1/2만 잔존, 장식 혼입, 내·외면 엷은 회청색, 속심 회백색, 녹갈색 자연유 부착, 부분적 기포 형성, 동상위는 평행타날 후 회전물손질 정면, 동중위 중방향으로 평행타날, 동최대경 : (31.0)
15-2	43-18	수습		(13.7)	(16.7)	(7.9)	도질소성, 소성양호, 동체부 1/2, 구경부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자연유 부착, 저부 바리극심



圖面 15. 가-5~8호 석곽묘 출토유물(가-5호:1~4, 가-6호:5~7, 가-7호:8~13, 가-8호:14)

(6) 가-6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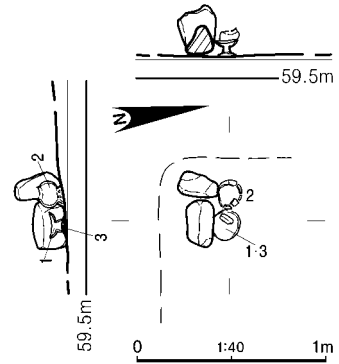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6, 도판 4-4)

해발 59.5m 선상에 위치하며, 유구의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주축방향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동쪽으로 4호 석곽묘와 조선시대의 유구인 4호 석열이 위치하며, 남쪽으로 2호 토기가마터가 위치한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40cm, 잔존너비 35cm이다. 10cm내외의 할석 2매만이 석곽 모서리 일부분으로 잔존한다.

유물은 할석의 바로 앞에서 고배 1점, 대부장경호 1점, 개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15-5	44-3	1	고배	7.5	9.1	6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장방형 투창 3개 배치
15-6	44-4	2	대부장경호	15.7	10.1	8.9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단과 동체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방형 투창 6개 배치. 동최대경: 13.0
15-7	44-5	3	개	(2,3)			도질소성. 소성불량. 전체의 1/2만 잔존. 회전물손질 정면



圖面 16. 가-6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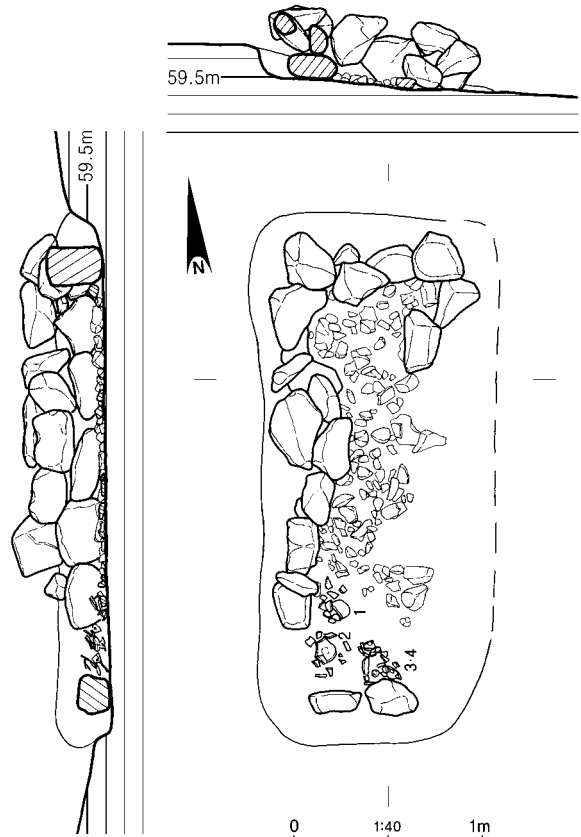
(7) 가-7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17, 도판 4-5·6)

해발 59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6° E로 동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7호 석곽묘는 조선시대의 유구인 4호 석열과 중복된 상태로 확인이 되었으며, 북쪽으로 1호 석곽묘가 인접해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80cm, 너비 125cm, 깊이 3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10cm이며 너비는 동쪽 장벽이 유실되어 알 수 없다. 잔존 깊이는 40cm이다.

서쪽 장벽과 북쪽 단벽은 2단까지 확인되었는데 1단과 2단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남쪽 단벽에서 40cm정도의 거리를 두고 5cm 내외의 작은 할석들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시상석이 깔리지 않은 공간은 유물부장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유물은 단벽과 시상석 사이의 빈공간에서 대부장경호 1점, 유개고배 4점, 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17. 가-7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15-8	44-6	1	대부장경호	22.3	13.1	(13.7)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동체 일부, 대각 3/4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구경부 2조 돌대 시문, 그 아래에 5치구 파상문 시문, 동체부 1조 돌대 시문, 그 위와 아래 각각 5치구 파상문 시문, 대각부장방향 투창 3개 배치, 동최대경:17.3
15-12	44-10	2	유개고배	(2.1)			개:도질소성, 소성불량, 꼭지 1/3, 구연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4.1)		6.2	고배: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방형 투창 3개 배치
15-13	44-11			4.6	(12.8)		개:도질소성, 소성불량, 꼭지 일부, 구연부 3/4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4.4)	6.7		고배:도질소성, 소성불량, 대각 1/2, 구연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표면바리 극심, 대각부 사다리꼴 투창 3개 배치
15-10	44-8	3		4.5	12.7		개:도질소성, 소성불량, 전체 1/3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표면바리 극심
				5.9	(11.8)	(7.4)	고배: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3/4, 대각 2/3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표면바리 극심
15-11	44-9			(3.2)			개: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표면바리 극심
				(4.1)		(6.5)	고배:도질소성, 소성불량, 대각 2/3, 구연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대각부 방형 투창 3개 배치
15-9	44-7	4	장경호	(11.8)	14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1/3, 동중위 이하 결실, 장식 운모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표면바리 극심

(8) 가-8호 석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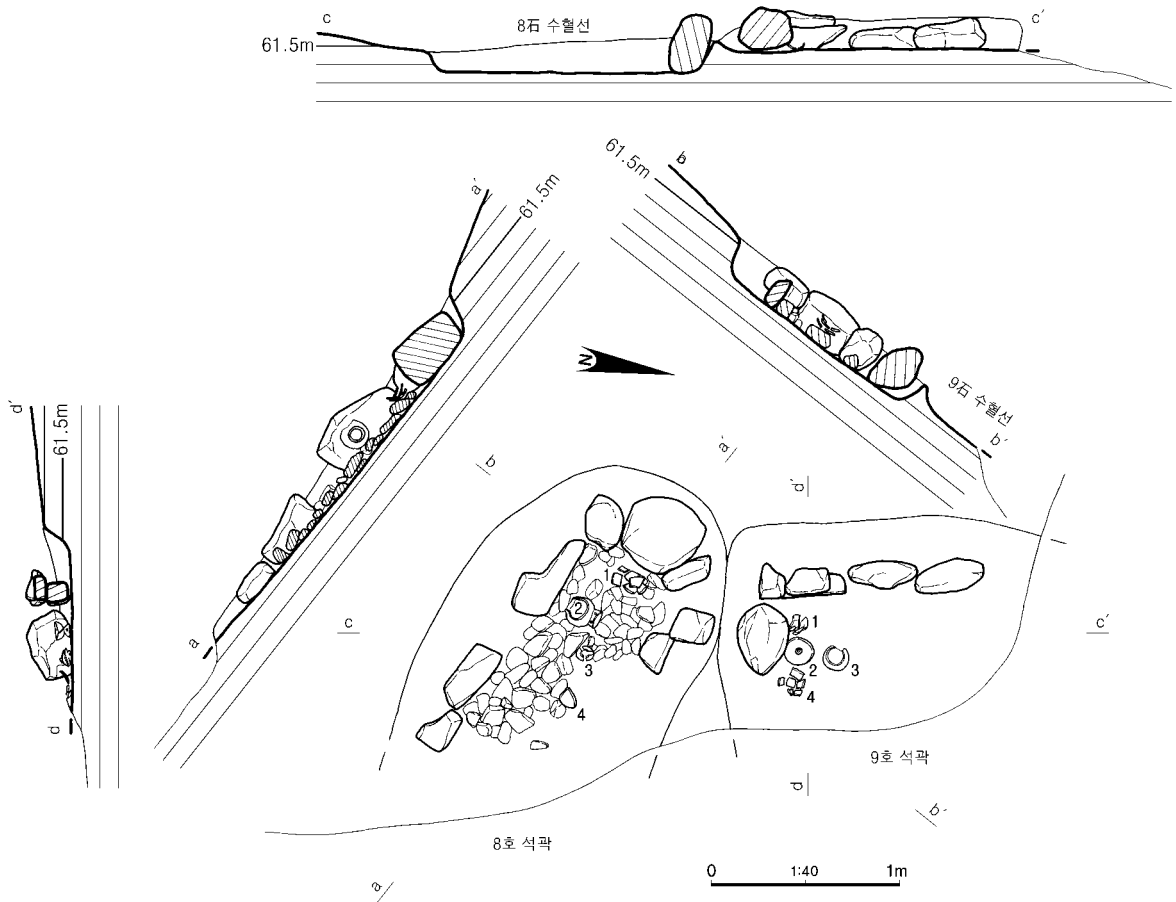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8, 도판 4-7/5-1·2)

해발 61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61°W로 등고선 방향과 거의 직교한다. 서쪽 단벽 모서리와 9호 석곽묘의 남쪽 단벽이 서로 맞닿아 있다. 2호·8호·9호 석곽묘는 3호 석곽묘를 중심으로 돌려진 배묘일 가능성이 높다. 8호 석곽묘의 경우, 3호 석곽묘를 중심으로 호상으로 배치되면서 3호 석곽묘를 중심으로 돌려진 다른 석곽묘와 달리 등고선과 직교하는 양상을 보인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190cm, 너비 130cm, 잔존 깊이 2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동쪽 단벽의 유실되어서 길이는 알 수 없으며 너비는 50cm, 깊이 25cm이다. 동쪽 단벽과 북쪽 장벽, 남쪽 장벽 일부가 경사면을 따라 유실되었다. 잔존하는 벽석들은 모두 1단만이 확인되는데 1단의 벽석들은 전체적으로 40cm 내외의 할석들로 가로쌓기 하였다.

유구의 바닥에는 10cm 내외의 할석들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동쪽 단벽이 유실되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시상석을 깔 때 동쪽 단벽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공간에는 시상석을 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서쪽 단벽에서 남쪽 장벽을 따라 부장되었는데 대부장경호 1점, 대부직구호 1점, 고배 대각편 1점, 파수부용 1점이 검출되었으며, 북쪽 장벽의 교란된 곳에서 고배 대각편 2점이 확인되었다.



圖面 18. 가·8·9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15-14	44-12	1	대부장경호	(21.5)	(13.3)		도질소성, 소성양호, 전체의 1/2, 대각부 결실, 장식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엷은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저부에는 회전목리흔, 대각부 방형 투창, 동최대경 : (18.6)
20-1	44-13	2	대부직구호	14.5	(10)	(9.1)	도질소성, 소성양호, 동체부 1/3, 파수 결실,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동체부 내면, 동상위 대각부 녹색 자연유 부착, 표면박리, 동체부에 5조의 침선 시문, 침선사이에 4치 구 파상문 시문, 대각부 사다리꼴 투창 3개 배치
20-2	45-1	3	고배대각편	(3.3)		6	도질소성, 소성양호, 배신부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에 장방형 투창 3개 배치
20-5	45-4	4	파수부용	(6.6)			도질소성, 소성양호, 저부 1/3 잔존, 파수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청색, 녹색 자연유 부분적 부착, 저부 깎기흔
20-3	45-2	수습	고배대각편	(4.3)		7.1	도질소성, 소성양호, 배신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장방형 투창 3개 배치
20-4	45-3	수습		(4.4)		7.3	도질소성, 소성양호, 배신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방형 투창 3개 배치

(9) 가-9호 석곽묘

가. 유구 (도면 18, 도판 4-7/5-3·4)

해발 61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0°W로 등고선과 평행하다. 남쪽 단벽이 8호 석곽묘의 모서리와 맞닿아 있으며, 북쪽으로 40cm의 거리에 2호 석곽묘가 있다. 동쪽으로 1m 거리에 3호 석곽묘가 위치한다. 9호 석곽묘는 8호 석곽묘와 맞닿아 있으며, 북쪽 단벽의 유실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2호 석곽묘와도 거의 인접해 있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175cm, 잔존너비 95cm, 잔존 깊이 20cm이고, 석곽의 규모는 서쪽 장벽과 남쪽 단벽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실되어 알 수 없다. 잔존 깊이는 20cm이다. 잔존하는 서쪽 장벽과 남쪽 단벽은 1단만 확인이 되었는데 30cm내외의 할석들로 가로쌓기 하였다. 시상석은 확인 되지 않았다.

유물은 남쪽 단벽에서만 확인이 되었는데 대부완 1점, 유개고배 1점, 고배 1점, 옹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20-6	45-5	1	대부완	7	9.8	5.5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단 일부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사다리꼴 투창 2개 배치
20-9	45-8	2	유개고배	4.4	12		개: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외면 자연유 부착. 표면 일부 박리
				5.9	10.8	7.8	고배: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자연유 부착. 신부 내면자연유 박리. 대각부 방형 투창 3개 배치
20-7	45-6	3	고배	4.5	9.8	7.2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1/3 결실.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회갈색. 대각부 방형 투창 3개 배치
20-8	45-7	4	옹	(9.2)	(11.9)		도질소성. 소성보통. 동체부 1/3잔존. 파수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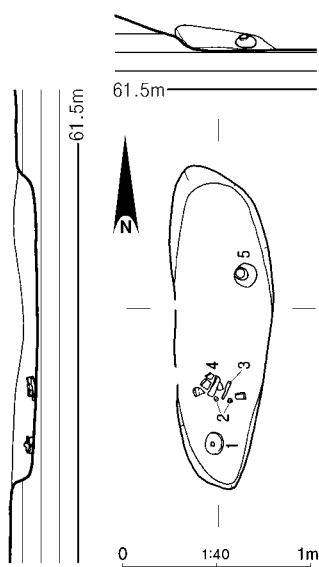
(10) 가-1호 토광묘

가. 유구 (도면 19, 도판 5-5~7)

해발 61.5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S 정북방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다. 2호 석곽의 서쪽에 위치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50cm, 잔존 깊이 10cm이다. 1호 토광묘의 경우 북쪽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목관이 없이 곧바로 시신을 안치한 직장묘로 생각된다. 유구의 남쪽바닥에서 이식 1쌍이 출토되어 피장자의 두향이 남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유구의 남쪽에 집중해서 유개고배 2점, 이식 2점, 도자 1점, 대부직구호 1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19. 가-1호 토광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20-10	45-9	1	유개고배		4.1	10.2		개: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2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5.2	9.5	5.8	고배: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1/3 결실,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방형 투창 3개 배치
20-12	45-11	4	유개고배		(3.8)			개:도질소성, 소성보통, 전체의 2/3, 꼭지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회백색, 기면 회전목리조정흔
					6.1	9.3	5.9	고배: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3 결실,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배신과 대각의 접합부에는 점토를 덧대어 약간 두툼한 느낌, 대각부 사다리꼴 투창 3개 배치
20-11	45-10	5	대부직구호		(10)	7.5	12.9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 결실, 장식 혼입, 내 외면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구연단을 凹字狀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20-13	45-12	2	이식	좌	2.6		0.4	완형(좌: 부식에 의해 일부 탈락), 세환(細環), 금동제
				우	2.5		0.4	
20-14	45-13	3	도자		(10.2)	1.2	0.3	선단부, 병부 결실, 신부 단면 이등변삼각형

(11) 1호 토기 가마터

가. 유구 (도면 21, 도판 6)

유구는 삼국시대의 것으로 길이 8.0m, 폭 1.4~1.85m의 반지하식³⁾ 토기 가마이다. 가마의 천정 일부가 잘 남아 있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60cm 내외이다. 주축방향은 N-82°-W로 등고선과 직교하며, 가 지구의 해발 58.5~60.5m상에 1, 2호 가마가 나란히 축조되어 있다.

연소부는 바닥에서 30cm 높이까지 재층(도면 21 토층도: 6층)이 수혈 밖으로도 넓게 분포한다. 이곳에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火口部가 확인되었는데, 화구부와 접한 벽면은 불에 맞아 청회색을 띠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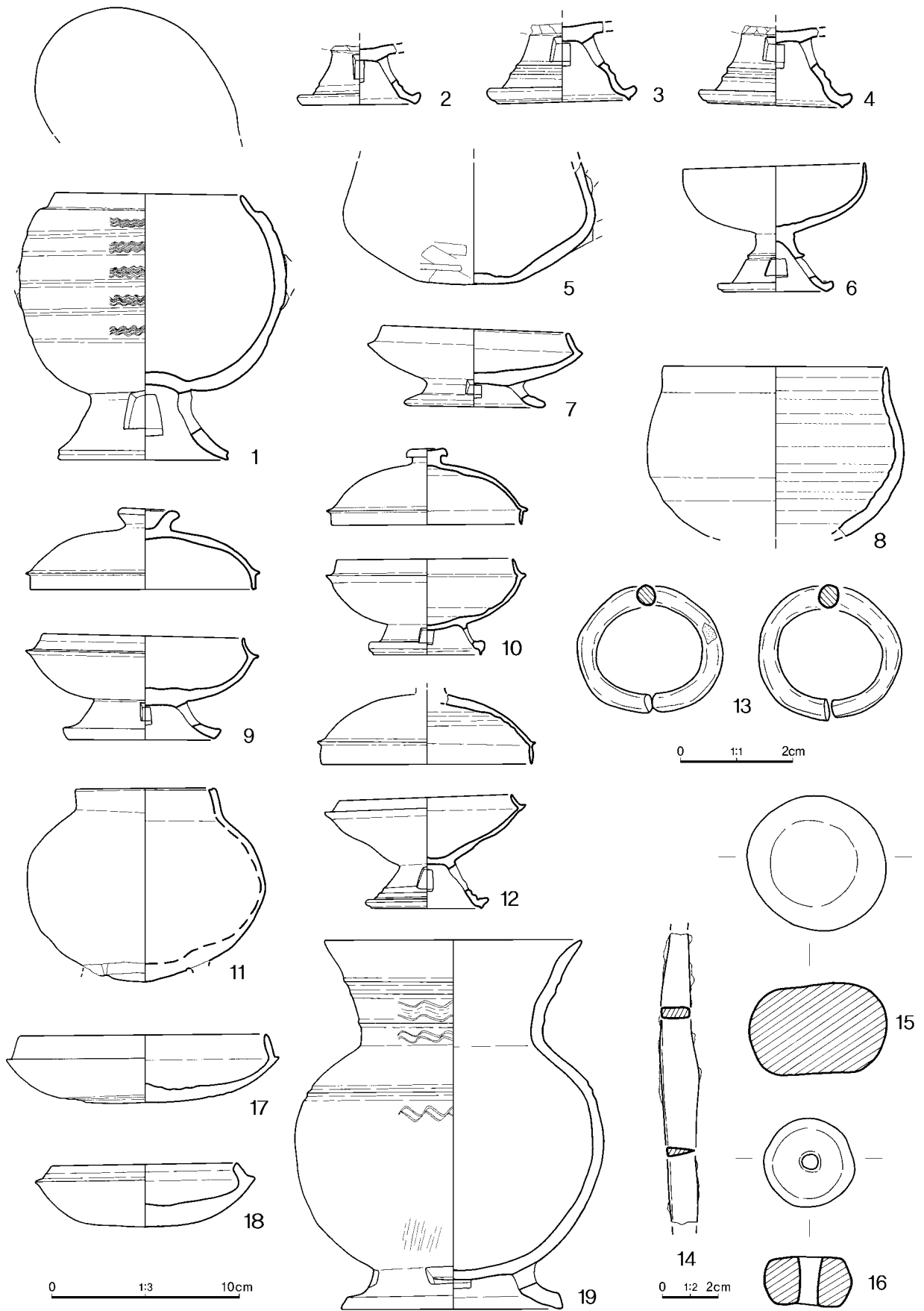
연소부의 가장 아래층(6층)은 검은 재층으로 동쪽 끝 부분으로 밀어 올린 듯한 퇴적양상을 보이는데, 최초로 사용된 연소부와 관련된 층으로 추정된다. 6층 위에 수혈을 확장하고 돌을 등글게 쌓았다. 이들 돌의 성격은 불확실하지만, 6층이 완전한 검은 재층이고, 아궁이의 반대편인 동쪽으로 재를 끌어 올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재를 끌어내고 그 위에 활석을 깔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돌은 2차 연소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종합해 보면 6층과 관련된 1차 연소부가 최초로 사용되었고, 그 후 4층의 積石시설과 관련된 2차 연소부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차 연소부와 소성부의 경계는 20cm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아궁이가 연소부보다 높고, 아궁이와 연소부의 폭은 거의 동일하다. 연소부의 바닥경사도는 동쪽이 4°이내, 서쪽이 8°로 아궁이(火口部)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진다. 2차 연소부는 4층에 형성된 積石시설부터로 생각되며 아궁이의 폭은 연소부보다 축소되고, 아궁이가 연소부보다 낮다.⁴⁾

소성부와 煙道部(굴뚝)는 확연하게 구별 되지 않는다. 바닥의 경사각은 아궁이 쪽은 평탄하고 연도부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진다. 소성부는 크게 보아 바닥의 경사도가 10° 이내인 전반부와, 경사도 20°~25°인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전체 경사각은 14° 정도이다.

3) 국립김해박물관, 2007, 「함안우거리토기생산유적」에서 가마소성부의 위치에 따라 소성실이 대부분 지상에 축조된 것은 지상식, 소성실이 지상에 일부 노출된 것을 반지상식, 소성실의 천장이 지하에 해당하면 지하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가마축조 당시의 지표면(舊 지표)을 인지해야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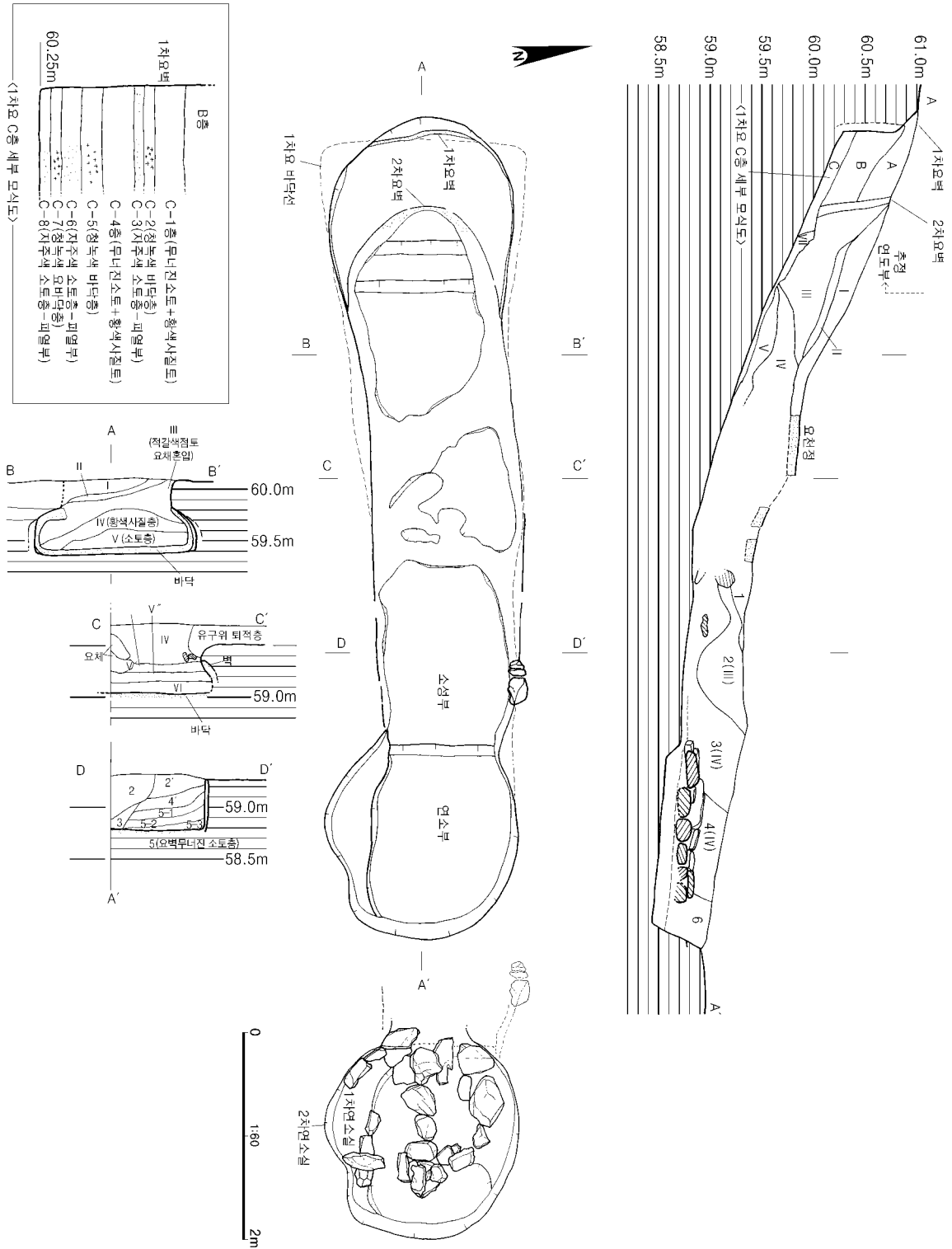
4) 국립김해박물관, 이정근, 2007 上揭書, p179의 표2. (가마구조 구분기준 평면) 을 참고.



圖面 20. 가-8·9호 석곽묘(가-8호:1~5, 가-9호:6~9), 1호 토광묘(10~14), 1·2호 토기가마(1호가마:15·16, 2호가마:17·18), 4호 석열(19) 출토유물

소성부의 가장 높은 쪽에 60cm 간격을 두고 2개의 요벽이 확인되었다. 바깥쪽에서 확인된 요벽은 가마가 처음 조성되었을 당시에 사용된 요벽이다. 이후 어떠한 이유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60cm 정도 내측에 새롭게 요벽을 조성하여 조업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요벽을 조성할 당시 처음 가마의 바닥면에 덧댄 바닥의 흔적이 2단의 계단상으로 확인되었다.

소성부(소성실)와 연도부의 경계를 구별할만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두 번째 사용된 가마의 경우 바



圖面 21. 1호 토기가마

닥이 계단상으로 2단의 段이 지고 경사가 급해지기 시작하는 지점부터가 연도부일 가능성이 있다.

처음 조성된 가마의 C층(가마 바닥층)에서 3개의 바닥층이 확인되었는데 자주색 소토층은 적색피열부로 추정되는데 그 두께는 1, 2, 1cm로 최소 3번 이상 조업이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가마 관련 토층에서는 2회에 걸친 함몰 양상이 확인되며 바닥 피열부 두께는 6cm 전후이다. 연소부는 6층과 관련된 1차 연소부가 최초로 사용되고, 그 후 4층의 적석시설과 관련된 2차 연소부가 있었다. 1차 연소부는 아궁이가 연소부보다 높고 아궁이와 연소부 폭은 거의 같다. 2차 연소부는 아궁이가 연소부보다 낮고 폭은 축소되어 있다.

유물은 조사과정에서 기형이 확인되지 않는 토기편 등이 확인되었고, 토구 1점과 방추차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20-15	45-14	수습	토구	4.9		3.2	완형. 도질소성. 소성양호. 회청색. 정선된 태토. 석립 알갱이 소량 함유
20-16	45-15	수습	방추차	3.1		1.7	완형. 도질소성. 소성양호. 회청색. 상부전면과 측면 일부 자연유 박리. 정선된 태토에 소석립 알갱이(장석 운모) 함유

(12) 2호 토기 가마터

가. 유구 (도면 22, 도판 7)

유구의 잔존길이는 6.5m, 폭 1.6~1.7m의 반지하식 토기 가마이다. 주축방향은 N-80°-W로 등고선과 직교하며, 가마의 천정이 잘 남아 있는 곳은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가 70~80cm로 조사되었다. 가마 지구의 해발 58.5~60.5m 선상에 1호 가마의 북쪽으로 나란히 입지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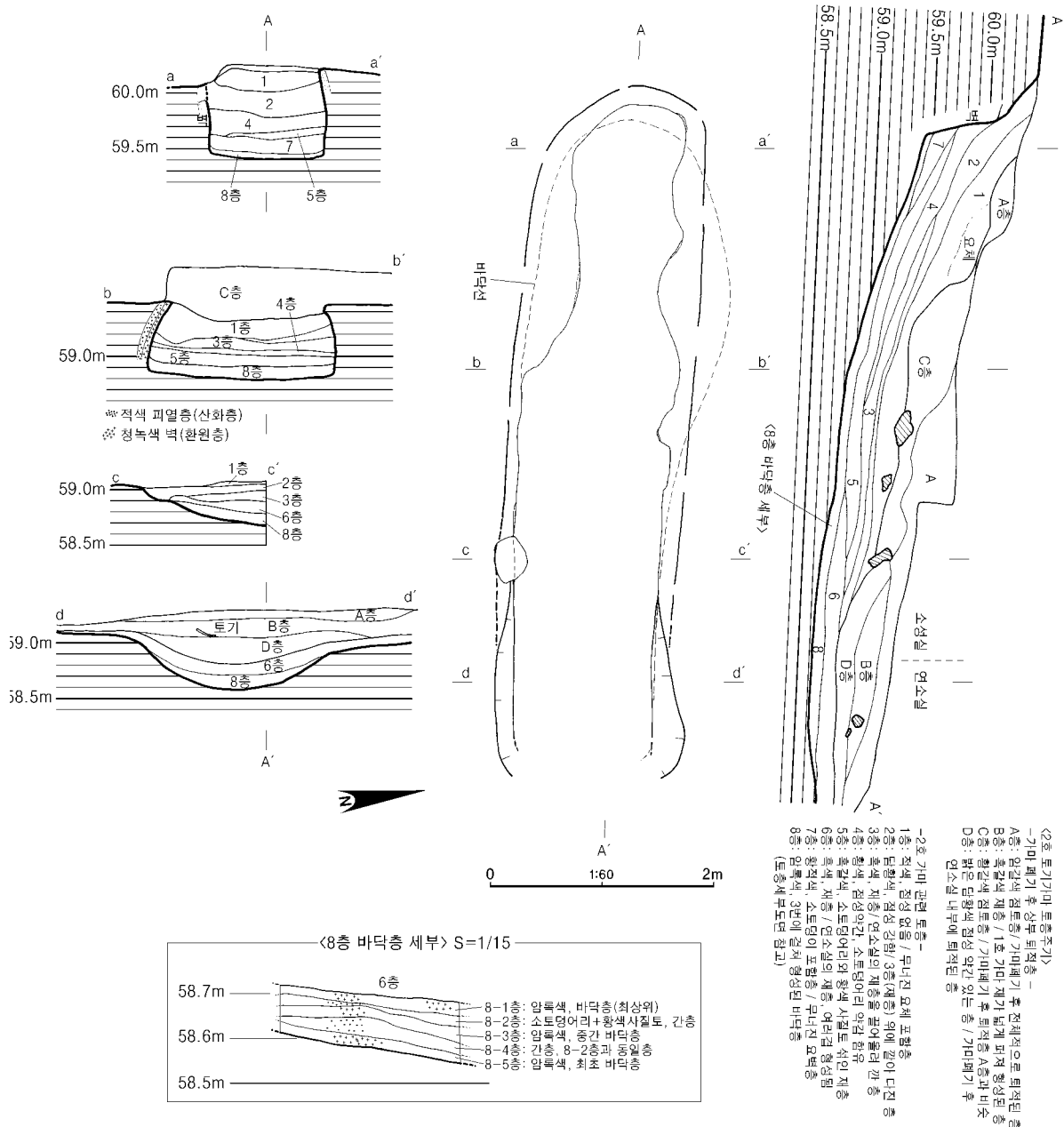
소성부와 연소부의 구별은 1호 토기 가마처럼 뚜렷하지 않다. 다만 토층도에서 2층의 동쪽 분포한계지점과 d축 서쪽 끝부분(도면, d-d'선 서쪽 20cm지점) 사이에 연소부와 소성부의 경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연소부의 잔존 길이는 110~130cm, 폭은 바닥 쪽 122cm, 상부 168cm이다. 연소실은 1호窯와 달리 뒷부분의 수혈선이 확인되지 않고 트여져 있는 양상이다.

소성부와 煙道部(굴뚝)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 총길이 470~490cm 정도인데, 바닥의 경사각은 연소실과 경계지점의 燒成室은 6°, 연소실 중앙지점은 15°, 굴뚝 쪽은 20°로 아궁이쪽에서 굴뚝 쪽으로 갈수록 급해진다. 전체 평균 경사각은 10°이다. 소성부 바닥폭은 130~170cm로 소성부 뒤쪽이 앞쪽보다 넓어지다가 다시 굴뚝가까이 가면서 좁아진다(도면, b-b'선 서쪽 70cm지점이 최대폭). 연도부는 확실히 구분되지 않으나 경사각 20°가 시작되는 뒤쪽 120~160cm 정도를 연도부로 추정할 수 있다.

바닥층인 8층에서는 3번에 걸쳐 형성된 바닥층이 확인되며 연소부와 소성부의 높이차는 거의 없다. 조사과정에서 완 2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20-17	45-16	수습	완	3.7	13.2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다량 혼입. 내 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구연부 외면 다소 박리.
20-18	45-17	수습		3.4	9.9		도질소성. 소성불량. 운모 혼입. 내 외면, 속심 짙은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외면은 전체적으로 박리가 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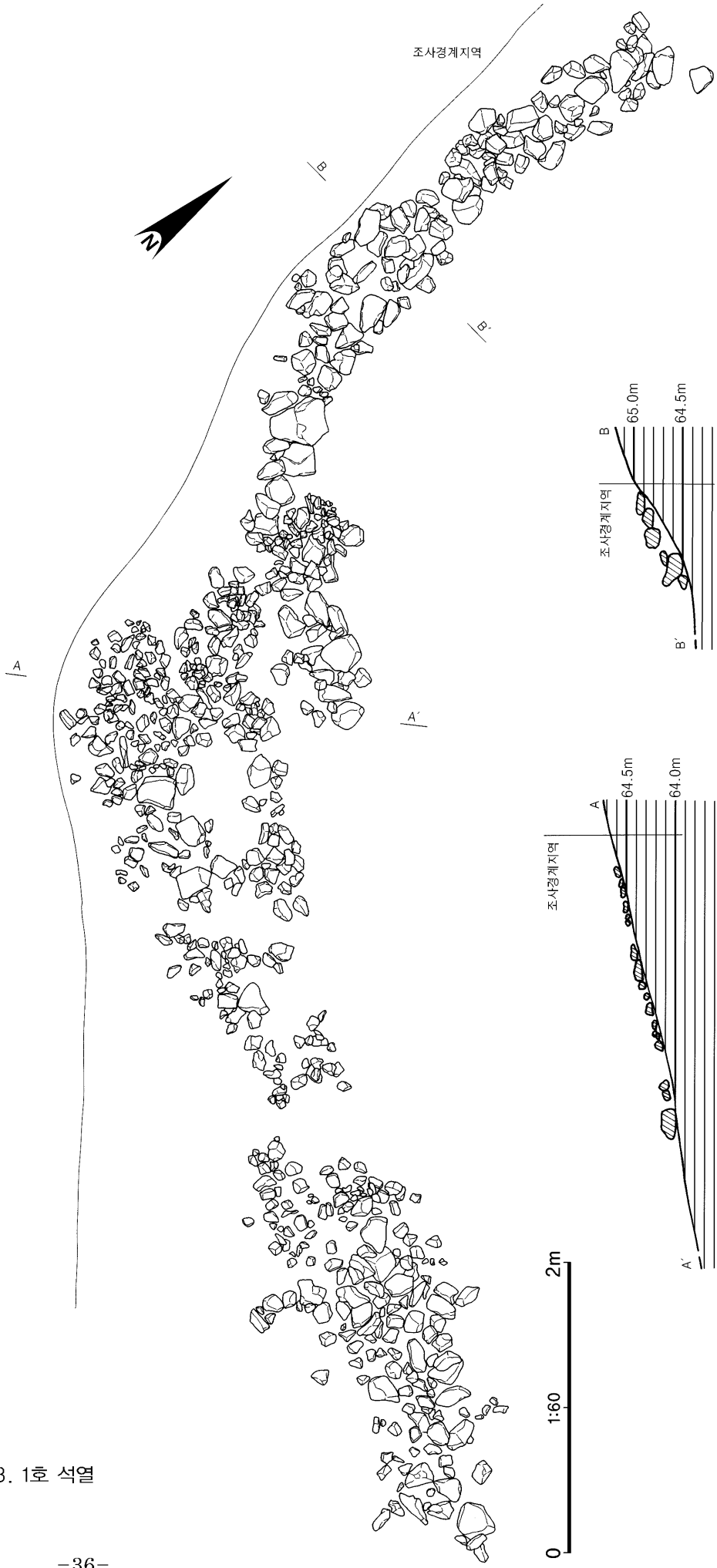
圖面 22. 2호 토기가마

2) 조선시대 유구

(1) 1~4호 석열

가. 유구 (도면 23~26, 도판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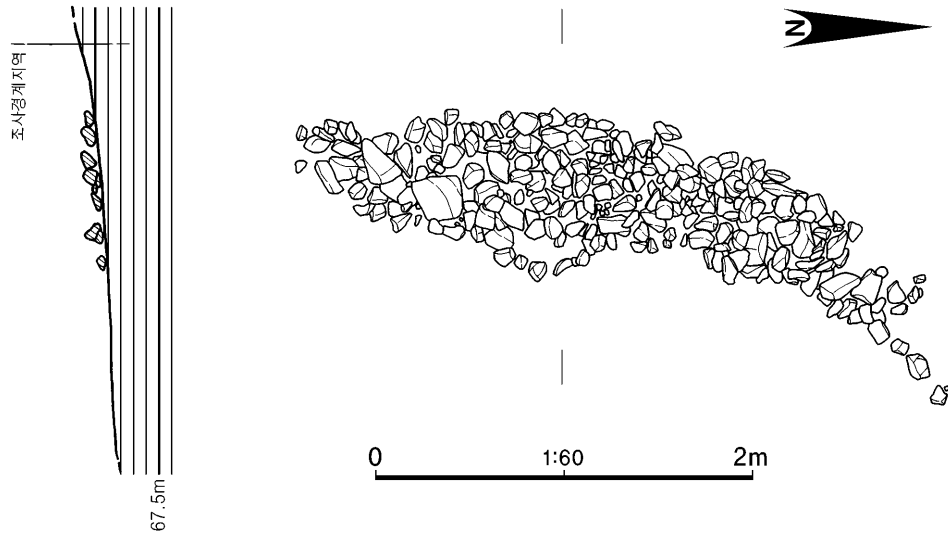
모두 4개소에서 할석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등고선과 무관하게 무리를 지어 선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석열 속에서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조선시대의 자기편이 간헐적으로 확인된다. 일부 삼국시대 무덤을 파손하기도 하였는데 다수의 석곽묘가 이들 석열에 의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개 조선시대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특정한 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조선시대 이후 개간과정에서 모여진 돌더미로 파악된다. 규모는 길이가 5.5~12m에 폭은 대부분 3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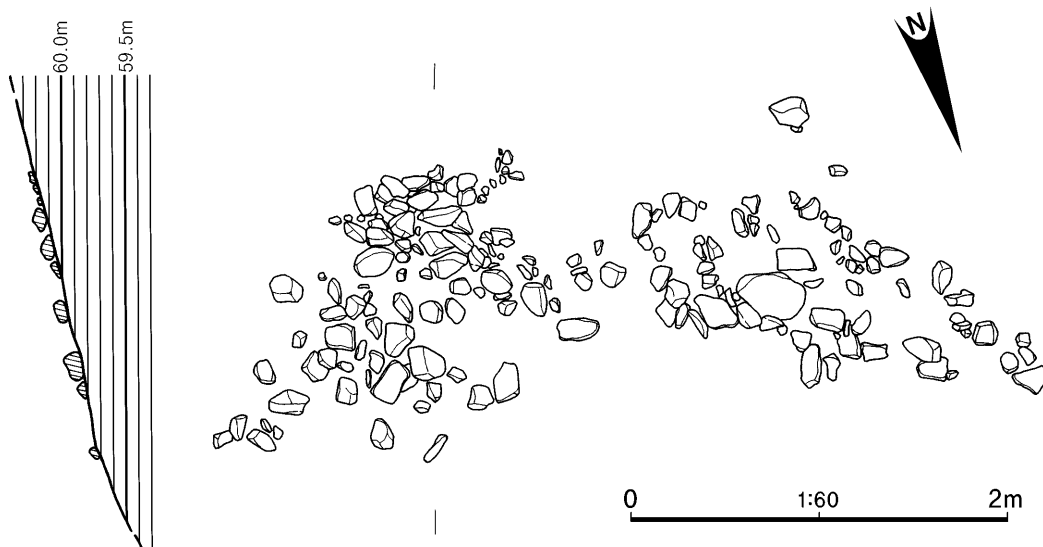
圖面 23. 1호 석열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20-19	45-18	수습	대부장경호	19.8	13.8	11.9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1/3, 대각 일부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흑갈색. 구경부 내면, 동상위 외면 표면박리 극심. 구경부 파상문 시문. 동하위 평행타날. 대각부 횡장방향 투창 4개 배치. 동최대경 :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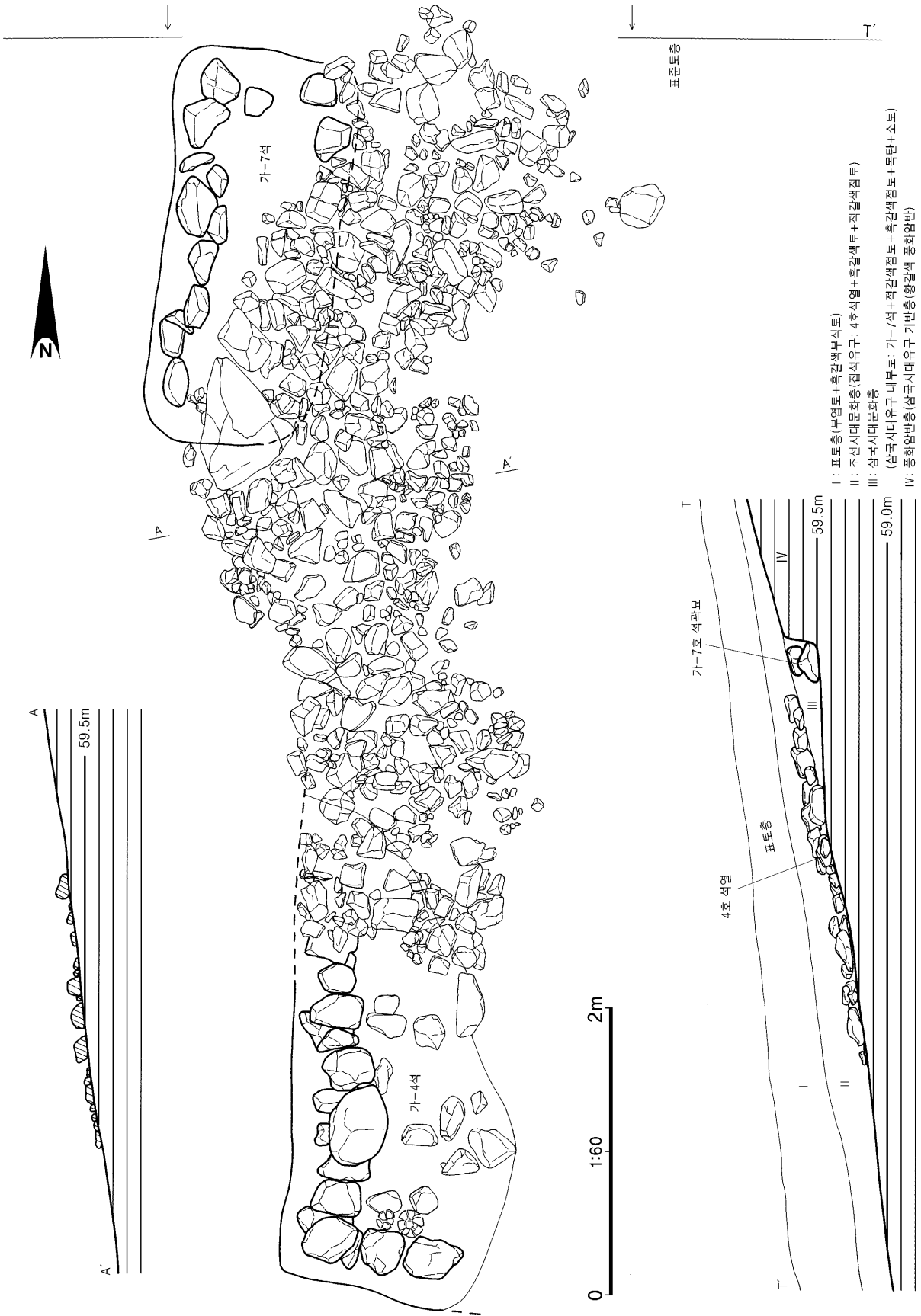


圖面 24. 2호 석열



圖面 25. 3호 석열

圖面 26. 4호 석열



3. '나·다' 지구

1) 삼국시대 유구

(1) 나-1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27, 도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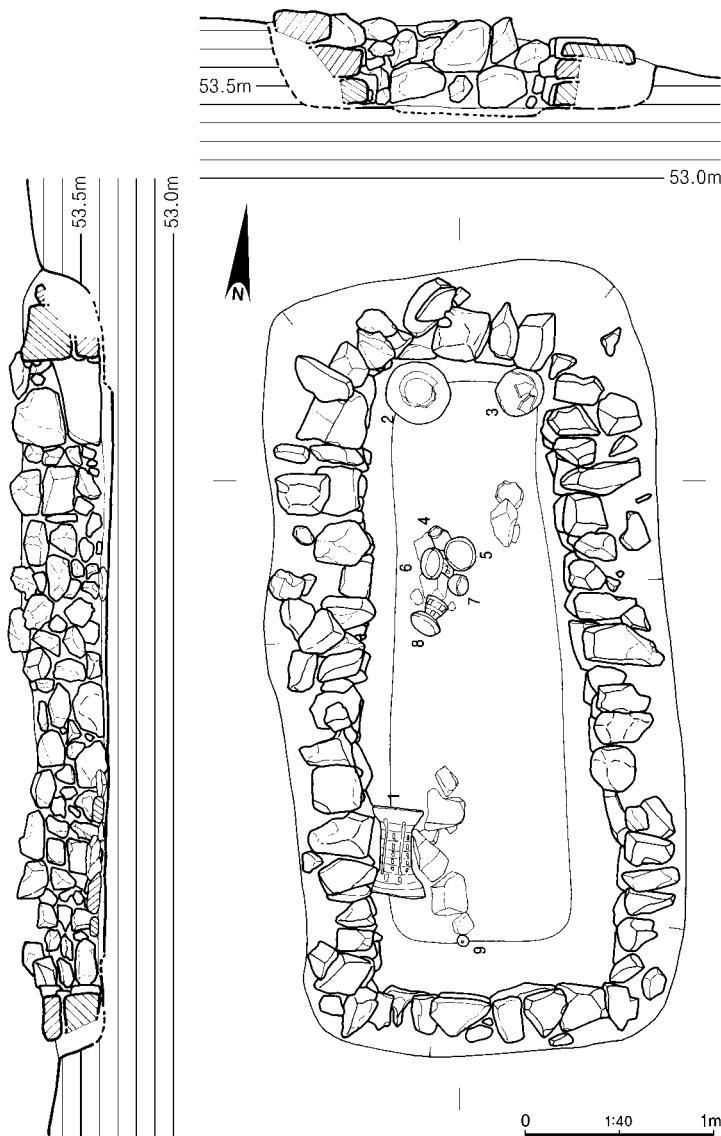
유구는 해발 53~53.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N5°W이며,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동쪽으로 3, 4호 석곽묘와 서쪽으로 1·2호 목곽묘가 인접해 있다.

벽석은 장·단벽 2~3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모두 가로쌓기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20cm, 너비 220cm, 잔존깊이 5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380cm, 너비 95cm, 깊이 4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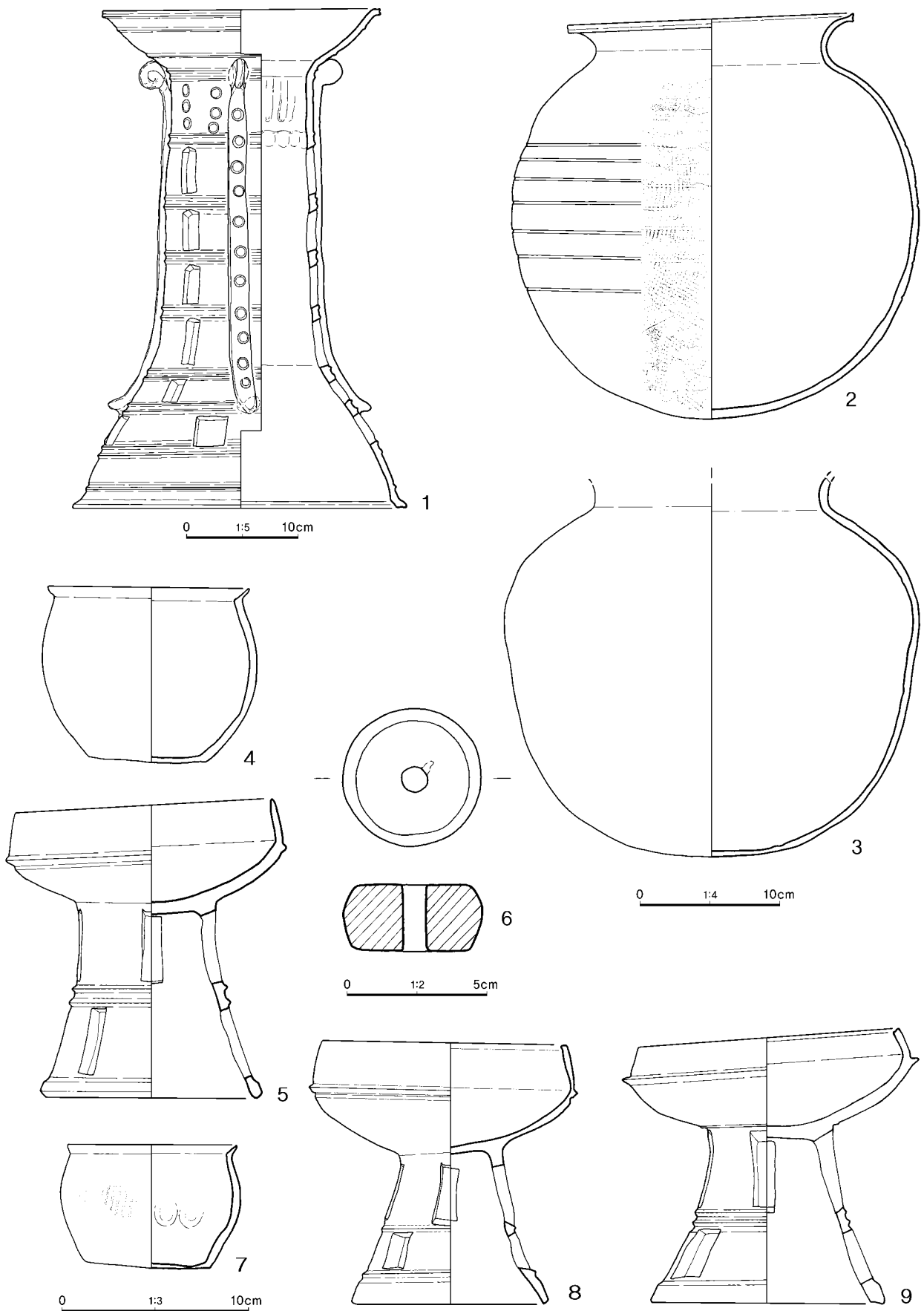
목곽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석곽의 바닥면을 장방형으로 4~5cm 가량 굴착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석곽내에 안치된 목곽과 관련된 흔적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석곽 내부에서 확인된 활석들은 장축방향 2m 길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목곽의 안치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물은 북장벽에 연하여 호류가 부장되었으면 목곽내부에서 확인된 유물들은 대부분 목곽상부에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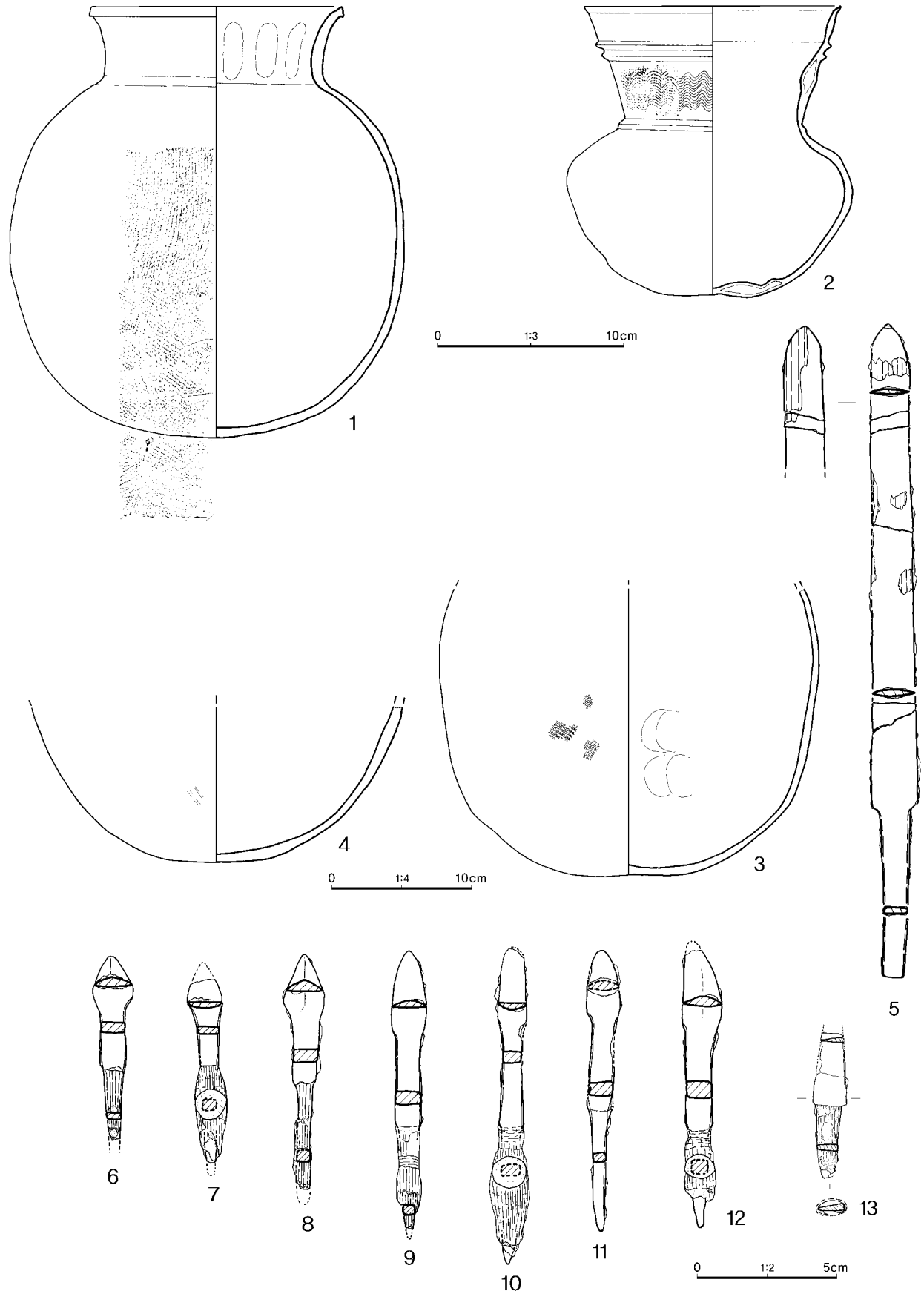
유물은 통형기대 1점, 연질용 2점, 단경호 2점, 고배 3점, 방추차 1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단경호 2점, 장경호 1점이 수습되었다. 통형기대는 서쪽 장벽과 평행하게 놓인 채로 출토되었다.



圖面 27. 나-1호 석곽묘



圖面 28. 나-1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面 29. 나-1·2호 석곽묘 출토유물(나-1호:1~3, 나-2호:4~13)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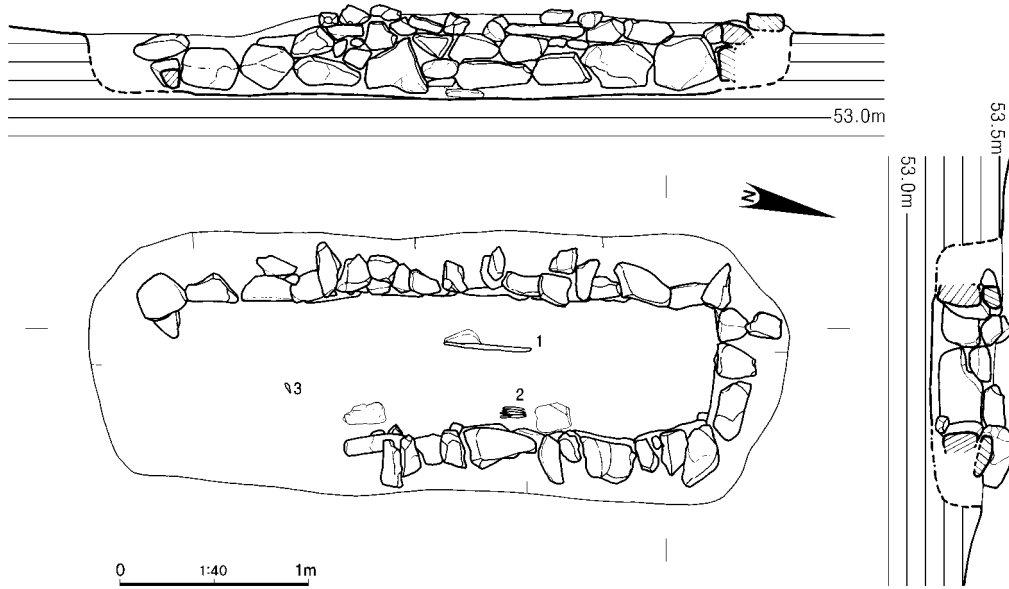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28-1	45-19	1	통형기대	45.0	24.6	29.8	도질소성, 소성양호, 수부 1/3 결실. 봉상돌대 꺾수상 장식 2개 탈락,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표면박리 심함. 수부는 2조의 돌대로 3단 구획. 봉상돌대 5개 배치. 신부에 봉상돌대를 세로로 부착. 돌대 위에 원문 11~13개씩 일렬 시문. 신부 5단 구성. 1단 원문 3단 시문. 2단부터 5단까지는 장방형 투창 5개 일렬 투공. 대각부 3단 구획. 1단 방형 투창 5개, 2단 1단보다 큰 방형 투창 6개 상호교호 배치
28-2	46-1	2	단경호	29.1	20.5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2/3 결실,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회황색, 속심 회색, 표면박리 극심. 구연단 凹狀. 동상부 회전물손질로 평행타날 삭제. 동체부 나선형 7조 침선 시문. 동최대경 : 29.2
28-3	46-2	3					연질소성, 소성불량, 전체 2/3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외면 황갈색, 내면·속심, 회황색, 회전물손질 정면, 표면박리 극심. 동최대경 : 29.8
28-5	46-4	5	고배	16.2	13.7	11.3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엷은 회청색(회색), 배신부 중앙 2조 돌대, 장방형 투창 4개 상호교호, 회전물손질 정면
28-8	46-7	6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상단 세장방형 투창, 하단 장방형 투창 각각 4개씩 상호 교호
28-9	46-8	8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상단 세장방형 투창, 하단 장방형 투창 각각 4개씩 상호교호
28-4	46-3	4	연질용	9.5	10.8	11.5	연질소성, 소성보통, 전체 1/3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외면 흑갈색, 내면·속심, 회황색, 표면박리 극심. 구연단 내면은 凹狀
28-7	46-6	7					연질소성, 소성불량, 석영 장식 다량 혼입. 외면 엷은 흑갈색, 내면과 저부 황갈색, 회전물손질 정면, 기면 표면박리. 동최대경 : 9.9
28-6	46-5	9	방추차	4.9	2.4		토제, 완형, 소성양호, 운모 장식 혼입, 암갈색
29-1	46-9	도	단경호	23.2	13.5		도질소성, 소성양호, 석영 장식 운모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구경부 아래부터 동중위까지 승문타날 후, 동상위 회전물손질로 타날흔적 지움. 동하위 불규칙한 타날흔, 동최대경 : 21.3
29-3	47-2	도					도질소성, 소성양호, 전체의 3/4 파손, 장식 약간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동체부 외면에 미세한 사격자 타날흔, 내면 박자흔, 동최대경 : (27.2)
29-2	47-1	도	장경호	15.7	13.9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경부 2/3, 동체부 1/3 파손,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기면에 기포 형성. 구경부 상단 2조 돌대, 돌대 아래 12지구 파상문 시문. 동최대경 : 15.4

(2) 나-2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30, 도판 11-1~4)

유구는 해발 53.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5°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동쪽으로 7호 목곽묘가 위치하며, 경사면을 따라 남단벽과 동장벽이 유실되었다. 석곽의 최하단석은 세로쌓기 하였으며 잔존하는 2·3단은 1단 보다는 작은 할석으로 가로쌓기 하였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370cm, 너비 140cm, 깊이 3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85cm, 너비 65cm, 깊이 40cm이다. 석곽 내부에서 희미하게 수혈흔이 확인되는데 1호 석곽묘와 마찬가지로 목관과 관련된 흔적으로 판단된다.



圖面 30. 나-2호 석곽묘

유물은 석곽의 중간부분에서 철검 1점과 철촉머더기, 도자 1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연결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나.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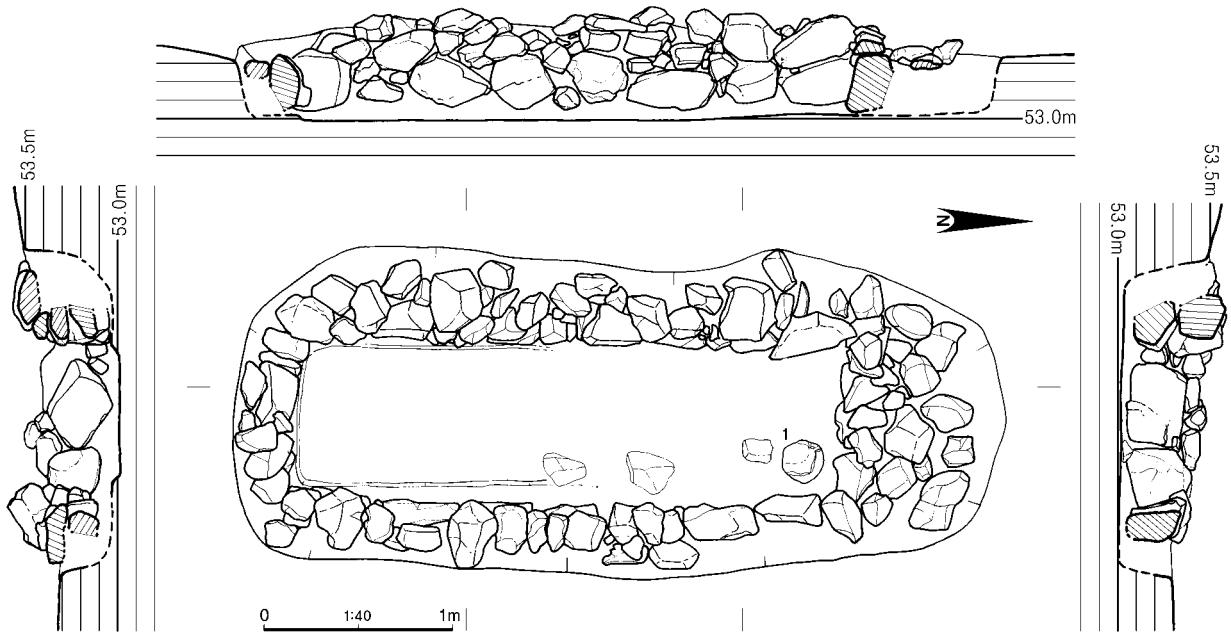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29-5	47-4	1	철검	46.3	3.4		완형. 검신에 목질흔. 검신단면 볼록렌즈형. 柄部단면 세장방형. 검신길이 : 34.3cm.
29-6	47-5	2	철촉	(6.4)	1.4	0.4	경부 일부 결실. 경부 목질흔 부착. 사두형, 축신단면 편볼록렌즈형
29-7	47-6			(6.4)	1.3	0.2	축신 일부 결실. 경부 백화수피흔 잔존. 사두형. 축신단면형태 편볼록렌즈형
29-8	47-7			(8.2)	1.5	0.4	사두형, 축신단면형태. 편볼록렌즈형. 경부단면 말각장방형. 경부 목질흔 잔존
29-9	47-8			(9.9)	1.3	0.3	완형. 축신평면형태 유엽형. 축신단면형태 편볼록렌즈형. 경부단면 말각장방형. 경부에 목질흔 잔존
29-10	47-9			(11.2)	1.0	0.3	축신 일부 결실. 유엽형. 축신단면형태 편볼록렌즈형. 경부단면 말각장방형. 경부에 백화수피흔
29-11	47-10			(9.8)	0.9	0.3	완형. 유엽형. 축신단면형태 편볼록렌즈형. 경부단면 말각장방형
29-12	47-11			(9.9)	1.4	0.4	완형. 유엽형. 축신단면형태 편볼록렌즈형. 경부단면 말각장방형. 백화수피흔 잔존
29-13	47-12			3	도자	(7.9)	1.1

도면 29-4(도판 47-3)는 동체부와 저부만 잔존하는 연결 호로 인다. 소성은 보통이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내면 회황색, 속심 일부 회흑색으로 표면에 흑반이 일부 형성되어 있다. 조사 과정에 수습된것이다.

(3) 나-3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31, 도판 11-5~8)

해발 53~53.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S 정북방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



圖面 31. 나-3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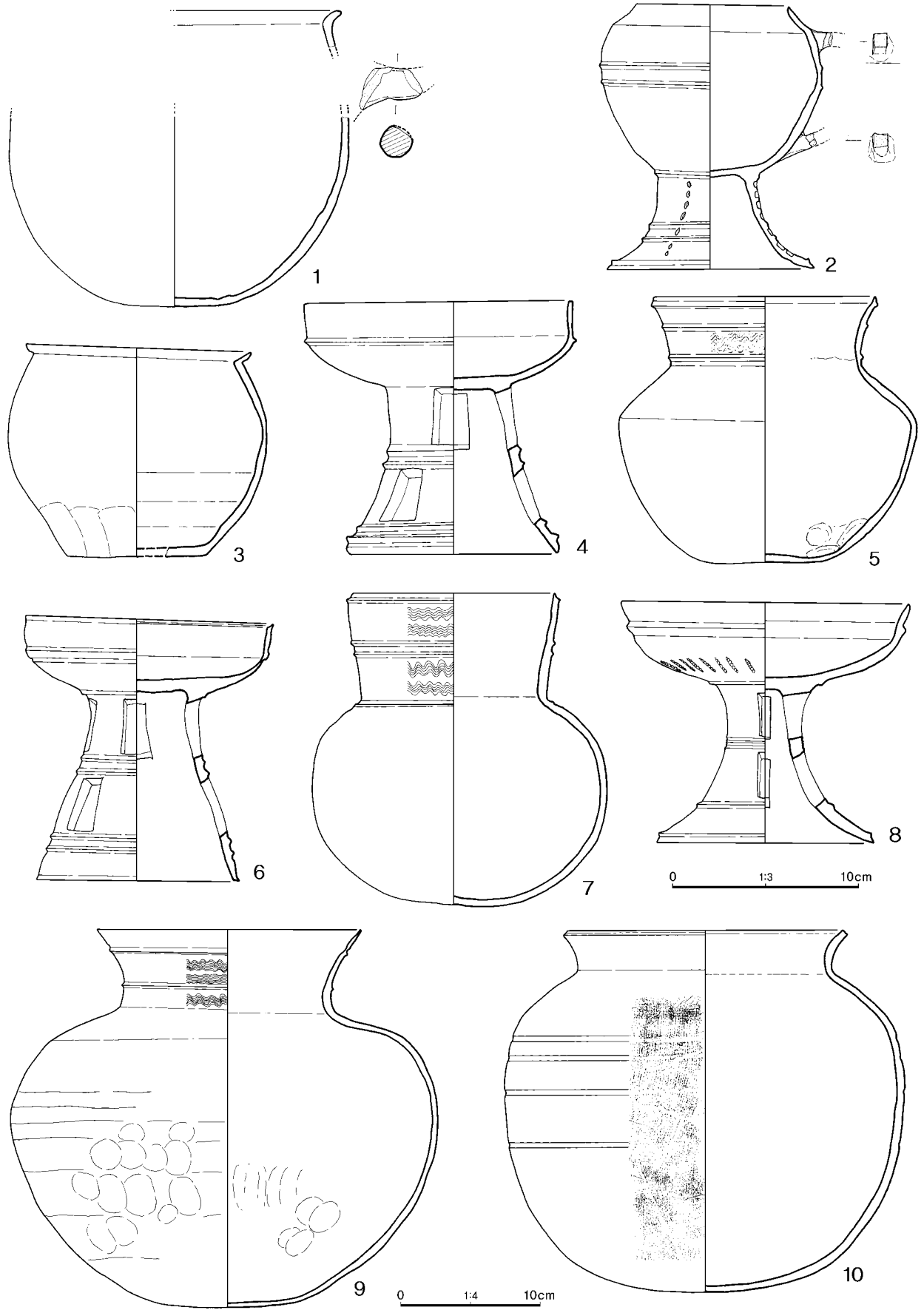
조되었다. 북쪽으로 3호 석곽묘와 7호 목곽묘가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1·4호 석곽묘가 입지해 있다.

벽석은 장·단벽 2~3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최하단석은 세로쌓기 하였고, 2·3단은 1단보다 크기가 작은 할석으로 가로쌓기 하였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410cm, 너비 165cm, 잔존깊이 3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85cm, 너비 85cm, 깊이 55cm이다. 석곽의 중하단부에서 벽석과 맞대어 목곽의 바닥흔이 일부 확인되는데 유구의 바닥은 석곽의 바닥보다 낮게 패여 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묘곽내 상면을 정지하고 목곽을 편평하게 놓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굴착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북단벽 쪽에서 연질호 1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대부호 1점, 장경호 1점, 연질용 1점, 고배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32-1	47-13	1	연질호	(10.2)			연질소성, 소성불량, 저부 일부 잔존,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황색(회자색), 저부 외면 흑반
32-2	47-14	수습	대부호	14.4	8.2	11.2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일부 파손, 파수 결실, 대각부 표면바리 극심, 장식 소량 혼입, 내 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회전물 손질 정면, 파수 단면 방형, 대각부 마름모꼴 7단으로 짚은 문양을 4열로 배치, 대부분 반관통이지만, 5단과 6단 일부는 관통된 것도 있음
32-3	47-15	수습	연질용	11.5	12.2	14.1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1/3, 저부 일부 결실, 장식 혼입, 외면 황갈색(회자색), 내면, 회황색, 속심은 회흑색, 저부 외면 중방향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바다과 동저부 접합부위 깎기후 회전물손질
32-4	48-1	수습	고배	13.9	14.5	11.1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일부 결실, 대각부 1/4 결실, 장식 혼입, 내 외면, 속심 회청색, 배신내면 자연유 산화박리, 대각부 상하단 세장방형 투창 4개 상하교호
32-5	48-2	수습	장경호	14.4	(11.9)		도질소성, 소성양호, 경부 2/3, 저부 일부결실, 동체, 저부 외면 암회청색, 정치소성, 견부 자연유 산화박리, 장식 소량 혼입, 회전물손질 정면, 경부 2조 돌대 시문, 그 사이 5치구 파상문 시문 동최대경 : 16.1



圖面 32. 나-3·4호 석곽묘 출토유물(나-3호:1~5, 나-4호: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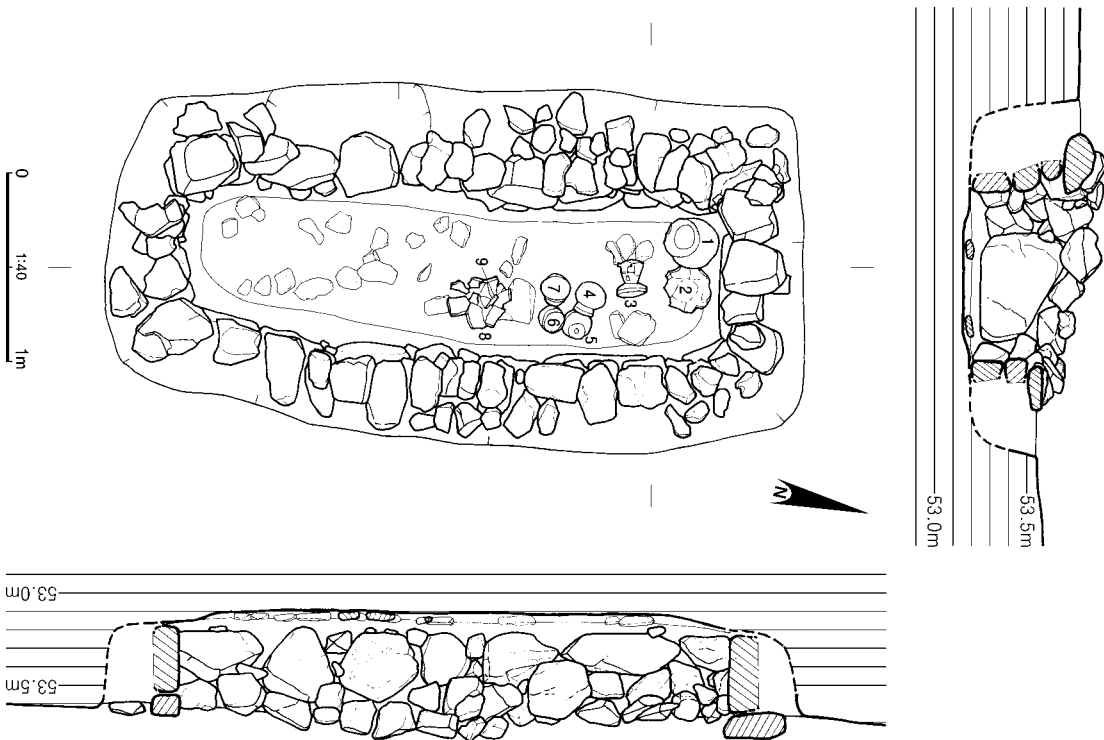
(4) 나-4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33, 도판 12)

유구는 해발 53~53.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3°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서쪽으로 1호 석곽묘와 인접해 있으며, 북쪽으로 3호 석곽묘가 입지해 있다.

벽석은 장·단벽 2~3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최하단석은 세로쌓기 하였고, 2·3단은 1단보다 크기가 작은 할석으로 가로쌓기 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70cm, 너비 185cm, 잔존깊이 5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85cm, 너비 85cm, 깊이 55cm이다. 북단벽 쪽으로 부장공간을 만들고 아래로 5~10cm 내외의 희미한 굴착흔이 벽석을 따라 확인된다. 석곽 내부에서는 편평한 작은 할석들이 부분적으로 깔려져 있어 목곽의 안치를 위한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북동쪽으로 치우쳐 확인되며 연질용 2점, 장경호 2점, 고배 3점, 호 1점, 도자 1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대부장경호 1점이 수습되었다.



圖面 33. 나-4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32-6	48-3	3	고배	14.3	13.4	11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소량 혼입, 내 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부 상단 세장방향 투창, 하단 장방향 투창 각각 4개 상하교호
32-8	48-5	5		13.1	15.4	11.7	도질소성, 소성불량, 대각단 일부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 외면 속심 모두 옅은 회청색, 배신부 하단 7치구의 유충문 시문, 대각부 상단, 하단 세장방향 투창 3개 상하일렬 배치
35-2	48-9	7		13.6	14.9	11.1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소량 혼입, 내 외면 짙은 회청색, 배신부 하단 7치구 유충문 시문, 대각부 상단, 하단 세장방향 투창 3개 상하일렬 배치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32-7	48-4	4	장경호	17.0	10.9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경부 내면과 동상위 표면박리. 장식 소량 혼입. 구경부 2조 돌대 시문. 돌대 상하에 파상문 시문. 동최대경 : 16.0
32-9	48-6	1		27.3	(19)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경부 2/3결실. 장식 소량 혼입. 내 외면 암회청색. 속심 암자색. 구경부 2조 돌대로 3단 구획. 돌대사이 파상문 시문. 회전물손질 정면. 내면 내박자흔. 동최대경 : 30.8
35-5	49-2	10	대부 장경호	(26.7)	15.5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 외면 회청색. 속심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구경부 2조 돌대. 구경부 10치구 파상문 시문. 구경부와 동체부 돌대로 구분. 동체부 돌대와 파상문 시문. 대각부 장방형 투창 5개 배치. 동최대경 : 24.6
32-10	48-7	2	호	(26.1)	(19.8)		도질소성. 소성불량. 전체 1/2 결실. 장식 다량 혼입. 내 외면 회갈색. 속심, 적갈색. 표면박리 극심. 동체부 승문타날후 4조 침선 시문. 동최대경 : (28.7)
35-1	48-8	6	연질용	7.9	10.3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일부 결실. 석영 장식 혼입. 외면 짙은 황갈색. 내면 엷은 황갈색. 속심 흑갈색. 저부 횡방향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동최대경 : 10.7
35-3	48-10	8	내만구연호	(18.7)	(12.7)	8.5	연질소성. 소성불량. 석영 장식 혼입. 내 외면 속심 회황색. 외면 일부 흑반. 평행타날흔
35-4	49-1	9	도자	(12.8)			철제. 선단부와 병부 일부 결실. 인부단면 이등변삼각형. 인부폭 1.8cm, 인부두께 0.2cm, 병부길이 4cm, 병부폭 0.8cm, 병부두께:0.3cm

(5) 나-5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34, 도판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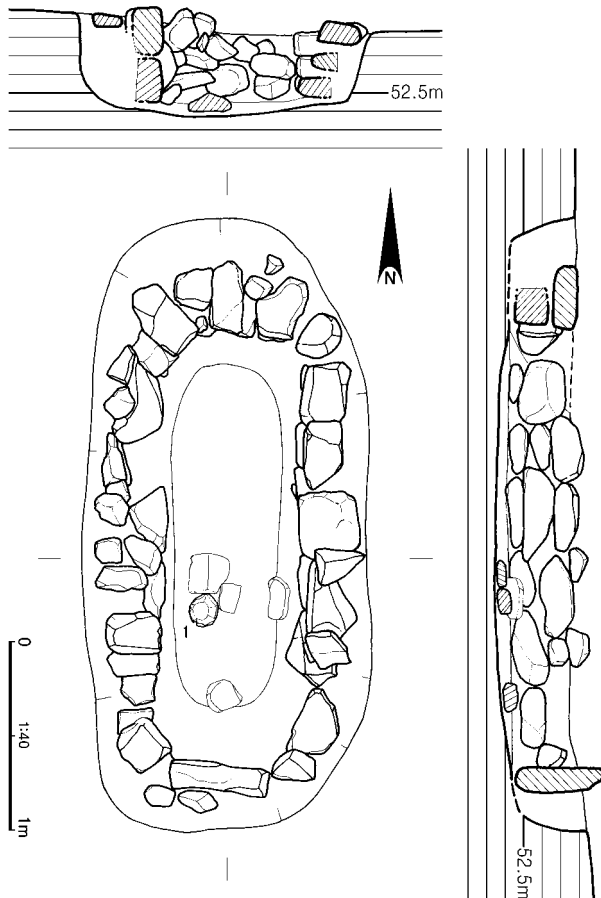
유구는 해발 52.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S 정북방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벽석은 장·단벽 2~3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북단벽과 서장벽은 가로쌓기 하였으며 남단벽과 동장벽은 세로쌓기와 가로쌓기를 병행하여 축조 하였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325cm, 너비 150cm, 잔존 깊이 4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30cm, 너비 70cm, 깊이 50cm이다. 석곽 안쪽으로 4~5cm 내외의 얇은 수혈이 벽석을 따라 확인된다. 목곽이 놓인 위치와 관련된 흔적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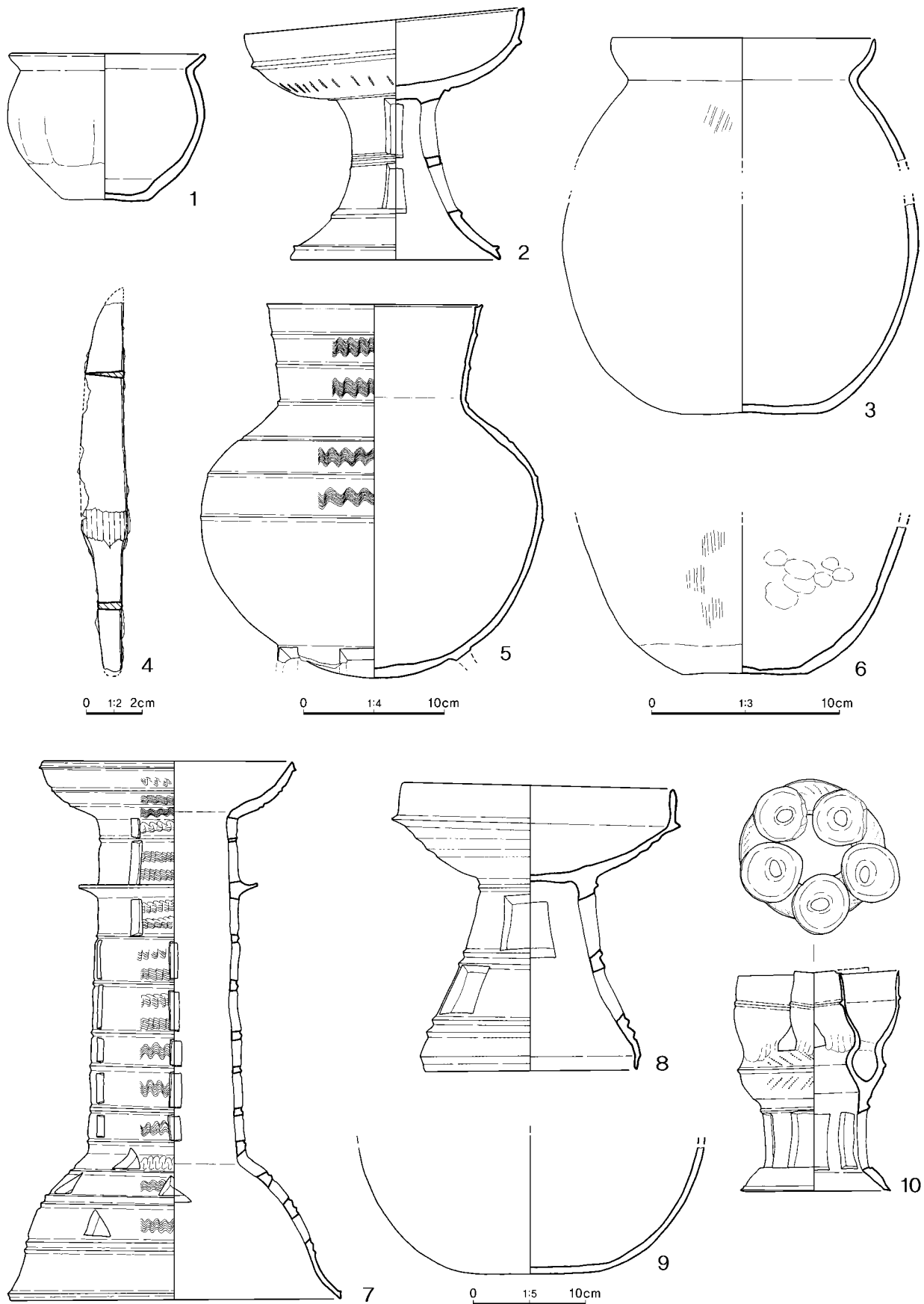
유물은 연질용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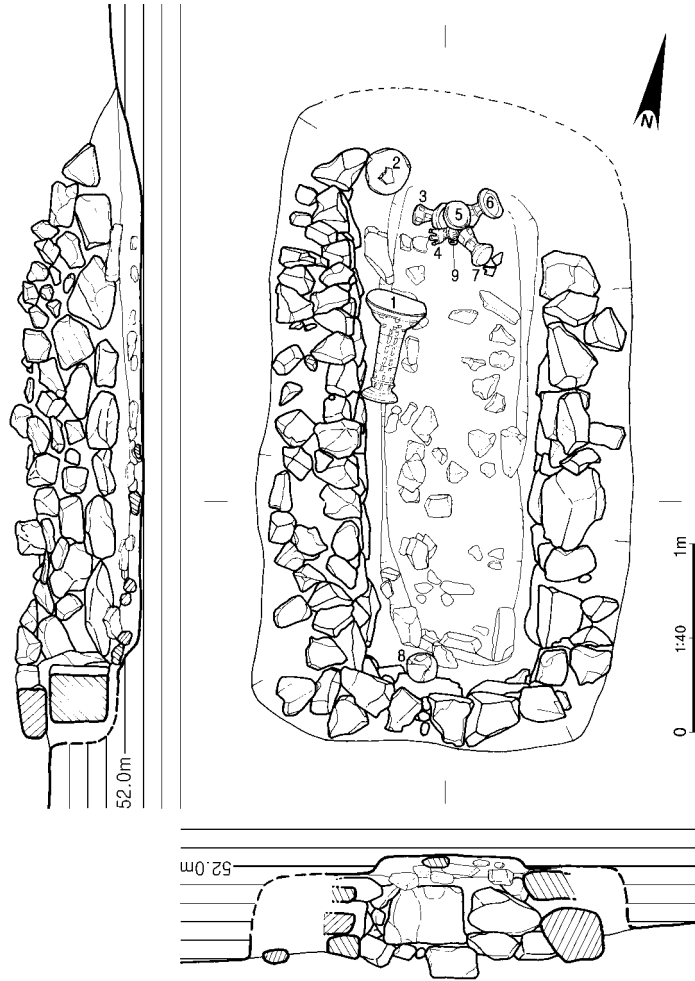
35-6(도판 49-3)은 연질용으로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에 석영, 장석이 혼입되었다. 내·외면, 속심 모두 적갈색이다. 저부에는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동체부 외면은 평행타날하였다. 잔존 높이 8.0cm, 저경은 6.6cm이다.



圖面 34. 나-5호 석곽묘



圖面 35. 나-4·5·6호 석곽묘 출토유물(나-4호:1~5, 나-5호:6, 나-6호:7~10)



圖面 36. 나-6호 석곽묘

유물은 통형기대 1점이 서장벽의 북쪽에 넘어진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연질호 1점, 등잔형토기 1점, 고배 4점, 연질발 1점, 방추차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35-7	49-4	1	통형기대	47.9	22.0	29.4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소량 혼입, 내면 암회청색, 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소질 정면, 수부는 외면 2조 돌대와 5치구 파상문 시문, 신부에 돌대를 돌려 8단 구분, 신부 8단 세장방향 투창 6개씩 배치, 전체적으로 파상문 시문, 대각부는 5조 돌대, 3단에 걸쳐 삼각형 투공 6개를 상호교호
35-10	49-7	4	등잔형 토기	11.9	8.1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 암자색, 배신부 상단 원형 管部 5개의 소형 잔 배치, 소형잔의 저부와 管部를 관통, 단면원형의 管部 8치구의 점열문 시문, 대각부 장방향 투창 5개 배치
37-1	49-8	5	고배	14.1	12.9	10.9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혼입, 내·외면 질은 회흑색, 배신부 외면에는 깎기흔, 자연유 부착, 대각부 상단 세장방향, 하단 장방향 투창 각 3개씩 상하일렬 배치
37-2	49-9	6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배신부 내·외면 회백색, 대각부 내·외면 회청색, 속심 회청색, 대각부 상단과 하단 장방향 투창 상호교호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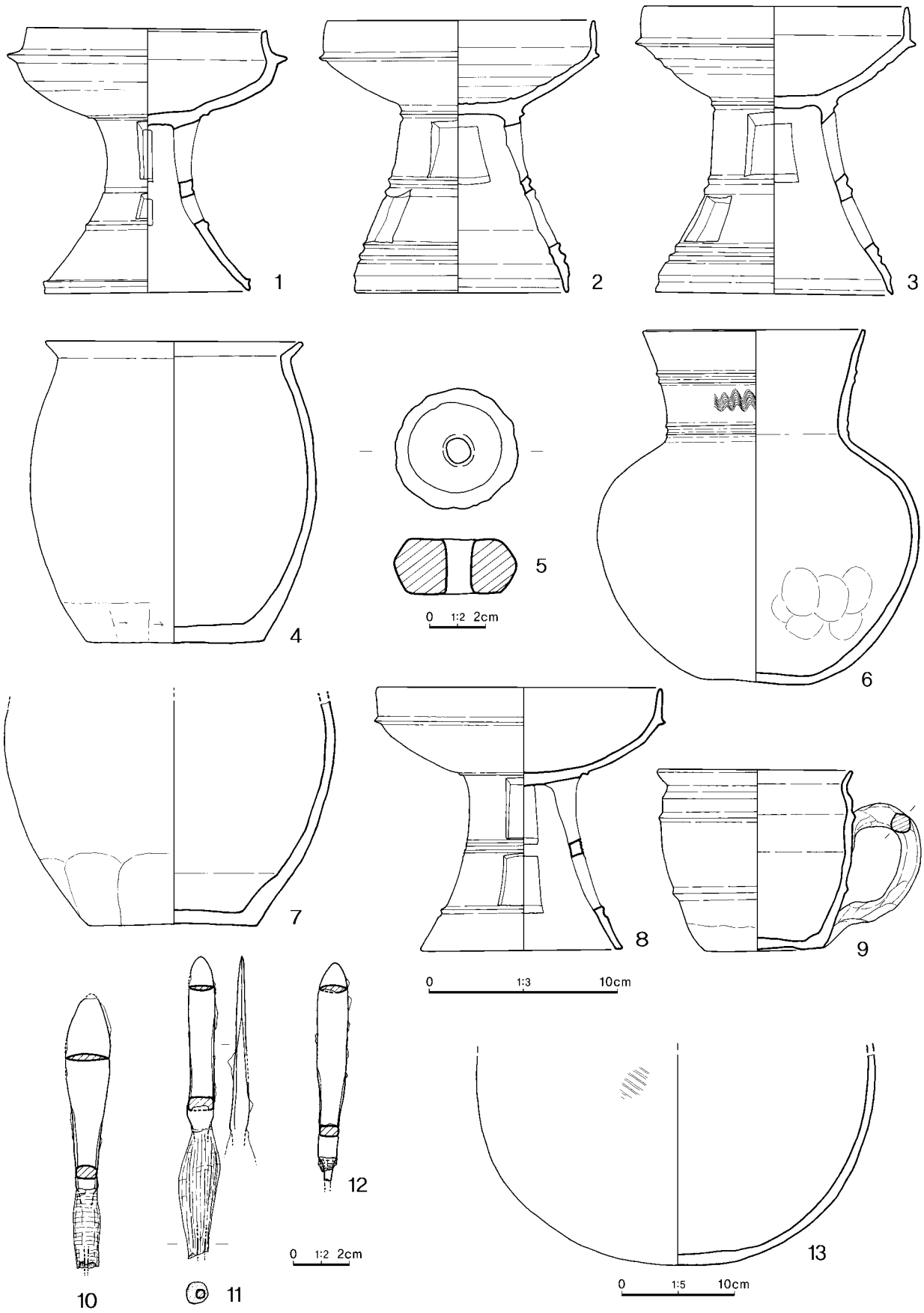
(6) 나-6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36, 도판 13-5~8)

유구는 해발 52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0°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유구 주변으로 5·7·9·13호 석곽묘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면을 따라 북단벽과 동장벽 일부가 유실되었다.

벽석은 장·단벽 4~5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단벽은 상대적으로 큰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할석의 크기가 작아진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345cm, 너비 195cm, 잔존깊이 5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80cm, 너비 80cm, 깊이 60cm이다.

석곽의 안쪽으로 5~10cm 내외의 수혈이 벽석을 따라 확인된다. 작은 할석이 상면에 부분적으로 깔려져 있으며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북단벽 쪽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곽의 바닥면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圖面 37. 나-6·7호 석곽묘 출토유물(나-6호:1~5, 나-7호:6~11)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37-3	49-10	7	고배	15.3	14.2	12.7	위 유물과 거의 동일
35-8	49-5	3		15.5	14.4	11.3	위 유물과 거의 동일
35-9	49-6	2	연질호편	(11.4)		12.6	연질소성. 소성불량. 저부 일부 잔존.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황갈색, 외면 일부 흑반
37-4	49-11	8	연질발	16.2	13.6		연질소성. 소성불량.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회황색. 바닥과 속심 흑색. 표면바리 극심. 동최대경 : 15.3
37-5	50-1	9	방추차	4.8			토제. 소성보통. 운모 장식 혼입. 색조 황갈색. 두께: 2.0

(7) 나-7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38, 도판 1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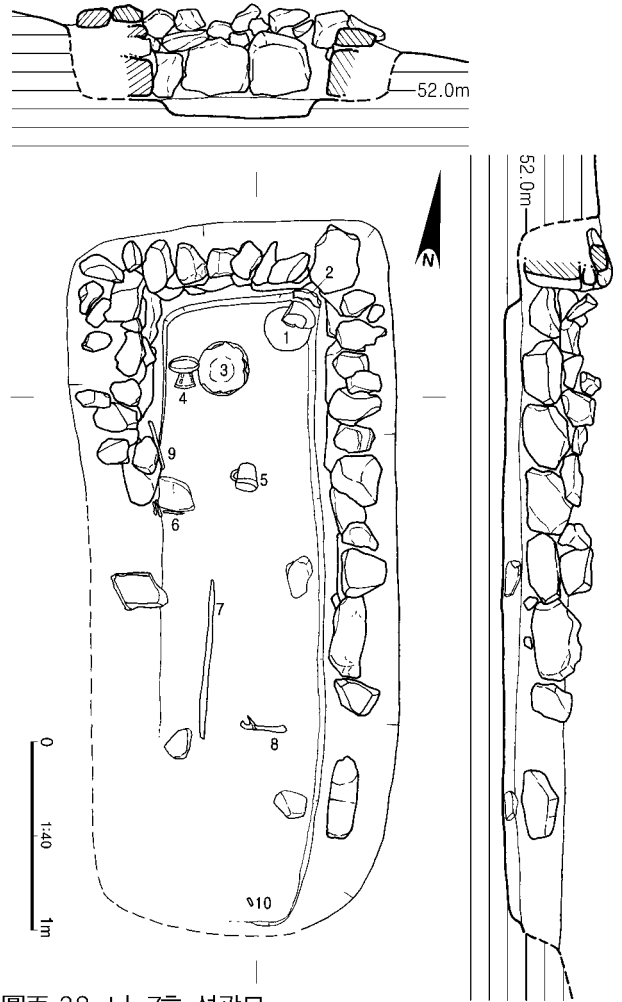
유구는 해발 52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8°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동쪽으로 8호 석곽묘와 인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3·4호 목곽묘가 조성되어 있다. 남쪽 장·단벽 일부가 유실되었다.

잔존하는 벽석은 1~2단 정도만 남아 있으며, 1단은 세로쌓기 하였고 상단은 보다 작은 할석으로 가로쌓기 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75cm, 너비 170cm, 잔존깊이 4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335cm, 너비 100cm, 깊이 50cm이다. 석곽 내부에 5~10cm 내외의 수혈이 벽석을 따라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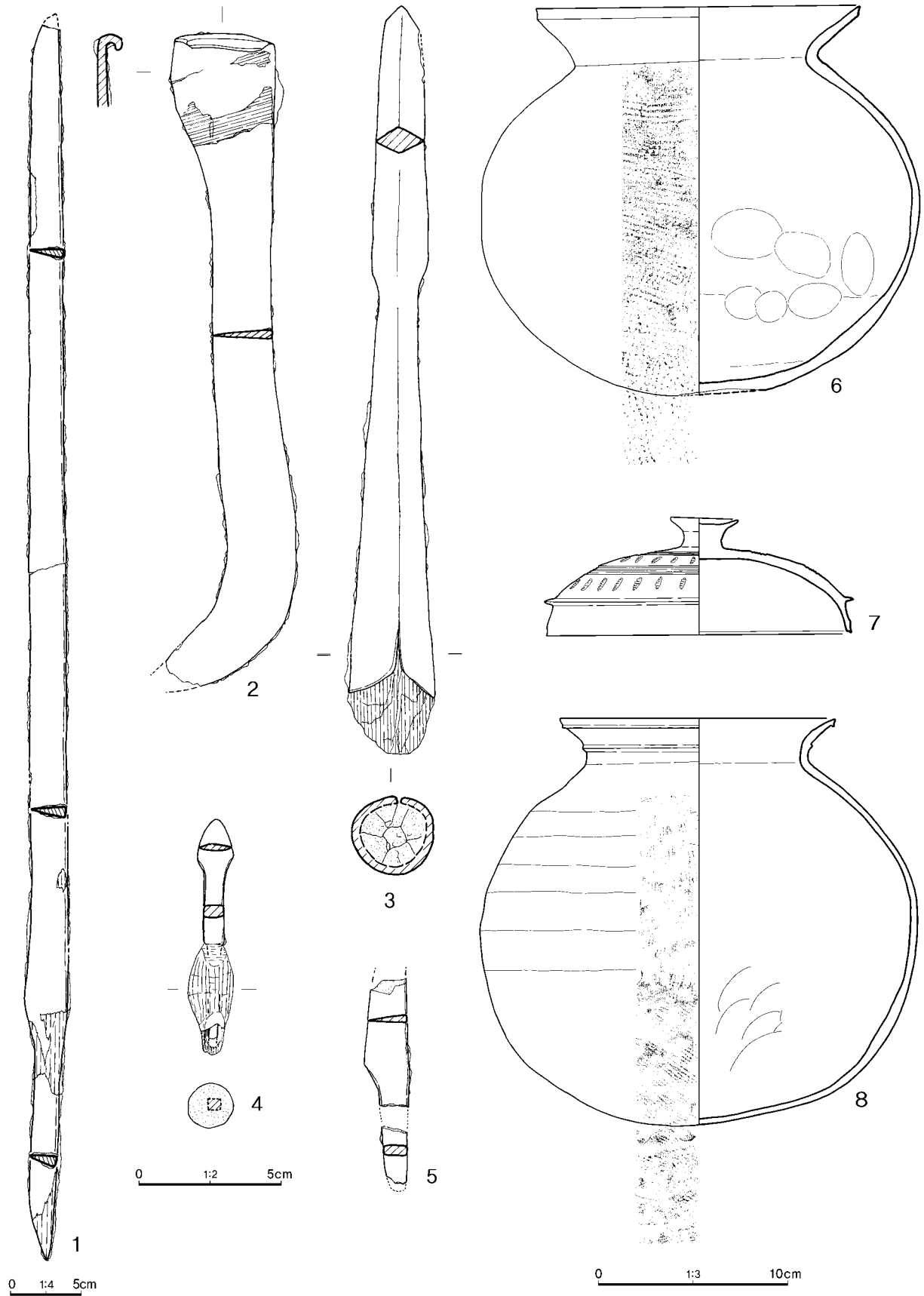
유물은 장경호 1점, 연질발 1점, 단경호 1점, 고배 1점, 철촉 4점, 대도 1점, 철검 1점, 철보 1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도자 1점, 단경호 2점, 개 1점, 고배 3점, 연질용 1점 등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37-6	50-2	1	장경호	25.4	25.3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경부 1/4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옅은 자색. 견부 자연유 산화박리. 구경부 4조 돌대와 파상문 시문. 동최대경 : 23.0
37-7	50-3	2	연질발	12.0			연질소성. 소성보통. 동체 일부와 저부 잔존. 석영 장식 혼입. 외면 황갈색. 내면과 속심 회갈색. 저부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동최대경 : (17.7)
37-13	50-9	3	단경호	(15.1)			연질소성. 소성불량. 동체 하부 잔존. 석영 장식 다량 혼입. 외면 황갈색. 내면 짙은 흑갈색. 속심은 갈색. 표면바리 극심. 동체부 평행타날. 동최대경 : 28.4
37-8	50-4	4	고배	14.0	15.1	10.9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경부 일부 결실. 장식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암자색. 속심 자색. 대각부는 2단으로 장방형 투창 3개를 일렬 배치.



圖面 38. 나-7호 석곽묘



圖面 39. 나-7호 석곽묘 출토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37-9	50-5	5	컵형토기	9.7	10.2	6.5	도질소성 소성양호,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표면박리 극심,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42-2	51-4	수습	고배	16.0	13.8	10.2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과와 대각단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흑색, 대각부 상하단 세장방형 투창 3개씩 상하교호
42-3	51-5	수습		13.3	14.2	10.1	도질소성 소성양호, 배신 1/3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엷은 회청색, 대각부 상하단 세장방형 투창 각각 3개씩 상하일렬 배치
42-4	51-6	수습		14.9	13.4	9.8	도질소성, 소실양호, 대각단 일부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대각부 상하단 세장방형 투창 각각 3개씩 상하교호 배
39-6	50-15	수습	단경호	20.8	17.2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일부와 동체 1/3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암자색, 격자타날 후 동상위 회전물손질 정면동, 동최대경 : (23,3)
39-8	51-2	수습		28.8	19.0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1/2, 동체 일부 결실,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짙은 회백색, 속심 회청색, 중방향 평행타날 후 동하위 횡방향 평행타날, 동상위 회전물손질 타날흔 지움, 동최대경 : 30.5
39-7	51-1	수습	개	6.3	16.2		도질소성 소성양호, 꼭지와 구연 일부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엷은 회흑색, 속심 회색, 외면 5치구 침선과 6치구 유층문 시문
42-1	51-3	수습	연질용	9.2	10.4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과 배신부 1/4 결실, 장식 다량혼입 내면, 속심 회갈색, 외면 엷은 흑갈색, 표면박리 극심, 내박자흔 일부 관찰, 동최대경 :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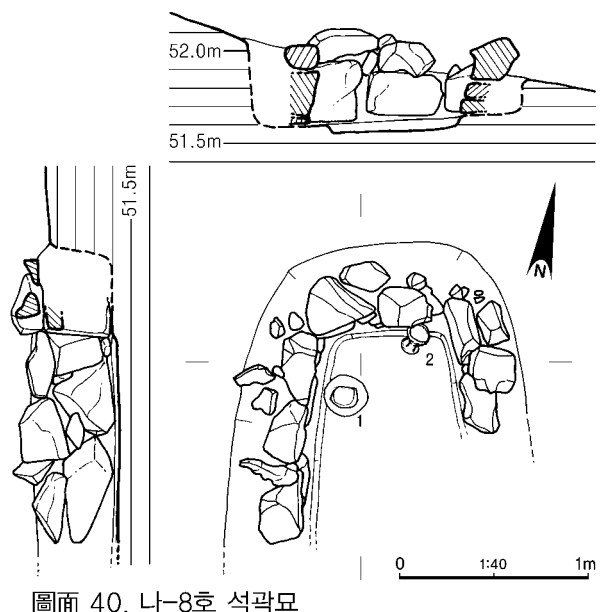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37-10	50-6	6	철촉	(9.6)	1.6	0.2	촉두 일부 결실, 頸部 일부 결실, 경부 백화수피흔
37-11	50-7			(10.6)	1.0	0.15	경부 일부 결실, 경부에 백화수피흔이 잔존
37-12	50-8			(7.7)	1.0	0.2	경부 일부 결실, 경부에 백화수피흔이 잔존
39-1	50-10	7	대도	(87.5)	2.7		刀身과 병부에 칼집과 손잡이의 목질이 부착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모두 이등변삼각형, 신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39-2	50-11	8	철검	23.0	3.5	0.3	완형에 가깝지만 선단부가 결실됨, 기부단면은 ㄷ자형, 신부 단면은 이등변삼각형, 일부에서 마모흔이 확인된다. 인부와 목질흔의 각이 103~106° 사이로 왼손잡이용 손잡이로 추정된다
39-3	50-12	9	철모	24.5	3.0	0.9	완형이지만 일부가 결실됨, 단면은 마름모꼴이며 공부는 연미형, 공부에는 목병이 끼워져 있음
39-4	50-13	10	철촉	8.3	1.2	0.3	완형, 경부에 백화수피흔이 확인, 신부단면은 볼록렌즈형
39-5	50-14	도	도자	(7.1)	3.5	0.25	신부, 병부 결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

(8) 나-8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40, 도판 14-5~7)

유구는 해발 51.5~52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0°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서쪽으로 7호 석곽묘와 인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장·단벽이 절반 이상 유실 되었다.

벽석은 장·단벽 2~3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비슷한 크기의 할석들을 사용하여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묘방의 규모는 잔존길이 160cm, 너비 145cm, 잔존깊이 4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105cm, 너비 75cm, 깊이 55cm이다. 석곽내부에 4~5cm 내외의 얇은 수혈이 벽석을 따라 확인된다.



圖面 40. 나-8호 석곽묘

유물은 장경호 1점, 고배 1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배 3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42-8	51-10	1	장경호	30.2	12.7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경 1/3 결실, 장식 운모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은 암자색, 경부 7치구 파상문 시문, 동체부 타날 회전물손질 정면, 동최대경 : 24.8
42-5	51-7	2	고배	13.3	14.6	10.9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 일부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상하단 각각 3개씩 일렬 배치
42-6	51-8	수습	고배	15.3	16.8	12.1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와 대각 일부 결실,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엷은 자색, 면은 도지상태에서 시계반대방향의 깎기가 이루어졌고 배신부 상하 유층문 시문,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을 상하단 각각 4개씩 일렬 배치.
42-7	51-9	수습		14.1	16.1	12.5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부 1/5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자색,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상하단 각각 3개씩 상하교호 배치
42-9	51-11	수습		14.6	15.8	11.7	도질소성, 소성불량, 대각부 1/4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엷은 회청색, 속심 짙은 회청색, 배신 하단 유층문 2열 배치,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상하단 각각 4개씩 일렬 배치

(9) 나-9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41, 도판 1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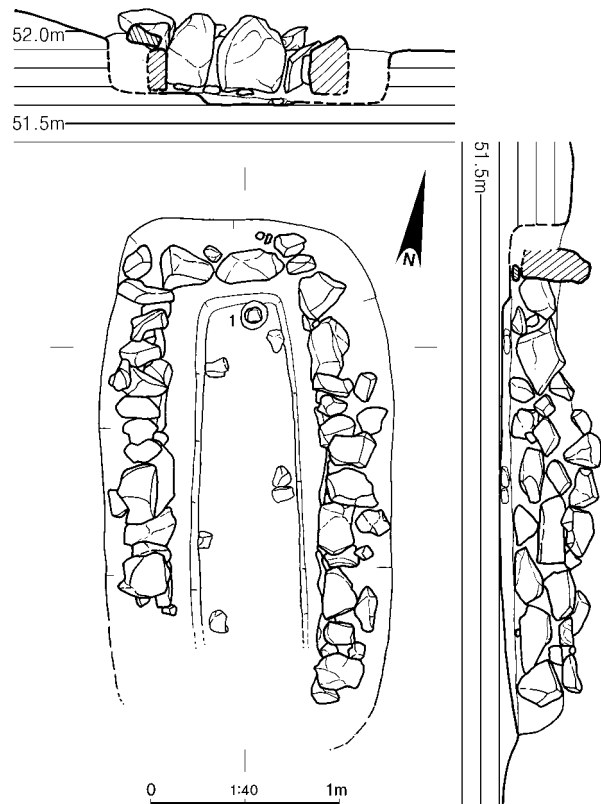
유구는 해발 51.5~52.0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0°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서쪽으로 6호 석곽묘와 인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16호 석곽묘가 위치해 있다. 남쪽 장벽 일부와 단벽이 유실되었다.

벽석은 장·단벽 2~3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1단은 대석으로 세로쌓기 하였고 상단은 작은 할석으로 가로쌓기하여 축조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추정길이 270cm, 너비 150cm, 잔존깊이 3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추정길이 215cm, 너비 75cm, 깊이 50cm이다. 석곽내부에 5~10cm 깊이의 수혈이 벽석을 따라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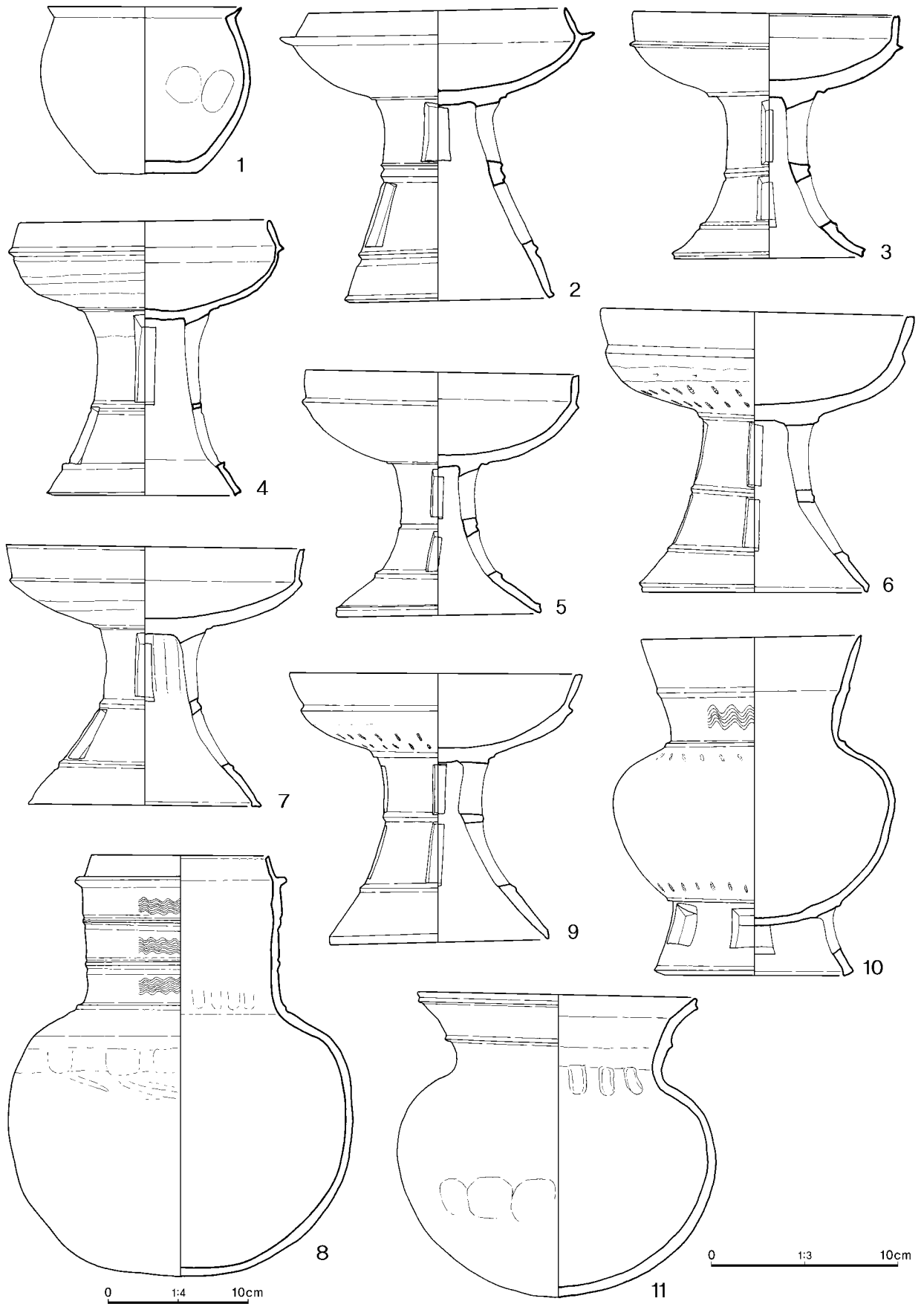
유물은 대부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도면 42-10(도판 52-1)은 도질제 대부장경호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구경부가 일부 파손되었다. 태토에는 장석이 일부 혼입되었다. 외면은 짙은 회흑색,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경부에 파상문이 시문되었고, 동체부에는 유층문이 시문되어 있다. 대각부에 6개의 장방향 투창이 뚫려 있다. 높이 18.4cm, 추정구경 11.8cm, 저경 9.5cm이다.



圖面 41. 나-9호 석곽묘



圖面 42. 나-7·8·9·10호 석곽묘 출토유물(나-7호:1~4, 나-8호:5~9, 나-9호:10, 나-10호: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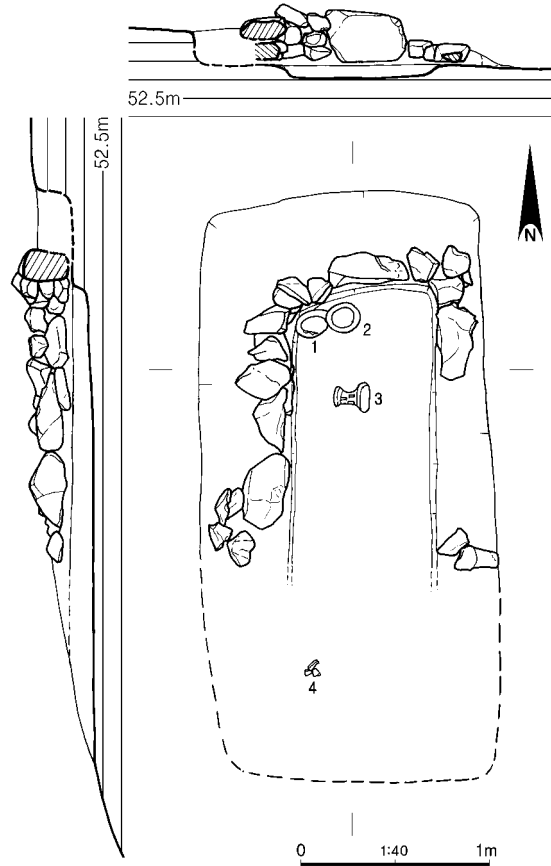
(10) 나-10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43, 도판 15-5~7)

유구는 해발 52.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S정북 방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쪽 장·단벽의 절반 가량이 유실되었다.

잔존하는 벽석은 북단벽 대석 1매가 세로쌓기 되어있고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추정길이 315cm, 너비 150cm, 잔존깊이 2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150cm, 너비 75cm, 깊이 35cm이다. 석곽과 맞대어 5~10cm 내외의 수혈이 벽석을 따라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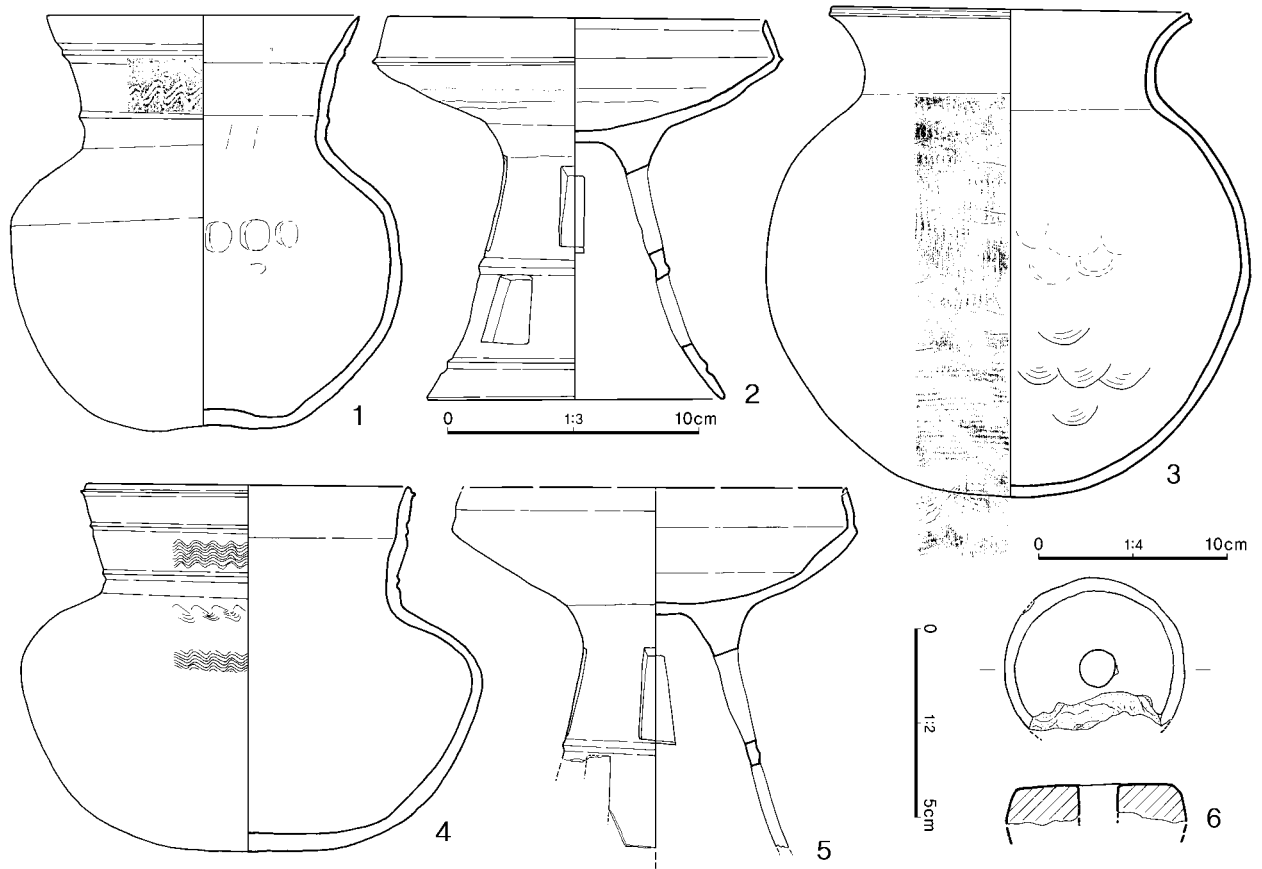
유물은 장경호 2점, 고배 1점이 출토되었으며 남쪽 상면에서 기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연결토기편이 출토되었으나 기형은 알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 방추차 1점, 장경호 1점, 단경호 1점, 고배 1점이 수습되었다.



圖面 43. 나-10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42-11	52-2	1	장경호	16.5	14.8	17.2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일부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동체부 외면 타날 후 회전물손질 정면
44-1	52-3	2		16.7	12.4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다량 혼입, 외면 짙은 회청색, 내면 엷은 회청색, 속심 자색, 구경부 5치구 파상문 시문, 자연유 부착, 일부 표면바리, 동최대경 : 15.6
44-2	52-4	3	고배	15.4	15.1	11.8	도질소성, 소성불량,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색, 속심 회백색, 대각부 상단 세장방형, 하단 장방형 투창 각각 4개를 상하교호 배치
실측 불가	52-11	4	연질용				연질소성, 소성불량, 장식 운모 혼입, 내 외면과 속심 적갈색, 파손극심, 도상복원 불가.
44-6	52-8	수습	방추차	4.8	1.0		소성양호, 암갈색, 속심 적갈색 2/3 결실, 장식 운모 혼입
44-4	52-6	수습	장경호	14.7	12.8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1/3 결실, 장식 다량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경부와 동체부 8치구 파상문 시문, 저부 회전목리 조정흔, 동최대경 : 18.4
44-3	52-5	수습	단경호	26.1	18.9	25.8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3 결실,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동체부 평행타날 상위는 회전물손질 정면
44-5	52-7	수습	고배	(13.0)	16.0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1/3, 대각 일부 결실, 석영 장식 운모 혼입, 배신부 내·외면 회백색, 대각부 내·외면 짙은 회백색, 속심은 엷은 회청색, 대각부 상하단 세장방형 투창 각각 4개씩 상하교호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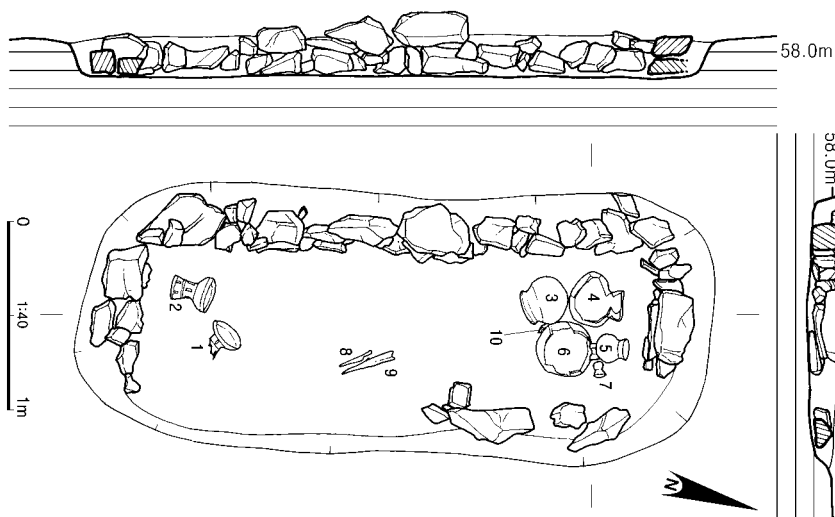


圖面 44. 나-10호 석곽묘 출토유물

(11) 나-11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45, 도판 1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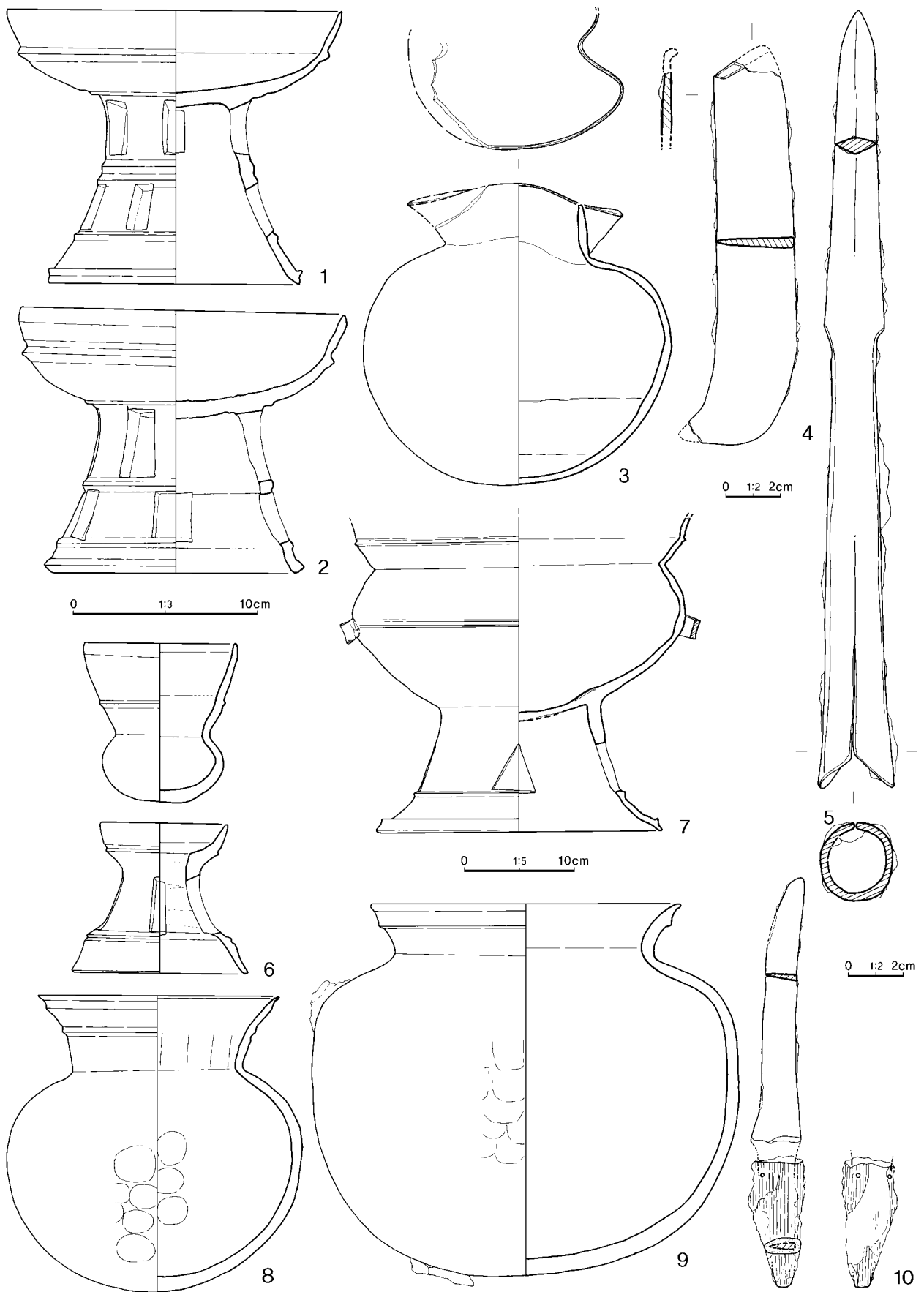
유구는 해발 58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7°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쪽으로 37호 석곽묘와 인접해 있으며, 동장벽 대부분이 사면을 따라 유실되었다.



圖面 45. 나-11호 석곽묘

벽석은 장·단벽 1~2단 정도만이 남겨져 있었으며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35cm, 너비 145cm, 잔존깊이 2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65cm, 추정너비 90cm, 깊이 25cm이다.

유물은 고배 2점, 단경호 3점, 노형기대 1점, 광구소호·소형기대 set, 도자 1점, 철모 1점, 철검 1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46. 나-11호 석곽묘 출토유물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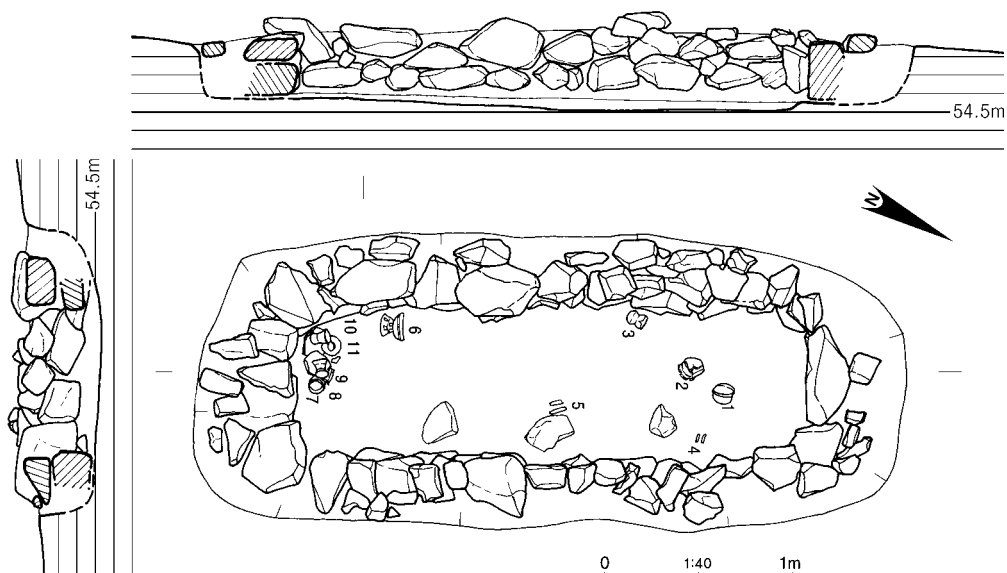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46-1	52-9	1	고배	15.0	18.3	(13.7)	도질소성. 소성보통. 대각부 하단 3/4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흑색, 속심 엷은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표면박리 극심. 대각부 장방형 투창 6개 상하교호 배치
46-2	52-10	2		14.5	17.6	13.2	위 유물과 유사
46-9	53-7	3	단경호	20.4	16.9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암자색, 속심 회청색, 자연유 부착. 동체부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 정면, 저부 도침흔 부착. 동최대경 : 23.4
46-3	53-1	4		27.3	(19.1)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2, 동체부 1/3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기면 일부 표면박리. 동최대경 : 27.9
46-8	53-6	5		16.3	13.1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일부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흑색, 속심, 저부일부 자색. 표면박리 심함. 동체부 타날 후 회전물손질 정면. 동최대경 : 16.2
46-7	53-5	6	파수부 노형기대	(29.1)	(25.2)	25.6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배신부 1/2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단면 장방형 파수 부착. 표면박리 극심. 대각부 삼각형 투창 4개 배치. 동최대경 : 30.1
46-6	53-4	7	광구소호	8.8	8.2	3.0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단 일부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회백색,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표면박리 극심
		소형기대	8.2	6.8	9.1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표면 일부 박리. 대각부 세장방형 투창 3개 배치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46-10	53-8	8	도자	15.8	1.2	0.25	철제, 병부, 신부 일부 결실. 병부 목질 부착. 신부 단면 이등변 삼각형.
46-5	53-3	9	철모	28.3	2.0	0.6	철제, 완형. 신부 단면 마름모꼴. 공부 연미형. 공부폭 2.6×2.8 두께 0.25
46-4	53-2	10	철검	(13.2)	2.8	0.35	철제, 신부 일부 결실. 신부단면 이등변삼각형

(12) 나-12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47, 도판 16-5/17-1~6)

유구는 해발 54.5~5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27°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



圖面 47. 나-12호 석곽묘

되었다. 동쪽으로 8호 목곽묘와 인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17호 석곽묘가 입지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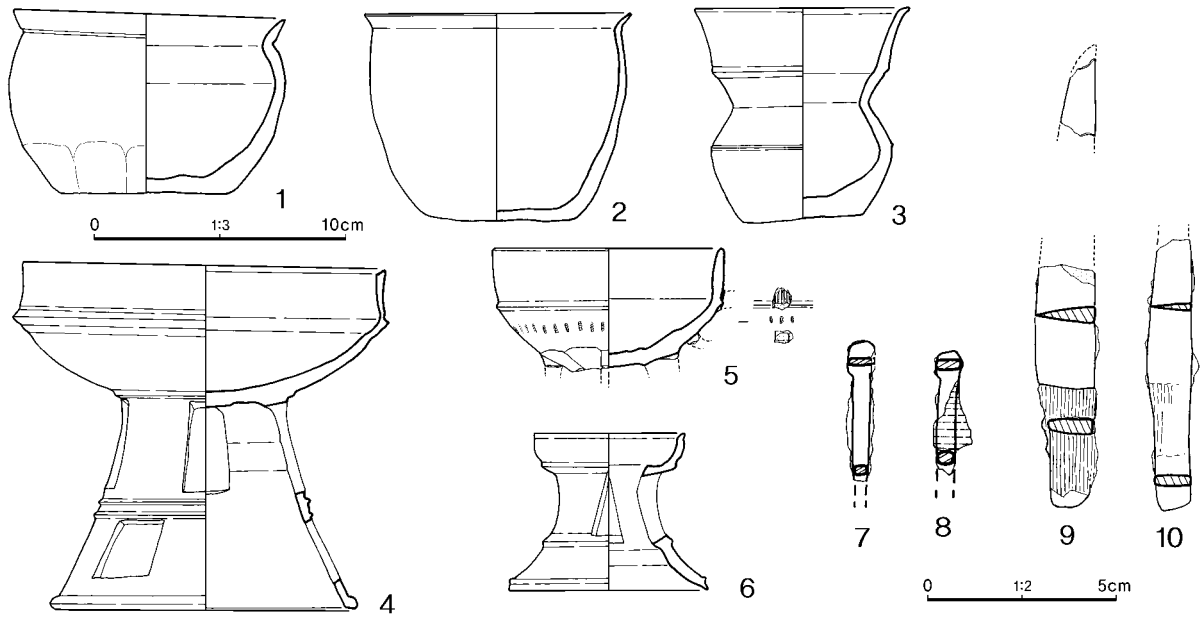
벽석은 2~3단 정도 남겨져 있으며 북단벽에는 1매의 대석이 세워져 있었다. 북단벽을 제외한 벽석은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75cm, 너비 150cm, 잔존깊이 3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70cm, 너비 70cm, 깊이 45cm이다. 유구의 바닥은 북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며 북단벽에는 벽석보다 4~5cm 가량 깊이 패인 상태였다.

유물은 연질옹 3점, 광구소호·소형기대 2set, 도자 2점, 고배 1점, 파수대부완 1점, 불명철기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48-4	54-2	6	고배	14.1	14.4	12.0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소량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상단 세장방형, 하단 장방형 투창 각각 4개씩 상하교호배치
48-3	54-1	3	광구소호	8.6	8.6	4.8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구연부 1/5 결실, 내·외면 회흑색(흑회청), 속심 황갈색, 자연유 부착, 회전물손질 정면, 표면박리 극심
51-2	54-10	10		7.0	6.6	3.8	도질소성, 소성양호, 운모 혼입, 외면 회청색, 내면 회색, 속심 암자색, 저부는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51-3	54-11	11	소형기대	7.0	6.9	9.2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청회색, 속심 암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삼각형 투창 3개 배치
48-6	54-4	8		6.3	6.0	8.0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수부 내면 표면박리 극심, 대각부 삼각형 투창 3개 배치
48-5	54-3	7	파수 대부완	(4.9)	9.1		도질소성, 소성양호, 파수 대각부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엷은 회청색, 배신부 내면은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고, 박리가 심하다. 배신부 1조 돌대와 4치구 유충문 시문, 대각부 투창 4개
48-1	53-9	1	연질옹	7.4	10.9		연질소성, 소성보통, 석영 장식 혼입, 표면박리 극심, 외면 황갈색, 내면, 저부 속심 흑갈색, 저부 깎기후 회전물손질 정면, 동최대경 : 11.1
48-2	53-10	2		8.3	(10.7)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결실, 동체부 1/4 결실, 석영 장식 혼입, 외면 명갈색, 전체적으로 표면박리 극심
51-1	54-9	9		16.5	15.8	17.1	연질소성, 소성보통, 구연와 동체부 1/4 결실, 석영 장식 혼입, 외면과 속심 황갈색, 내면 회황색, 회전물손질 정면, 표면박리 극심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길이	너비	두께	
48-7	54-5	4	철기	(3.7)	0.75	0.35	철제, 하단부 결실, 평면 방형, 단면은 장방형
48-8	54-6			(3.2)	0.7	0.45	위 유물과 동일, 목질 수착
48-9	54-7	5	도자	(6.4)	1.6	0.4	철제, 신부 일부 결실, 신부 단면 이등변삼각형 병부 목질혼
48-10	54-8			(7)	1.2	0.2	철제, 선단부 일부 결실, 병부 일부 목질혼 부착, 신부 단면 이등변삼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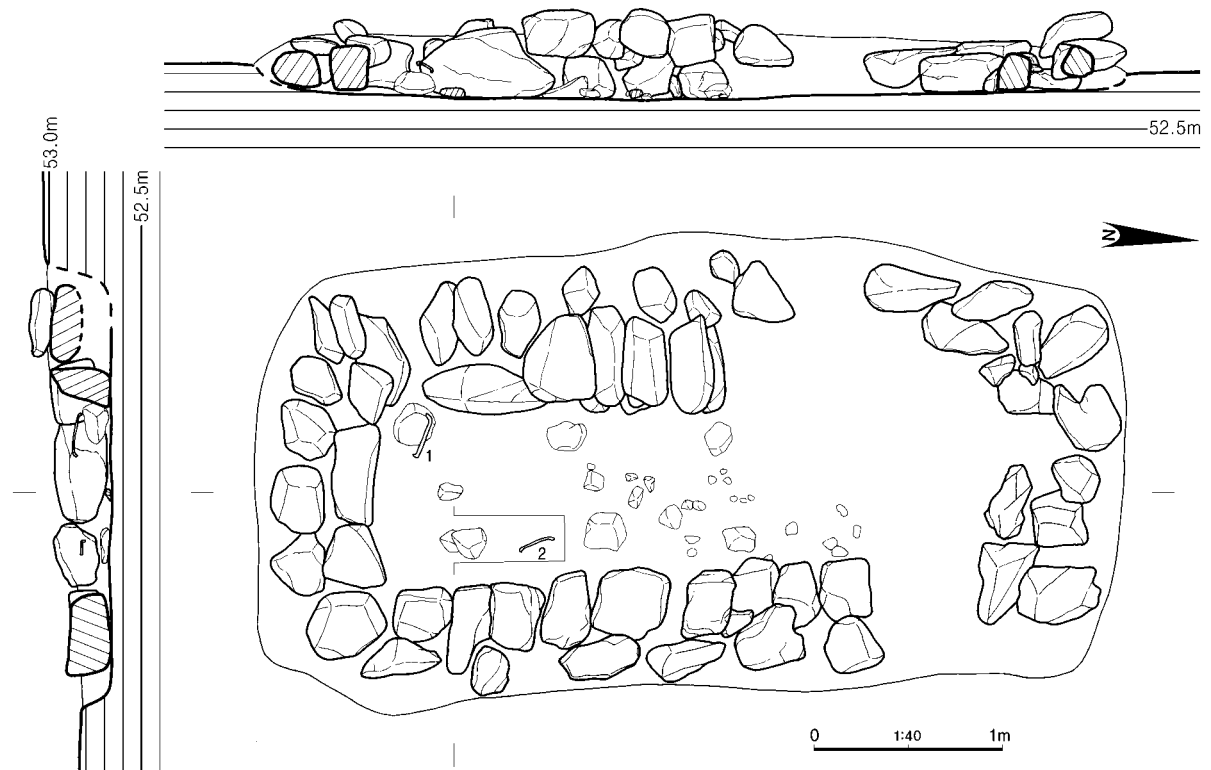


圖面 48. 나-12호 석곽묘 출토유물

(13) 나-13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49, 도판 17-7~9)

유구는 해발 53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3°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동북쪽으로 14호 석곽묘와 인접해 있다. 남쪽 장축 일부와 바닥면 과수원 경작과정에 파손 되었다. 유구는 전체적으로 도굴과 경작으로 인해 훼손이 심하다.



圖面 49. 나-13호 석곽묘

벽석은 장·단벽 1~2단 정도가 남아 있다. 주변 석곽묘에 비해 규모가 크며 큰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병행하여 축조하였다. 석곽과 묘광사이에는 비교적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뒷채움한 것이 확인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55cm, 너비 230cm, 잔존깊이 3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325cm, 너비 95cm, 깊이 50cm이다.

유물은 상면에서 20cm정도 뜯은 상태에서 꺾쇠 2점이 출토 되었다. 남서쪽에서 출토된 꺾쇠는 바다면에 놓인 할석 상부에서 출토되어 이들 바닥돌이 관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조사과정에서 도자 1점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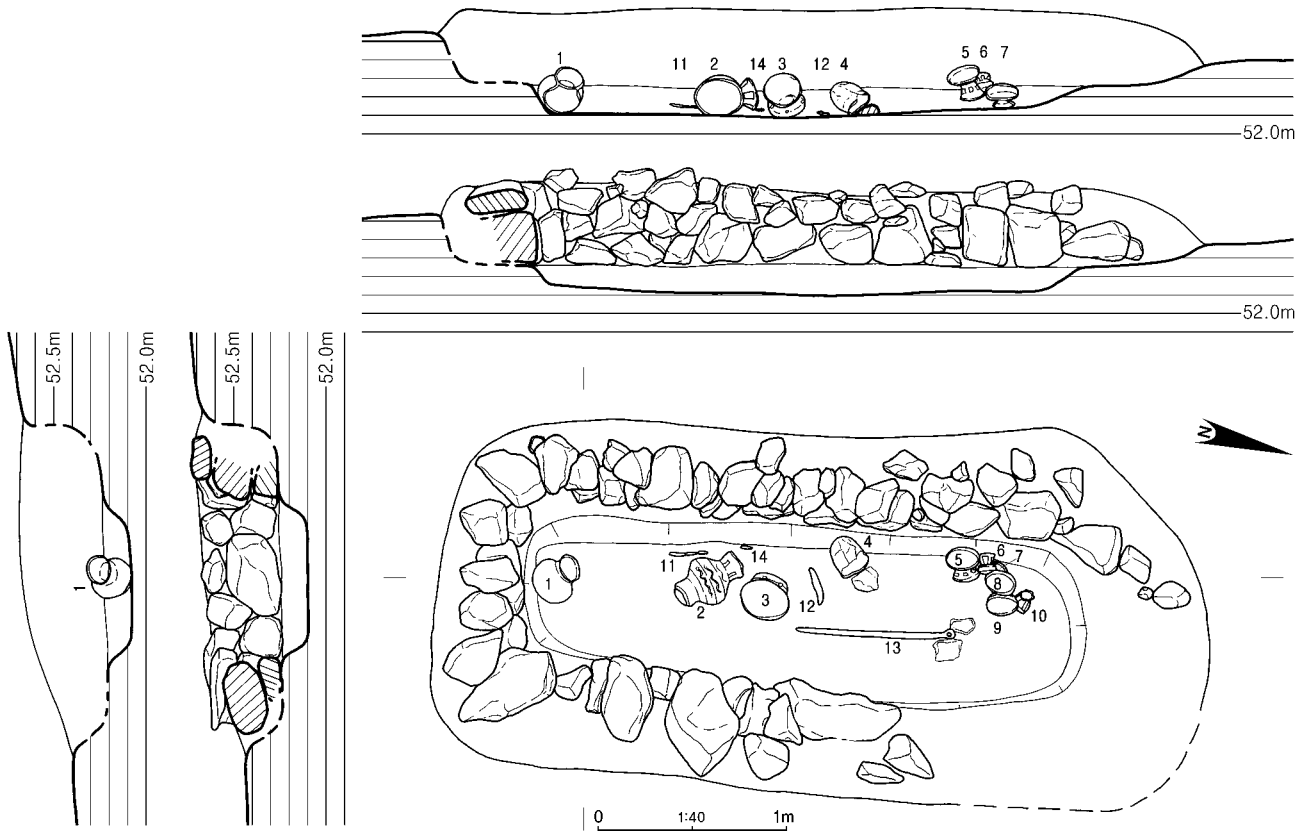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51-4	54-12	1	꺾쇠	(18.8)	1.1	0.45	철제, 일부 결실, 목질수착
51-5	54-13	2		(15.0)	1.25	0.6	철제, 일부 결실
51-6	54-14	도	도자	(7.3)	1.5		선단부, 병부 결실, 병부 목질흔, 신부단면 이등변삼각형

(14) 나-14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50, 도판 18)

유구는 해발 52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5°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쪽으로 13호 석곽묘와 인접해 있으며, 북쪽으로 19호 석곽묘가 조성되어 있다. 북단벽과 동장벽 일부가 유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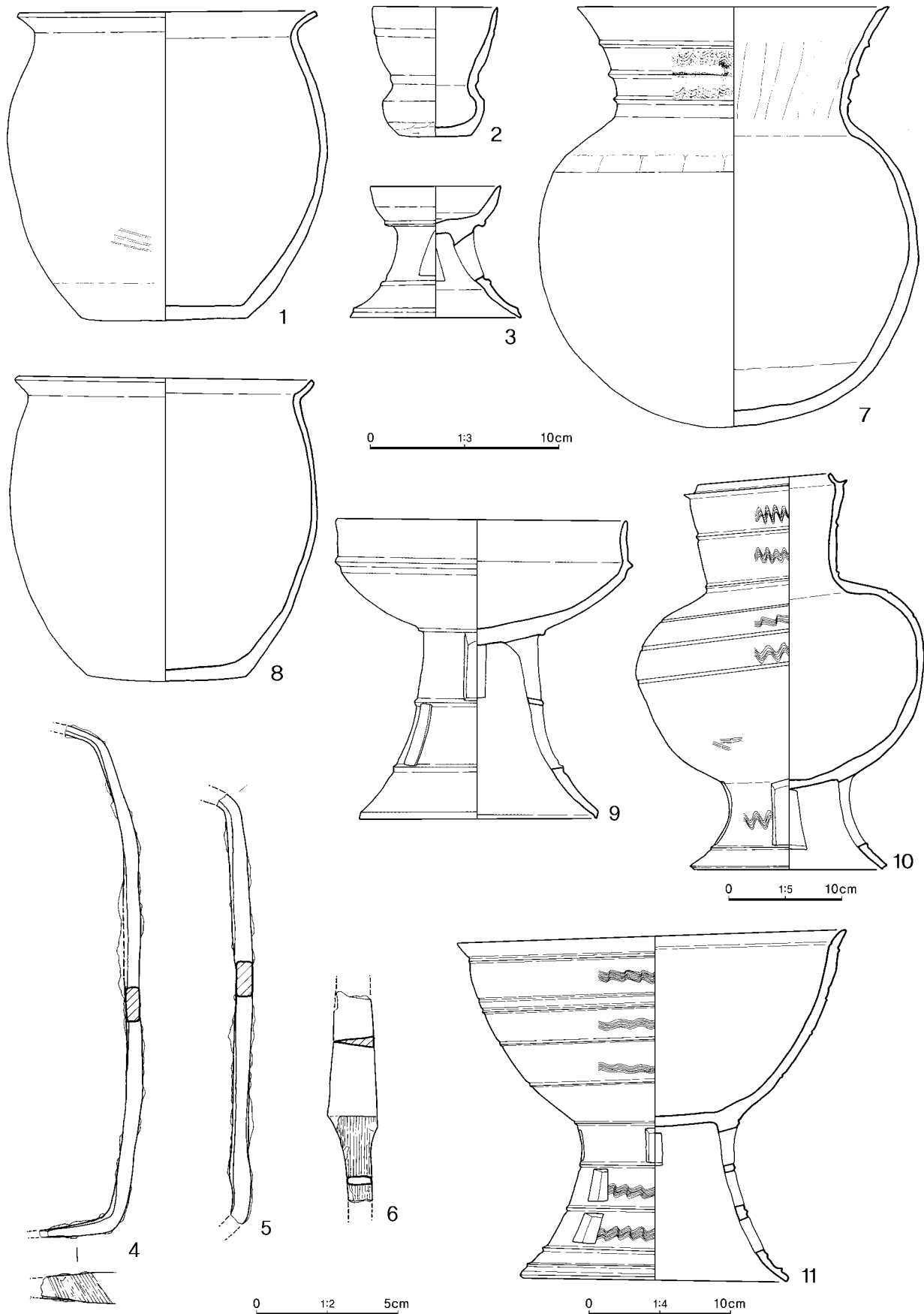
圖面 50. 나-14호 석곽묘

벽석은 장·단벽 2~3단 정도가 남겨져 있으며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00cm, 너비 185cm, 잔존깊이 5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300cm, 너비 80cm, 깊이 70cm이다. 석곽내부의 시상 바닥은 석곽의 최하단석보다 전체적으로 약 10~15cm 정도 깊이 파여져 있다. 수혈내 중간부분에서 북서단벽에 이르는 곳에서 출토된 유물(환두대도를 제외한 모든 유물)들은 바닥면에서 뜬 상태로 확인되었거나 뒤집어진 형태로 출토되어 석곽내 목곽의 상부에 부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두대도의 환두부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어 피장의 두향은 북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장경호 1점, 대부장경호 1점, 발형기대 1점, 연질옹 1점, 고배 5점, 파수대부완 1점, 철촉 8점, 철검 1점, 환두대도 1점, 컵형토기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51-9	54-17	5	고배	16.1	15.3	12.6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흑색. 속심 황갈색. 대각부 세장방형 투창 3개씩 상하교호 배치
53-1	55-2	6		9.7	11.1	7.9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배신 외면 4~6치구 파상문 부분적으로 시문. 대각부 장방형 투창 4개 1단 배치. 대각단 유충문 시문
53-3	55-4	8		15.6	16.6	11.5	도질소성. 소성보통. 대각부 1/2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10치구 침선 시문. 세장방형 투창 3개씩 상하일렬 배치
53-5	55-6	9		14.0	16.0	12.3	와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일부 결실. 대각부 1/2결실. 극소량의 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태토. 외면 회청색. 내면 황갈색. 회전목리. 대각부 장방형 투창 3개씩 상하일렬 배치
53-4	55-5	10		(11.9)		12.5	도질소성. 소성보통. 배신부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대각부 표면박리 극심. 대각부 상하단 장방형 투창 4개씩 상하교호 배치
51-7	54-15	1	장경호	22.5	16.6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외면 암회청색. 속심 자색. 구경부 3조 돌대와 4치구 파상문 시문. 동체부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 정면. 동체상부 표면박리 극심. 동최대경 : 20.3
51-10	54-18	2	대부장경호	35.3	11.8	16.5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회백색. 구경부 3조 돌대와 4치구 파상문 시문. 동체부 3조 침선과 4치구 파상문 시문.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4개 세장방형 투창을 배치. 투창사이에 파상문 시문. 표면박리 극심. 동최대경 : 25.5cm
51-11	55-1	3	발형기대	25.1	27.5	18.8	도질소성. 소성양호. 운모 혼입. 내·외면은 짙은 회청색. 속심 자색. 수부 외면 5조 돌대와 파상문 시문. 대각부도 3단 구획. 투창 4개씩 1단과 2단 상하교호. 2단과 3단 일렬 배치. 2단과 3단 투창사이에 7치구 파상문 시문
51-8	54-16	4	연질옹	16.3	(15.6)	16.4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3/4, 바닥 일부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 외면, 속심 엷은 적갈색. 저부 흑색. 저부깍기 정면
53-2	55-3	7	파수대부완	7.6	12.1	7.2	도질소성. 소성양호. 파수 결실. 운모 혼입. 외면 회청색. 내면 엷은 회황색. 속심 엷은 회청색. 배신외면 2조 돌대 7치구 점열문 시문. 대각부 상. 하단에 장타원의 반관통 투창 3개씩 일렬 배치.
53-6	55-7	14	컵형토기	6.9	7.4	6.2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 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저부 깍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동체부 2조 돌대 시문 단면 원형 파수 부착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53-9	55-10	13	환두대도	(77.0)	3.2	0.8	선단부 일부 결실. 병부 목질 부착. 도신부 단면 이등변삼각형. 병부 단면 세장방형. 환두 단면 원형. 환두 : 5.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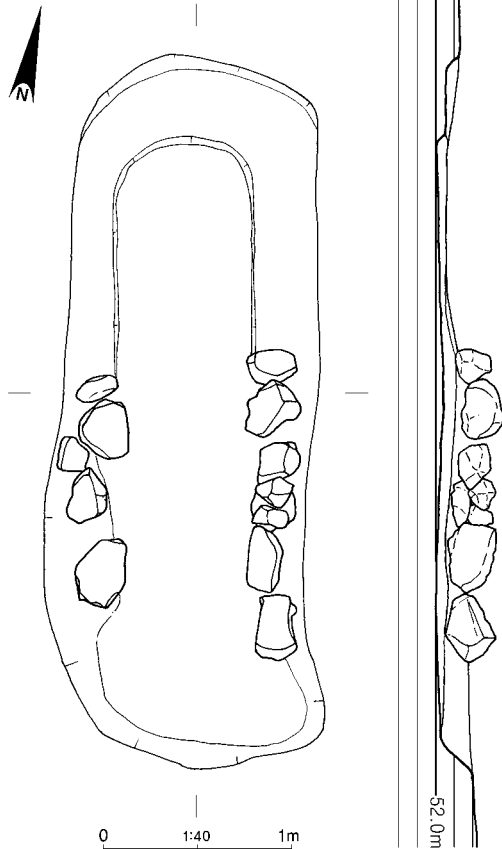
圖面 51. 나-12 · 13 · 14호 석곽묘 출토유물(나-12호:1~3, 나-13호:4~6, 나-14호:7~11)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53-8	55-9	15	철촉	(8.5)	2.8	0.9	莖部 일부 결실, 축신단면 볼록렌즈형, 頸部단면 장방형
53-10	55-11	11		(13.1)	3.0	1.0	철제, 거의 완형, 경부(莖部) 백화수외흔
53-11	55-12			10.2	1.5	0.9	완형, 축신단면 볼록렌즈형, 경부(莖部)단면 장방형
53-12	55-13			(7.7)	3.5	0.9	莖部 결실, 축신단면 이등변삼각형, 頸部단면 말각장방형
53-13	55-14			(7.2)	3.8	1.1	莖部 결실, 축신단면 이등변삼각형, 頸部단면 말각장방형
53-14	55-15			(6.6)	3.0	1.0	莖部 결실, 축신단면 볼록렌즈형, 頸部단면 말각장방형
53-15	55-16			(6.4)	1.6	0.6	축신 莖部 결실, 축신단면 볼록렌즈형
53-16	55-17			(3.6)			莖部만 잔존, 단면 원형
53-7	55-8	12	철검	(20.0)	3.0	0.3	기부 일부 결실, 인부 마모흔, 신부단면 이등변삼각형

(15) 나-15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52, 도판 19-1)

유구는 해발 52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3°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유구 주변으로 14·16·19·26호 석곽묘가 위치하는데, 비교적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석곽의 대부분이 장벽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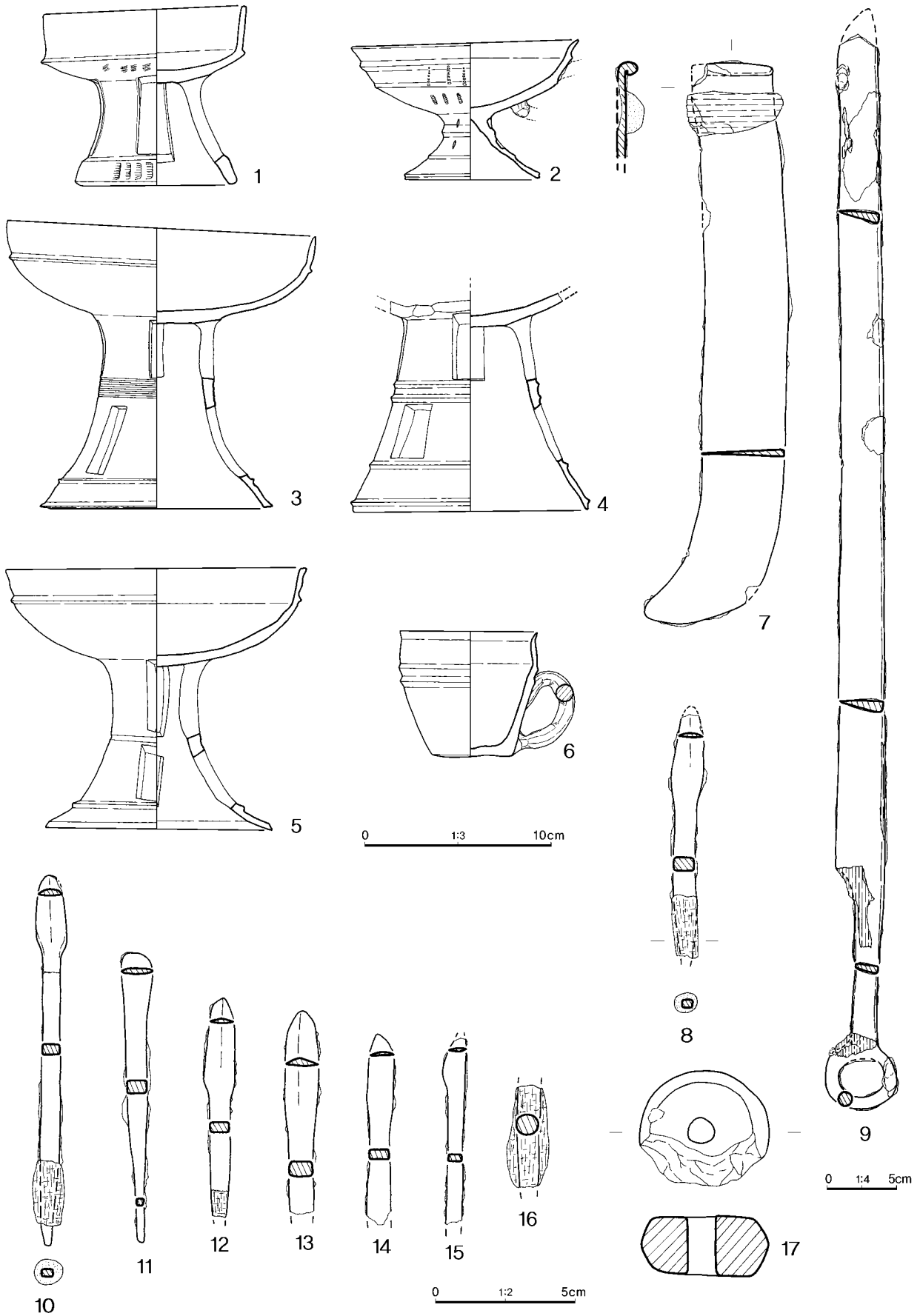
圖面 52. 나-15호 석곽묘

잔존하는 벽석은 장벽 1단 정도만 남아 있으며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80cm, 너비 135cm, 잔존깊이 1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추정 길이 320cm, 너비 75cm, 깊이 30cm이다. 석곽내부의 시상바닥에 5~10cm 정도 깊이의 수혈이 벽석을 따라 확인된다. 남쪽 바닥면은 경사를 따라 유실되었다.

유물은 조사과정에서 방추차 1점과 소형기대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유물은 소형기대 1점과 방추차 1점이 유구 조사과정에 수습되었다. 도면 55-1(도판 56-1)은 소형기대로 도질소성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수부와 대각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 장석이 혼입되어 있으며 내, 외면은 옅은 회청색이다. 대각부는 삼각형 투창을 3개 배치하였다. 높이 7.4cm, 구경 6.8cm, 저경 9.5cm이다. 도면 53-17(도판 55-18)는 토제 방추차로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에 장석과 운모가 혼입되어 있다. 외면은 암갈색이면 속심은 적갈색인데 1/3가량이 결실되었다. 직경 4.6cm, 높이 2.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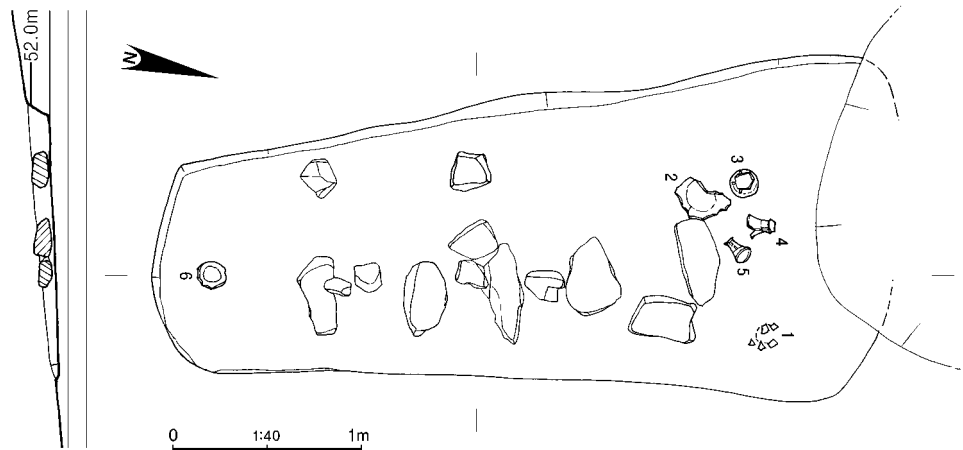
圖面 53. 나-14·15호 석곽묘 출토유물(나-14호:1~16, 나-15호:17)

(16) 나-16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54, 도판 19-2~4)

유구는 해발 52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3°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쪽으로 9호 석곽묘와 인접하고 있다. 묘광선만 얇게 남아 있고 북단벽은 과수원 경작과정에 되었다. 석곽의 벽석은 남아 있지 않고 유구의 관대로 추정되는 대석들만 잔존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95cm, 너비 220cm, 잔존깊이 1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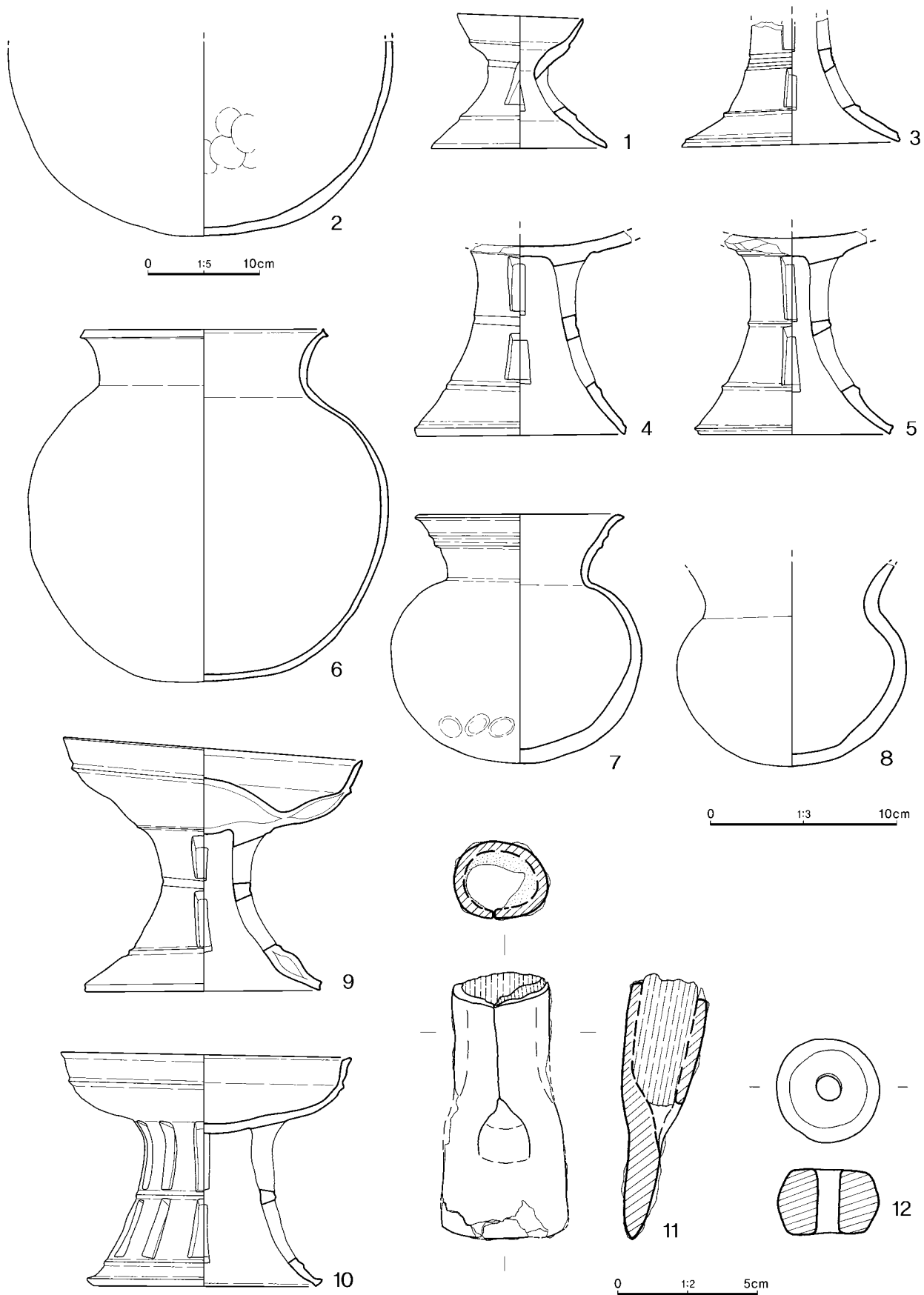
유물은 호 1점, 고배 3점이 출토되었으며 북단벽 쪽에서 형태를 알 수 없는 연질토기편들이 확인된다. 남단벽 주변에서 연질용이 확인되나 심하게 박리되어 복원되지 않는다.



圖面 54. 나-16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55-3	56-3	3	고배	(6.9)		11.8	도질소성. 소성불량. 배신 전체와 대각부 1/2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청색. 대각부 4치구 침선 시문.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3개씩 상하일렬 배치
55-4	56-4	4		(11)		11.2	도질소성. 소성불량. 배신 전체와 대각부 1/4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1조 침선으로 상하단 구분. 세장방향 투창 3개씩을 상하일렬 배치
55-5	56-5	5		(11)		10.3	도질소성. 소성양호. 배신부 결실. 장식 소량 혼입. 내·외면 엷은 회청색. 속심 엷은 회청색.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상하단 3개씩 상하일렬 배치
실측 불가	56-14	6	연질용				연질소성. 소성보통.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갈색. 기형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질용 추정
	56-15	1					
55-2	56-2	2	호	(17.5)			도질소성. 소성양호. 저부만 잔존. 장식 혼입. 외면 회청색. 내면과 속심 엷은 회청색. 저부에 도침으로 추정되는 토기편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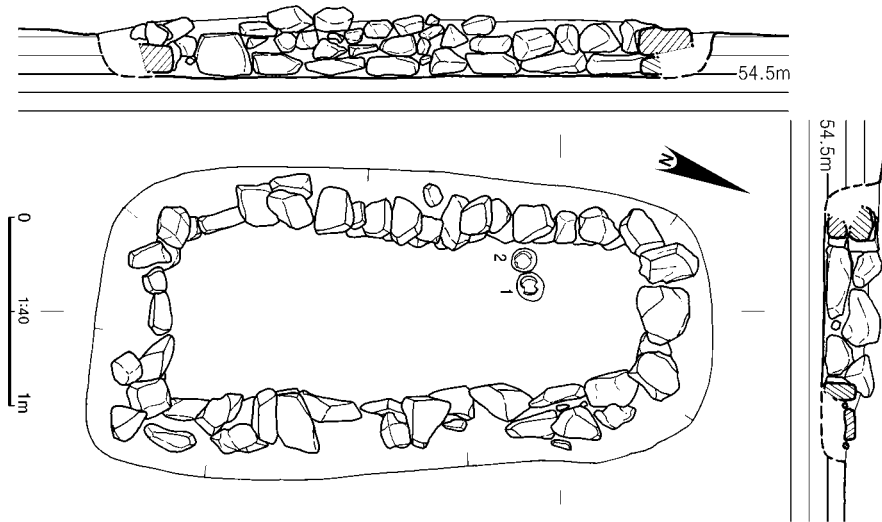


圖面 55. 나-15·16·17·19호 석곽묘 출토유물(나-15호:1, 나-16호:2~5, 나-17:6~10, 나-19호:11·12)

(17) 나-17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56, 도판 20-1~4)

유구는 해발 54.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22°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쪽으로 12호 석곽묘와 8호 목곽묘가 위치하며 북쪽으로 18호 목곽묘가 조성되어 있다.



벽석은 장·단벽 2~3단 정도가 남겨져 있으며 가로쌓기 하였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325cm, 너비 145cm, 잔존깊이 3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45cm, 너비 75cm, 깊이 40cm이다.

유물은 유구의 북서쪽에 장경호 1점과 연질호 1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단경호 1점, 고배 2점이 수습되었다.

圖面 56. 나-17호 석곽묘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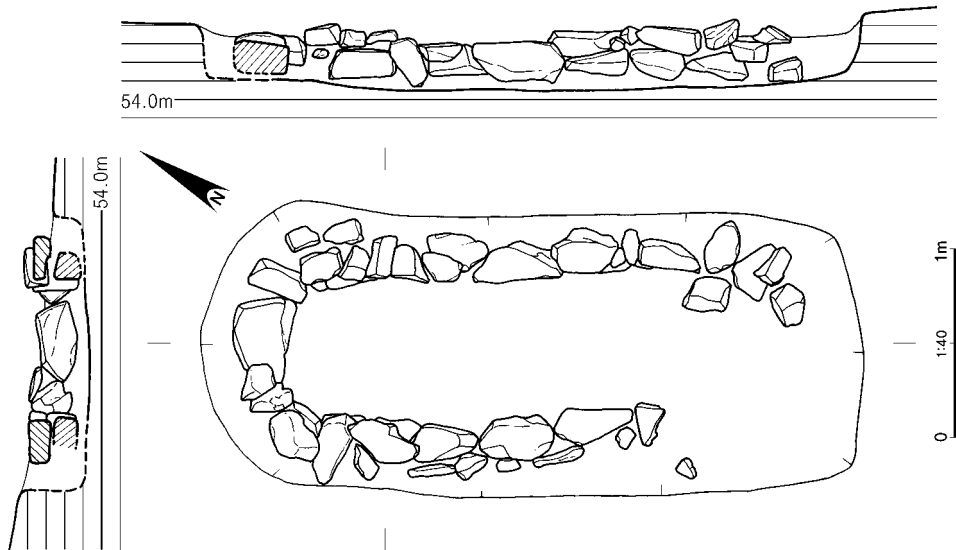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55-7	56-7	1	장경호	13.5	10.8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1/4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백색, 속심은 옅은 회청색. 동체부는 타날후 회전물손질 정면. 동최대경 : 13.6
55-8	56-8	2	연질호	(11.1)	(11.5)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3/4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면 황갈색, 외면과 속심 흑갈색, 표면바리 극심. 정면기법관찰 불가. 동최대경 : 12.5
55-9	56-9	수습	고배	13.8	16.1	12.6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단 일부, 대각 1/2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각 3개씩 상하일렬 배치.
55-10	56-10	수습		12.7	15.6	11.9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은 짙은 회청색, 속심 암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각각 9개씩 상하일렬 배치.
55-6	56-6	수습	단경호	25.5	17.2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1/2, 동체 일부 결실. 장식 다량 혼입. 회전물손질 정면. 동체부 평행타날. 동상위 회전물손질 정면으로 타날 흔적 지움. 동최대경 : 26.0

(18) 나-18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57, 도판 20-5~7)

유구는 해발 54~54.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32°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쪽으로 17호 석곽묘가 조성되어 있다. 과수원 경작과정에 남단벽과 서장벽 일부가 유실되었다.

벽석은 장·단벽 1~2단 정도가 남겨져 있으며 모두 가로쌓기하여 축조 하였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345cm, 너비 145cm, 잔존깊이 3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60cm, 너비 75cm, 깊이 35cm이다. 확인된 유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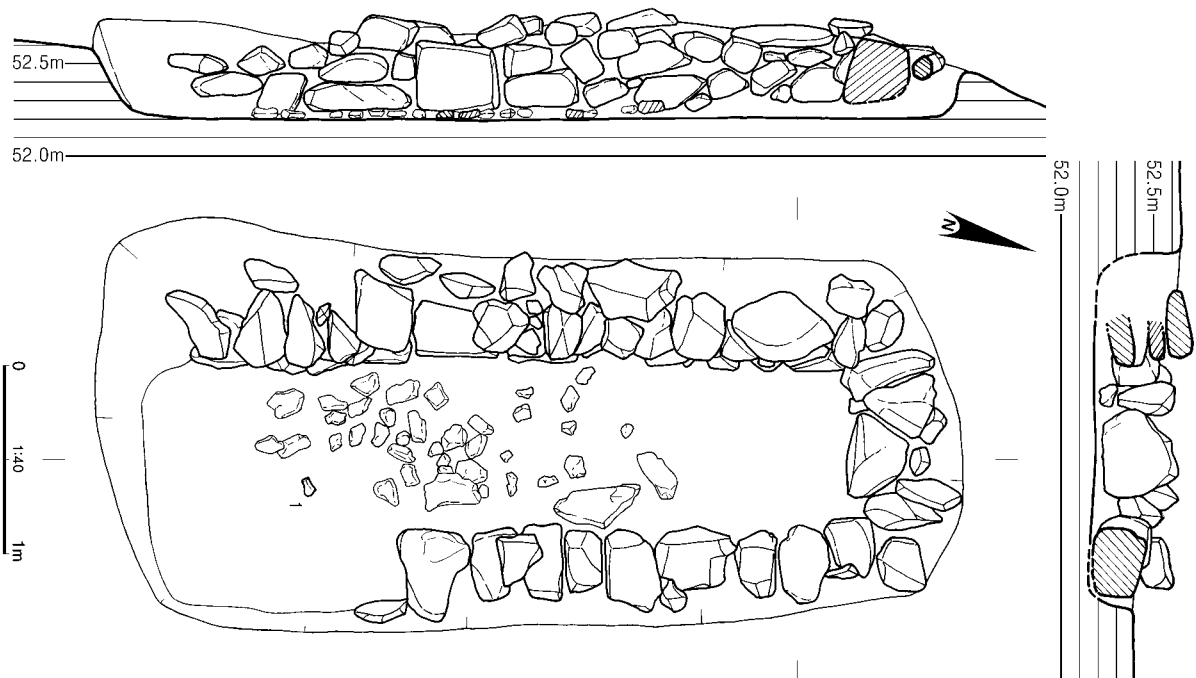
圖面 57. 나-18호 석곽묘

(19) 나-19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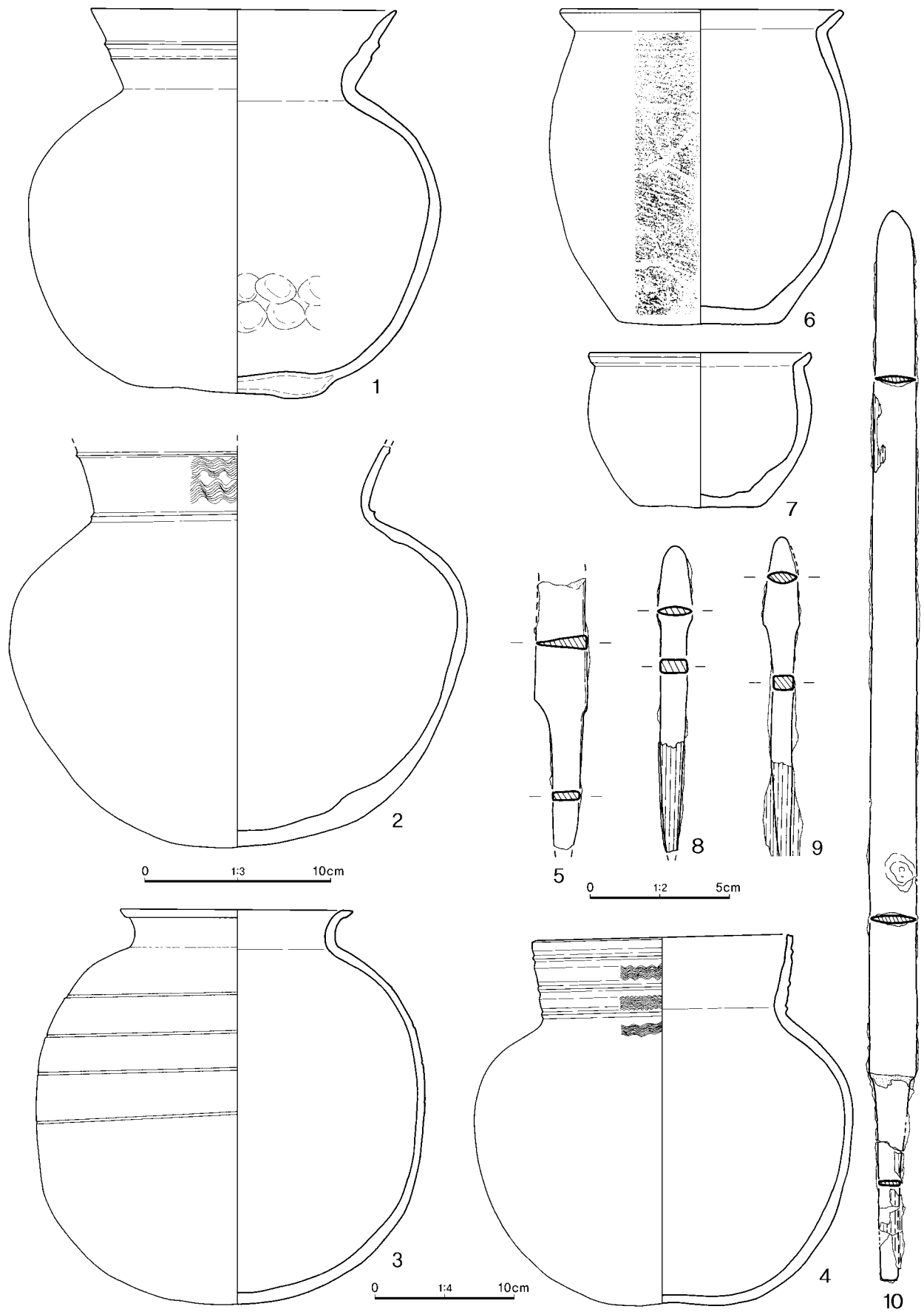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58, 도판 21-1~4)

유구는 해발 52.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8°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쪽으로 14호 석곽묘 위치하고 있다. 남단벽과 동장벽 일부가 과수원 경작과정에서 유실되었다.

벽석은 장·단벽 2~3단 정도가 남겨져 있으며 대부분 가로쌓기 하였으나 일부 대석을 이용하여 세로쌓기한 것도 관찰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50cm, 너비 185cm, 잔존깊이 4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370cm, 너비 80cm, 깊이 50cm이다. 상면의 중위에서 하단에 이르기까지 크기 10~15cm 내외의 작은 활석들이 깔려져 있는데 시상석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圖面 58. 나-19호 석곽묘



圖面 59. 나-19·20호 석곽묘 출토유물(나-19호:1~5, 나-20호:6~10)

유물은 남단벽 쪽에서 철부 1점이 출토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단경호 3점, 장경호 1점, 방추차 1점, 도자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도면 55-11(도판 56-11)는 철부로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수화가 극심하게 진행되었다. 공부내면에 목질 흔이 남아 있다. 길이 9.4cm, 너비 4.5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도면 59-5(도판 57-4)는 교란된 곳에서 확인된 도자이며, 선단부와 병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인부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 병부단면은 말각장방형이다. 잔존길이는 9.8cm, 너비 1.9cm, 두께 0.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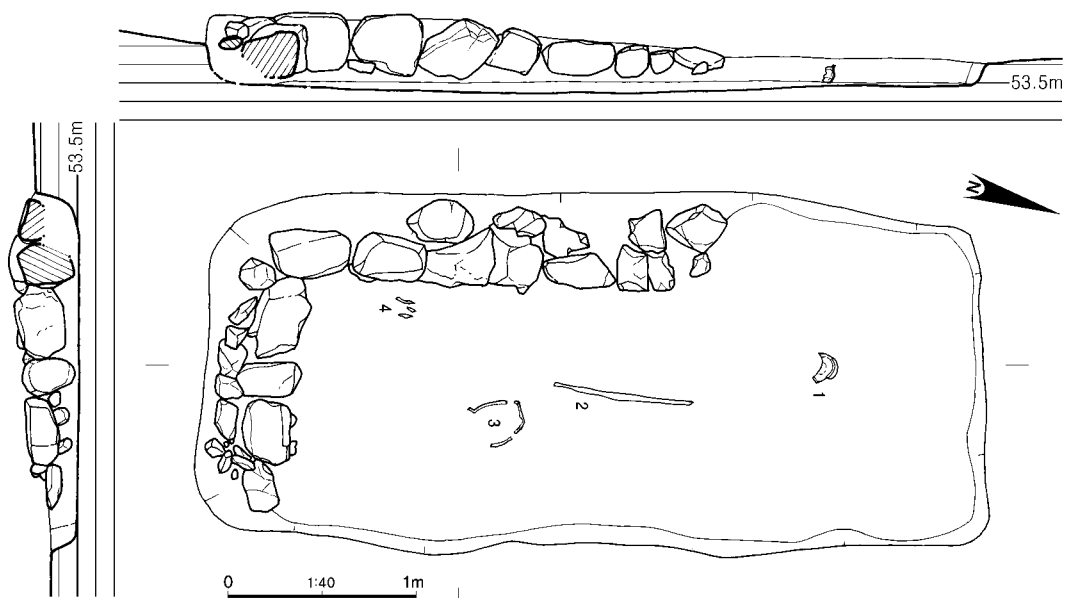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토기유물의 명세는 아래와 같다.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55-12	56-12	수습	방추차	3.6	2.3		토제. 장식 운모 혼입. 연갈색. 소성 보통
59-1	56-13	수습	단경호	21.2	(16.6)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일부 잔존.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동체상위 녹갈색 자연유 부착. 저부 기포 형성. 동최대경 : 22.3
59-3	57-2	수습		28.5	16.7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와 동체 일부 결실.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동체부 격자타날, 4조 침선 시문. 동최대경 : 28.1
59-4	57-3	수습	중경호	26.8	(18.1)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2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질은 회청색. 속심 암자색. 구경부 3조 돌대, 파상문 시문. 동체부 최상단 9치구 파상문 시문. 동체부 상위 표면박리 극심. 동최대경 : 27.3
59-2	57-1	수습	장경호	(21.9)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완전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질은 회백색. 구경부 돌대와 파상문 시문. 회전물손질 정면. 동체부 부분적 기포 형성. 저부 도침흔. 동최대경 : 22.6

(20) 나-20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60, 도판 21-5~9)

유구는 해발 53.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9°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



圖面 60. 나-20호 석곽묘

다. 동쪽으로 14호 목곽묘가 위치하고 있다. 석곽의 북서쪽으로 장·단벽이 1/2 이상 유실되었다.

벽석은 장·단벽 1단 정도만 남아 있으며, 석곽과 묘광사이에는 비교적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뒷채움한 것으로 확인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10cm, 너비 190cm, 잔존깊이 2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200cm, 추정너비 90cm, 깊이 30cm이다. 대도의 병부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 피장의 두향은 남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연질옹 2점, 대도 1점, 철촉 2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철촉 3점, 도자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59-6	57-5	1	연질옹	17.1	(15.1)		연질소성. 소성불량. 전체의 1/2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밝은 황갈색. 동체부 외면 표면박리 극심. 정면기법 관찰 불가. 동최대경 : (16.4)
59-7	57-6	3		8.5	(11.8)		연질소성. 소성보통. 전체 1/2 결실. 석영 장식 혼입. 외면 적갈색. 부분적 흑갈색. 내면과 속심 황갈색. 저부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동최대경 : (11.3)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59-10	57-9	2	철검	76.9	3.3	0.7	상태양호. 신부 단면은 볼록렌즈형. 병부단면 세장방형. 병부 목질흔. 병부와 인부사이에 유기질흔
59-8	57-7	4	철촉	(10.9)	1.3		유엽형. 축신단면 볼록렌즈형. 頸部단면 말각장방형. 경부 목질수착
59-9	57-8			(12)	1.1		
62-1	57-10	수습	철촉	(3.8)	1.5		축신단면 볼록렌즈형. 頸部단면 말각장방형
62-2	57-11			(4)	1.2		축신만 잔존. 축신단면 볼록렌즈형
62-3	57-12			(8.8)	1.3		莖部 목질흔. 축신 단면은 볼록렌즈형. 頸部단면 말각장방형
62-4	57-13			도자	(10)	1.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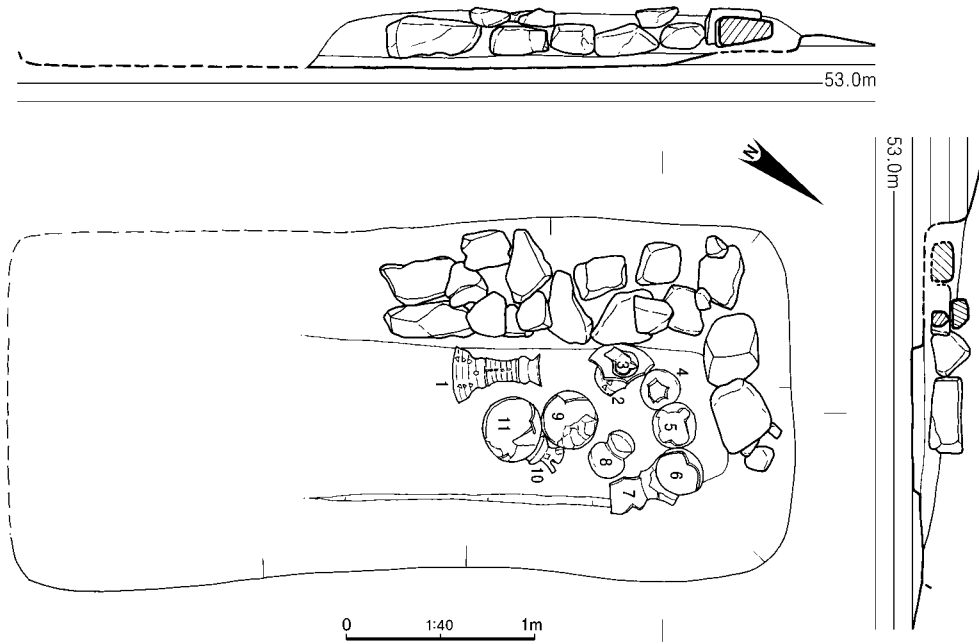
(21) 나-21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61, 도판 22)

유구는 해발 53m~53.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37°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동쪽으로 16호 목곽묘와 인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분군의 북쪽 경계면에 위치한 유구이다.

석곽은 서장벽 일부와 북단벽 일부만 잔존하였으나, 내부토의 양상으로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15cm, 너비 185cm, 잔존깊이 1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너비 90cm, 깊이 30cm이다. 벽석은 최하단석만 확인되며, 장벽과 단벽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서장벽은 벽석을 쌓는 과정에 묘광과 벽석사이에 할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보강하였다. 석곽의 내부에는 벽석을 따라 5~6cm 정도 시상바닥을 낮게 조상하였고 이것은 아마도 석곽내에 안치한 목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중간지점에서 출토된 장경호, 연질호, 고배는 관의 상부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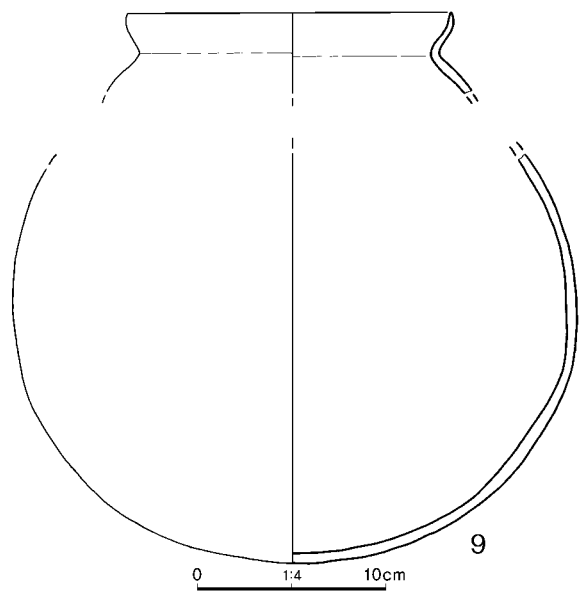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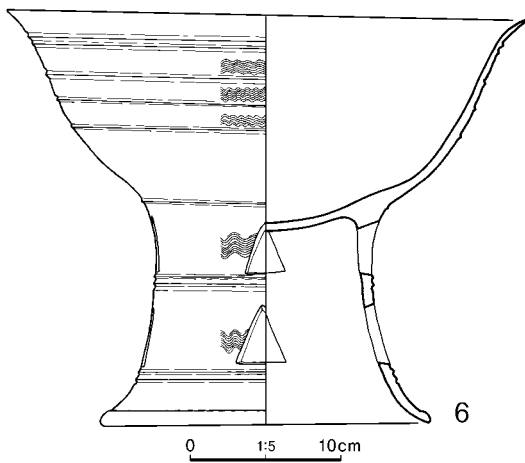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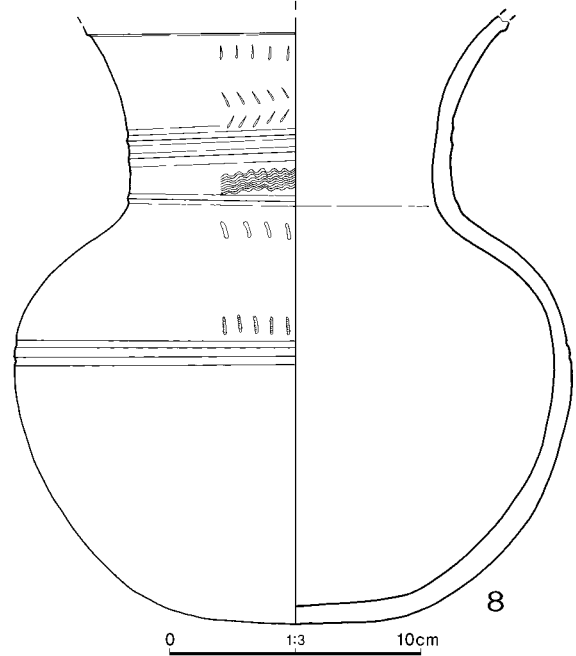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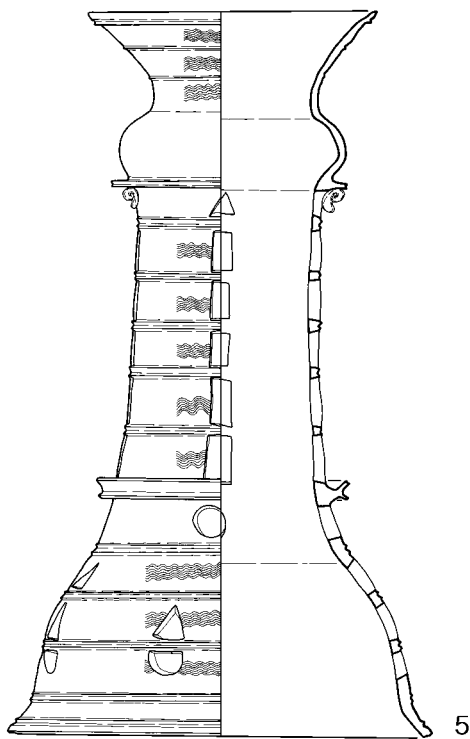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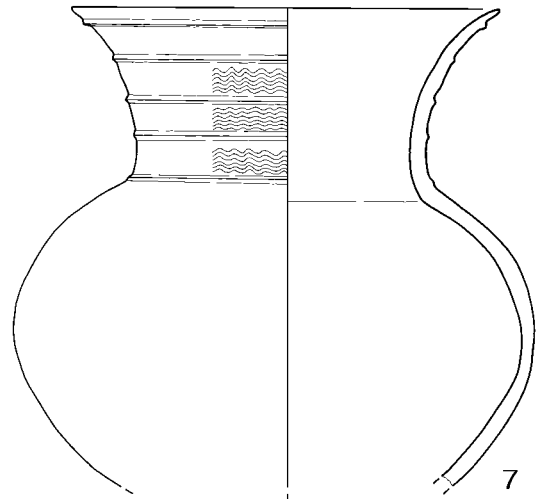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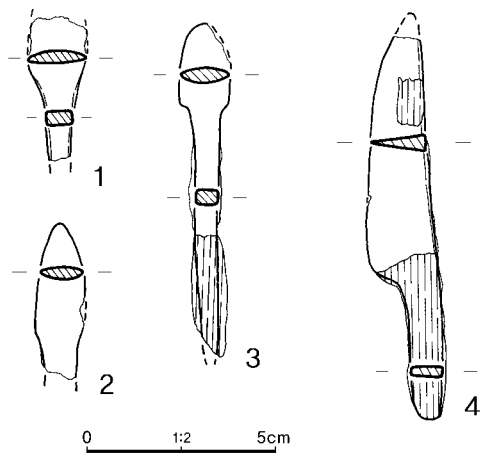
유물은 통형기대 1점, 발형기대 2점, 장경호3점, 연질호 3점, 단경호 1점, 고배 1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배 1점이 수습되었다. 특히 통형기대는 장축방향과 평행하게, 발형기대 2점 가운데 1점은 수부에 장경호가 놓인 채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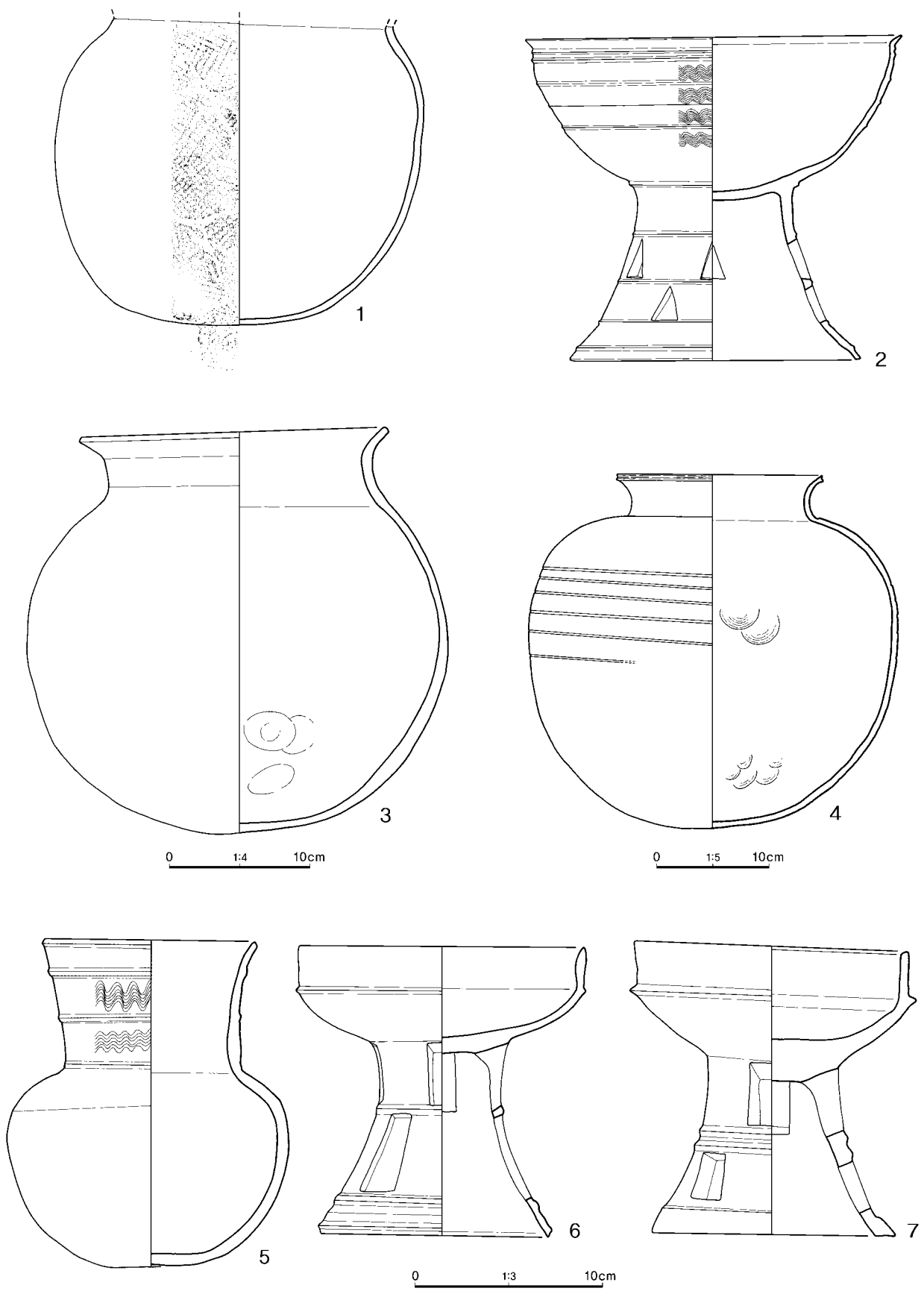
圖面 61. 나-21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62-5	58-1	1	통형기대	48.3	19.0	26.9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외면 일부 바리. 수부는 구경부가 나팔상으로 외경하는 장경호의 형태. 동체부는 돌대를 경계로 파상문 시문. 위에서부터 삼각형 투창 1단, 장방형 투창 5단, 원형투창 1단으로 각각 4개씩 배치. 대각부에는 삼각형 2단 반원형 투창 1단을 배치
62-6	58-2	2	발형기대	27.7	34.8	21.7	도질소성. 소성양호. 수부 1/2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수부는 돌대를 시문하여 4단 구획후 5치구 파상문 시문. 대각부에 삼각형 투창 4개를 상하 일렬 배치
63-2	59-1	7		29.0	(33.3)	24.8	도질소성. 소성양호. 수부 1/2, 대각부 1/3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은 옅은 자색. 수부 7치구 파상문 4열 시문. 대각부 3조 돌대와 삼각형 투창을 배치. 투창은 6개씩 상하교호 배치
63-6	59-5	10	고배	15.6	15.2	12.1	도질소성. 소성보통. 대각부 2/3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짙은 회백색. 속심 밝은 적갈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장방형 투창 4개씩 상하교호 배치
63-4	59-3	9	단경호	31.9	(18.1)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3/4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동체부 평행타날후 상위부는 회전물손질 정면으로 타날흔 삭제. 동최대경 : 32.8
62-7	58-3	3	장경호	(19.2)	17.1		도질소성. 소성양호. 전체 절반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구경부 돌대와 파상문 시문. 저부 결실. 표면바리 극심. 동최대경 : (20.8)
62-8	58-4	4		(24.4)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완전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구경부 돌대와 7치구 유충문 시문. 동체부 상위와 중위 각각 7치구 짙은 유충문 시문. 동중위 2조 침선 시문. 동최대경 : 22.2
63-5	59-4	8		17.7	11.3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암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구경부 돌대와 파상문 시문. 동상위 표면바리 극심. 동최대경 : 15.2
62-9	58-5	5	내만구연호	(26.2)	(14.2)		연질소성. 소성보통. 동체 및 구연부 잔존.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황갈색. 외면 부분적 흑반. 동최대경 : 30.2



圖面 62. 나-20·21호 석곽묘 출토유물(나-20호:1~4, 나-21호:5~9)



圖面 63. 나-21호 석각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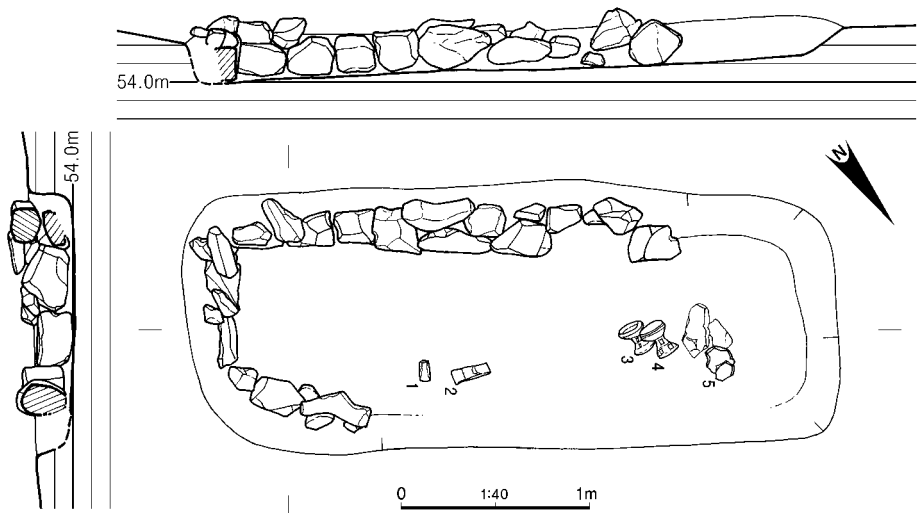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63-1	58-6	6	연질호	(22.1)			연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와 동체부 1/2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회갈색, 속심 옅은 회흑색. 격자 타날후 동상위 회전물손질로 타날흔 삭제. 동최대경 : 26.0
63-3	59-2	9		29.1	(21.5)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일부 잔존.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황갈색. 동최대경 : 29.8
63-7	59-6	수습	고배	15.4	(14.7)	13.0	도질소성. 소성통. 구연부 2/3, 저부 1/3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짙은 회백색. 대각부 부분적 기포 형성. 상하단 각각 장방형 투창 3개씩 상하교호배치

(22) 나-22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64, 도판 23-1~6)

유구는 해발 54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54°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북쪽으로 1m 정도 거리를 두고 23호 석곽묘가 위치한다.

석곽은 북단벽과 동장벽이 유실된 채 확인되었다. 잔존벽석도 1~2단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최하단석만 잔존하였다. 벽석의 축조는 장벽의 경우가



圖面 64. 나-22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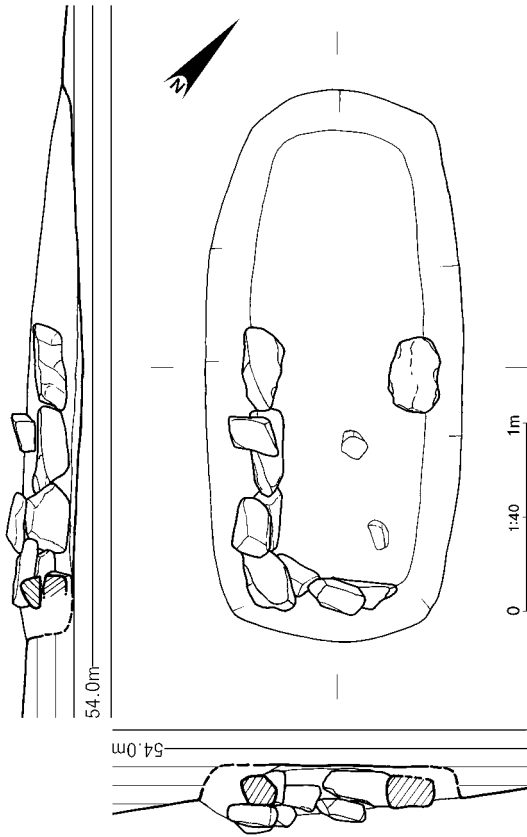
로쌓기 하였으나 단벽은 세로쌓기 하였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345cm, 너비 135cm, 깊이 2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너비 70cm, 깊이 30cm이다.

유물은 고배 2점과 연질발이 벽면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동장벽 근처에서 확인된 철부 2점은 수화가 극심하여 도면작성이 불가능하다. 조사과정에서 도자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67-1	59-7	3	고배	13.8	16.6	13.4	도질소성. 소성양호. 배신부 1/2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압자색. 회전물질 정면. 대각부 세장방형 투창 4개씩 상하일렬 배치
67-2	59-8	4		15.2	14.7	11.2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4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옅은 회청색, 속심 자색. 배신 외면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상단 세장방형 투창, 하단 장방형 투창을 각각 4개씩 상하교호 배치.
67-3	60-1	5	연질발	(9.0)		10.5	연질소성. 소성보통. 동하위 2/3와 저부만 잔존. 석영 장식 다량 혼입. 외면 적갈색, 내면 회갈색, 속심 회흑색. 저부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실측 불가	59-9	1	철부				복원불가
	59-10	2					

도면 67-4(도판 60-2)는 신부가 일부 결실된 철제도자이다. 신부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규격은 길이(5.0cm), 너비 1.2cm, 두께 0.3cm 이다.



圖面 65. 나-23호 석곽묘

(23) 나-23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65, 도판 23-4~6)

유구는 해발 54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44°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동쪽으로 1m 정도 거리를 두고 22호 석곽묘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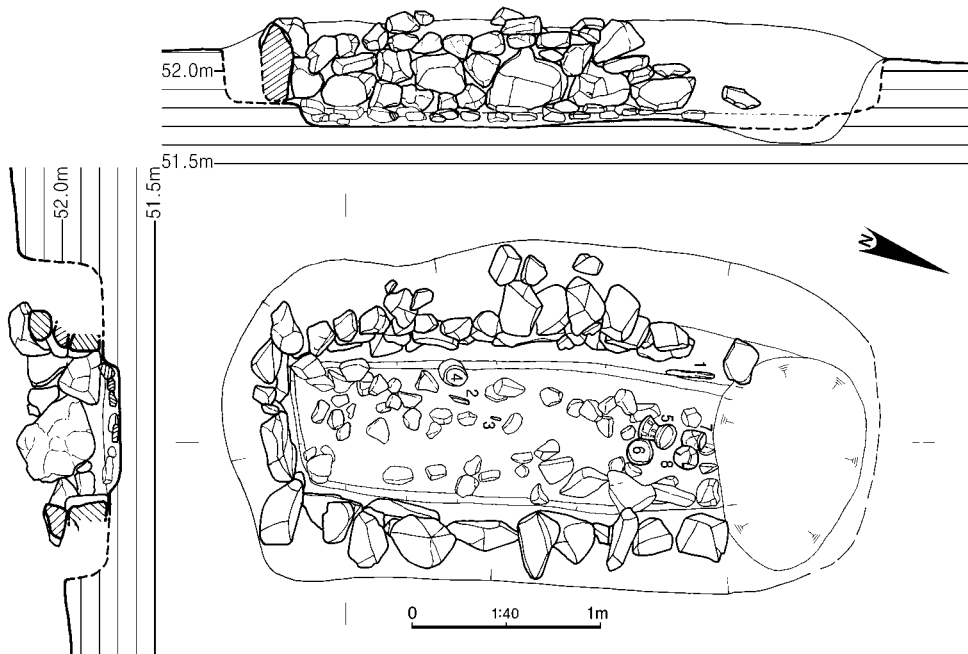
석곽은 남단벽과 서장벽 일부가 남아 있다. 장단벽 모두 가로쌓기 하였으며, 최하단석의 경우 2단석 보다는 큰 할석을 이용하였다. 동장벽은 벽석 1매가 남아있어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290cm, 너비 135cm, 깊이 2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너비 55cm, 깊이 35cm이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24) 나-24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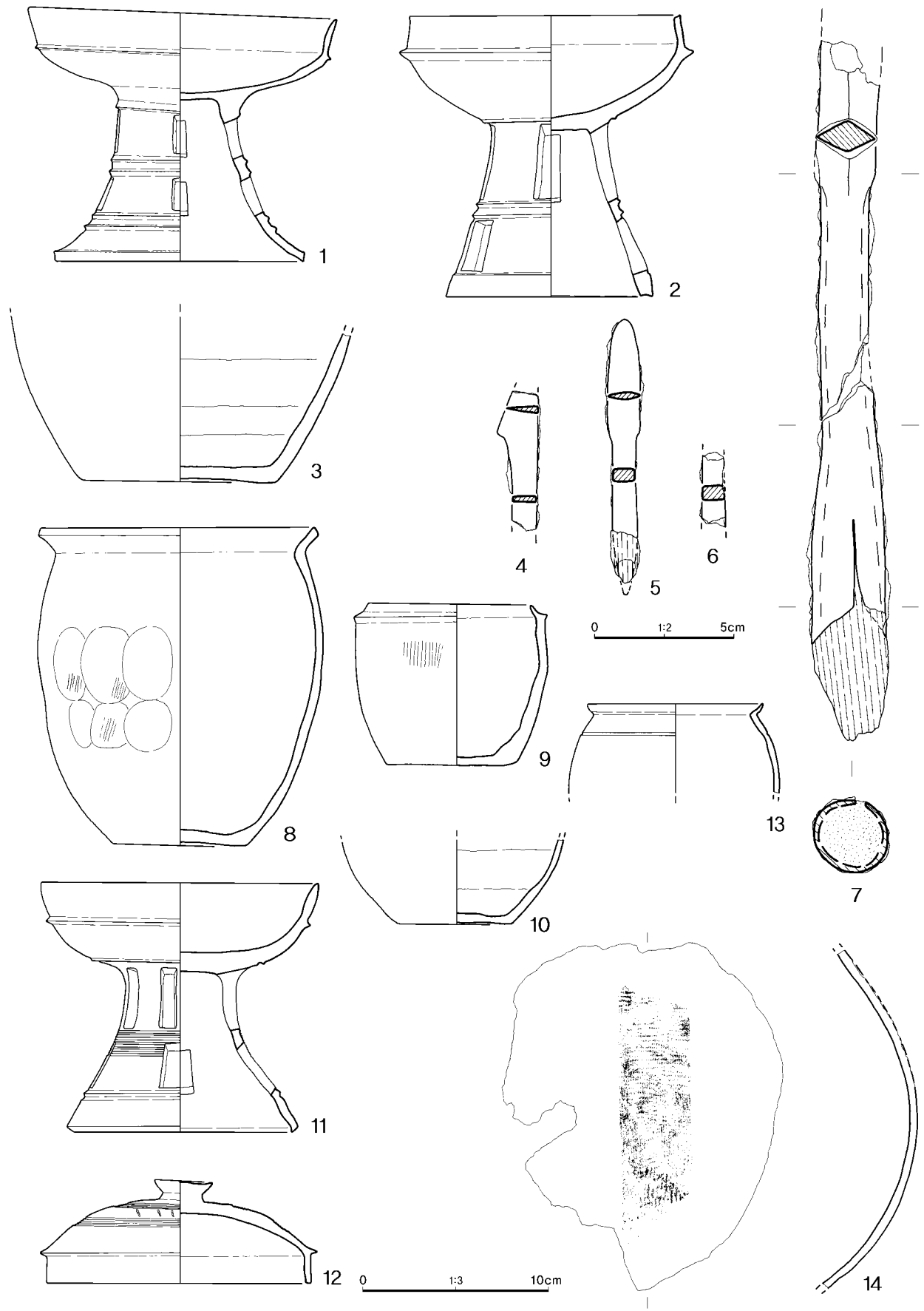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66, 도판 24)

유구는 해발 52m 선상의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23°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주변에서 다수의 석곽묘가 확인되며, 북쪽으로 6m 거리에 15호 목곽묘가 위치한다.

석곽은 도굴갱에 의해 북단벽과 연결한 장벽 일부가 결실되었다. 나머지 벽석은 3~4단 정도 잔존하며, 축조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게 관찰된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장벽의 경우 가로쌓기 하였으며, 단벽은 비교적 큰 할석을 이용하여 단벽의 중앙에 세로쌓기 하고 주변에는 작은 할석을 이용하였다. 구릉의 사면을 굴착



圖面 66. 나-24호 석곽묘



圖面 .67 나-22 · 24 · 25호 석곽묘 출토유물(나-22호:1~3, 나-24호:4~12, 나-25호:13 · 14)

하는 과정에서 깊게 굴착된 저장벽의 경우 벽석과 묘광 사이에 할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보강하였다. 석곽의 내부에는 10~15cm 내외의 할석을 한번가량 깔아서 시상바닥을 설치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45cm, 너비 165cm, 깊이 4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80cm, 깊이 60cm이다.

유물은 결실된 북단벽 주변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철모 1점, 고배 1점, 개 1점, 연질용 1점, 연질호 저부편이 북단벽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철촉 1점과 연질용 1점, 철기편은 저장벽 중간부분에서 출토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67-11	60-9	5	고배	13.7	14.9	11.7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대각부 찌그러져 횡타원. 대각부 11치구 침선을 경계로 상하단 구분. 상단 세장방향 투창 5개, 하단 장방향 투창 4개 배치
67-12	60-10	6	개	5.7	14.3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 외면 짙은 회백색. 속심 엷은 회백색. 6치구 침선문과 7치구 유충문 시문
67-8	60-6	4	연질용	17.2	14.8	(7.4)	연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2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적갈색. 타날 후 회전물손질 정면
67-9	60-7	7		8.8	(8.7)	(8.7)	연질소성. 소성불량. 동체부 1/3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밝은 회황색. 표면박리 극심.
67-10	60-8	8	연질호 저부편	(4.6)		6.2	연질소성. 소성불량. 동하위의 1/3과 저부 잔존. 장식 혼입. 외면 엷은 흑갈색. 내면 황갈색. 속심 흑갈색. 표면박리 극심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67-7	60-5	1	철모	(21.6)	2.1		신부와 선단 일부 결실. 신부단면 능형. 공부 연미형. 공부내 목질 혼. 공부외경 2.8cm
67-5	60-3	2	철촉	(9.4)	1.2	0.25	莖部 일부 결실. 경부에 백화수피흔. 신부 단면 볼록렌즈형
67-6	60-4	3		(2.6)	0.8	0.6	일부 잔존. 철촉의 頸部로 추정. 단면 장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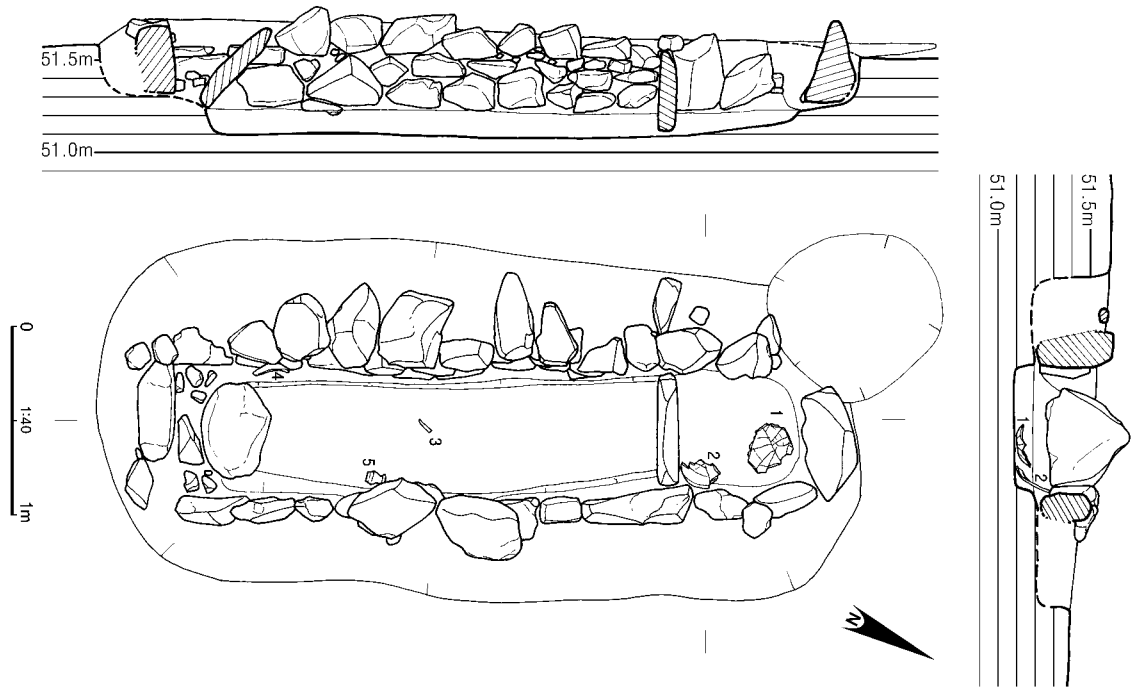
(25) 나-25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68, 도판 25)

유구는 해발 51m~51.5m 선상의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27°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유적 경계부에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다수의 석곽묘가 위치한다.

석곽은 과수이식작업에 의해 북서쪽모서리가 훼손된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묘광을 굴착한 후 벽석을 쌓는 과정에 벽석의 보강은 굴착토를 이용하였다. 저장벽은 3~4단정도의 벽석이 잔존하며, 동장벽은 최하단석과 일부 2단석이 남아있다. 양 장벽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단벽의 경우는 장벽 축조에 이용된 할석에 비해 큰 규모의 할석 1매를 이용하여 세로쌓기 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00cm, 너비 170cm, 깊이 5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80cm, 너비 65cm, 깊이 60cm이다.

특히 25호 석곽묘의 경우 양 단벽에 각각 1매의 판석을 이용하여 유구 내부의 공간을 분할하였다. 북단벽에서 80cm 안쪽으로 1매의 판석을 이용하여 격벽을 설치하여 부장공간을 확보하였다. 격벽시설 안에는 연질용과 연질호 편이 출토되어 유물의 부장공간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단벽의 경우에는 남단벽과 남쪽의 판석 사이에 15cm 정도의 공간이 있으며 작은 할석이 일부 채워져 있다. 남단벽의 2단 벽석일 가능성이



圖面 68. 나-25호 석곽묘

있으나, 나지구 28호 석곽묘에서도 같은 형태의 판석이 확인되어 부장공간 분할 기능의 가능성이 크다.

석곽의 내부에는 벽석을 따라 10~15cm 깊이의 수혈을 굴착하여 목관(곽)을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 부장공간으로 이용한 격벽시설도 이 수혈을 굴착한 후 판석을 설치하였다.

유물은 격벽시설 내에서 연질옹 1점과 연질호 편이 출토되었다. 남단벽 주변에서는 철검 1점이, 석곽의 중간부분에서 도자 1점과 파수대부완 1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철촉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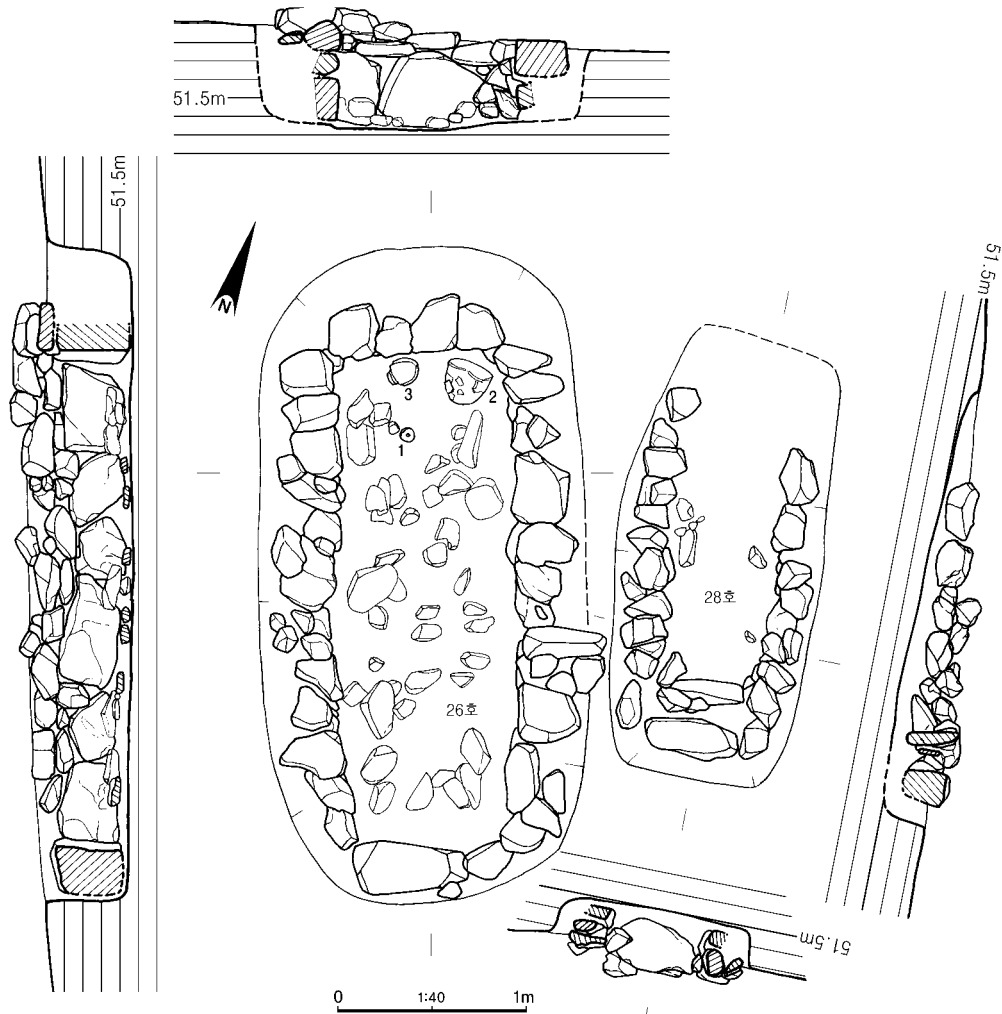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70-4	60-16	5	파수대부완	9.9	7.6	6.6	도질소성. 소성양호. 파수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동상위 승문 시문. 파수 단면 원형. 대각부 종타원형 소형투창 3단 배치
67-13	60-11	1	연질옹	(4.9)	(9.5)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1/3 잔존. 석영 장식 혼입. 내면 회갈색. 외면과 속심 흑갈색. 동상위 1조 침선
67-14	60-12	2	호편	(19)			도질소성. 소성불량. 동체 일부만 잔존.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백색. 승문타날. 일부로 기형파악 불가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70-2	60-14	3	도자	(9.5)	1.3	0.3	선단부와 병부 일부 결실. 병부 목질흔 수차
70-1	60-13	4	철검	24.9	3.9		기부 일부 결실. 신부단면 이등변삼각형
70-3	60-15	교	철촉	13.7	0.9	0.7	신부단면 볼록렌즈형. 頸部단면은 말각장방형

(26) 나-26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69 도판 26-1~5)

유구는 해발 51.5m~52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21°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동쪽에 28호 석곽묘가 나란하게 위치하는데 26호 석곽묘와 연관된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圖面 69. 나-26·28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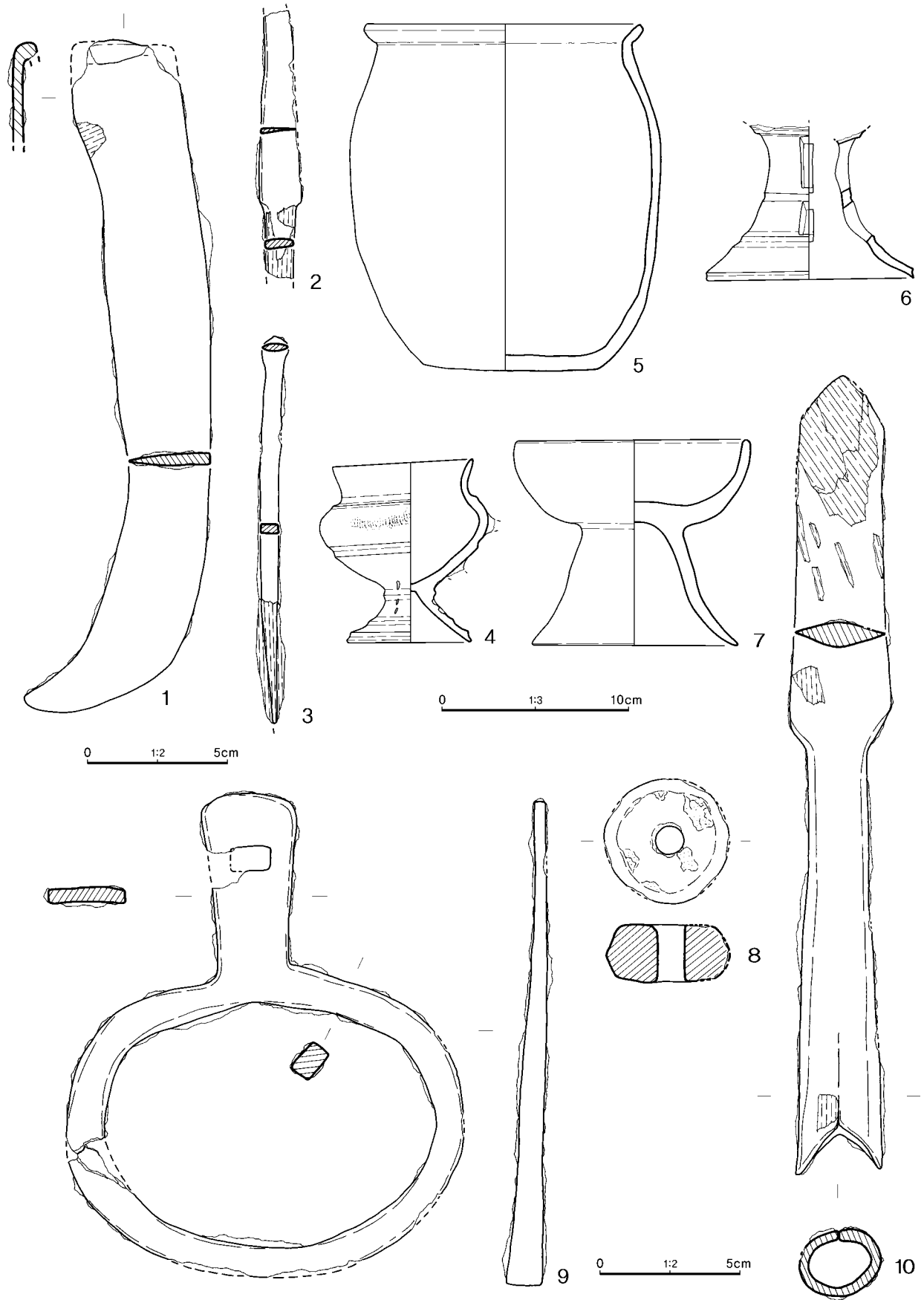
석곽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묘광을 구축한 후에 너비 40cm 내외의 큰 할석을 이용하여 네벽면의 최하단석 조성하였다. 특히 남단벽의 경우는 동장벽 최하단석과 연결하여 축조하면서 호상으로 처리하고, 서장벽은 큰할석을 이용하여 마감하였다. 2단석부터는 최하단석보다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쌓기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40cm, 너비 170cm, 깊이 5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60cm, 너비 90cm, 깊이 60cm이다.

석곽의 내부에는 10cm내외의 할석을 불규칙적으로 깔고, 벽석과 연결한 가장자리 공간에는 20cm내외의 할석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이는 판재형 목관보다는 바닥이 둥근 통나무관을 이용하여, 관을 안정적으로 안치하기 위한 시설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출토유물은 북단벽 주변에서 방추차 1점, 연질용 1점, 대부완 1점이 출토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배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70-8	61-3	1	방추차	4.4	2.3		토제. 소성보통. 장식 운모 혼입. 색조 적갈색. 전체적으로 표면 박리 극심
70-5	60-17	2	연질용	18.8	14.7		연질소성. 소성불량. 동체부 1/2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 면 엷은 흑갈색. 외면과 속심 짙은 흑갈색. 동체 중방향 평행타 날. 동최대경 : (16.7)



圖面 70. 나-25·26·27호 석곽묘 출토유물(나-25호:1~4, 나-26호:5~8, 나-27호:9·10)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간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70-7	61-2	3	연질대부완	11.1	12.3	10.9	연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1/3, 대각부 1/5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적갈색. 속심 흑갈색.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70-6	61-1	4	고배	(8.4)		11.1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부 상단 1/2, 배신부 완전 결실.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옅은 회청색. 속심 자색.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3개씩 상하일렬로 배치하였다.

(27) 나-27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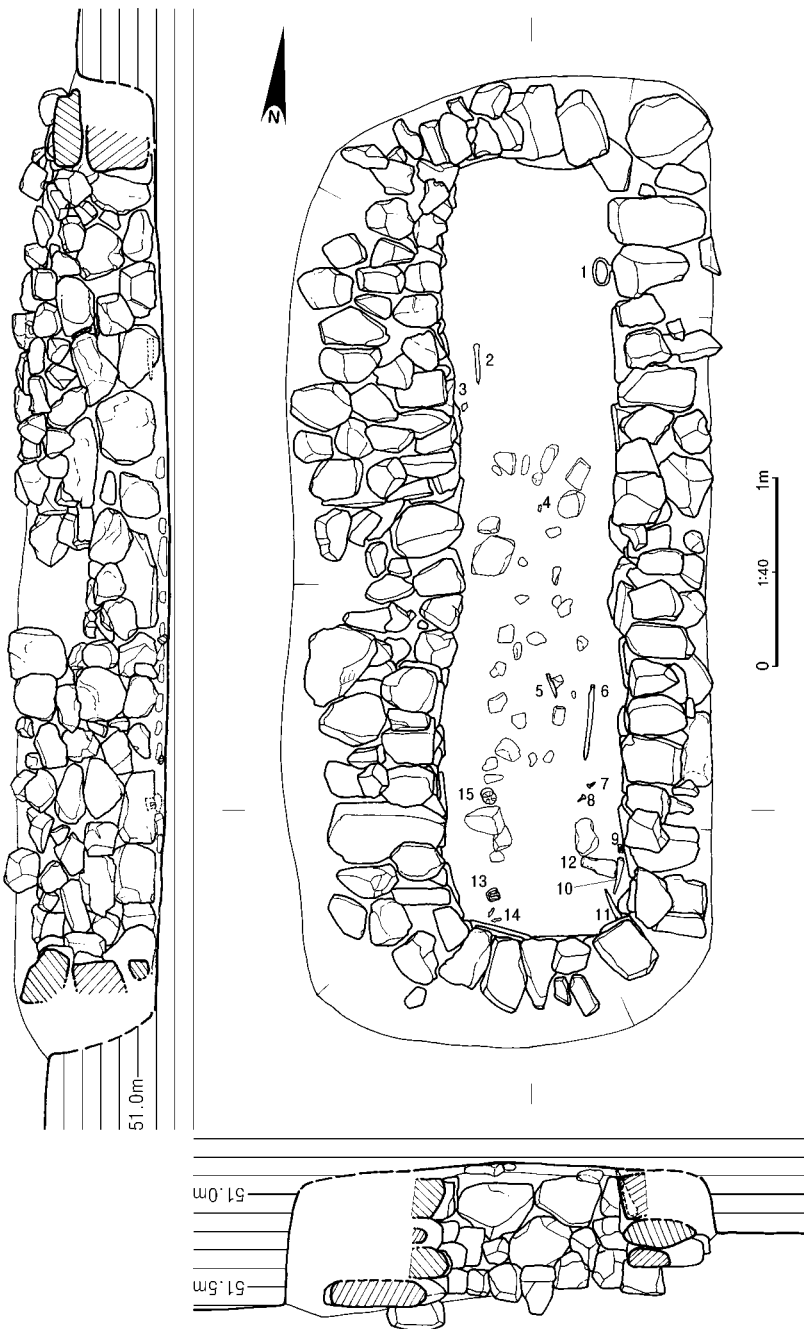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71, 도판 27)

유구는 해발 51m~51.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1°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조사 경계부에 해당하며, 조사지역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석곽은 나지구의 유구 중 최대 규모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510cm, 너비 225cm, 깊이 6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405cm, 너비 90cm, 깊이 75cm이다.

석곽은 경사면을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한 이후에 최하단석을 놓고, 벽석을 연결하여 축조하였다. 사면의 깊은 곳에 해당하는 서장벽은 묘광 선보다 90cm정도 안쪽으로 들어온 지점에 벽석을 쌓고 뒤채움하였다. 벽석은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병행하여 축조하였다. 10cm 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관대를 조성하였으나 북쪽단벽쪽에는 관대로 보이는 할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목관의 안치공간이 남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북쪽단벽을 중심으로 유물의 부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관대로 사용된 할석들이 벽석주변으로 갈수록 더 큰 것으로 보아 목관은 바닥면이 둥글게 처리된 통나무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물은 철기유물이 다수 확인되는데 남단벽 주변에서 집중 확인되었



圖面 71. 나-27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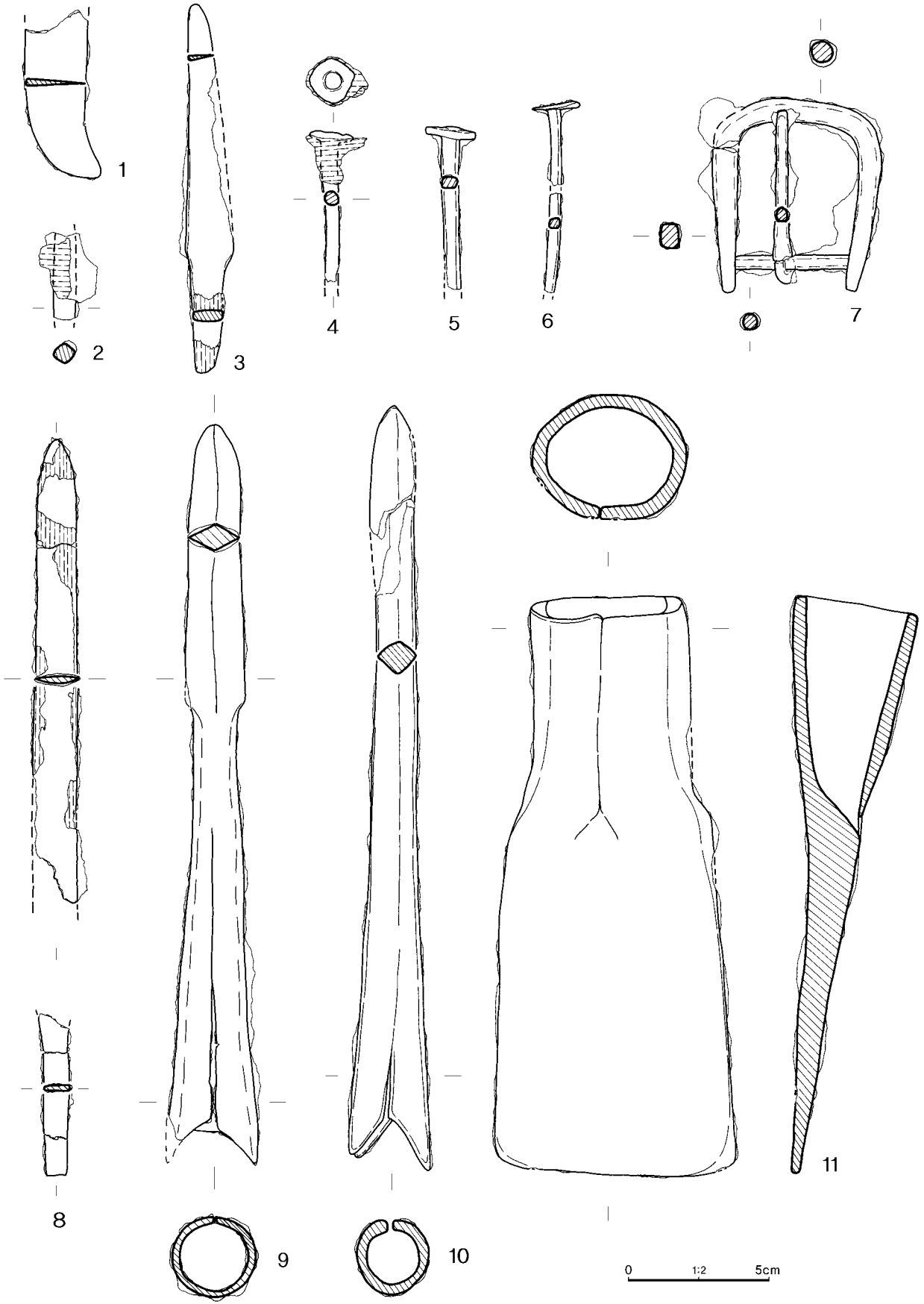
다. 등자 1점, 철검 1점, 도자 2점, 철검 1점, 관정 3점, 철부 1점, 교구 1점, 철촉 2점, 불명철기 1점, 고배 1점, 철모 3점이 출토되었다. 철모 3점 가운데 1점은 남동쪽 모서리에서 비스듬하게 세워진 채 출토되었다. 그 외에도 도굴에 의한 교란층에서 수습된 고배 5점, 개 6점, 단경호 4점, 연질옹 2점, 연질발 1점, 완 1점, 철촉, 철검, 등자, 비 1점과 철기 2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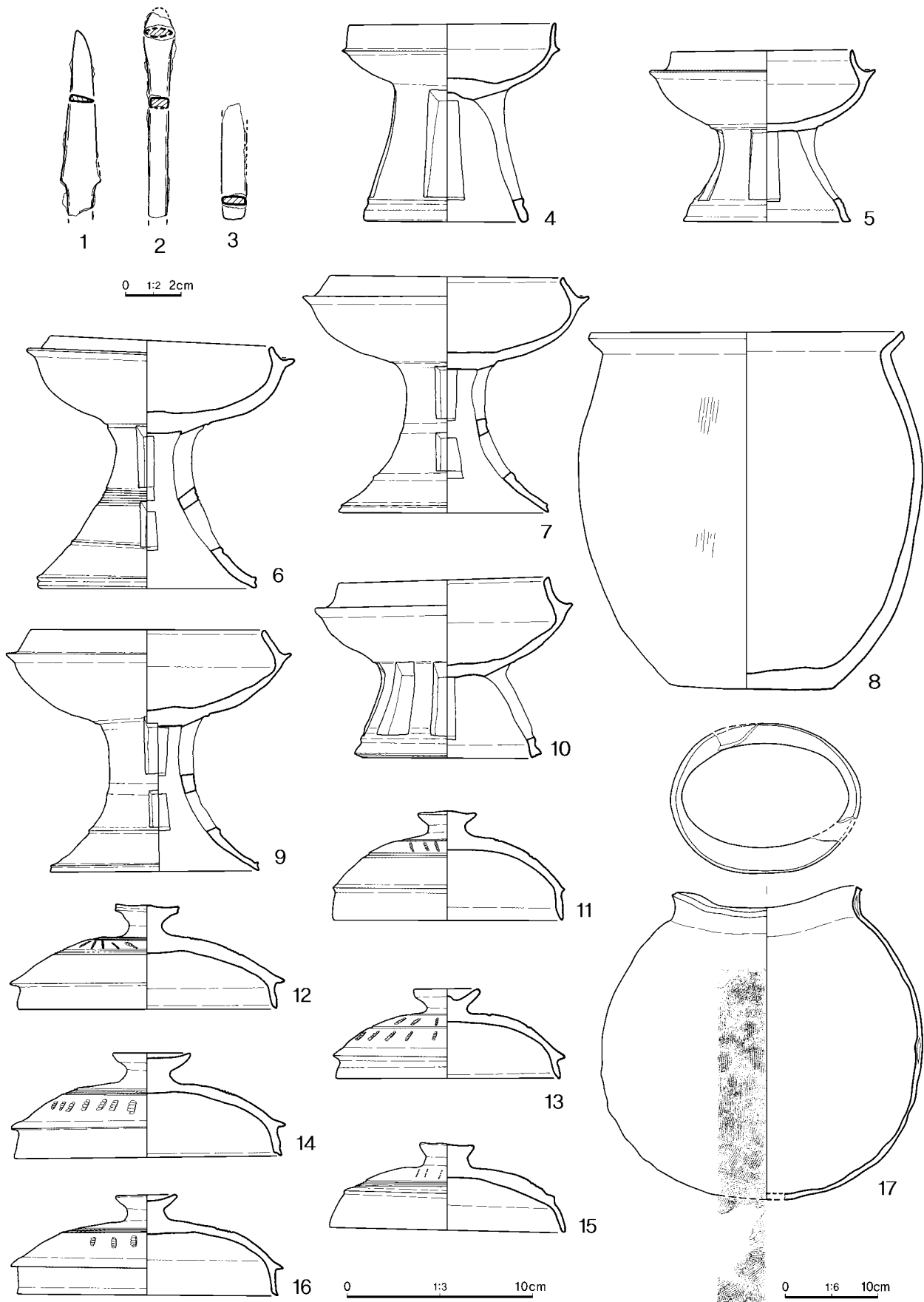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73-4	62-1	15	고배	10.8	11.2	8.5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부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배신 내면 자연유 부착,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4개 배치
73-6	62-3	수습		13.7	12.1	11.6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일부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회백색, 배신 내면에 황록색 자연유 부착,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중앙 7치구의 침선 시문, 상하단에 세장방향 투창 각각 3개 상하일렬 배치.
73-5	62-2	수습		9.9	9.7	9.1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1/2, 대각 1/3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엷은 회청색, 속심 자색,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5개 배치
73-7	62-4	수습		12.9	12.6	11.3	도질소성, 소성보통, 대각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갈색, 속심 회백색, 배신 내면 자연유 부착,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상하단에 세장방향 투창 3개씩 상하일렬 배치
73-9	62-6	수습		13.2	12.3	11.3	도질소성, 소성보통, 대각 1/2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갈색, 속심 엷은 자색, 배신 내면 황록색 자연유 부착,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상하단 세장방향 투창 3개씩 상하일렬 배치
73-10	62-7	수습		9.8	11.3	9.1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 1/3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9개 배치
73-12	62-9	수습	개	5.7	14.1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1/2, 꼭지 일부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정면 침선과 8치구 유충문 시문
73-14	62-11	수습		5.9	14.6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운모 혼입, 외면 회갈색, 내면과 속심 회백색, 회전물손질 정면, 침선과 5치구 유충문 시문
73-16	62-13	수습		5.5	14.2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단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갈색, 속심 회백색, 회전물손질정면 침선과 5치구 유충문 시문
73-11	62-8	수습		6.0	12.4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단, 꼭지 일부 결실, 운모 혼입, 내면 회청색, 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침선과 7치구 유충문 시문
73-13	62-10	수습		5.0	12.2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혼입, 내 외면 엷은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침선과 유충문 시문
73-15	62-12	수습		4.9	12.7		연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1/2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황갈색, 침선과 점열문 시문
73-17	62-14	수습	단경호	34.1	19.5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1/4, 동체 일부 결실, 운모 혼입, 외면 짙은 회청색, 내면과 속심 엷은 회청색, 구연부와 동체 횡타원형으로 찌그러짐, 동체부 기포 형성, 승문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동상위는 타날흔 삭제, 동최대경 : 34.7
74-1	63-1	수습		24.4	18.1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1/3 결실,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회청색, 구연부 횡타원형으로 찌그러짐, 격자타날 후 동상위에 3조 침선 시문, 동최대경 : 24.7
74-2	63-2	수습		36.7	22.5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1/3, 동체 1/4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승문타날 후 동상위는 회전물손질로 타날흔 삭제, 동최대경 : 38.0
74-6	63-6	수습		28.9	(16.9)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일부, 동체 1/3결실, 장식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구연부와 동체 횡타원형으로 찌그러짐, 동중위 중방향의 평행타날, 동상위와 하위는 평행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타날흔 제거, 동최대경 : 28.2
74-7	63-7	수습		15.9	11.7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1/3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구연부 찌그러짐, 동상위와 중위 회전목리 조정, 하위 물손질 정면, 동최대경 : 16.6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73-8	62-5	수습	연질용	19.4	16.9		연질소성. 소성보통. 동체 1/4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적갈색. 평행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타날흔 제거. 동최대경 : 18.7
74-3	63-3	수습		8.8	9.8	11.0	연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일부 결실. 석영 장식 혼입. 외면 적갈색. 내면과 속심 황갈색. 저부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74-4	63-4	수습		8.8	10.7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와 동체 일부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황갈색. 저부 내면 지두흔. 동최대경 : 11.5
74-5	63-5	수습	완	5.1	(15.0)		연질소성. 소성보통. 동체의 1/3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황갈색, 물손질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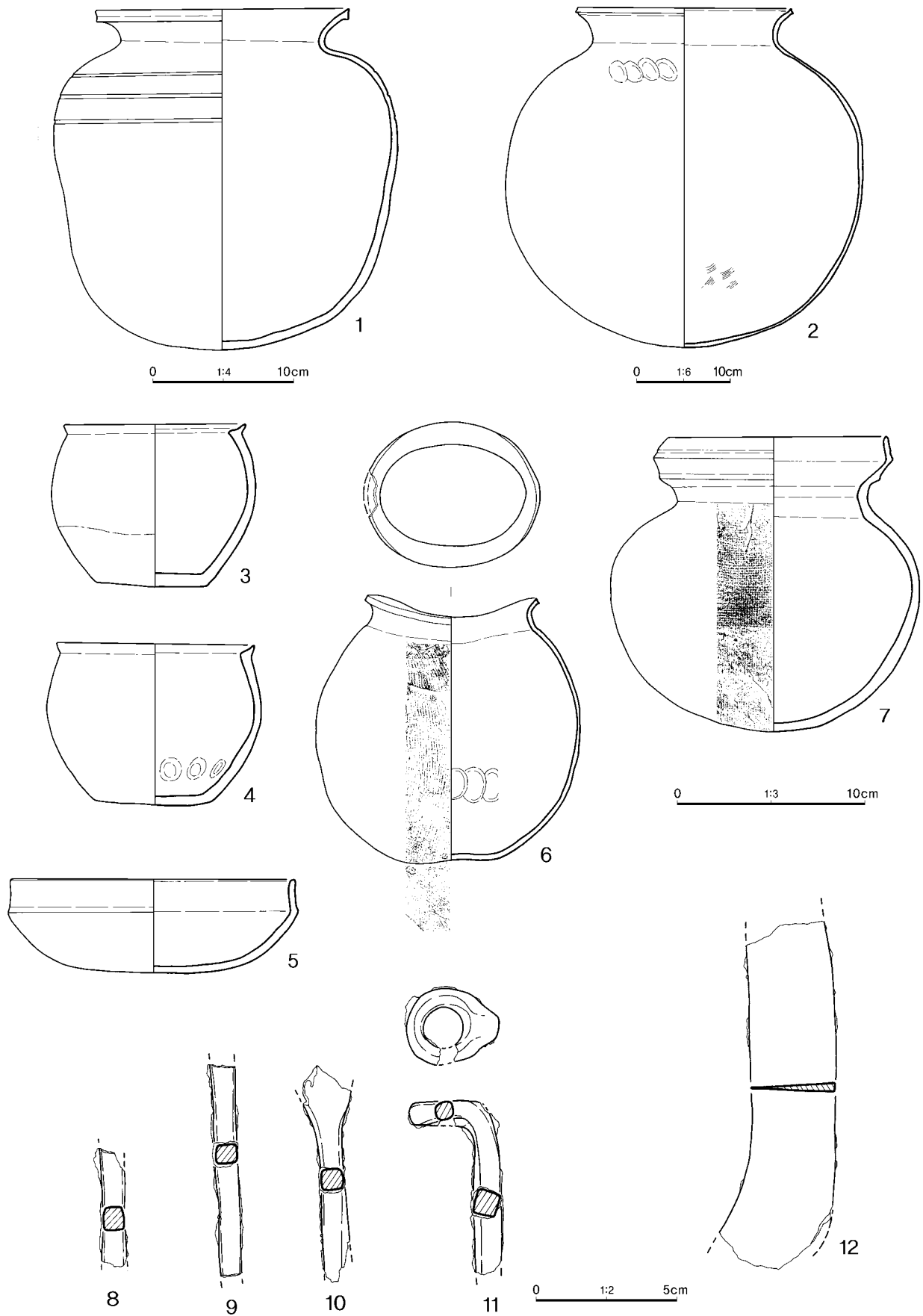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70-9	61-4	1	등자	16.5			輪部와 力革孔 주변으로 일부 결실. 병부는 역혁공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짐. 역혁공(力革孔)은 직사각형. 윤부는 타원형. 윤부는 답수부로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며, 답수부는 별다른 장치 없이 평탄하다. 규격:윤부길이 11.3cm, 윤부 최대폭 14.1cm, 윤부두께 0.7cm, 力革孔 폭 1.5cm, 병부길이 6cm, 병부폭 3cm, 병부두께 0.6cm
75-1	63-13	수습	등자	17.6			역혁공(力革孔)은 직사각형. 윤부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답수부는 별다른 장치 없이 평탄하나, 폭이 넓어지고, 두께가 폭에 비해 얇아진다. 규격:윤부(輪部)길이 12.5cm, 윤부 최대폭 16.2cm, 윤부두께 0.8cm, 力革孔 폭 1.6cm, 병부길이 7.1cm, 병부폭cm, 병부두께 0.9cm
72-8	61-13	6	철검	(44.3)	3.0	0.6	신부와 병부 일부 잔존. 신부 목질흔. 신부단면 볼록렌즈형. 병부단면은 세장방형. 신부잔존길이 32.8, 병부잔존길이 11.5, 병부폭 1.9, 병부두께 0.5
70-10	61-5	2	철모	28.7	3.4		신부단면 편마름모형. 병부단면 타원형. 신부 목질흔 잔존. 공부 연미형. 공부폭 2.8×2.3, 공부두께 0.35
72-9	61-14	10		26.3	3.0		신부단면 능형. 관부의 흔적 뚜렷. 공부 연미형. 공부 폭 3.0×3.0, 공부두께 0.2
72-10	61-15	11		27.2	2.6		신부 일부 결실. 신부단면 능형. 연미형. 관부흔 없음. 물미의 가능성 있음. 공부폭 2.6×2.6
72-11	61-16	12		철부	20.5	8.5	
72-3	61-8	5	도자	13.2	1.8	0.2	인부 일부가 부식되어 결실. 인부 단면 이등변삼각형. 병부단면 말각장방형. 병부 목질흔
73-1	61-17	14		(6.6)	1.2	0.3	병부 결실. 인부단면 이등변삼각형. 관부형성
73-2	61-18		철촉	(7.4)	1.1	0.4	유엽형. 莖部 결실. 선단 일부 결실
73-3	61-19		불명철기	(4.2)			경부 일부 잔존, 축신의 형태는 알 수 없다. 경부폭 0.9cm, 경부두께 0.3cm
72-1	61-6		3	철검	(6.0)	2.2	0.2
72-7	61-7	13	교구	6.9	4.6		거의 완형. 교침과 연결봉의 단면은 원형. 테두리의 단면은 연결봉 쪽이 장방형. 마구의 부속구로 추정
72-4	61-9	7	철못(鐵釘)	(5.3)	1.6	0.5	하단부 결실. 두부에 편평한 정두가 부착. 단면 원형. 경부 일부 목질부착.
72-5	61-10	8		(5.8)	1.8	0.4	단면 장방형. 등자, 재갈, 교구 등과 공반. 마구의 부속구일 가능성이 있음
72-6	61-11	9		(6.7)	1.7	0.4	
72-2	61-12	4	불명철기	(2.6)	0.8		외면에 목질 부착.
74-8	63-8	수습	재갈	4.2	0.8	0.9	잔존상태 불량, 4개의 편으로 분리됨
74-9	63-9			7.5	0.8	0.7	
74-10	63-10			7.6	0.9	0.8	
74-11	63-11			6.3	0.9	0.9	인수고리지름 2.8cm
74-12	63-12	수습	철검	12.3	3.1	0.3	기부와 선단부 및 신부 결실. 신부단면 이등변삼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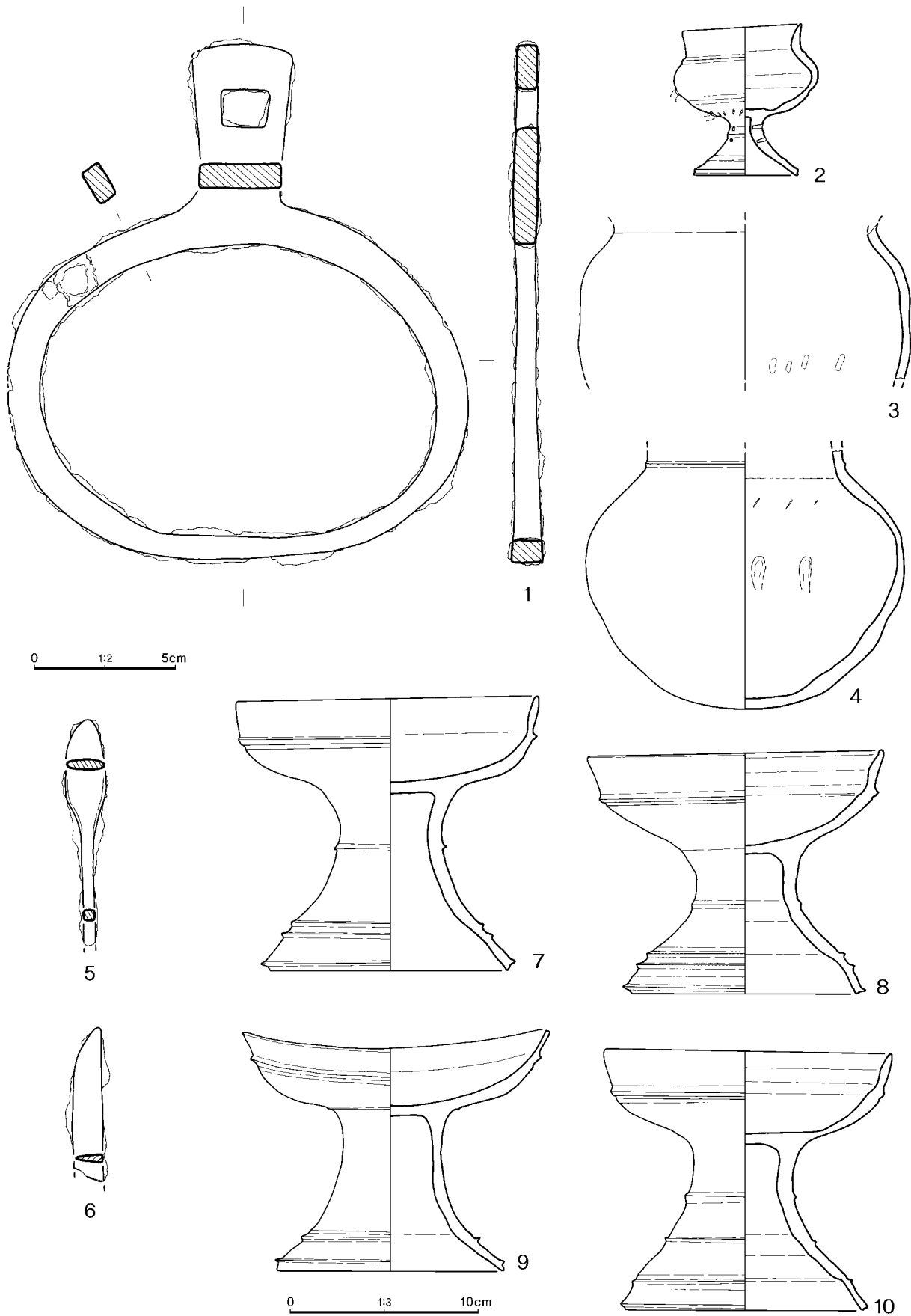
圖面 72. 나-27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面 73. 나-27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面 74. 나-27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面 75. 나-27·29·30·31·32호 석곽묘 출토유물(나-27호:1, 나-29호:2·3, 나-30호:4, 나-31호:5·6, 나-32호:7~10)

(28) 나-28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69, 도판 26-6~8)

유구는 해발 51.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0°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서쪽에 26호 석곽묘가 나란히 위치하는데 배치상태로 보아 26호 석곽묘와 친연관계로 보인다.

석곽은 북단벽이 결실되었으며 잔존하는 벽석은 1~2단 정도이다. 양 장벽은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쌓기 하고, 남단벽은 50cm 가량의 할석을 이용하여 세로쌓기로 마감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35cm, 너비 105cm, 깊이 3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155cm, 너비 50cm, 깊이 30cm이다.

남단벽의 15cm 안쪽으로 판석 1매가 확인되는데 벽석과 판석 사이에는 작은 할석 2매가 있다. 이러한 유구 분할은 나-25호 석곽묘의 양상과 유사하다. 북단벽이 결실되어 명확하지 않지만 매장주체부의 공간분할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9) 나-29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76, 도판 29-1·2)

유구는 해발 55.0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9°E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유적의 최남단 경계지점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다. 주변에 18, 19호 목곽묘와 30호 석곽묘가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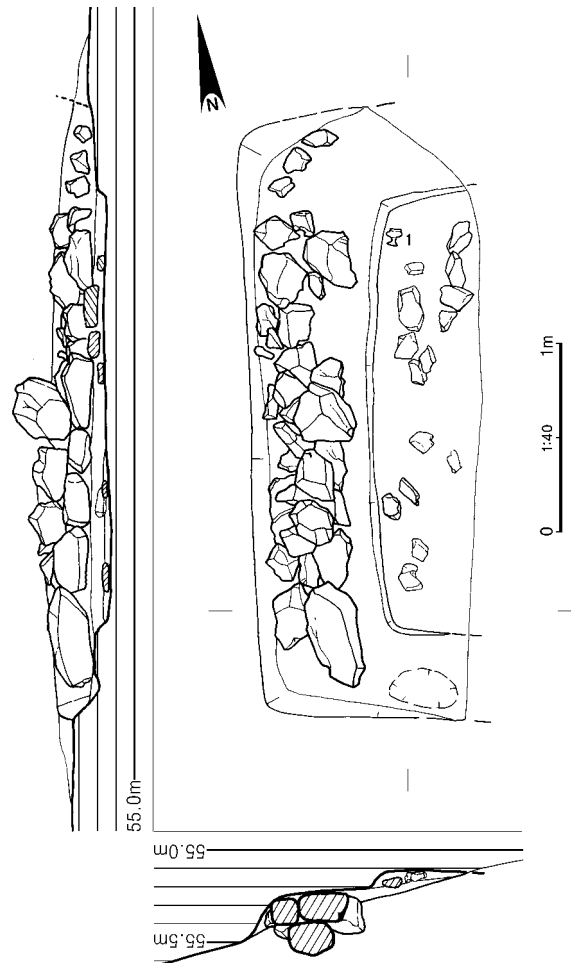
석곽은 경사면을 따라 유실되어 서장벽만 잔존한다. 벽석은 2단이 확인되며 가로쌓기 하였다. 벽석의 축조 과정에서 묘광과 석곽사이에 작은 할석을 채워 넣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25cm, 잔존너비 105cm, 깊이 1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60cm, 깊이 30cm이다.

벽석의 최하단석에서 15cm정도 안쪽에 6~8cm 깊이의 수혈이 확인된다. 그리고 수혈내부에 작은 할석들이 깔려 있다. 이 할석은 최하단석보다 낮은 위치에 해당하는데 관대시설로 추정되며, 목관의 바닥은 벽석의 최하단석보다 아래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북서쪽 모서리에서 대부파수부용 1점이 출토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연결용 일부가 수습되었다.

나. 유물

도면 75-2(도판 64-1)은 도질제의 대부파수부용으로 파수가 탈락되었지만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태토에 장석, 운모가 혼입되었으며 내외면 회갈색, 속심은 옅은 회청색을 띤다. 동상위에 사격사문과 동하위에 점열문을 시문하였다. 대각부에는 반투공의 방형 투창 4개를 상하 일렬로 배치하였다. 높이 8.1cm, 구경 6.3cm, 저경 5.5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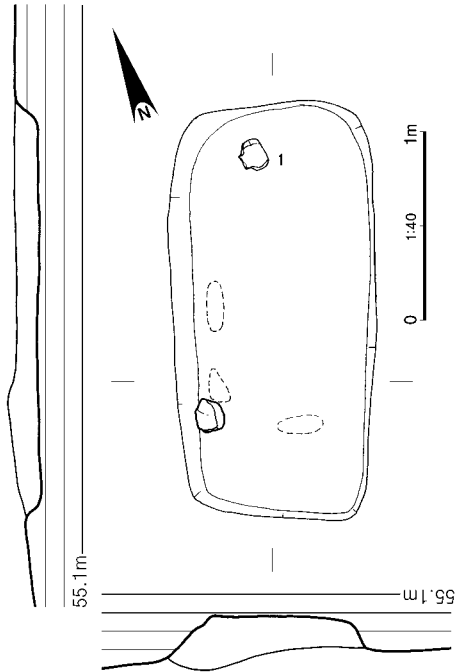


圖面 76. 나-29호 석곽묘

도면 75-3(도판 64-2)는 연질옹의 편이다. 소성은 불량하며,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에 석영, 장석이 혼입되었으며,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띤다.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표면박리가 심하다. 잔존높이 8.4cm이다.

(30) 나-30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77, 도판 28-3·4)



圖面 77. 나-30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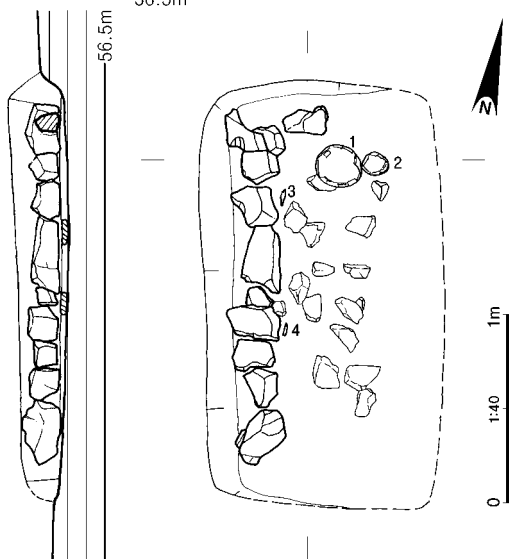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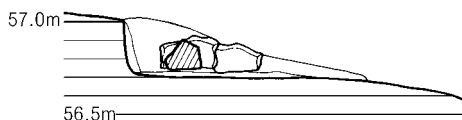
유구는 해발 55.0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9° E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서쪽으로 1.5m 떨어진 지점에 19호 목곽묘가 있고, 북동쪽으로 1m 거리에 25호 목곽묘가 위치한다. 확인된다.

서장벽의 최하단석 1개와 최하단석이 빠진 흔적이 확인되어 석곽묘임을 알 수 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105cm, 깊이 20cm이다.

유물은 북단벽 주변에서 호의 일부가 출토되었다.

나. 유물

도면 75-4(도판 64-3)는 도질제의 호이다. 구경부의 흔적으로 보아 장경호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소성은 보통이며 구경부와 동체부의 절반가량이 결실되었다. 태토에 장석이 다량으로 혼입되었으며,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전체적으로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잔존높이는 13.9cm이며, 출토위치는 1이다.



圖面 78. 나-31호 석곽묘

(31) 나-31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78, 도판 28-5~7)

유구는 해발 56.5m와 57.0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1°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되었다. 서쪽으로 60cm 거리에 32호 석곽묘가, 동쪽으로 2m 떨어진 지점에 21호 목곽묘가 위치한다.

석곽은 서장벽 최하단과 북단벽 최하단석 1매만 잔존한다. 벽석은 모두 가로쌓기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25cm, 너비 125cm, 깊이 15cm이며, 석곽의 잔존깊이는 20cm이다. 석곽 내부에는 할석을 이용하여 관대를 설치하였는데, 서장벽을 따라 가장자리에는 10~15cm 가량 높은 할석들이 확인된다. 이는 목관을 고정할 흔적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서장벽에 연접하여 철축 1점과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북단벽 부근에서 연질옹과 연질토기편이 출토되었으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복원이 불가능하였다.

나. 유물

도판 64-12, 13은 연질토기 2점으로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도면화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진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도면 75-5(도판 64-4)은 철축으로 유엽형이며, 莖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잔존길이 8.0cm, 너비 1.5cm, 폭 0.4cm이며, 출토위치는 3이다. 도면 75-6(도판 64-5)는 도자편이며 인부만 잔존한다.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잔존길이는 5.5cm, 너비 1.1cm, 두께 0.35cm이며, 출토위치는 4이다.

(32) 나-32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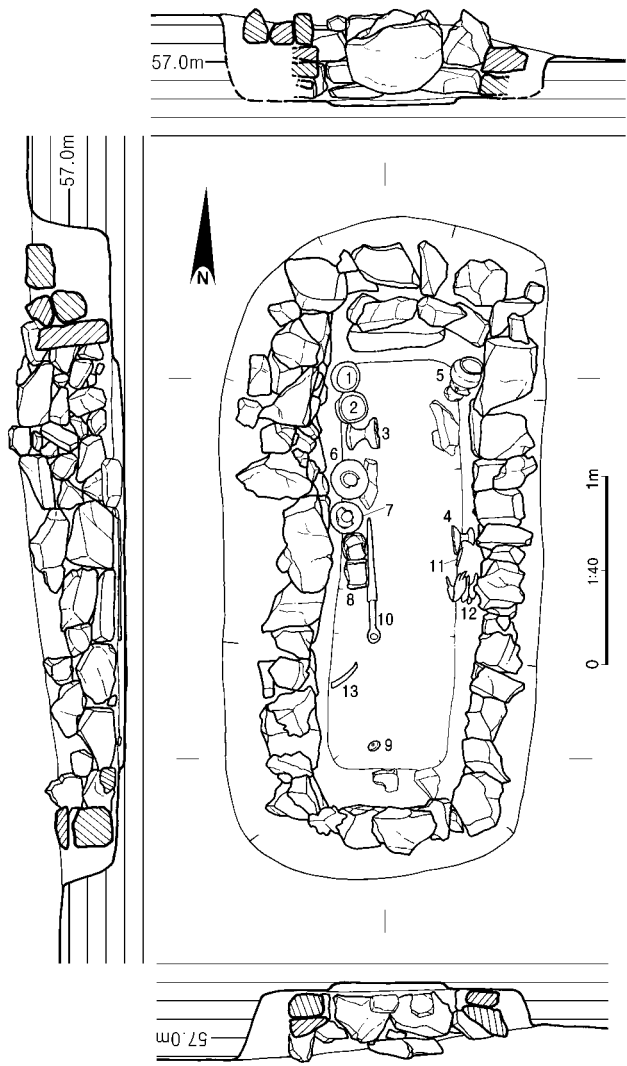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79, 도판 29)

유구는 해발 57.0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2°W로 동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동쪽으로 60cm 거리에 31호 석곽묘가 확인되고, 북쪽으로 3m 떨어진 지점에 34호 석곽묘가 위치한다.

석곽은 측벽석이 3~4단 정도 잔존하는데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모두 가로 쌓기 하였다. 서장벽의 경우 북단벽과 맞닿은 곳의 벽석은 비교적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나머지 벽석과는 쌓기수법이 다르다. 북단벽에는 15cm 안쪽으로 판석을 세웠는데, 그 사이 공간에는 할석이 채워져 있다. 25호 석곽묘와 비슷한 양상이나 나머지 단벽에 판석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판석 앞쪽으로 목관안치를 위한 수혈이 파여져 있다. 바닥면은 별도의 시설없이 바닥면을 곧바로 활용하였다.

석곽의 중간부분에서 검출된 환두대도의 출토 방향으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남쪽으로 보인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50cm, 너비 170cm, 깊이 5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80cm, 깊이 55cm이다.

유물은 양장벽에 접하여 집중된 경향이 있다. 서장벽 주변에서는 고배 3점, 단경호 2점, 연질옹 1점, 환두대도 1점, 철검, 방추차 1점이 확인되었으며, 동장벽 주변으로 고배 1점, 대부장경호 1점, 철검 1점, 철축 8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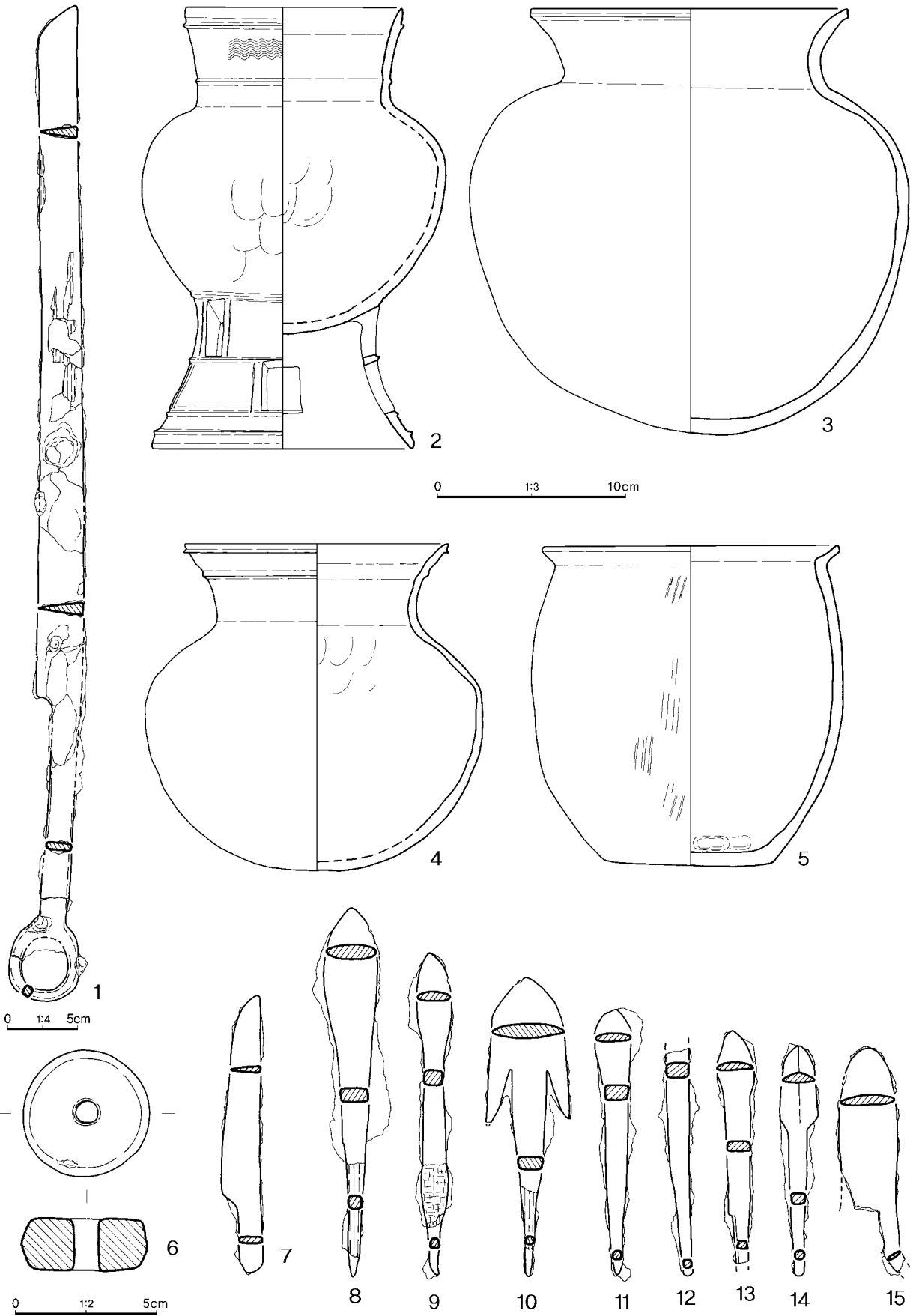


圖面 79. 나-32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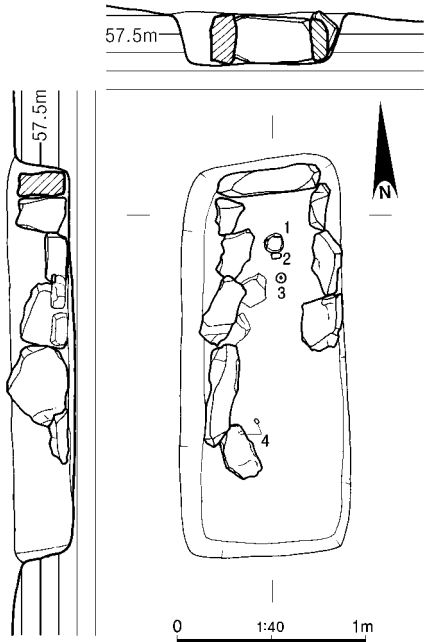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75-8	64-7	1	고배	13.1	15.2	11.9	도질소성. 소성보통.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청색. 배신부의 형태는 거의 동일.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급하게 벌어짐. 대각부에 투창이 없이 돌대의 시문위치에서 다소 차이를 보임
75-10	64-9	2		14	15.2	12.6	
75-7	64-6	3		14.6	15.2	12.6	
75-9	64-8	4		12.9	16.1	12	
80-2	64-10	5	대부 장경호	23.7	11.4	13.8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단 일부, 대각부 1/4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구경부 7치구 파상문 시문. 대각부 상단 세장방향 투창, 하단 장방향 투창 4개씩 상하교호 배치하였는데, 각각의 투창 좌우에 세로 방향 침선을 시문하여 장식. 동최대경 : 16.2cm
80-3	65-1	6	단경호	22.8	16.8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단 일부 결실.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회흑색. 속심 암자색. 표면 녹갈색 자연유 부착. 타날 후 회전물 손질 정면. 동최대경 : 23.4m
80-4	65-2	7		17.5	14.1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1/3 결실.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암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동최대경 : 18.1m
80-5	65-3	8	연질용	17.4	15.7	9	연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와 동체 일부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적갈색. 동체부 종방향 평행타날 후 회전물손질 정면. 저부 종방향 목리 조정
80-6	65-4	9	방추차	4.5	1.9		완형. 흑갈색. 단면 편육각형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80-1	64-11	10	환두대도	69.7	3.3	1.0	철제. 환두 단면 방형. 평면 종타원형. 신부 목질 부분적 수착. 신부단면 이등변삼각형. 병부단면 장방형. 환두외경 5.3cm×4cm
80-7	65-5	11	도자	9.9	1.4	0.3	완형. 신부단면 이등변삼각형. 병부단면 횡장방형
80-8	65-6	12	철촉	13	1.8	0.6	유경식의 완형. 유엽형 촉신부. 단면은 장타원형. 경부(莖部)목질혼 잔존. 단면은 말각방형. 頸部의 단면은 장방형. 촉신부와 頸部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나 頸部와 莖部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80-9	65-7			11.3	1.2	0.4	유경식의 완형. 촉신부의 단면은 편볼록렌즈형. 형태는 유엽형. 頸部의 단면은 장방형 莖部의 단면은 사다리꼴. 莖部는 백화수피가 있고 목질혼 일부분이 잔존한다.
80-10	65-8			10.6	2.6	0.5	유경식. 촉신부 단면은 볼록렌즈형. 역자식 형태. 頸部의 단면은 장방형. 莖部의 단면은 방형. 목질혼 잔존한다.
80-11	65-9			9.3	1.3	0.3	유경식. 촉신부 단면은 장타원이고 사두형 형태로 추정된다. 頸部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頸部의 단면은 장방형. 莖部의 단면은 말각방형이다.
80-12	65-10			8.0			頸部와 莖부잔존. 頸部의 단면은 장방형. 莖部의 단면은 방형
80-13	65-11			8.1	1.4	0.3	유경식. 촉두는 사두형. 단면은 편볼록렌즈형. 莖部일부 파손. 莖部의 단면은 사다리꼴. 頸部는 사다리꼴
80-14	65-12			8.0	1.2	0.4	유경식. 촉신부의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능형). 촉신부는 중앙에 능이 있고, 유엽형이나. 頸部와의 경계부분에는 각이 짐. 頸部는 장방형. 莖部는 원형의 단면이다.
80-15	65-13			(8.0)	2.0	0.4	역자식. 촉신 단면은 편 볼록렌즈형. 촉신 일부 결실.
83-1	65-14	13	철검	18.5	2.8	0.6	선단부 결실. 신부단면 이등변 삼각형



圖面 80. 나-32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面 81. 나-33호 석곽묘

(33) 나-33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81, 도판 30-1~3)

유구는 해발 57.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3° E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동쪽으로 1.5m 떨어진 곳에 23호 목곽묘가 위치한다.

석곽은 남단벽과 동장벽의 1/2이 결실되었다. 측벽석의 대부분은 경사면을 따라 유실되고 최하단석만 확인된다. 벽석은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혼용하였다. 북단벽의 최하단석은 판석 1매를 이용하여 장벽과 연결되었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80cm, 깊이 3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160cm, 너비 35cm, 깊이 35cm이다.

유물은 양장벽의 중앙에서 확인되는데, 연질고배 1점, 방추차 2점, 유리구슬이 확인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연질용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83-7	65-20	1	연질고배	(6.9)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단, 대각부 하단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황색. 표면박리 극심
83-2	65-15	2	방추차	4	2		완형. 표면 일부 결실. 흑갈색, 단면 편육각형
83-3	65-16	3		4.2	1.8		완형. 표면 탈락 심함. 황갈색 단면 편육각형
83-4	65-17	4	경석	0.7	0.4		원형에 가까운 자색을 띠는 유리제
83-5	65-19			0.7	0.45		
83-6	65-18			0.8	0.8		
83-8	65-21	수습	연질용	9.8	11.2	6.2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1/2, 동체 일부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흑갈색. 표면박리 극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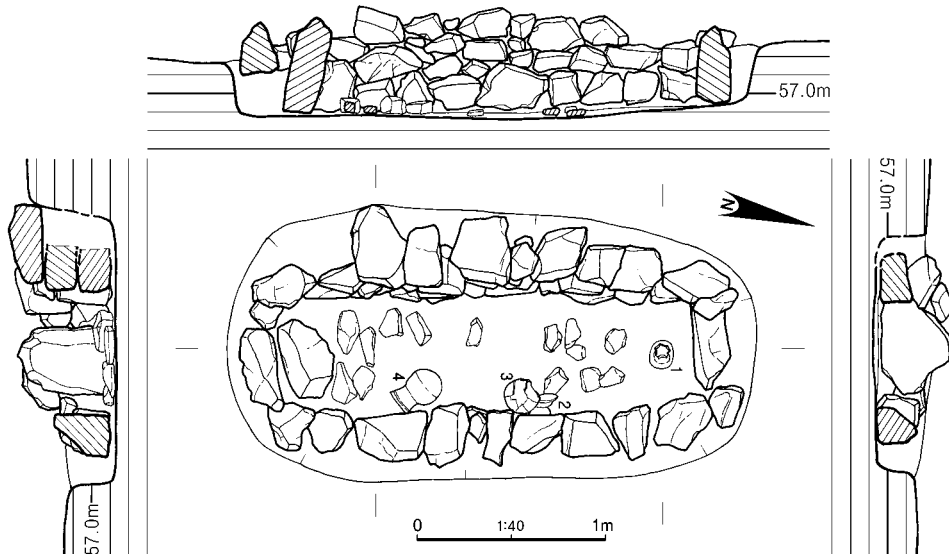
(34) 나-34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82, 도판 30-4~8)

유구는 해발 57m 선상의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4° 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쪽으로 3m 떨어진 곳에 32호 석곽묘가, 북동쪽으로 5m 거리에 35호 석곽묘가 위치한다.

석곽은 네벽면 모두 남아 있다. 서장벽이 3~4단정도 잔존하고 있으나 동장벽과 양 단벽은 최하단석만 확인된다. 벽석의 축조는 서장벽의 경우 최하단석에서 세로쌓기 하였으나 2단부터는 가로쌓기 하였다. 동 단벽의 경우 가로쌓기 하였다. 단벽은 비교적 큰 판석을 이용하여 세로쌓기한 형태이다. 남단벽에는 벽석 안쪽으로 크기가 비슷한 할석 1매가 확인되는데, 32호 석곽묘와 유사한 형태이다. 목관안치를 위한 수혈은 조성되지 않았으나, 할석을 이용한 관대석이 남단벽에 접한 판석 1매 안쪽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아 32호 석곽묘와 동일한 매장공간 축소 기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280cm, 너비 125cm, 깊이 4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195cm, 너비 55cm, 깊이 55cm이다.

유물은 북단벽 부근에서 고배 1점이 확인되고, 동장벽에 접하여 고배, 연질호, 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圖面 82. 나-34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83-10	66-1	1	고배	(9.0)	14.3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2/3, 대각단 완전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황색. 회전물손질 정면
83-11	66-2	2	고배	9.5	14.3	10.5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1/2, 대각단 2/3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황색. 배신 내면만 열린 회청색. 표면 박리 극심
83-9	65-22	3	연질호	(11.0)			연질소성. 소성불량. 동중위 이상 완전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황색. 저부 내면 물손질 정면. 동최대경 : 18.1
83-12	66-3	4	장경호	21.1	13.8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3, 동체 일부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회흑색. 속심 열린 회청색. 구경부 파상문 2열 시문. 동체부 종방향의 평행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타날흔 제거. 동최대경 :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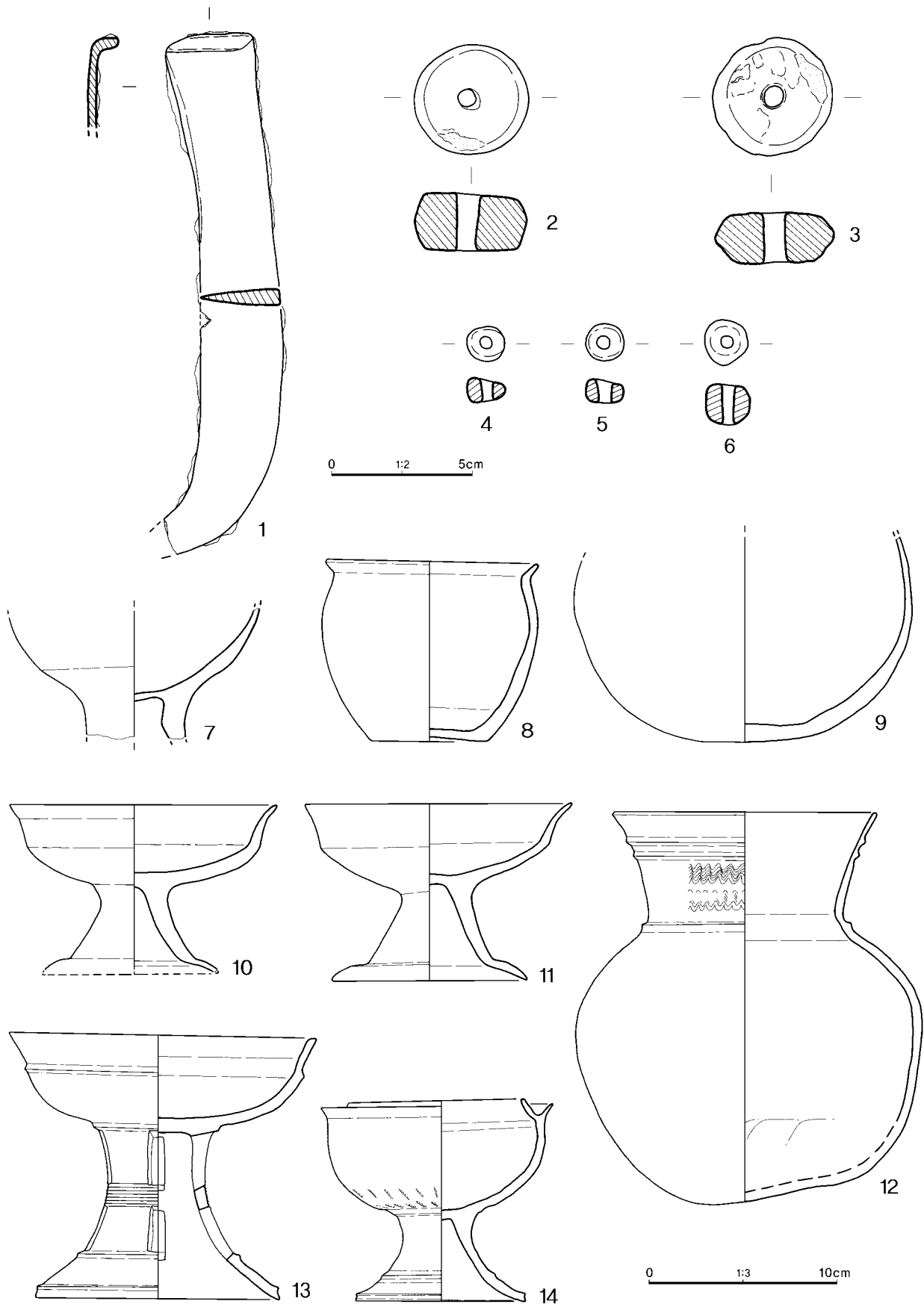
(35) 나-35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84, 도판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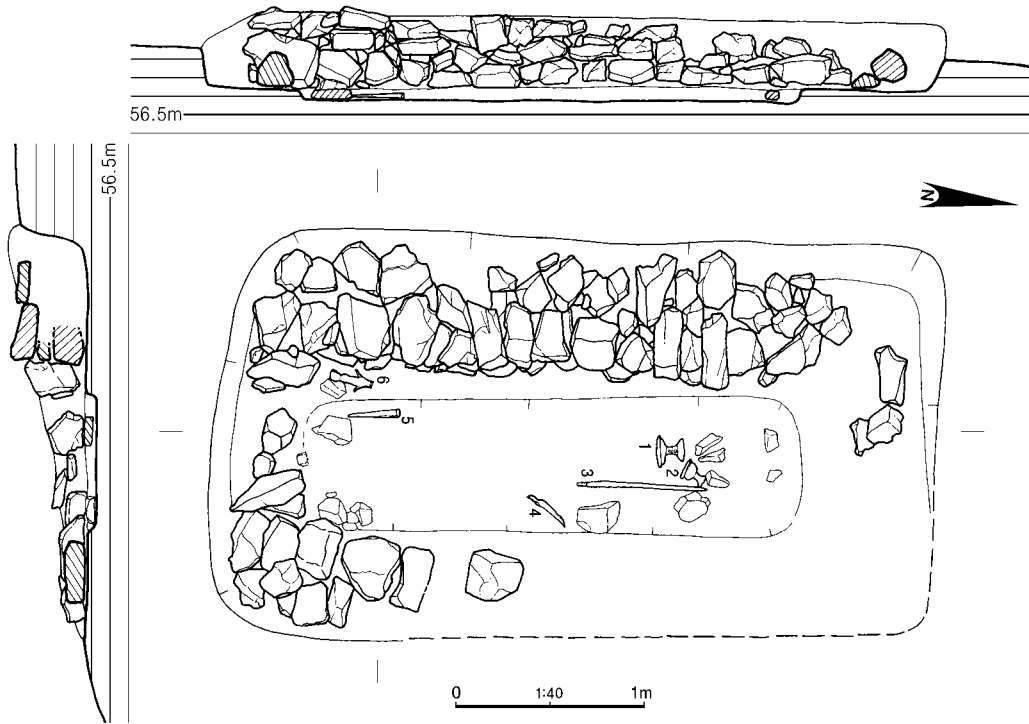
유구는 해발 56.5m~57.0m 선상의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6°W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남서쪽으로 3m 떨어진 곳에 22호 목곽묘가 위치한다.

석곽은 북단벽과 동장벽 대부분이 결실되었으나, 서장벽은 벽석이 3~4단 이상 잔존하고 있어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장단벽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서장벽은 묘광과 벽석 사이에 벽석과 비슷한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뒤채움하여 벽석을 보강하였다. 석곽의 내부에는 벽석을 따라 5cm 깊이로 바닥면을 낮게 정지하였다. 바닥면에는 벽석 인근에 10~20cm의 할석을 배치하여 관대로 사용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80cm, 너비 215cm, 깊이 4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95cm, 너비 95cm, 깊이 45cm이다.

유물은 석곽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쳐진 곳에서 고배, 대부완, 철검, 도자 1점씩이 확인되었고 남서쪽 모서리에서 철모와 유자이기 각 1점씩이 검출되었다. 석곽의 중간부분에서 확인된 철검의 병부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남쪽으로 추정된다.



圖面 83. 나-32·33·34·35호 석곽묘 출토유물(나-32호:1, 나-33호:2~8, 나-34:9~12, 나-36:13·14)



圖面 84. 나-35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간촌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83-13	66-4	1	고배	14.3	16.4	13	도질소성, 소성양호,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배신 내면과 대각단은 박리 극심, 대각부 중앙 7조 침선을 시문하여 상하단 구획, 세장방향 투창 각각 4개씩 상하일렬 배치
83-14	66-5	2	대부완	10.9	9.3	9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외면 부분적 박리, 배신 하부에 5치구 점열문을 2열로 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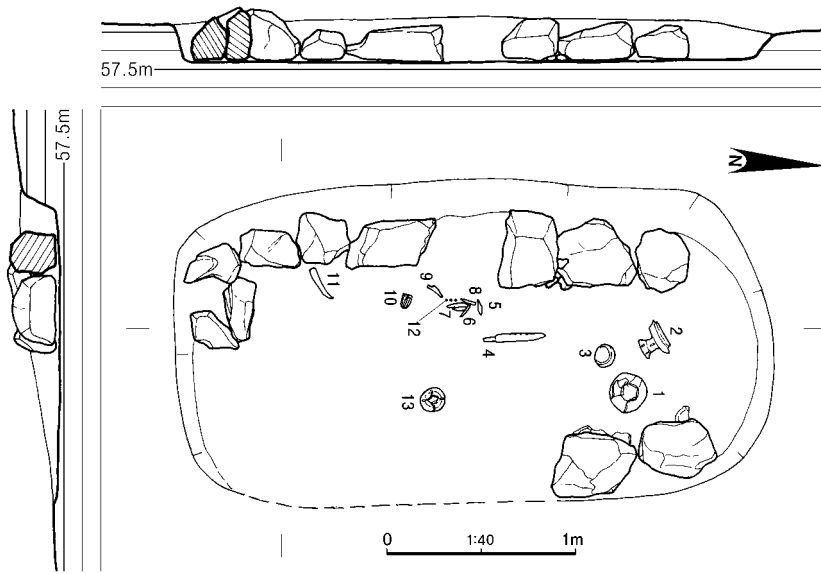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간촌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87-1	66-6	3	철검	(60.8)	3.0	0.5	철제, 병부 1/2 결실, 신부 단면형태는 볼록렌즈형, 병부단면 세장방향, 검신길이 53.8
87-4	66-9	4	도자	(12.6)	1.1	0.3	병부 결실, 신부가 만곡한 편, 신부단면 이등변 삼각형
87-2	66-7	5	철모	28.9	2.0	0.8	원형, 신부단면 볼록렌즈형, 공부단면 방형, 관부 뚜렛, 공부는 연미, 공부직경 2.5×3.1
87-3	66-8	6	유자이기	(22.8)	3.0		자는 신부의 양단을 절단하여 외측으로 외반, 선단부 형태 확인 불능, 3단의 자는 모두 탈락됨, 공부는 하단을 맡아 올린 형태이나 결실이 심한 편, 공부내 목질이 없음, 목병이 착장되지 않았던 것 같음

(36) 나-36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85, 도판 32-1~5)

유구는 해발 57.5m 선상의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³W로 등고선방향과 일치하게 축조되었다. 북쪽으로 2m 떨어진 지점에 37호 석곽묘가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석곽은 서장벽 최하단석과 동장벽 최하단석 2매가 확인된다. 잔존하는 벽석은 모두 가로쌓기 하였다. 묘



광의 규모는 길이 315cm, 너비 160cm, 깊이 2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75cm, 깊이 30cm이다.

유구의 잔존상태는 불량한 편이나 유구내에서 다수의 철기와 토기가 확인되었다. 저장벽의 중간부분에서 철검 1점, 철촉 4점, 도자 2점, 교구 1점, 철검 1점, 유리구슬 4점과 북단벽 주변에서 대부직구호, 고배, 파수부옹이 각 1

圖面 85. 나-36호 석곽묘

점씩 출토되었다. 석곽의 중앙부에서도 고배 1점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87-6	66-11	1	대부 직구호	18.3	9.3	15.4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경부 4/5, 동체 일부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구경부 6치구 파상문 시문. 동체부에 침선과 파상문을 시문. 대각부 3치구 파상문 시문한 후, 장방형 투창 8개 배치. 동최대경: 18.5
87-7	66-12	2	고배	11.7	15.9	10.7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단, 배신 일부 결실. 장식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대각부 세장방형 투창 4개씩 상하 교호 배치
88-4	67-10	13		13.8	(16.7)	13.6	도질소성. 소성양호. 배신부 1/2, 대각 일부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암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상단 세장방형 투창, 하단 방형 투창을 각각 4개씩 상하교호 배치하였다. 상단의 구성비가 하단에 비해 길어서 불균형을 이룸
87-8	66-13	3	파수부옹	7.2	9.5	6.8	도질소성. 소성양호. 파수단면 횡장방형. 파수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엷은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저부 시계방향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87-12	67-4	4	철검	35.1	2.5	0.4	완형. 신부단면 볼록렌즈형. 병부단면 세장방형. 병부 목질흔 부착. 검신길이 24.1
87-5	66-10	5	철촉	(6.8)	1.3	0.3	유엽형. 경부 일부 결실. 수화극심.
87-9	67-1	6		(7.7)	1.3	0.2	경부 결실. 신부단면 편볼록렌즈형
87-10	67-2	7		11.7	2.6	0.3	착두형의 변형. 착두부 양단 결실. 축신단면 판상형
87-11	67-3			12.6	2.5	0.5	역자형. 역자 일부 결실. 신부단면 볼록렌즈형. 병부 목질흔 부착
87-13	67-5	8	도자	11.9	1.1	0.4	완형. 인부단면 이등변삼각형. 병부단면 장방형
87-14	67-6	9		(8.3)	1.2	0.45	병부 결실. 신부단면 이등변삼각형
88-1	67-7	10	교구	5.8	3.7	5.6	완형. D자형. 외윤단면 타원형. 침 단면 방형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88-3	67-9	11	철검	20.0	2.4	0.2	완형, 신부단면 이등변삼각형. 기부 목질흔 없음
88-2	67-8	12	경식	0.4	0.3		유리구슬. 4점. 외면 마연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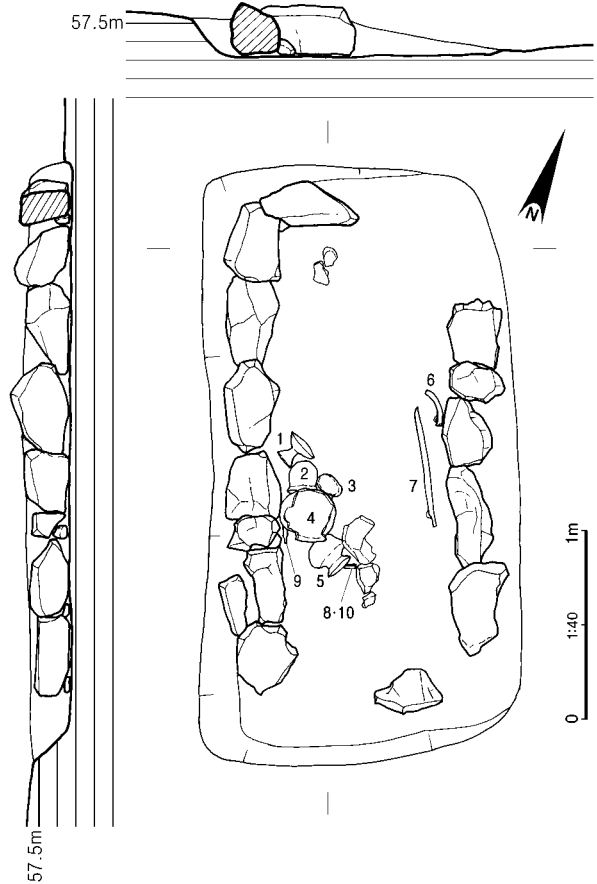
(37) 나-37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86, 도판 32-6~8)

유구는 해발 57.5m 선상의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22°W로 등고선방향과 일치하게 축조되었다. 남쪽으로 2m 떨어진 지점에 36호 석곽묘가 일렬로 조성되어 있다.

석곽은 동장벽과 서장벽 최하단석만 잔존한다. 벽석은 모두 가로쌓기로 축조하였는데 양단벽에는 벽석 1매씩만 남아 있다. 동장벽의 인근에서 출토된 대도의 병부 방향으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남침으로 추정된다. 묘방의 규모는 길이 315cm, 너비 155cm, 깊이 2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35cm, 너비 90cm, 깊이 3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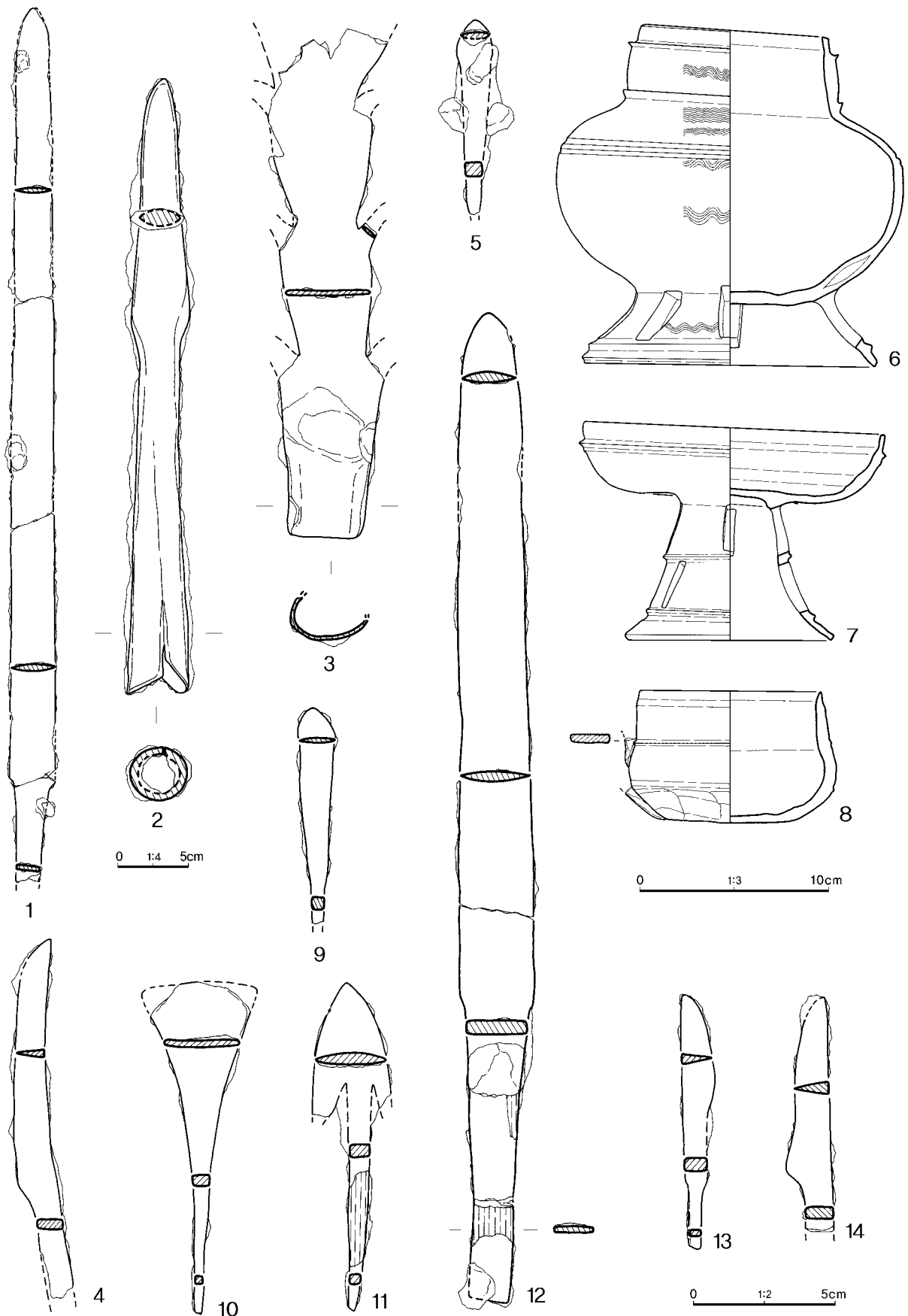
유물은 양 장벽에 인접하여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서장벽을 중심으로 고배 2점, 연질용 1점, 단경호 2점, 철촉 4점이 확인되고, 동장벽 근처에서 대도와 철검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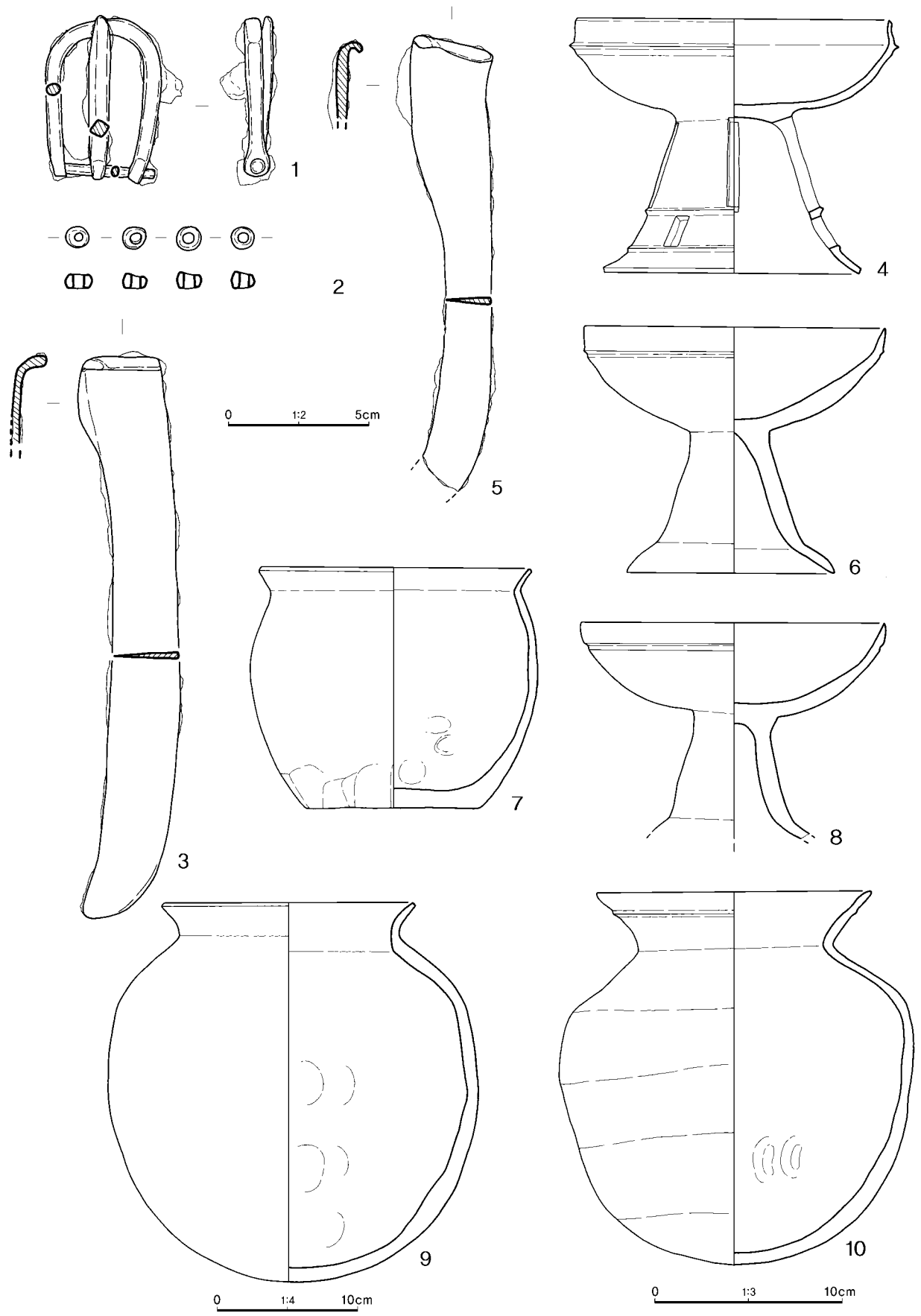
圖面 86. 나-37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88-6	67-12	1	고배	13.3	16.2	11.2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일부, 대각단 1/2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황갈색. 회전물손질 정면 표면박리 극심
88-8	67-14	3		(11.7)	16.2		
88-9	67-15	4	단경호	27.2	(17.8)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1/2, 동체부 1/4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청색. 동체부 격자타날. 동상위 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타날흔 제거. 동최대경 : 26.6
88-10	68-1	5		20.2	14.8		
88-7	67-13	2	연질용	13.1	14.3	9.4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부 1/2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황갈색. 표면박리 극심. 저부 깎기 정면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90-1	68-2	7	대도	88.4	2.9	0.9	철제. 완형신부와 병부 목질 수착. 신부, 병부단면 이등변삼각형 신부길이 70.4
88-5	67-11	6	철검	(16.2)	1.2	0.2	선단부 일부 결실. 신부단면 이등변 삼각형



圖面 87. 나-35·36호 석곽묘 출토유물(나-35호:1~4, 나-36호:5~14)



圖面 88. 나-36·37호 석곽묘 출토유물(나-36호:1~4, 나-37호:5~10)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90-2	68-3	8	철축	(8.5)	2.6		역자형. 신부단면 편볼록렌즈형. 역자 일부와 경부 일부 결실. 경부(莖部)단면 장방형
90-3	68-4			8.6	0.9		완형. 경부 백화수피흔 부착. 신부 단면 볼록렌즈형
90-4	68-5	9		(8.8)	0.7		유엽형. 경부 결실. 신부 단면 볼록렌즈형
90-5	68-6	10		(7.6)	1.0		선단부 결실. 경부 백화수피흔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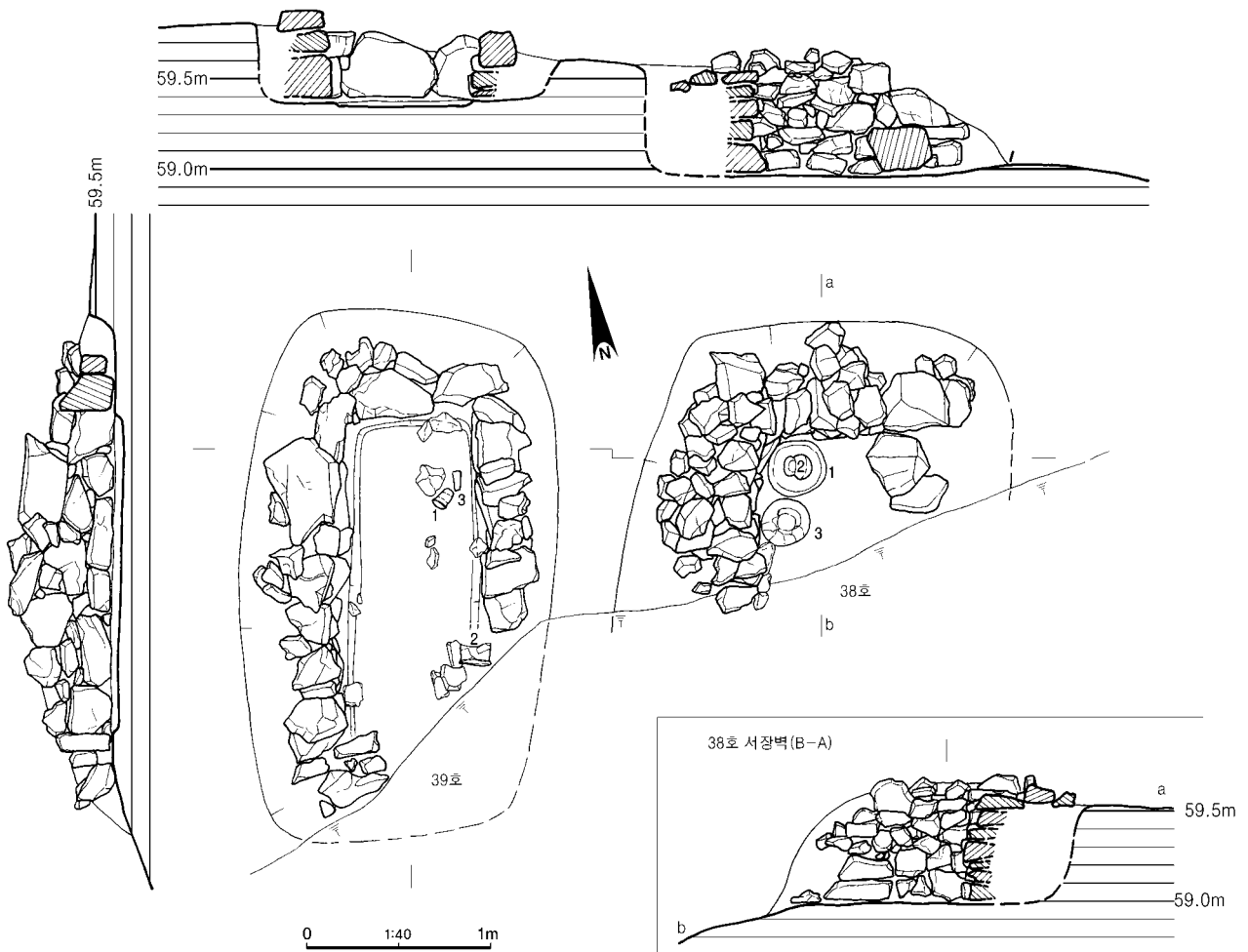
(38) 나-38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89, 도판 33-1~3)

해발 59.0m~59.5m 선상의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0°E로 등고선방향과 일치하게 축조되었다. 서쪽으로 39호 석곽묘가 나란하게 위치한다.

석곽은 사면부의 경사면을 따라 남쪽의 절반정도가 유실되었다. 벽석은 5~6단 정도 잔존하며, 잔존부에 한하여 벽석이 잘 남아있는 편이다. 벽석은 다른 석곽에 비해 작은 할석을 이용하였다. 벽석의 축조과정에서 묘광과 벽석사이의 공간을 뒷채움하면서, 동시에 쌓아올린 것으로 보인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135cm, 너비 200cm, 깊이 5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너비 70cm, 깊이 65cm이다.

유물은 서장벽과 북단벽 모서리에서 발형기대, 장경호, 단경호 1점이 각각 출토되었다. 특히 장경호 1점



圖面 89. 나-38·39호 석곽묘

은 발형기대 수부에 얹힌 채 확인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90-8	68-9	1	발형기대	25.2	27.6	22.7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암자색, 녹갈색 자연유 부착, 배신부 5조 돌대와 7치구 파상문 시문, 대각부 3단 구획 후 2단 7치구 파상문, 1단과 3단 삼각형 투창 6개씩 상하 교호 배치
90-6	68-7	2	장경호	15.4	13.4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일부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구경부 7치구 파상문 시문, 동최대경 : 15.4
90-7	68-8	3	단경호	26.2	(16.9)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2/3, 동체부 1/3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자색, 동체부, 승문타날 후 7조 침선 시문, 동상위 회전물손질로 타날흔 제거, 동최대경 : 27.1

(39) 나-39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89, 도판 33-6/34-1~3)

유구는 해발 59.5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10° E로 등고선과 일치한다. 동쪽에 인접한 38호 석곽묘와도 동일한 주축방향을 갖는다. 양 유구가 거리나 주축방향이 극사한 점으로 보아 친연 관계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석곽은 사면부의 경사면을 따라 남단벽과 동장벽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잔존하는 벽석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벽석은 다양한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빈틈이 없이 쌓아 올린 형태이며, 단벽의 경우는 비교적 큰 할석 2매를 최하단에 놓았다. 석곽의 내부에는 벽석을 따라 내측으로 깊이 5cm 정도 깊이의 바닥면을 정지하였다. 그리고 바닥면 내부에 15cm 내외의 할석들을 놓아 관대로 삼았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280cm, 너비 165cm, 깊이 3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185cm, 너비 70cm, 깊이 55cm이다.

유물은 북단벽과 동장벽 사이에서 확인되는데 컵형토기, 주조철부, 연질토기 편이 검출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고배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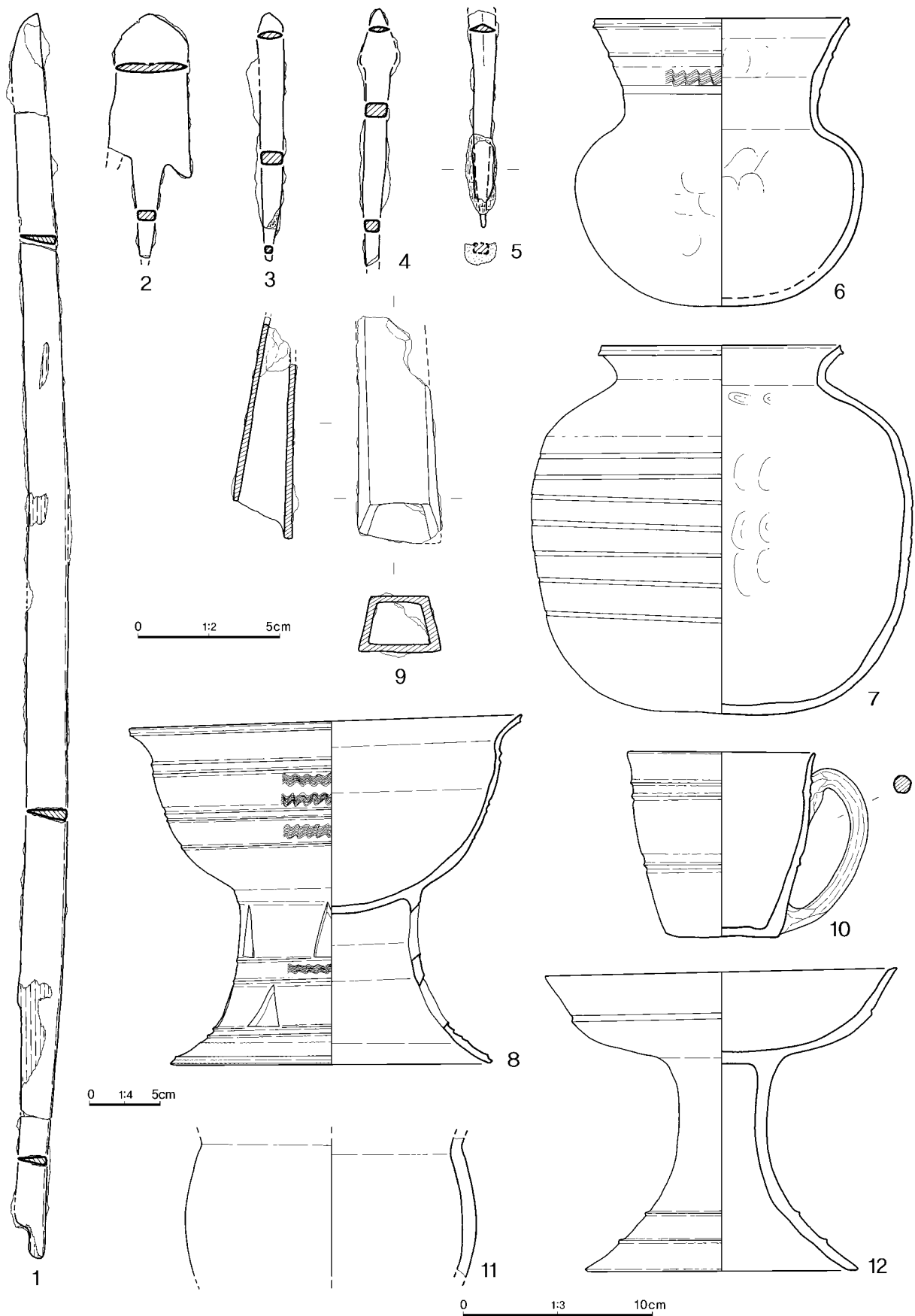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90-10	68-11	1	컵형토기	9.9	9.8	6.0	도질소성, 소성양호, 운모 혼입, 내·외면 엷은 회청색, 동체부 단면 원형의 파수 부착, 저부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90-11	68-12	2	연질토기편	(7.5)			연질소성, 소성불량, 파편 다수 잔존,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적갈색, 표면바리 극심, 동최대경경 : (15.5)
90-12	68-13	수습	고배	16.2	(18.8)	14.4	도질소성, 소성양호, 배신부 1/2, 대각단 일부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암자색, 대각은 나팔상으로 외경

도면 90-9(도판 68-10)은 주조제의 철부로 신부와 일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단면은 전체적으로 사다리꼴을 이루면 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잔존 길이는 13.0cm이고, 출토위치는 3이다.

(40) 나-40호 석곽묘

가. 유구(도면 91, 도판 34-4~9)

유구는 해발 59.5m~60.0m 선상의 구릉사면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 N3° W로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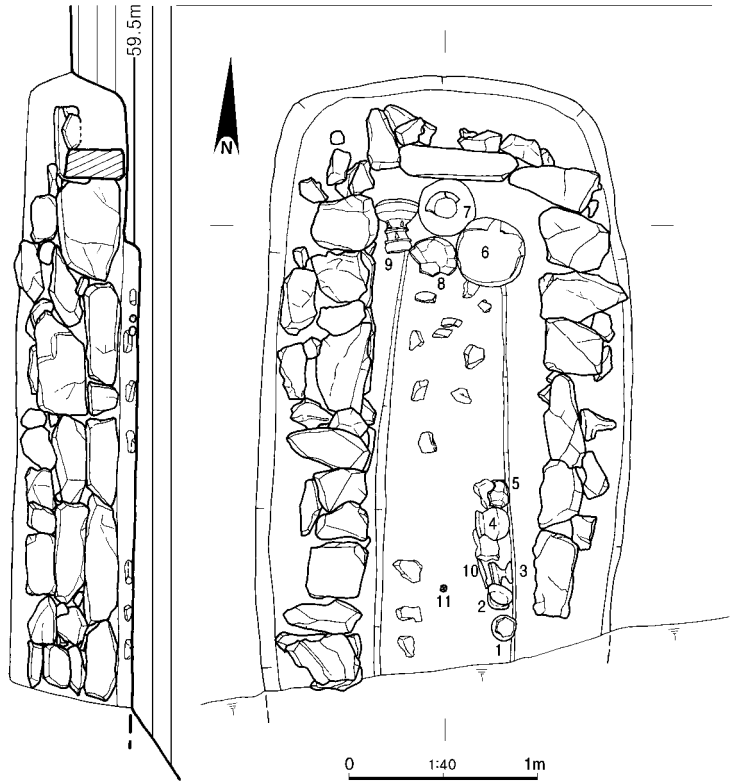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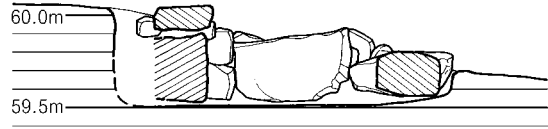


圖面 90. 나-37·38·39호 석곽묘 출토유물(나-37석:1~5, 나-38호:6~8, 나-39호:9~12)

축조되었다. 남북으로 4m 거리를 두고 39호 석곽묘와 42호 석곽묘가 위치한다.

석곽은 남쪽으로 형성된 경사면을 따라 남단벽이 유실되었다. 서장벽은 3~4단 정도의 벽석이 확인되나, 동장벽은 최하단석 1단만 확인된다. 벽석은 모두 가로 쌓기 하였으며, 북단벽은 1매의 판석을 이용하였다. 묘광과 벽석사이 공간에는 할석을 이용하여 일부 보강한 것이 확인된다. 벽석을 따라 석곽의 내부에는 10cm 깊이로 바닥을 정지하였다. 바닥면에 작은 할석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있는데 목관을 안정적으로 안치하기 위한 관대로 사용한 것이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320cm, 너비 180cm, 깊이 5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너비 90cm, 깊이 6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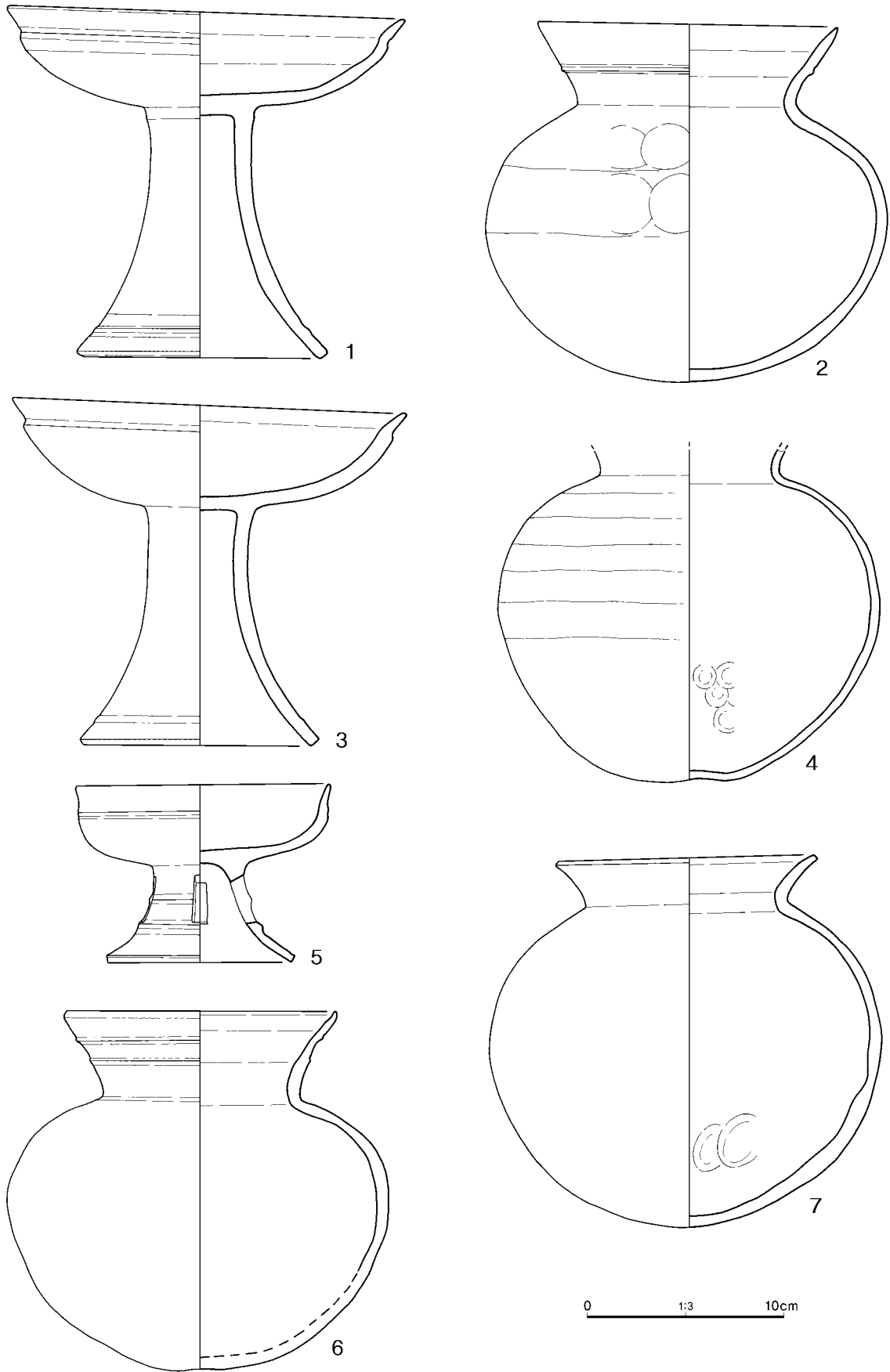
유물은 북단벽의 근처에서 통형기대 1점과 단경호 3점이 출토되었으며, 동장벽의 중간 지점에서 고배 3점, 단경호 2점, 도자 1점이 집중하여 검출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대부직구호 1점, 고배 대각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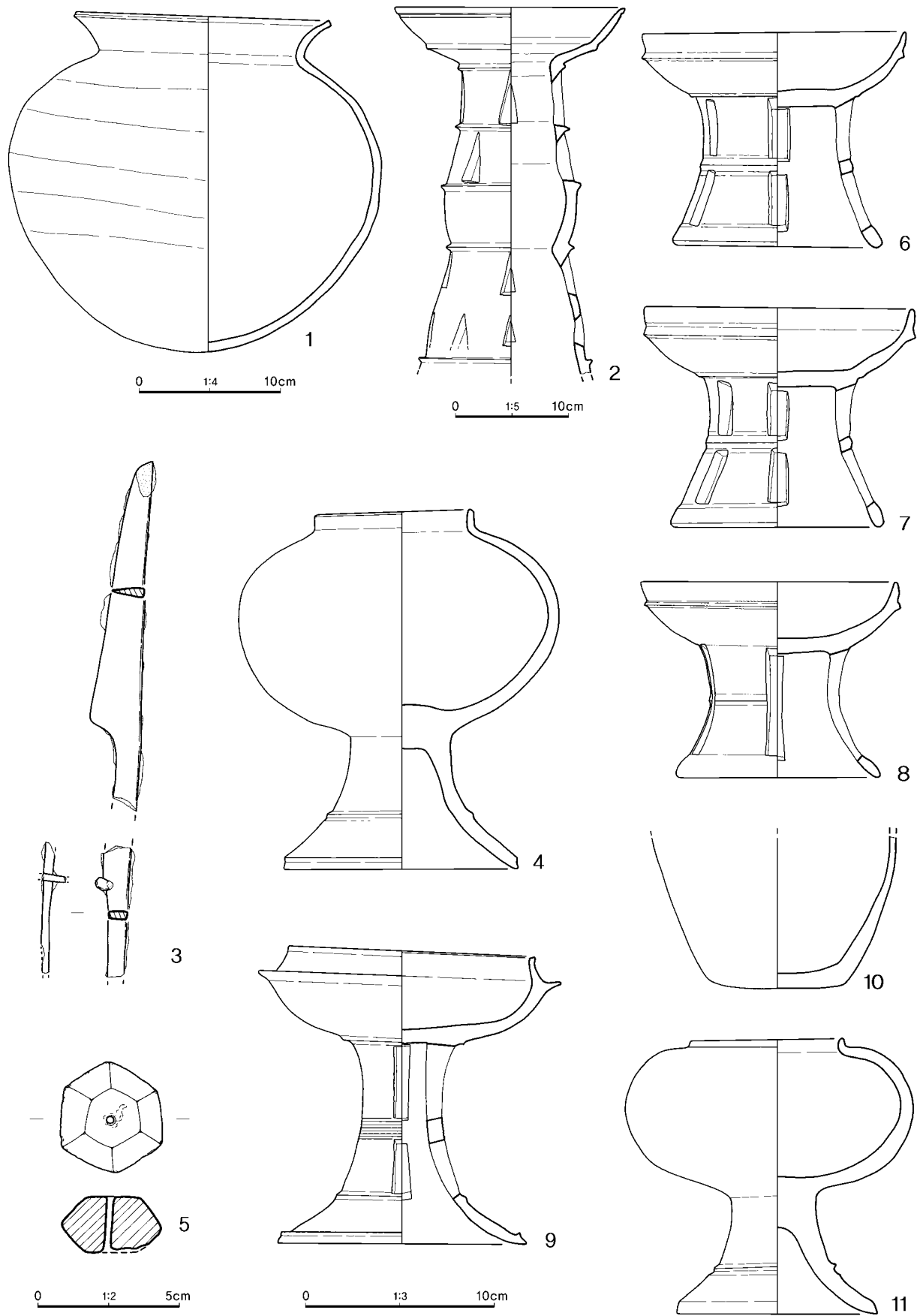
圖面 91. 나-40호 석곽묘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92-1	69-1	1	고배	18.0	20.0	12.0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배신 내면과 대각 외면은 표면박리 극심,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외경
92-3	69-3	2		17.8	20.1	11.6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단 일부 결실, 기형의 위 유물과 동일
92-5	69-5	3		9.2	12.9	9.3	도질소성, 소성양호,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세장방향 투창 4개 배치
92-6	69-6	4	단경호	18.7	13.7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1/3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암자색 동체부 타날 후 회전물손질 정면, 동하위 평행 타날흔적 일부 잔존, 동최대경 : 19.5
92-2	69-2	5		18.5	15.2		도질소성, 소성불량, 동체 일부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회갈색, 속심 갈색, 구연 외면과 저부 표면박리 극심, 동최대경 : 20.5
92-4	69-4	6		(34.2)	38.6		도질소성, 소성양호, 동체부 1/4 결실, 구연단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동상위 회전물손질
92-7	69-7	7		25.4	17.5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1/2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흑색, 속심 회청색, 동체부 타날 후 회전물손질 정면, 동최대경 : 26.6
93-1	70-1	8		24.2	(17.9)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2/3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갈색, 속심 자색, 동체 외면 타날 후 회전물손질 동최대경 : 26.4



圖面 92. 나-40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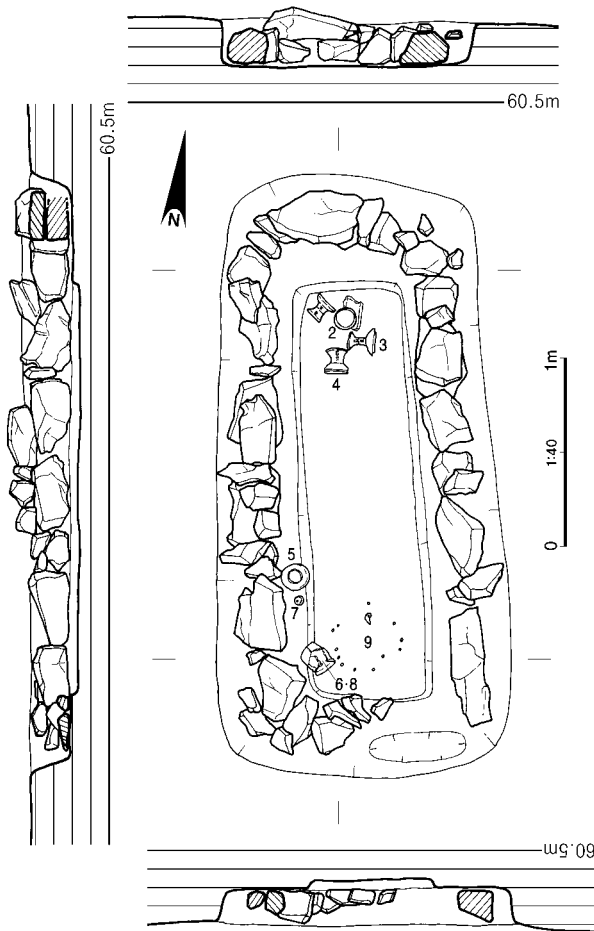
圖面 93. 나-40·41호 석곽묘 출토유물(나-40호:1~5, 나-41호:6~11)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93-2	70-2	9	통형기대	(32.4)	20.6		도질소성. 소성양호. 동중위 이하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수부 내면 박리. 통부는 돌대로 각단 구분. 각단에 삼각형 투창 5개를 상호교호배치
93-4	70-5	수습	대부 직구호	19.2	7.9	12.7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와 동체부 1/3 결실.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엷은 회청색. 속심 엷은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녹갈색 자연유 부착. 대각부 나팔상으로 외경. 동최대경 : 12.4

도면 93-3(도판 70-4)은 철제 도자로 신부가 결실되었으며, 병부도 일부가 결실되었다. 병부에는 단변을 관통하는 철못의 흔적이 잔존한다. 잔존길이 12.3cm, 신부너비 2.0cm이며, 출토위치는 10이다. 도면 93-5(도판 70-6)은 수정제 다면옥이다. 단면은 편육각형이다. 편면은 정육각형에 가까우며 표면에 마연흔이 일부 관찰된다. 너비는 3.9cm, 높이는 2.0cm이며, 출토위치는 11이다.

(41) 나-41호 석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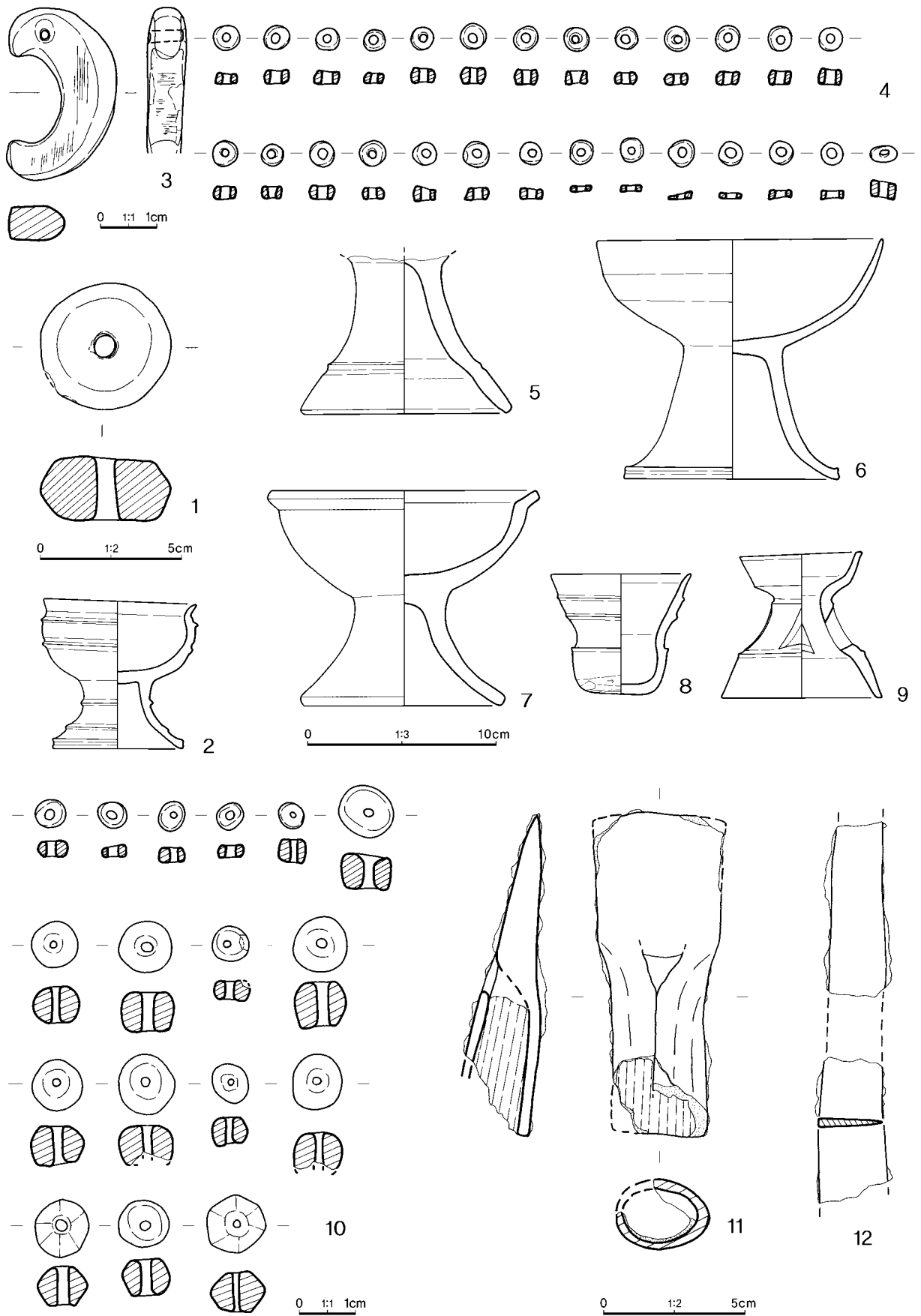
가. 유구 (도면 94, 도판 35-1~4)



해발 60.5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7°W로 등고선 방향과 거의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동쪽으로 42호 석곽이 인접하게 위치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20cm, 너비 130cm, 깊이 25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80cm, 깊이 30cm이다. 남쪽 단벽 일부를 제외하고는 벽석들이 1~2단으로 잔존한다. 1단과 2단은 20cm내외의 할석들을 가로쌓기 하였으며 1단과 2단 사이의 공간에 작은 할석들로 채워 넣었다. 석곽의 내부에 길이 220cm, 너비 60cm의 목곽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구의 바닥에는 관대나 시상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닥에서 확인된 경식은 남쪽 단벽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남향일 가능성이 높다.

유물은 북단벽 쪽에서 고배 4점이 확인되고 남단벽 쪽에서 곡옥 1점, 구슬 27점으로 이루어진 목걸이가 확인되었다. 서장벽 쪽에서 연질옹 1점, 방추차 1점, 대부완 1점이 출토되었다. 대부완은 연질옹 내부에서 담긴 채로 확인되었다.

圖面 94. 나-41호 석곽묘



圖面 95. 나-41·42호 석곽묘 출토유물(나-41호:1~5, 나-42: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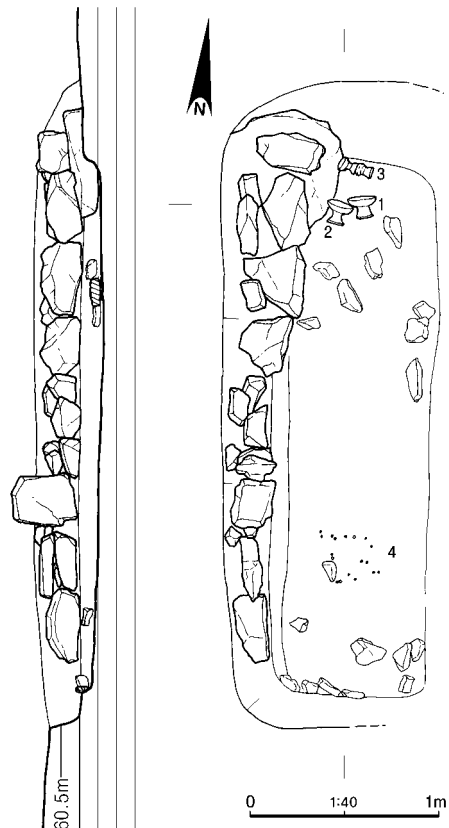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93-6	70-7	1	고배	11.5	13.9	10.6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외면 회흑색.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장방형 투창 각 5개씩 상하일렬 배치	
93-7	70-8	2		11.8	14.1	10.9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외면 엷은 회흑색. 속심 회청색. 배신 내면 녹갈색 자연유 일부 부착. 기형은 윗유물과 거의 동일	
93-8	70-9	4		10.5	13.5	10.7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혼입. 내·외면은 회흑색. 속심은 엷은 회청색. 윗유물과 기형상 유사. 대각부는 상하 2단구성. 상하 일렬배치의 투창이 분리되지 않고 이어짐 대각은 2단 구성이지만 투창은 일단투창	
93-9	70-10	3		15.8	13.2	13.3	도질소성. 소성양호. 운모 혼입. 내·외면 회갈색. 속심은 엷은 회청색. 녹갈색 자연유 부착. 대각부 중앙 7치구침선 시문. 대각부 상하단 세장방형 투창 3개 상하일렬 배치	
93-11	70-12	5	대부직구호	14.8	8.1	10.6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단 일부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동상위와 대각부 표면박리 심함. 회전물손질 정면	
93-10	70-11	6	연질용	(8.1)		7.1	연질소성. 소성불량. 동중위 이상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황갈색. 저부 내면 물손질 정면	
95-1	71-1	7	방추차	4.5	2.2		완형. 색조 황갈색. 단면 육각형	
95-2	71-2	8	대부완	8.0	8.1	6.9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단 일부 결실.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길은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물손질 정면	
95-3	71-3	9	경식	곡옥	3.0	너비 1.9	두께 0.6	석제 26점, 유리제 1점. 구멍지름 0.15cm
95-4	71-4			환옥	0.4		두께 0.1 ~ 0.3	
95-5	70-3	수습	고배대각편	(8.5)		10.7	도질소성. 소성양호. 배신부 결실.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흑색. 회전물손질 정면	

(42) 나-42호 석곽

가. 유구 (도면 96, 도판 35-5·6)

유구는 해발 60m 선상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6° W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서쪽으로 41호 석곽이 남쪽으로 40호 석곽이 인접해 있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340cm, 잔존너비 110cm, 깊이 30c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290cm, 너비는 동쪽 장벽의 유실로 알 수 없으며 깊이는 35cm이다. 서쪽 장벽만 1단 가량 잔존해 있는데 서쪽 장벽과 북쪽 단벽의 모서리부분에 돌출한 암반 그대로 1단의 벽석으로 사용하였다. 서쪽 장벽은 15cm 내외의 할석으로 가로쌓기 하였다. 석곽의 내부에는 길이 280cm, 너비 80cm의 목곽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상석은 따로 확인이 되지 않으며, 양 단벽쪽에 10cm내외의 편평한 할석들이 확인되는데 목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관대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목곽 내부에 남쪽 단벽쪽에서 경식이 확인되어 피장자의 두향은 남침으로 추정된다.



圖面 96. 나-42호 석곽묘

유물은 42호 석곽 조사 중 교란된 유물로 철부 1점과 철도자 1점이 수습되었고, 이외에는 목곽의 내부에서 북단벽쪽에서 고배 2점과 광구소호 1점, 소형기대 1점이, 남단벽 쪽에서 유리구슬 17점이 확인되었다. 소형기대와 광구소호가 뒤집혀져 포개진 상태로 벽석을 이룬 암반에 걸친 채로 출토되었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95-7	71-6	1	고배	11.5	14.1	10.4	연질소성. 소성보통. 배신 1/2, 대각 1/4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적갈색. 회전물손질 정면
95-6	71-5	2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 일부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얼은 회청색. 배신 외면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회전 목리조정흔적			
95-8	71-7	3	광구소호	6.4	7.5	2.8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단 일부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표면박리 극심. 저부 깎기 후 회전물손질 정면
95-9	71-8		소형기대	7.8	6.5	8.6	도질소성. 소성보통.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표면박리 심함. 대각부 삼각형 투창 4개 배치

도면 95-10(도판 71-9)은 17점의 유리제 구슬로 구성된 목걸이로, 5점은 청녹색조, 1점은 투명색 11점은 주황색조를 띤다. 크기는 두종류로 나뉘는데 대략적인 규격은 크기 0.5~1.0cm이고 구멍의 지름 0.1~0.2cm이다. 출토위치는 4이다.

그리고 교란된 채 수습된 유물로는 철부와 철검이 있다. 도면 95-11(도판 71-10)는 단조철부로 인부와 공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공부내면에는 목병의 흔적이 수착 되어 있다. 공부단면은 타원형이며, 길이 11.4cm, 너비 4.3cm이다. 도면 95-12(도판 71-11)는 철검으로 추정되는데 인부만 남아 있다.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잔존길이 6.1cm, 너비 2.3cm, 두께 0.3cm이다.

2) 조선시대 유구

(1) 1호 기와가마

가. 유구 (도면 97, 도판 36·37)

유구는 '나' 지구 동쪽 경계부근 해발 47~50.5m 선상의 급경사면에 걸쳐 위치한다. 燒成室 천정부를 제외하고는 焚口를 포함한 연소부와 소성실 바닥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반지하식 登窯로 장축방향은 N-92°-W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2·3호 기와가마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조영되어 있으며, 규모는 잔존 길이 11.2m, 폭 2~2.5m, 깊이는 소성실 기준으로 80~90cm 이다.

燃燒室 입구에 해당하는 焚口에는 폐기시에 막음용으로 사용한 통나무(길이: 0.8~1m)가 분구를 막은 상태로 확인된다. 분구는 타원형(규격: 1.2×1.6m)으로 연소실과 연결되며 분구와 연소실 내부는 폐기된 기와와 적색 소토덩이들이 채워진 상태였다. 연소실 종단면은 아래가 넓고 상부로 갈수록 좁아진다. 연소실에서 소성실로 이어지는 경사면(볼턱)은 45°로 경사각이 큰 편이다. 연소부의 깊이는 연소실 천정 기준으로 최대 1.8m인데 여러차례에 걸쳐 사용하면서 연소실의 바닥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연소실의 바닥은 두텁게 기와 깔림 되어 있는 상태로 폐기된 기와를 제외하고 본다면 1/3가량이 이후에 채워진 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소부의 규모는 길이 4m, 너비 2m 정도이다.

燒成室은 아치형의 벽체 일부가 잔존하며, 2단의 구조를 가진다. 평면 형태는 一字形으로 소성실 전반부는 잔존하는 상단의 소성실까지 일정폭을 유지한다. 잔존하는 소성부 바닥 전면에 걸쳐서 2~3매의 기와편

이 깔려 있는데 성형된 기와의 적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받침시설로 생각된다.

경사면을 포함한 소성실 하단 길이는 5.5m이며, 잔존하는 상단 소성실은 1.5m 정도 남아 있다. 소성실 하단부의 경사각은 12° 정도이며 상단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은 20°이다. 상단 소성실은 거의 수평에 가까우며 상·하단 전체 경사각은 18°이다. 소성실 내부에는 소성상태가 불량한 기와들과 떨어진 벽체 등의 구조 잔해물들이 확인된다. 소성실의 규모는 잔존길이 7m, 너비 2~2.5m, 기와가 깔린 상태에서 남아 있는 벽체까지의 높이는 35~60cm 정도이다.

煙道와 관련된 排煙施設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단의 소성실 대부분과 끌뚝시설은 가마의 제작 당시 자연 경사면을 이용하거나 가마의 상부에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며, 조사시에는 이미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벽면에 적재된 기와 일부를 수습하였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99-2	71-13	수습	암키와	24.9	22.5	3.2	흑색, 속심 회백색, 능형문, 사선문이 조화를 이룬다. 요면에는 윤철흔이 나타나며 포목을 여러 겹으로 겹쳐진 흔적 확인
99-3	72-1	수습		42.2	23.4	2.1	전체적으로 회백색, 능형문, 격자문, 요면 윤철흔
100-1	72-2	수습		33.8	32.1	1.9	회갈색, 부분적 결실, 능형문, 사선문, 격자문 흔재, 요면 윤철흔
100-2	72-3	수습		40.8	(13.3)	1.8	암청색, 속심 회백색, 측면 결실, 능선문, 사선문 흔재, 요면 포목흔
100-3	72-4	수습		(30.1)	(23.4)	2.6	암회색.
101-1	72-5	수습	수키와	28	16.2	1.8	암회청색 속심 회백색 불규칙적인사선문과 격자문 요면 포목흔
101-2	72-6	수습		38.7	15	1.8	암회청색, 완형, 복합문, 요면에 포목흔
101-3	73-1	수습		(27.9)	16.1	1.8	암회청색, 1/3 결실
99-1	71-12	수습		39.6	16.2	2.2	완형, 암청회색, 요면 포목흔

(2) 2호 기와가마

가. 유구 (도면 98, 도판 38)

유구는 '다' 지구 북쪽 경계부근 해발 52~55m 선상의 급경사면에 위치하며, 천정부를 제외하고는 燃燒部와 燒成室 바다과 요벽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반지하식 登窯로 장축방향은 N-150°-W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3호 기와 가마와 인접하여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13.15m, 폭 2~2.5m, 깊이는 소성실 기준으로 최대 깊이 60~120cm이다.

焚口에 형태는 연소부 천정이 유실된 관계로 확인되지 않는다. 1호 가마와 같이 연소실 내에는 폐기된 기와와 적색 소토덩어들이 채워진 상태로 확인된다. 연소실 종단면은 아래가 넓고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며 연소실에서 소성실로 이어지는 경사면(불턱)은 거의 수직에 가깝다. 연소부의 깊이는 천정 기준으로 최대 1.9m로 바닥은 두텁게 기와깔림 되어 있다. 연소실내 폐기된 기와를 제외하면 1/3정도 채워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부의 규모는 길이 3.2m, 너비 2m 정도이다.

燒成室에는 아치형의 벽체 일부가 잔존하며, 단 구조 없이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경사각은 21° 정도로 가마의 전체 경사각과 일치한다. 평면 형태는 一字形으로 연소부에서 잔존하는 소성부의 최상단까지 일정한 폭을 유지한다. 불턱에 위쪽으로 1.5m 정도 지나서부터 기와편(받침시설)이 깔려져 있었다.

소성실 내부에는 소성상태가 불량한 기와들과 떨어진 벽체·천정 등의 구조 잔해물들이 확인된다. 소성실의 규모는 잔존길이 9m, 너비 2m이다.

煙道와 관련된 排煙施設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단의 소성실 일부와 꿀뚝시설은 조영당시 자연경사면을 이용하거나 가마의 상부에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과정에서 벽면과 바닥에서 적재된 기와 일부를 수습하였다.

나. 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102-1	73-2	수습	수키와	(24.7)	15.6	2.6	내면 포목흔, 요면 도흔
102-2	73-3	수습		(13.7)	(14.5)	2.7	내면 희미한 포목흔, 요면에 도흔
102-3	73-4	수습	암키와	(21.0)	(18.5)	2.1	내면 포목흔, 요면 도흔

(3) 3호 기와가마

가. 유구 (도면 98, 도판 39)

유구는 2호 가마와 나란히 조영되어 있으며, 천정부를 제외하고는 燃燒部와 燒成室 바닥과 요벽의 잔존 상태는 다른 가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반지하식 登窯로 장축방향은 N-140° - W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12.5m, 폭 1.5~2m, 깊이는 소성실 기준으로 70~110cm 이다.

焚口에서부터 燃燒室 내에는 폐기된 기와와 적색 소토덩이들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연소실 종단면은 아래가 넓고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며, 연소실에서 소성실로 이어지는 경사면(불턱)은 거의 수직에 가깝다. 잔존하는 연소부의 깊이는 천정 기준으로 최대 2.2m로 바닥은 기와깔림이 되어 있다. 연소부의 규모는 길이 3.5m, 너비 1.8~2.5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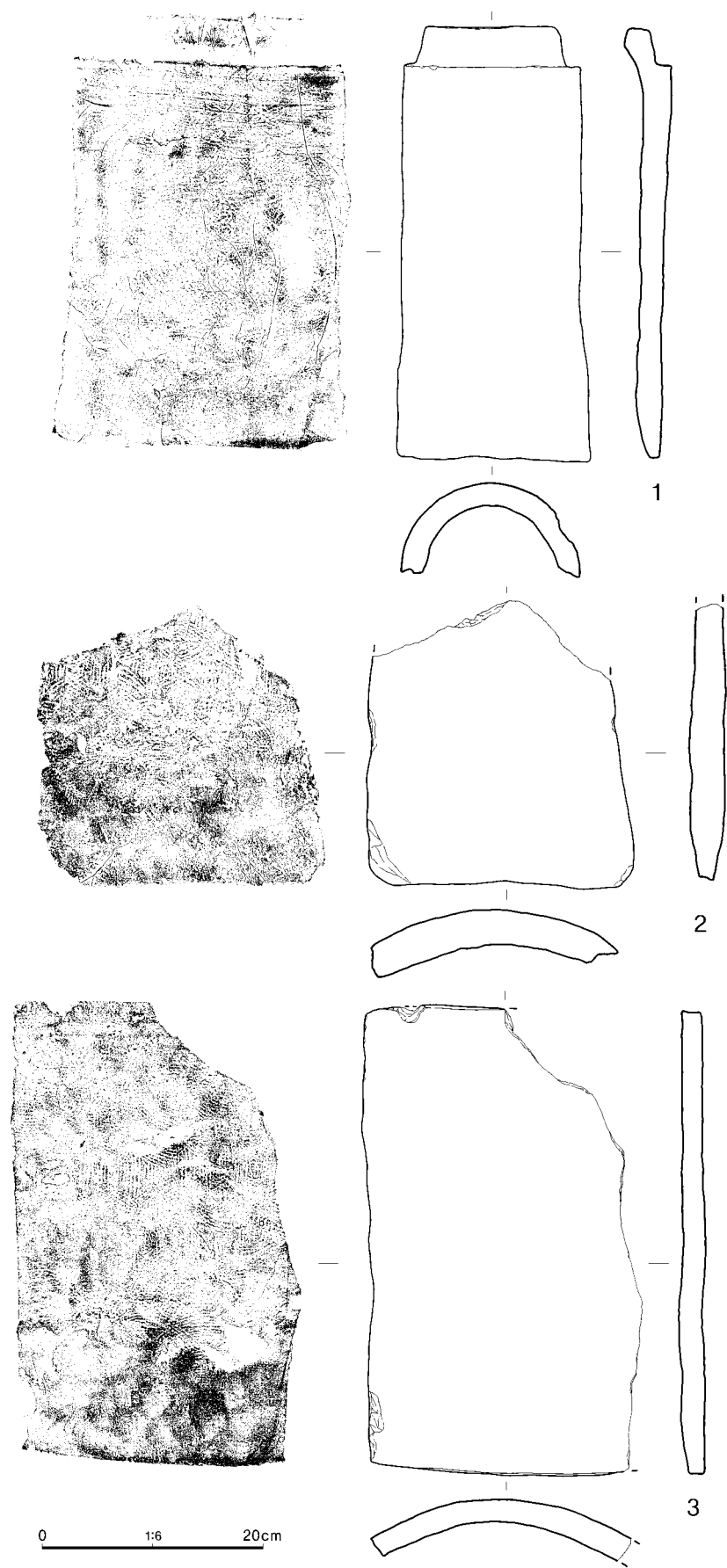
燒成室에는 아치형의 벽체가 잔존하며 2단의 구조를 가진다. 평면 형태는 一字形으로 소성실 전반부에서 잔존하는 상단의 소성실까지 일정폭을 유지한다. 2호 가마와 같이 불턱에 위쪽으로 1.5m 정도 지나서부터 기와편(받침시설)이 깔려져 있다. 소성 당시에는 연소실에서부터 소성실까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와를 적재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턱에서 소성실 하단 길이는 4.5m이며 잔존하는 상단 소성실은 4.5m 정도이다. 소성실 하단부의 전체 경사각은 13° 정도이며 상단 소성실의 전체 경사각은 28°이다. 상단 끝단은 비교적 급한 경사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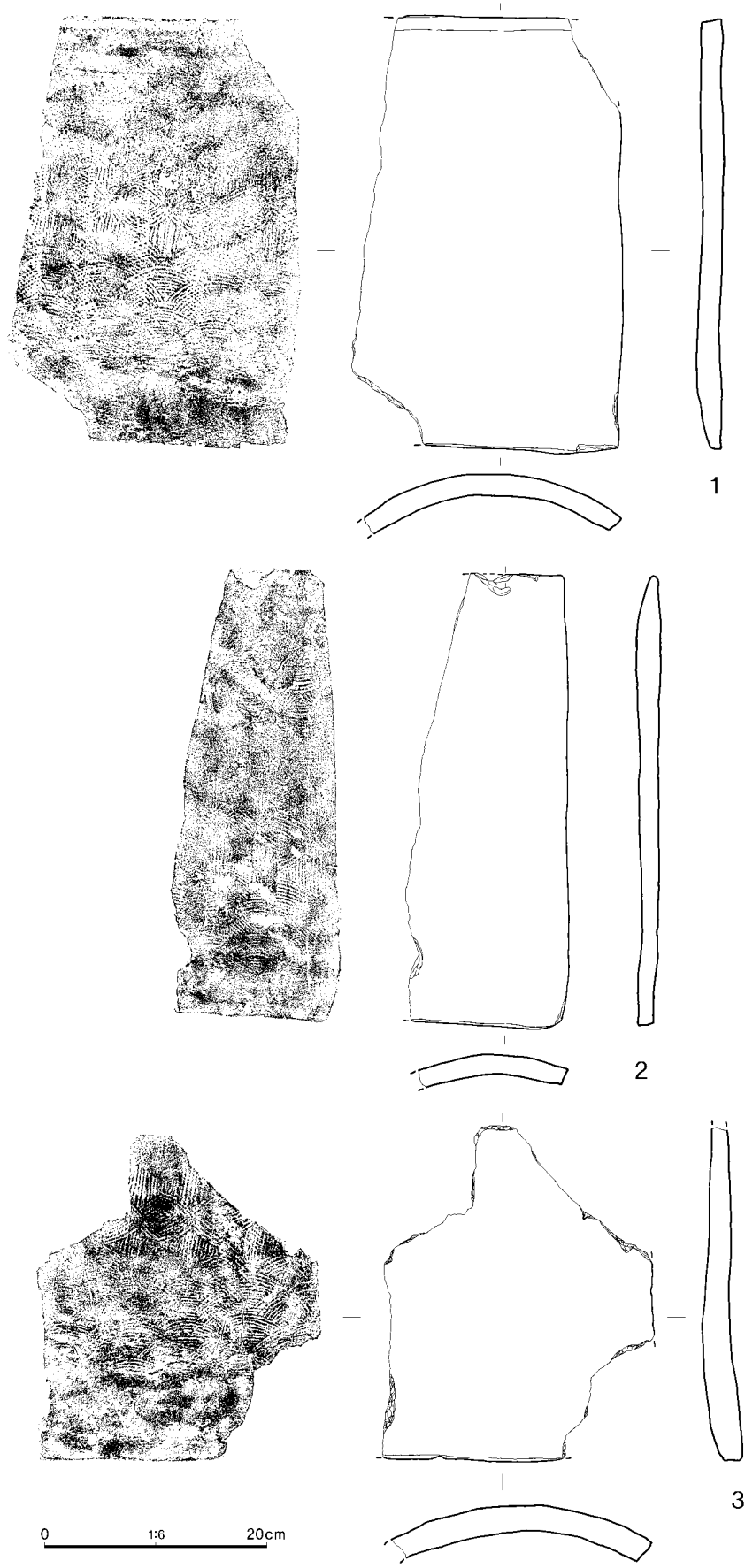
소성실 내부에는 소성상태가 불량한 기와들과 떨어진 벽체 등의 구조 잔해물들이 간층을 이루며 퇴적되어 있다. 소성실의 규모는 길이 9.8m, 너비 1.6~1.9m, 기와가 깔린 상태에서 남아 있는 벽체까지의 높이는 1.2~2.0m 정도이다.

煙道와 관련된 排煙施設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과정에서 벽면에 적재된 기와 일부를 수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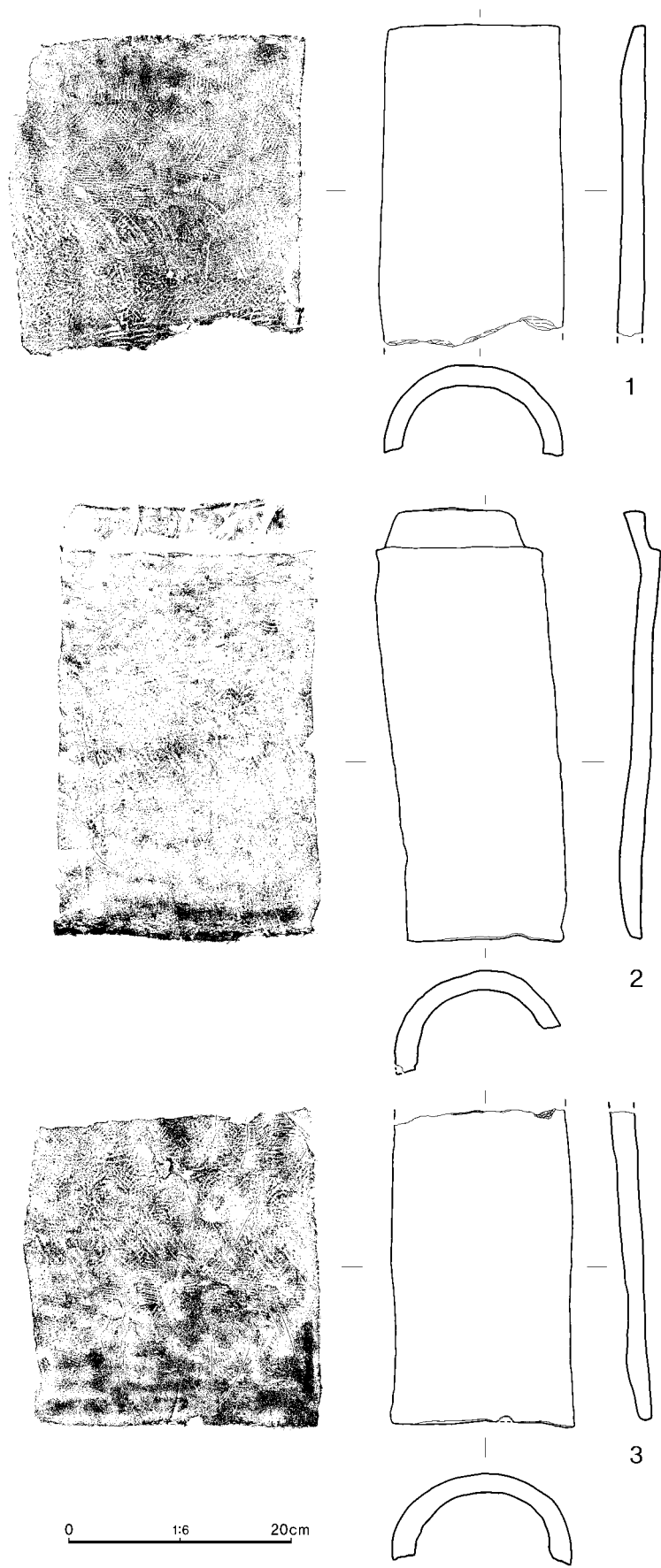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출토 위치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102-4	73-5	수습	명문기와	(34.8)	13	2.3	수키와, 내면에 포목흔. 명문: 己酉三月日 橫堂口 心納(訥)口口.
103-1	73-6	수습	수키와	40.5	15	2.4	연강부 양끝 일부 결실
103-2	73-7	수습		43	15.6	2.5	내면 포목흔, 요면 도흔.
104-1	74-1	수습		42.3	16.7	2.2	내면 포목흔 뚜렷.
104-2	74-2	수습		42.6	15.4	2.9	완형. 암회색. 연과문이 자방과 연판 내외 8개씩 시문. 내면 포 목흔. 외면 사선문, 능선문 혼재
105-1	74-3	수습		(34.8)	16.2	2.2	연화문. 얇게 돌출된 자방. 연판 8개이나 4개씩만 잔존. 능형문, 사선문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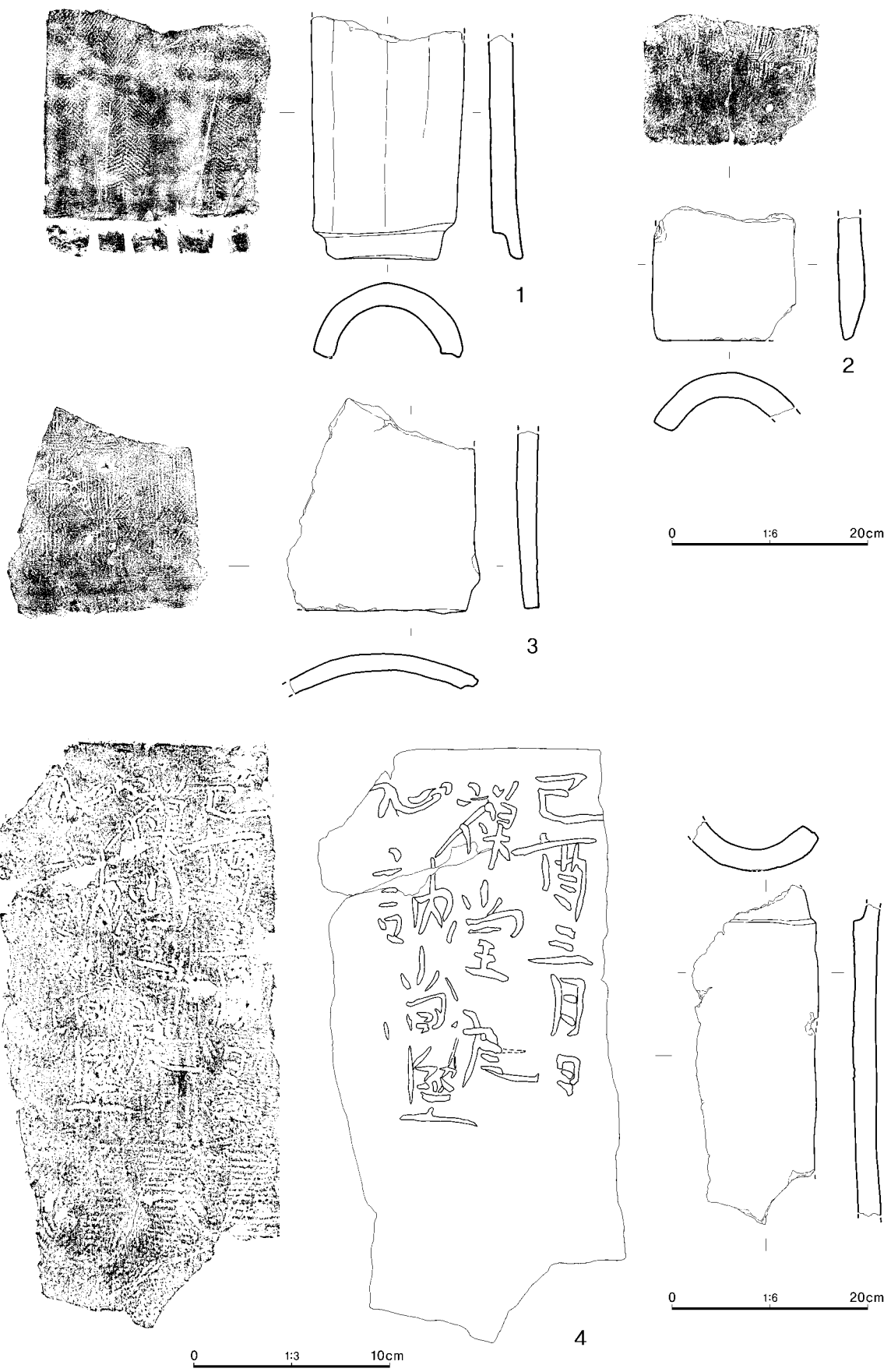
圖面 99. 1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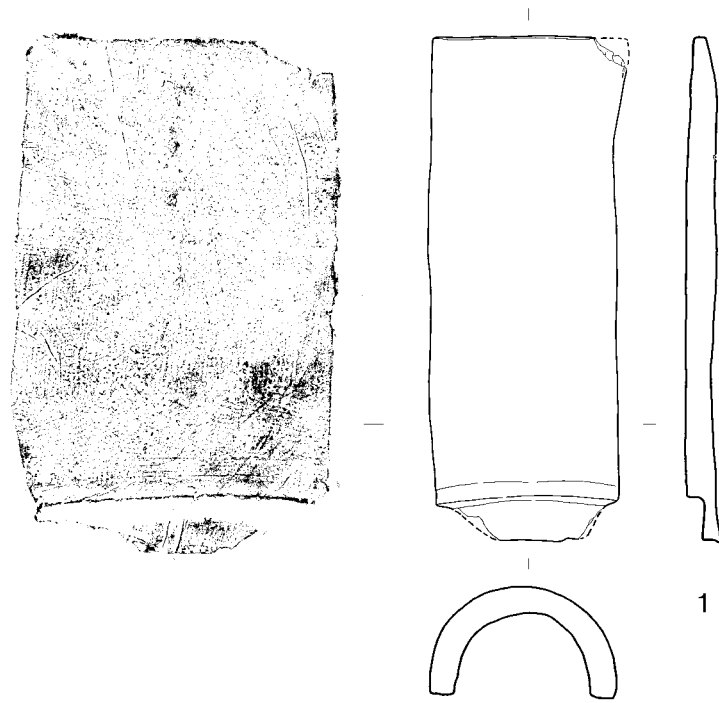
圖面 100. 1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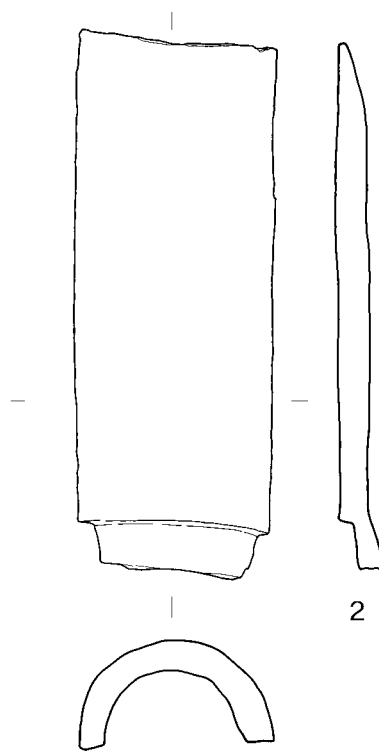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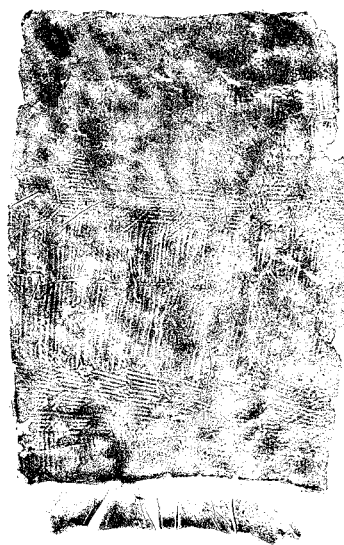
圖面 101. 1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圖面 102. 2 · 3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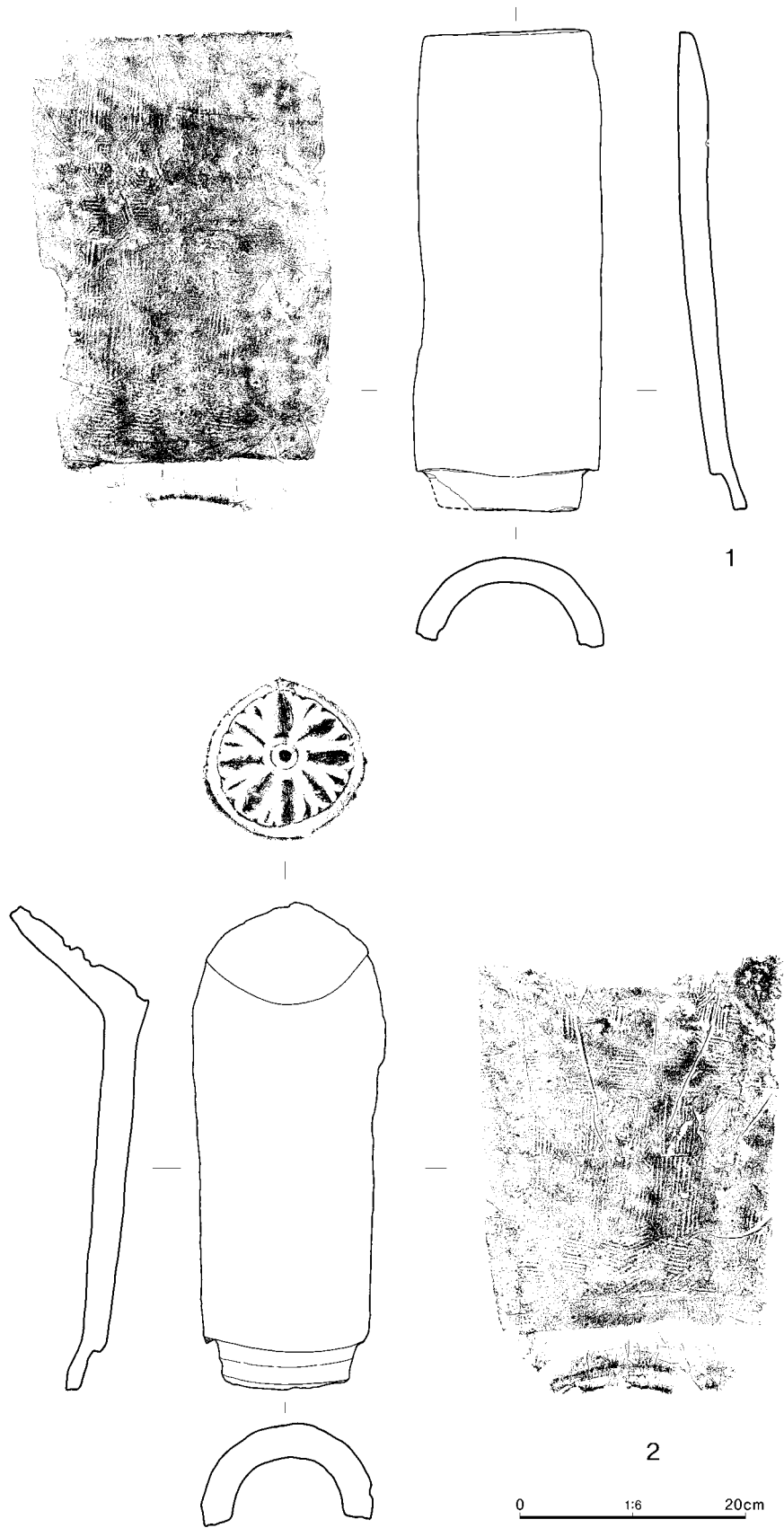
1



2

0 1:6 20cm

圖面 103. 3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圖面 104. 3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4. 수습유물

1) '가' 지구 수습유물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105-2	74-4	고배	6.0	10.4	6.9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모두 질 흑갈색. 대각부 방형 투창 2개 배치
105-3	74-5	개	5.6	13.5		도질소성. 소성양호.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105-4	74-6	완	3.2	12.3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일부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적갈색. 속심 황갈색. 회전물손질 정면. 표면바리 극심
105-5	74-7	완	2.9	(12.1)		연질소성. 소성불량. 배신 1/3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적갈색. 속심 짙은 황갈색. 바리 극심
105-6	74-8	양이부용	10.7	11.4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일부 결실.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동상위에는 단면 장방형 파수 2개 부착. 저부 꺾기흔
105-7	74-9	파수부완	9.9	10.6		도질소성. 소성불량. 동체 일부, 원형 파수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회백색. 동체부 9조 침선 시문. 동하위 사방향 평행타날
105-8	74-10	연질발	(25.4)	21.3		연질소성. 소성불량. 동체 하단 결실. 석영 장식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황갈색. 구연부 주위 바리 심함. 일부 흑반 형성. 동체부 평행타날
105-9	74-11	연질용	(4.6)	16.3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일부 잔존.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적갈색. 표면바리 극심
105-10	74-12	단경호	(23.4)	20.5		연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1/2, 동체 3/4, 저부 결실. 석영.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회황색. 동체부 내면 바리 극심. 외면 동중위 중방향 평행타날. 동하위 횡방향 평행타날. 동최대경 : 31.8
105-11	74-13	방추차	4.9			완형. 표면바리 극심. 회황색. 단면 육각형. 두께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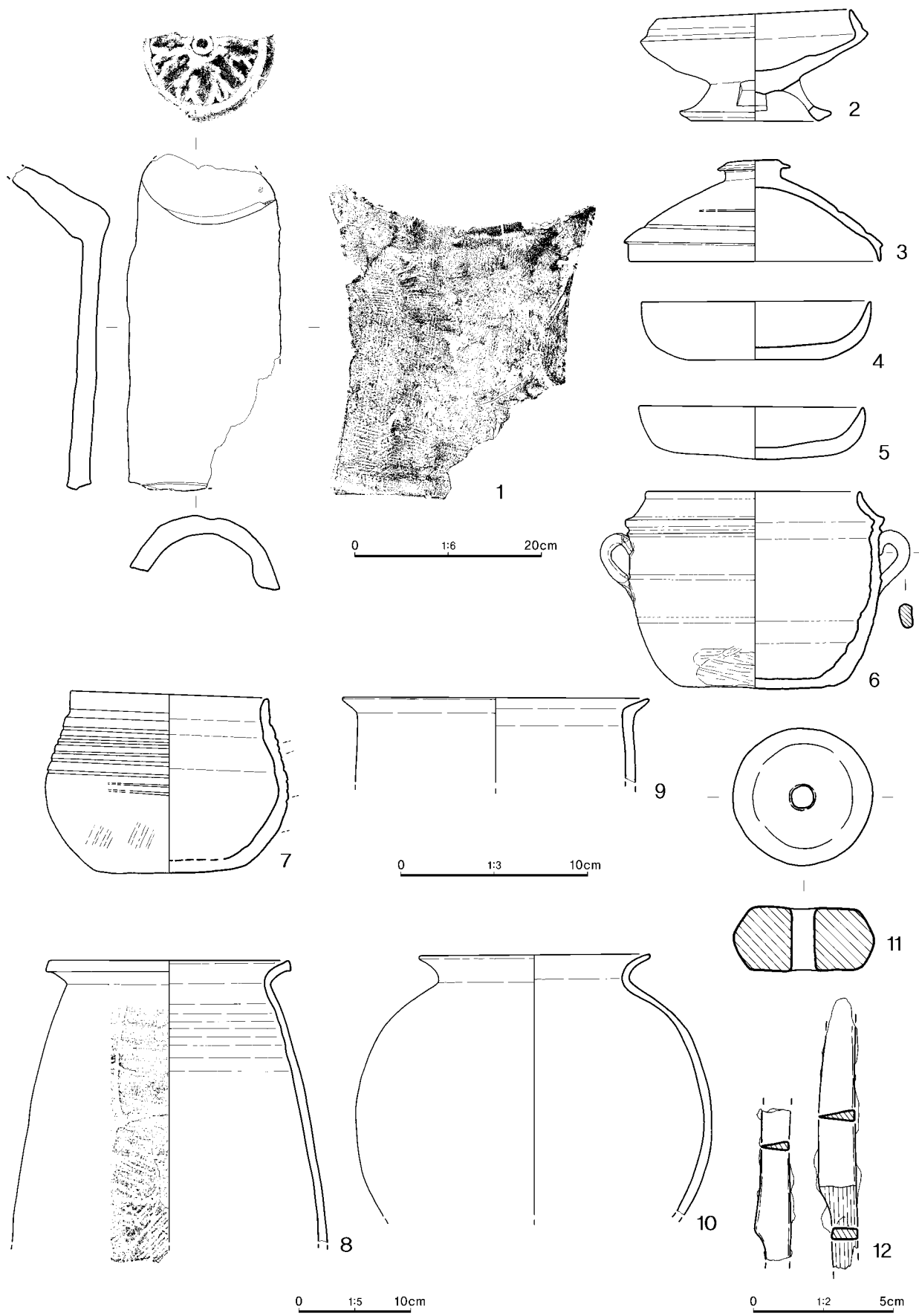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105-12	74-14	도자	(9.5)	1.2	0.4	선단부, 병부 일부 결실. 병부 목질흔 부착. 신부단면 이등변삼각형
			(5.3)	1.1	0.35	선단부, 병부 일부 결실. 신부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

2) '나' 지구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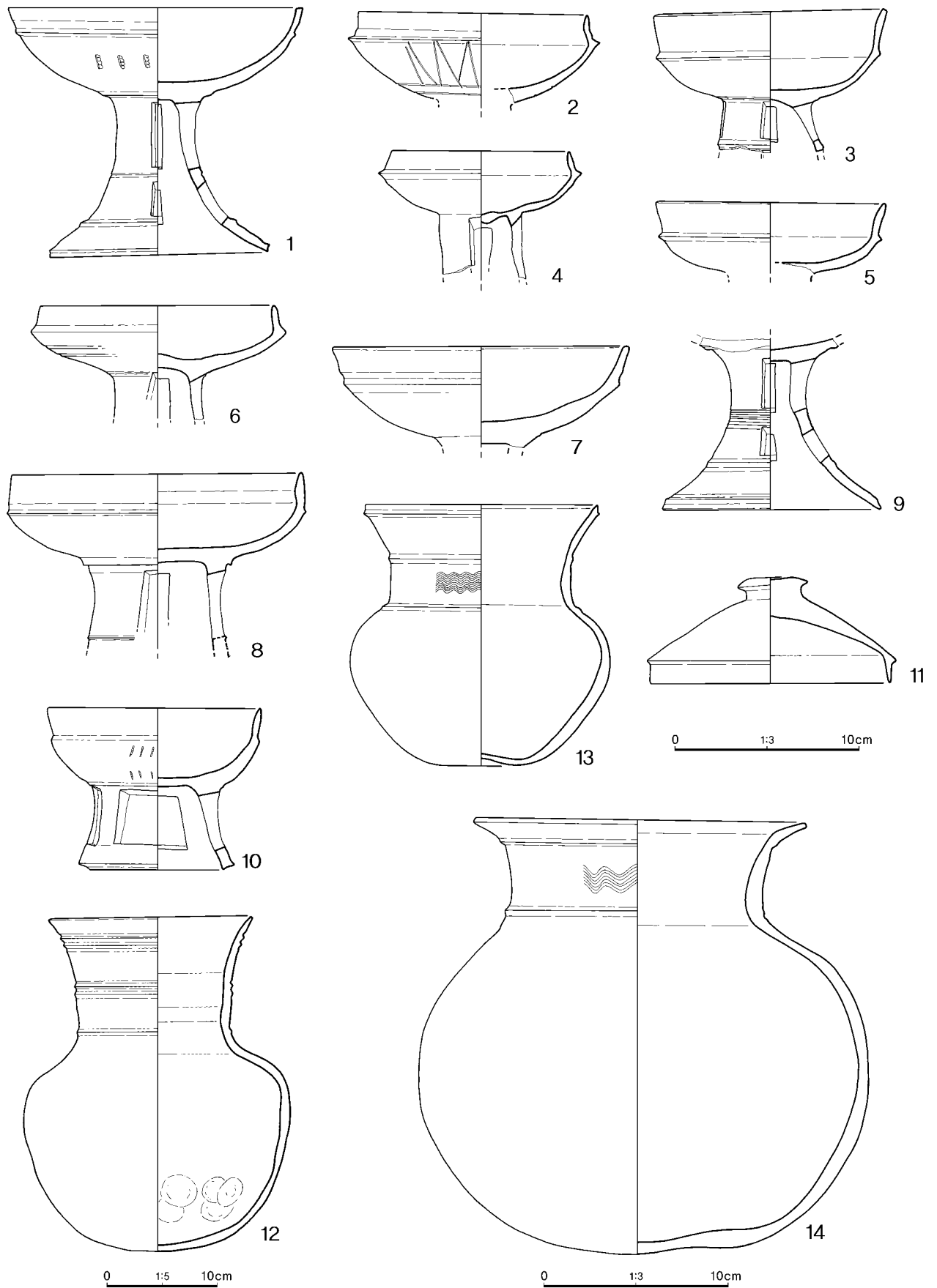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106-1	75-1	고배	13.8	16.1	11.9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연 일부, 대각부 1/2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청색. 배신 내면 바리극심. 배신 외면 4치 구 유충문 시문. 대각부 상하단에 길이가 가 다른 투창 3개씩 상하일렬 배치
106-2	75-2	고배	(4.9)	(12.4)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부 2/3 대각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속심 엷은 회청색. 배신 외면 거치문 시문. 대각부 장방형 투창 4개 배치
106-3	75-3	고배	(7.9)	12.4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1/3 대각 하단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밝은 자색. 배신 내면 기포 형성. 대각부 상하단 각각 장방형 투창 4개 상하일렬 배치
106-4	75-4	고배	(7.1)	9.6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 하단 결실. 운모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청색. 대각 상단 세장방형 투창 4개 배치
106-5	75-5	고배	(3.9)	(12.2)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 1/2, 대각부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짙은 회청색. 속심 자색. 배신 내면 황색 이물질 부착. 대각부 장방형 투창 4개씩 일렬로 배치되었던 것 추정
106-6	75-6	고배	(6.3)	(12.8)		도질소성. 소성보통. 배신 1/2, 대각 하단 결실. 장식 운모 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엷은 회청색. 회전물손질 정면. 대각부 상단 사다리꼴 투창 2개 배치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높이	구경	저경	
106-7	75-7	고배	(5.5)	16.2		도질소성, 소성보통, 배신 1/2, 대각부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암자색, 회전문손질 정면, 대각부 투창 3개 배치한 것으로 추정
106-8	75-8	고배	(9.7)	(15.7)		도질소성, 소성양호, 배신 2/3, 대각 하단 결실, 운모 혼입, 내·외면, 속심 회청색, 회전문손질 정면, 대각부 상단 세장방형 투창 4개 배치
106-9	75-9	고배	(9.5)		(11.8)	도질소성, 소성불량, 대각부 2/3, 배신부 결실, 운모 장식 소량 혼입, 내·외면, 속심 옅은 회청색, 대각부 중앙 7치구 침선 시문, 상하단에 길이가 다른 방형 투창 3개씩 상하 일렬 배치
106-10	75-10	고배	8.9	11.7	7.3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2, 단면 횡타원형 파수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흑갈색, 배신 내면 녹갈색 자연유 부착, 외면 5치구 유충문 서로 엇갈리게 2열 시문, 대각부 장방형 투창 4개씩 배치
106-11	75-11	개	5.8	(13.1)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3/4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회청색, 내면 녹갈색 자연유 부착
106-12	75-12	장경호	30.5	(18.3)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경부 3/4 결실, 장식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회전문손질 정면, 구경 외면 들레 3단 구획, 동상위 표면바리 극심, 동최대경 : 24.3
106-13	75-13	장경호	14.3	(12.6)		도질소성, 소성보통, 전체의 2/3 결실, 운모 장식 극소량 혼입, 내·외면 짙은 회청색, 속심 자색, 구경부 동상위 표면바리 극심, 구경부 하단 9치구 파상문 시문
106-14	75-14	장경호	24.9	(18.0)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단 3/4 결실, 장식 운모 혼입, 구연 내면과 동체 외면 녹갈색 자연유 부착, 구경 외면 6치구 파상문 시문, 동최대경 : 24.6
107-1	75-15	장경호	(20.6)			도질소성, 소성불량, 구경부 3/4, 동체부 1/3 결실, 석영 장식 혼입, 외면 옅은 흑갈색, 내면 회청색, 속심 옅은 회청색, 구경부 4~5치구 파상문 2단 시문, 동상위 녹갈색 자연유 부착, 기면에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격자타날흔 일부 잔존, 동최대경 : 19.6
107-2	76-1	호	(13.4)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경부 결실, 장식 소량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구경부 파상문 시문, 동최대경 : 17.5
107-3	76-2	호	(16.3)			도질소성, 소성양호, 동체 1/3, 구경 결실, 동상위 2열 점열문 시문, 동최대경 : 23.0
107-4	76-3	대부호	(4.6)		6.4	도질소성, 소성보통, 대각 1/2, 구연부 결실, 석영 장식 다량 혼입, 내·외면, 속심 짙은 회청색, 대각부 방형 투창 3개 배치
107-5	76-4	대부호	(13.9)		15.6	도질소성, 소성양호, 동체 하부와 대각부만 잔존, 장식 소량 혼입,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대각부 장방형 투창 6개 배치
107-6	76-5	단경호	38.3	17.0		도질소성, 소성보통, 전체 3/4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 외면, 속심 회청색, 동체 외면 승문타날 후 동상위 회전문손질로 타날흔 제거, 동중위 10조 침선시문, 동최대경 : 35.8
107-7	76-6	호편	(12.7)			도질소성, 소성양호, 동중위 일부만 잔존, 장식 혼입, 내 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동최대경 : 21.1
107-8	76-7	컵형토기	8.0	9.3		도질소성, 소성양호, 구연부 1/2, 원형 파수 결실, 장식 혼입, 내 외면 회청색, 속심 암자색, 저부 깎기 후 회전문손질 정면
107-9	76-8	파수부호	11.1	(9.9)		도질소성, 소성보통, 구연 1/2, 동체 일부, 파수 결실, 장식 극소량 혼입, 내 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 동상부 逆V자문 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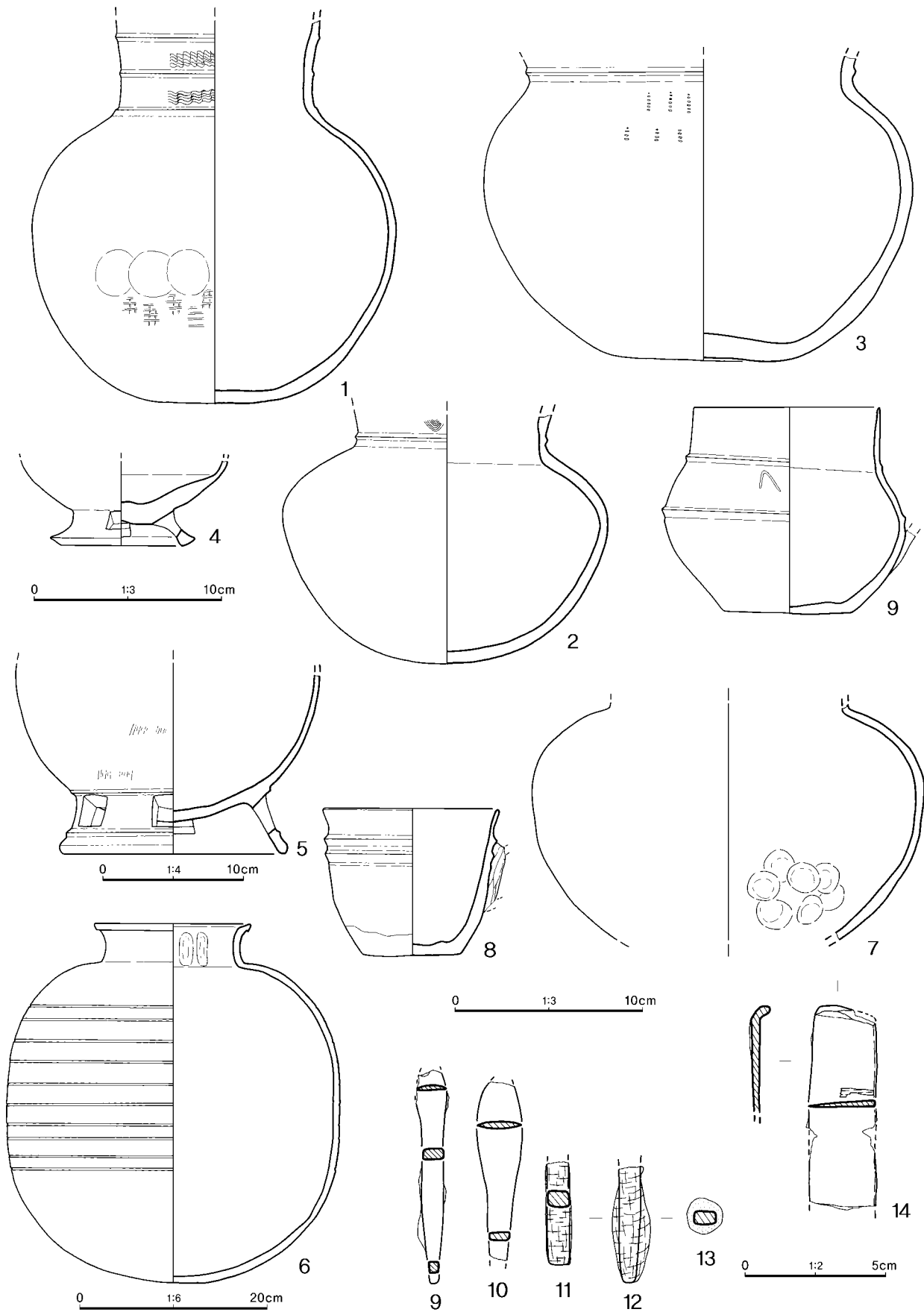
도면 번호	도판 번호	유물명	규격cm, ()잔존치			내 용
			길이	너비	두께	
107-10	76-9	철축	(7.5)	1.1		유엽형, 축신 일부 결실, 축신단면 볼록렌즈형
107-11	76-10		(6.3)	1.5		유엽형, 莖部 결실, 축신단면 볼록렌즈형
107-12	76-11		(3.6)			莖部만 잔존, 단면 방형, 백회수피흔
107-13	76-12		(4)			莖部만 잔존, 단면 방형, 백회수피흔
107-14	76-13	철검	(7.2)	2.4	0.3	기부를 포함한 인부 일부 잔존, 단면 이등변삼각형



圖面 105. 3호 기와가마 출토유물(1), '가' 지구-수습유물



圖面 106. '나' 지구 수습유물



圖面 107. '나' 지구 수습유물

IV. 분석자료

1. 김해 능동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성형미 (동양대학교 문화재발굴보존학과)

1. 머리말

자석이 될 수 있는 성질을 磁性이라고 하며, 자성을 가진 물질을 磁性體라고 한다. 그 물질이 결정구조를 가진 광물인 경우에는 磁性鑛物이라고 한다. 흙에 포함된 자성광물의 대부분은 磁鐵鑛(magnetite, Fe_3O_4)이나, 赤鐵鑛(hematite, Fe_2O_3)등의 철산화물이다. 모든 자성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성체가 고온까지 가열되어 각 종류의 자성체가 가지는 고유의 온도에 도달하면, 磁性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온도를 퀴리점이라고 한다. 이 반응은 可逆的으로, 퀴리점 이상의 자성이 없는 고온의 상태에서 냉각되어 거듭 퀴리점의 온도로 된 순간, 다시 자성을 되찾는다. 자철광의 퀴리점은 $578^{\circ}C$, 적철광은 $675^{\circ}C$ 이다. 그때 외부자장이 존재하고 있다면 자성체는 그 자장의 방향으로 磁化한다. 요지나 주거지 노지의 소토는 흙이 굽혀져 고온에서 가열되면 그 흙에 포함된 자성광물은 일단 자성을 잃어버린 후 지구자장 안에서 냉각되기 때문에, 자성을 되찾았을 때에는 그 당시의 지구자장 방향의 磁化를 획득한다. 이와 같은 자화를 熱殘留磁化(thermoremanent magnetization, TRM)라고 한다. 열잔류자화는 常溫에서는 자기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것이 많으며, 수백만년이 지나도 잔류자화의 방향이나 세기는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따라서 과거의 어느 시기에 구워진 소토는 그 당시 그 장소의 지자기 방향이나 강도를 열잔류자화의 형태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된다.

소토를 가지는 다양한 시대의 유구로부터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들의 잔류자화를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에 의해 과거 지자기의 변동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고고학적 유물이나 유구로부터 시료를 얻어 고고학이 취급하는 시대의 지자기를 밝히는 연구를 考古地磁氣學(archeomagnetism)이라고 한다. 수십년에서 수백년의 타임 스케일로 느릿하게 변화하는 지자기의 변동을 地磁氣 永年變化(geomagnetic secular variation)라고 하며,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그 변동의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서남일본 각지의 유적에서 정력적으로 고고지자기학적 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서력기원(彌生時代中期中頃) 이후 지자기의 상세한 변동 모습이 명확하게 밝혀져 과거 2000년간에 걸친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구해져 있다(Hirooka 1971; 廣岡 1977). 따라서 서력기원 이후의 시대에 대해 서남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소성연대를 알 수 없는 소토의 殘留磁化 方向을 측정하여 이 영년변화곡선과 照合하는 것에 의해 고고지자기학적으로 연대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은 考古地磁氣 年代推定法이라 불리고 있다. 고고지자기 연대추정법은 소토를 가지는 유구에 대한 有力한 연대측정법으로 정착되었으며 수많은 유적에 대해 연대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자장의 방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고지자기변동곡선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을 어쩔 수 없이 準用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성형미 2005)에서 볼 때, 일부의 시대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체적으로 서남일

본의 지자기 변동과 거의 같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료의 채취

김해 능동 유적에서는 토기가마 2기와 기와가마 3기, 총 5기의 가마에 대해 고고지자기 시료를 채취하였다. 유구의 소성상태가 좋은 부분을 골라서 총 140개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시료번호는 표1에 나타난 것과 같다.

고고지자기 시료는 유구의 소성상태가 좋은 부분을 골라 약18mm×18mm×25mm정도 크기의 기둥모양으로 잘라낸 후 24mm×24mm×24mm크기의 立方形 플라스틱 케이스에 물로 깎 석고를 채워서 기둥모양 소토에 뒤집어 찍우는 방법으로 채취하였다. 이 때 기둥모양의 소토가 부러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소토의 뿌리 부분이 유구에 붙어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한다. 석고가 굳어지면 플라스틱큐브 背面의 최대 경사선의 방위(pitch)와 그 경사각(dip)을 측정하여 시료의 방위로 한다. 큐브의 背面에는 그 면의 走向(strike)을 나타내는 선과 시료의 번호를 적은 후 유구로부터 시료를 떼내어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한다.

시료의 방위측정에는 고고지자기 시료채취용으로 개조된 특제 클리노미터(Hirooka 1971)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pitch의 방위는 클리노미터의 자침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이며, 유적에서 자북이 진북과 이루는 각도(현재의 편각)만큼 어긋난 방위가 된다. 본유적에 대해서는 편각의 보정 값(Dp)으로써 5만분의 1 지형도 「金海」에 기재되어 있는 西偏 6.45°의 값을 이용하였다. 보통 1기의 유구로부터 이와 같은 시료를 10개정도 채취하여 연구실로 가지고 가서 큐브의 開口部도 석고로 막아서 측정용 시료로 한다.

3. 자화측정의 결과

자화측정의 순서는 우선 소토 시료가 保持하고 있는 잔류자화를 측정한다. 이 잔류자화를 自然殘留磁化(natural remanent magnetization, NRM)라고 한다. NRM의 측정결과에서 시료 각각의 자화방위및 자화강도를 통해 동일유구 내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자화방위의 분산정도를 검토한다. 다음에는 소성 이후에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2차자화성분을 없애기 위한 交流消磁實驗을 한다. 交流消磁는 消磁磁場을 순차적으로 높여 가면서 몇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각 단계마다 자화강도의 감소 상태와 자화방위의 분산 정도를 조사하여 자화방위가 가장 잘 집중된 단계를 선택한다.

잔류자화의 측정에는 일본 夏原技研製の ring core type spinner magnetometer를 사용하였다. 또한 交番磁場을 걸어 불안정한 자화성분을 제거하는 段階交流消磁實驗에는 夏原技研製の 교류소자장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각 소자 단계 중에서 자화 방향의 집중 정도가 가장 좋은 단계의 소자자장을 最適消磁磁場(optimum demagnetizing field, ODF)이라 하며, 최적소자단계의 측정결과를 고고지자기 데이터로서 채택한다.

4. 고고지자기연대의 추정

평균자화방향과 그 분산정도를 구하는 통계처리에는 Fisher의 통계법(Fisher 1953)을 이용하였다. 각 유구의 최적소자단계, 평균편각(D), 평균복각(I), Fisher의 신뢰각(α_{95}), 평균자화강도는 표2에 정리되어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지자기방위의 지역차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변동은 일본의 그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상세한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일본의 변동곡선(Hirooka, 1971; 廣岡, 1977)을 準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표2의 최적소자단계의 데이터를 과거 2000년간의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에 plot한 것이 도1이다. 도면에서의 검은 점이 각 유구의 평균자화방향을 표시하며 그것을 둘러싼 원이 Fisher의 신뢰각(α_{95})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 원내에 95%의 확률로 진실의 자화방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김해 능동 유적 주변의 고고지자기 변동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도1에서 추정되는 고고지자기 연대는

1호토기가마 : A.D.840 ± 10년 또는 A.D.545 ± 5년

2호토기가마 : A.D.840 ~ 920년 또는 A.D.530 ± 10년

1호기와가마 : A.D.1420 ± 5년

2호기와가마 : A.D.1440 ± 5년

3호기와가마 : A.D.1420 ± 5년

이 된다. 지자기의 영년변화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변동하고 있는 모양으로 시대는 달라도 지자기의 방위가 비슷한 경우가 자주 있다. 때문에 고고지자기학적으로 복수의 추정연대 값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고학적인 견해에 맞는 연대를 채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본유적에 대해 고고지자기시료의 채취와 측정의 기회를 주신 울산대학교박물관의 김 영민 선생님을 비롯한 발굴조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참고문헌>

Fisher, R. A.(1953)Dispersion on a sphere, Proceedings of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A, vol.217, 295-305.

Hirooka, K.(1971)Archaeomagnetic study for the past 2,000 years in Southwest Japan, Mem. Fac. Sci.,

KyotoUniv.,ser.Geol.&Mineral., 38, 167-207.

廣岡公夫(1977)考古地磁기および第四紀古地磁氣研究の最近の動向,「第四紀研究」,vol.15, 200-203.

廣岡公夫, 成亨美(2000)日本と韓國の古代における地磁氣永年變化の比較,「研究年報」,富山大学環日本海地域研究センター, 第25卷, 193-204.

成亨美(2000) 한국에 있어서 고고지자기변동의 측정과 고고학적 응용,「고고학이 찾은 선사와 가야」, 국립김해박물관 · 부산광역시립박물관복천분관, 128-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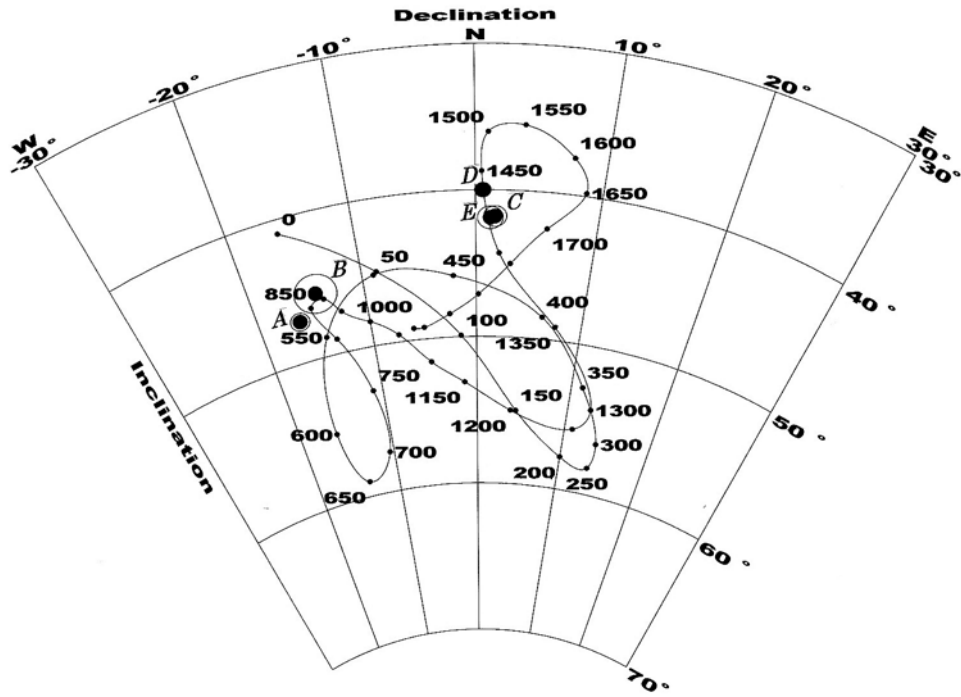
成亨美, 廣岡公夫(2000)韓國の考古地磁氣變動に関する研究とその考古学的応用,「考古学与自然科学」,日本文化財科学会誌 第39号, 15-32.

성형미(2002) 한국에 있어서 지자기 영년변화의 측정,「한국제사기학회지」, 한국제사기학회, Vol. 16, No. 2, 33-38.

성형미(2003) 고고학에서 이용 가능한 고고지자기 분석법,「畿甸考古」, 제3호, 223-238.

성형미(2005) 韓國考古學 編年研究를 위한 考古地磁氣學의 基本原理 및 適用,「韓國考古學報」, 韓國考古學會, 55輯, 5-34.

成亨美(2006) 側口附炭窯에 대한 考古地磁氣學的 研究,「嶺南考古學」, 嶺南考古學會, 39號, 147-178.



도 1.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과 김해 능동 유적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A: 1호토기가마, B: 2호토기가마, C: 1호기와가마, D: 2호기와가마, E: 3호기와가마.

표 1. 김해 능동 유적의 고고지자기 시료번호

유구명	개수	시료번호
1호 토기가마	39	ND 1~ 39
2호 토기가마	20	ND 40~ 59
1호 기와가마	22	ND 60~ 81
2호 기와가마	33	ND 82~ 111
3호 기와가마	29	ND 112~140

$$D_p = -6.45^\circ \text{ (金海, 1/50000)}$$

표 2. 김해 능동 유적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유 구	소자단계	n/N	D (° E)	I (°)	α_{95} (°)	K
1호 토기가마	NRM	34/39	-16.3	47.2	0.62	1598
2호 토기가마	NRM	7/20	-14.3	45.6	1.34	2016
1호 기와가마	NRM	15/22	1.6	41.8	0.71	2902
2호 기와가마	NRM	17/30	0.6	40.0	0.51	4877
3호 기와가마	NRM	20/29	1.2	41.9	0.79	1698

n/N : 採擇試料個數/採取試料個數, D : 平均偏角, I : 平均伏角, α_{95} : Fisher의 信賴角,
K : Fisher의 精度係數. [] : 고고지자기 측정결과로 채택한 데이터 (최적소자단계).

2. 능동 목곽묘 보완 자료

1) 능동 목곽묘 출토 轡(도면포함)

이 자료는 2001년에 발간된 『김해능동유적 I-木槨墓』⁵⁾ 보고서에서 보고된 3점의 轡에 대한 보완자료이다. 발간당시 유물정리가 미흡하여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유물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고 기술되지 못한 부분을 첨부하고자 한다. 본 자료의 도면은 諫早 直人(ISAHAYA NAOTO, 당시 京都大學文學研究科 博士後期過程)가 실시한 유물관찰결과를 토대로 유물 모식도를 작성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지면을 빌어 諫早 直人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김해 능동유적에서 확인되는 轡는 총 3점으로 목곽묘에서만 확인된다. 10호 목곽묘에서 鑣轡 1점, 11호 목곽묘에서 일자형 環板轡 1점, 25호에서 X자형 환판비 1점이 출토되었으며 板轡는 출토되지 않았다.

(1) 10호 목곽묘 출토 鑣轡(도면 1)

목곽내 서장벽의 남쪽에서 출토되었다.

2連式 함에 유기질제 鑣와引手가 연결된 구조였으나, 표는 남아 있지 않고 표를 고정하는데 사용된 U자형 金具 2개만 잔존한다. U자형 金具의 극히 일부가 좌측 銜外環에 수착되어 있다. 말의 입 속에 들어가는 銜(재갈)은 2連式이고, 우측 함은 길이 12.1cm, 내환직경 2.8cm, 외환직경 5cm이다. 좌측 함은 길이 12.2cm, 내환직경 3.0cm, 외환직경 5cm로 양측 모두 銜內環보다 함 외환이 크다. 우측 함은 내환과 외환이 같은 방향이고, 좌측 함은 내환과 외환은 직교한다.

표는 잔존하지 않고, 표를 고정하고 立聞역할을 하는 U자형 고리 2개가 있다.引手는 내, 외환이 모두 등근데, 인수외환이 등글며 본체에서 굽어지는 형이다. 인수내환 직경 2.8cm, 인수외환 직경 3.2cm, 길이 19cm이다. 함은 1조 철봉을 구부려서 성형했고, 인수는 1조의 철봉으로 제작한 것이다.

(2) 11호 목곽묘 출토 環板轡(도면 2)

목곽내부 동장벽 중앙지점에서 출토되었다.

單環板轡이다.引手 외환 부분은 결실되고 없다. 재갈멈추개(銜留)는 두께 5mm, 너비 1cm의 鐵帶로 타원형으로 테를 만들고 그 내부에 "一"字形의 철대를 가로질러 銜留金具를 만들었으므로 "一"자형단환판비"라 할 수 있다. '一'자형의 함유금구는 별도의 철을 사용해서 바깥 틀에 못(鐵釘)으로 고정하고 있다. 우측 함유는 10×7.7cm 좌측 함유는 10×8cm의 타원형이다. 立聞은 장방형이고 立聞孔의 크기는 우측이 2.2×0.9cm, 좌측은 2.4×0.6cm이다.

銜(재갈)은 2軟式이고, 우측 함은 길이 11.4cm, 內環직경 2.7cm, 外環직경 2.7이다. 좌측 함은 길이 11.3cm, 내환직경과 외환직경은 수착이 심해서 확실히 알 수 없다. 우측 함은 내환과 외환이 같은 방향이고, 좌측 함은 내 외환이 직교한다.

引手는 양쪽모두 인수 내환쪽 5cm, 6.5cm만 남아 銜外環에 수착되어 있다. 2條 鐵線을 구부려서 만들었다.

5) 울산대 학교 박물관, 2001 『김해능동유적 I-木槨墓』 學術研究叢書 第8輯.

(3) 25호 목곽묘 X자형 環板轡 (도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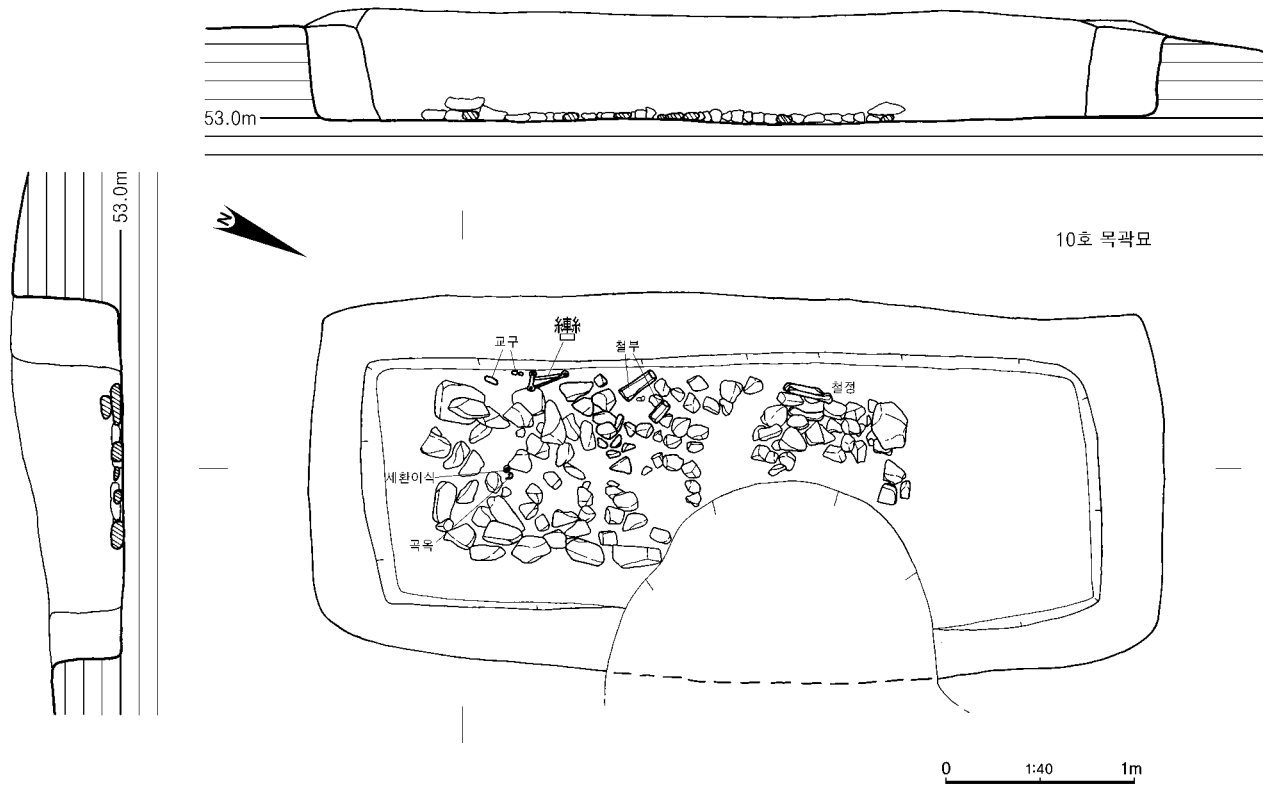
목곽내부 서장벽 중앙지점에서 출토되었다.

銜(재갈)은 2連式이고 完存한다. 좌·우 함 외환에는 X자형 銜留金具의 중앙부위가 수착되어 있다. 함의 제작기법은 철선을 꼬아서 제작한 듯하다. 우측 함은 내환과 외환이 직교하고, 좌측 함은 내·외환이 같은 방향이다. 우측 함 길이 11.5cm, 內環 직경 2.4cm, 외환 직경 3.2cm. 좌측 함 길이 11.5cm, 내환 직경 2.4cm, 외환 직경 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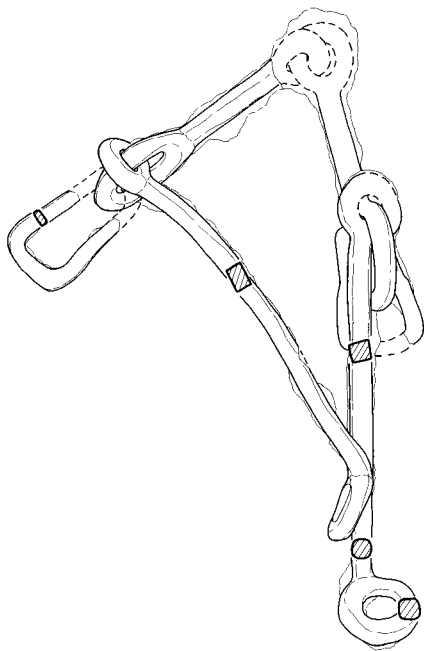
銜留(재갈멈추개)는 두께3mm, 폭10mm 鐵帶로 타원형의 둥근 테(8.7×7.0cm)를 만들고 그 내부에 X자형 철대를 못 4개로 고정시켜 함유금구를 만들었다. 우측 함유는 立聞과 입문에 연결되어 굴레의 가죽 끈을 고정하는 굴레 고정판(鉤金具)이 立聞에 끼워진 상태로 잘 남아 있다. 입문 형태는 장방형(3.4×1.6cm)이다. 좌측함유는 입문과 함유 외환, X자 함유금구의 일부만 殘存한다.

굴레고정판(구금구)은 폭 1.1~1.3cm, 길이 8cm, 두께 2mm의 철판을 'U'자 상으로 구부려 입문에 끼우고 그 사이에 面繫(굴레)와 연결되는 가죽끈 같은 것을 끼우고 상부에 철못 1개로 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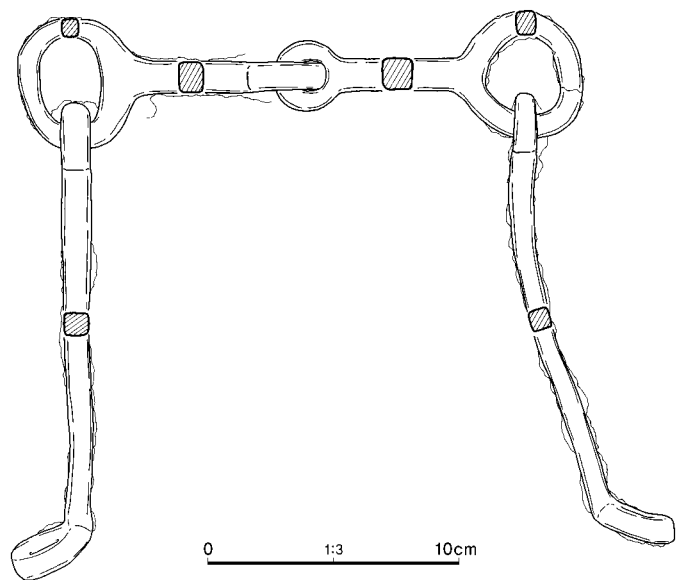
좌측인수는 남아 있으나 우측 인수는 인수 외환 쪽 절반 정도가 결실되었다. 인수외환은 장방형이다. 좌측 인수는 길이 14.9cm, 인수외환은 3.1×2.1cm, 우측 인수는 잔존 길이 6.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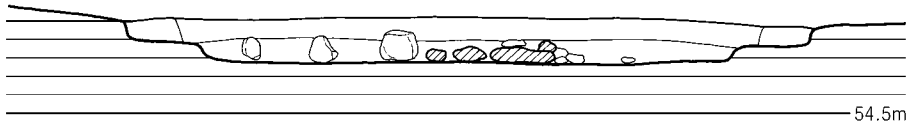
10호 목곽 轡 출토상태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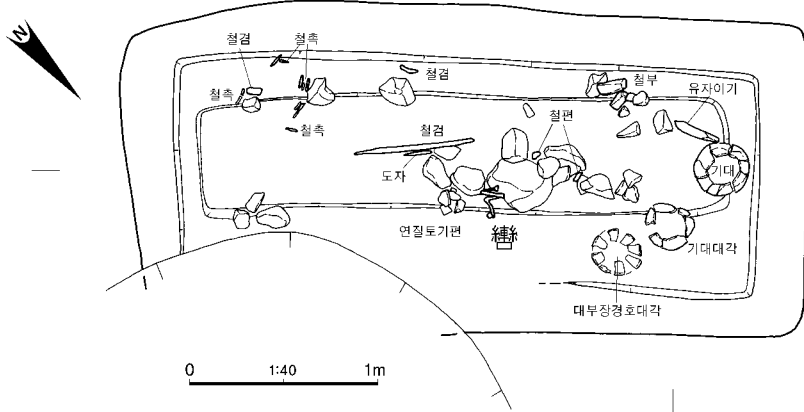
10호 목곽 轡 전개도



도면 1. 10호 목곽묘(1/40), 출토 轡(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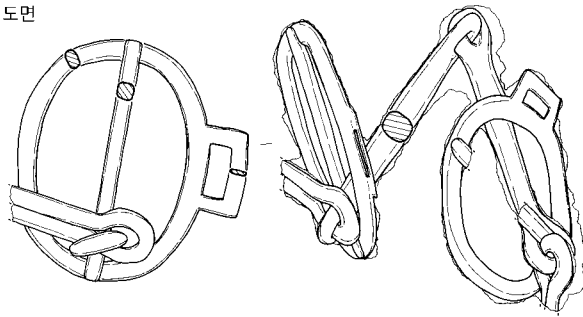
11호 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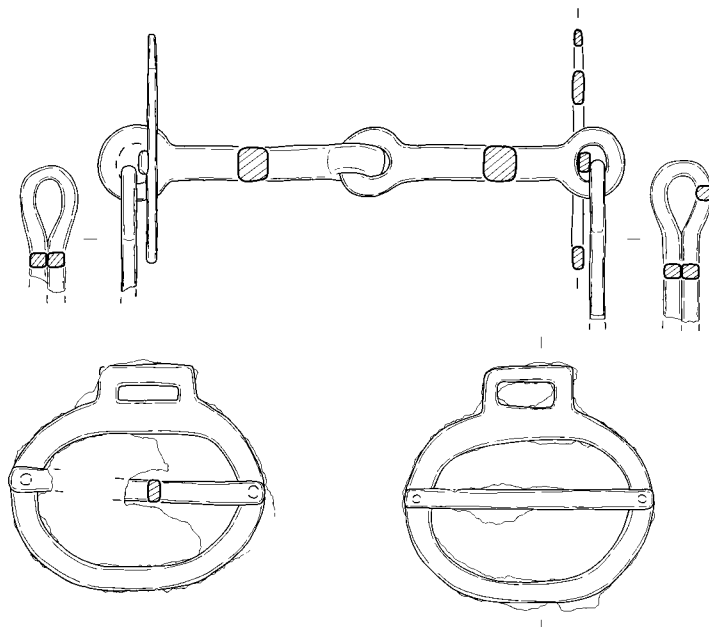
54.5m



11호 목곽 轡 출토상태 도면



11호 목곽 轡 전개도



10cm
3:1
0

도면 2. 11호 목곽묘(1/40), 출토 轡(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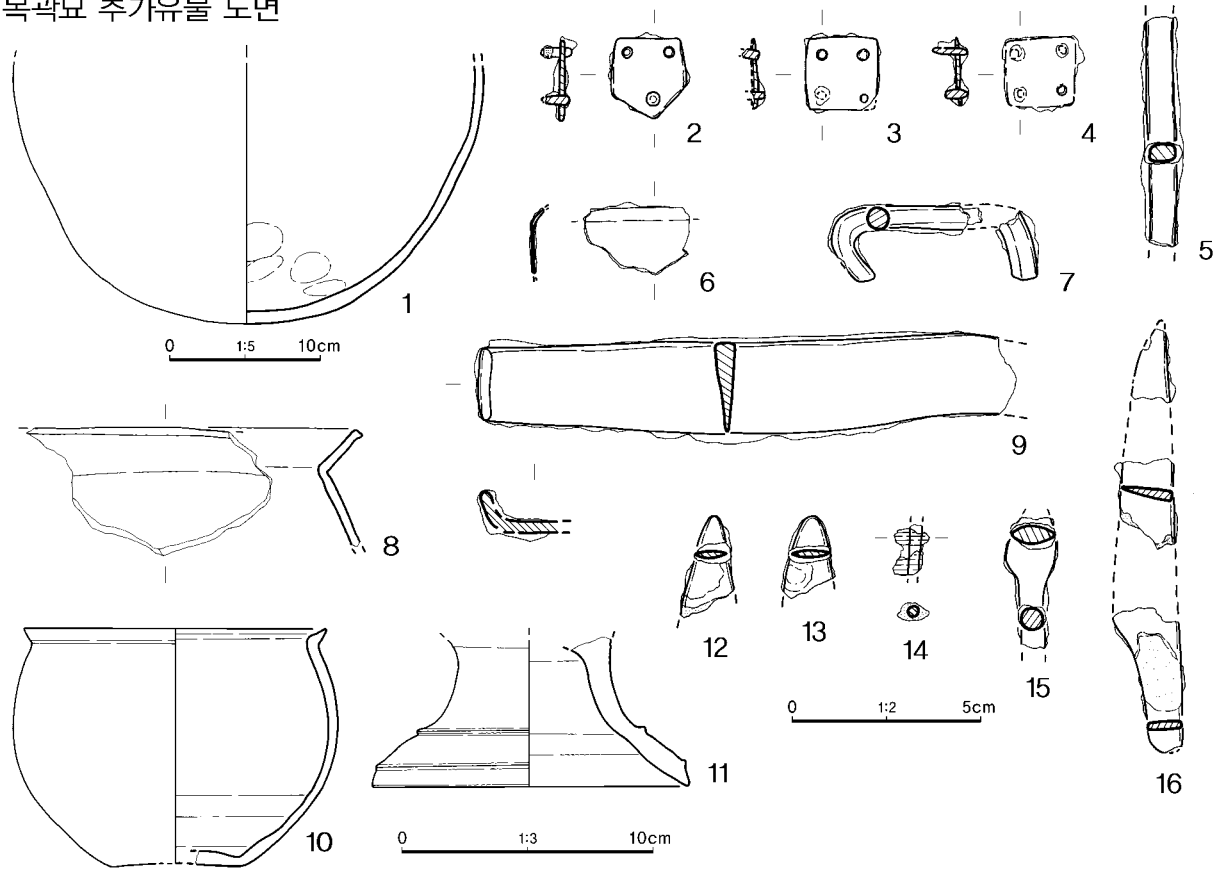
2) 목곽묘 출토유물(보고서 『김해 능동유적 I -목곽묘』) 추가 보고

도판/도면번호	유구 및 출토위치		유물명	구경cm, ()잔존치			내 용
				높이(길이)	구경(너비)	저경(두께)	
1	2호 목곽묘	수습	호저부	(17.2)			연질소성. 소성보통. 저부 일부 잔존. 장식 혼입.표면 암회갈색. 표면 평행타날문. 표면박리 극심. 도면복원 동최대경 : 30.1
2	10호 목곽묘	4	교구편	2.2			마구의 부속구. 계(繫)의 연결구로 추정됨 평면 방패형. 판상에 3개의 못으로 고정. 고정못 높이 0.9cm, 두께 0.3cm
3				1.95			평면 정방형. 판상에 4개의 못으로 고정. 잔존 못은 한 개이며 3개는 흔적만 확인. 고정못 잔존높이 0.5cm, 두께 0.3cm
4				2.2			윗 유물과 동일. 잔존못은 3개. 고정못의 높이 1cm, 두께 0.3cm ※ 함께 출토된 유물은 <능동 I> 도면40-11,도판31-11
6	11호 목곽묘	6	철기편	(2.3)	(2.3)		판상의 철편을 구부려 만든 형태이나, 용도는 불명 ※ 함께 출토된 유물은 <능동 I> 도면46-4, 도판35-4
5		14	철촉편	(6.0)	0.9	0.5	촉두는 결실되고, 촉신만 잔존함. 신부단면은 말각장방형.
8	13호 목곽묘	수습	연질호구연부편	(4.2)			연질소성. 소성보통 석영 다량혼입. 내외면 황갈색. 표면 박리 극심.
9	15호 목곽묘	수습	철검	(14.2)	2.7	0.3	선단부 일부 결실. 신부단면 이등변삼각형
12		수습	철촉	(2.7)	0.9	0.3	촉두만 잔존. 촉두 단면형태는 장타원형.
13				(2.2)	1	0.2	윗 유물과 거의 동일
14				관정(?)	(1.3)		0.25
10	21호 목곽묘	수습	연질용	9.4	12	5.3	연질소성. 소성 양호. 장식 석영 다량혼입. 1/3만 잔존(도면복원) 장식석영 다량혼입. 외면 황갈색, 저부 흑회색, 내면 명황갈색, 속심 황갈색. 표면박리 극심
7	25호 목곽묘	수습	철기	5.4		0.5	봉상의 철기 양단면 구부려 만든 형태. 용도 불명. 단면 원형
15		수습	철촉(?)	(3.4)	0.6~1.3		철촉으로 판단됨. 경부단면 타원형. ※ 함께 출토된 유물은 <능동 I> 도면 59-7,8 도판 48-7,8
16	26호 목곽묘	수습	도자	(11.4)	1.4	0.3	세조각으로 분리된 것을 도면복원. 인부단면 이등변삼각형. 병부단면 말각장방형
11	27호 목곽묘	수습	대각편	(5.3)		12.6	도질소성. 소성양호. 대각만 잔존. 장식 석영 다량 혼입. 외면 자연유 부착, 진녹색. 내면 흑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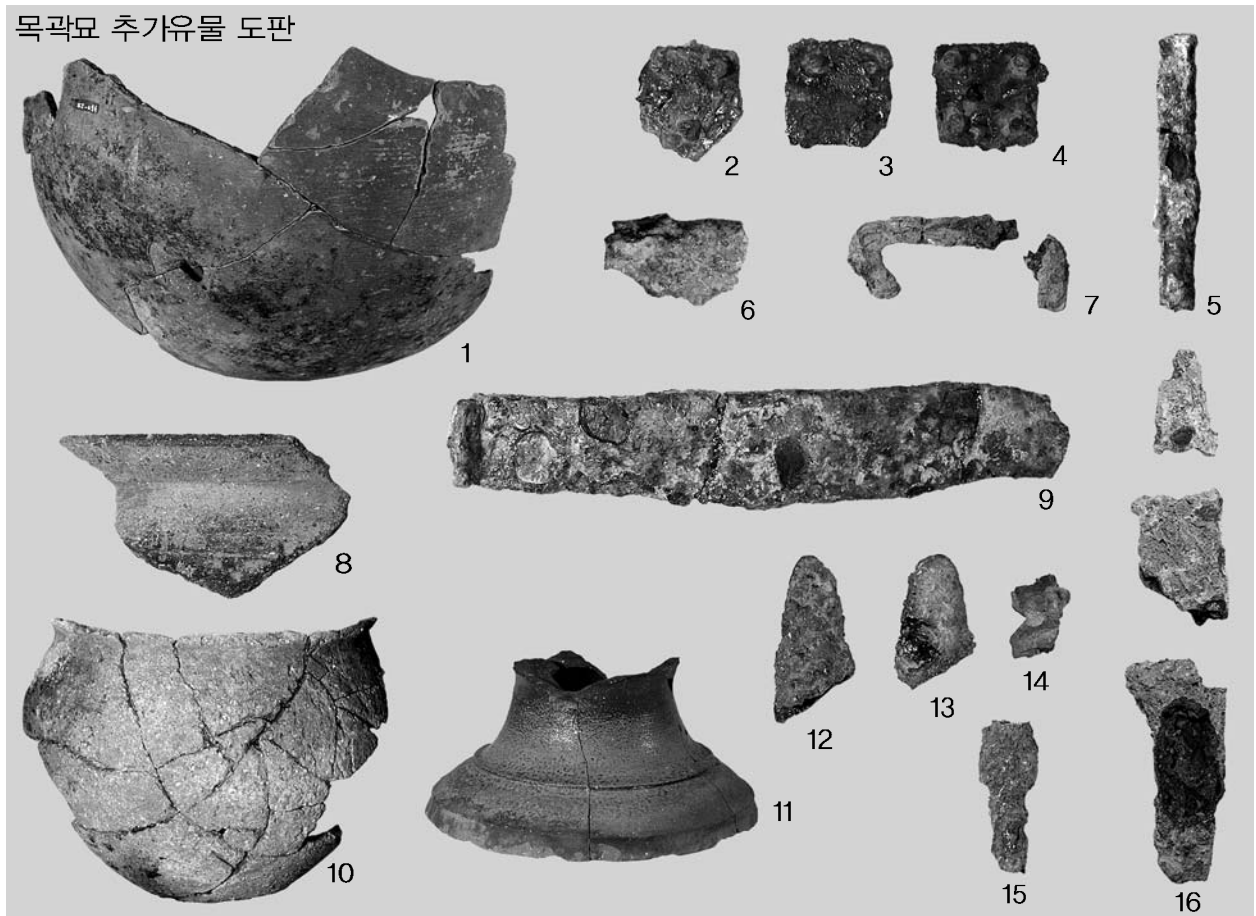
- 표에 명시된 출토 호수와 위치는 「김해 능동유적 I -목곽묘」 보고서 표기와 같다.

- 상기 유물과 pp.136~140의 재같은 행정보고는 되었으나 1차 보고서 작성과정에 누락된 것들이다.

목곽묘 추가유물 도면



목곽묘 추가유물 도판



V. 맺음말

陵洞遺蹟은 시기적으로는 三國時代에 해당하는 墳墓群이다. 본 유적은 하나의 분묘군이 완전히 조사되었기 때문에 단위유적에 대한 조사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유적의 상당부분이 무분별한 도굴과 과수원 경작과정에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고분군이 전체적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기존에 보고된 자료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본 유적의 조성이 이루어진 것은 대체로 5세기대 이후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위 말하는 金海式 外折口緣高杯의 늦은 단계로 파악되는 13호 목곽묘를 시작으로 본 유적의 조영이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인접한 윗덕정고분군에서 이보다 다소 이른 시기부터의 외절구연고배가 부장되기 시작하는데 윗덕정고분군과 조성시기가 중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의대 박물관에서 조사한 內德里古墳群과는 거의 개시 시기가 같은 파악된다. 다만 내덕리 고분군에 대한 보고서가 미간인 관계로 앞으로 이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능동유적을 포함한 이들 3개 유적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반경 5km내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각 고분군은 동일지역에 기반한 촌락들의 집단묘역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나’ 지구에서 조사된 목곽묘와 석곽묘들은 동시기에 조성된 것들로서 대개 5세기 이후 형성된 무덤들이다. 규모는 목곽묘와 석곽묘 유구의 길이가 500cm미만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비교적 중소형에 속한다. 27기가 조사된 목곽묘는 유구의 잔존 깊이가 대개 50cm 미만으로 비교적 얕은 편이며, 묘광의 장단비는 대개 2.5:1 이하로 장방형에 가깝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묘광 장단비가 3:1 이상인 예와 비교한다면 뚜렷하게 구별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신라지역의 경우 목곽묘들이 2~3기 이상이 나란히 배치되는 현상이 보이는 반면 가야지역 목곽묘들은 개별 유구가 독립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양지역은 명백하게 차이를 보인다. 능동유적 목곽묘의 경우는 가야지역 목곽묘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배-단경호-장경호-각종 기대류 및 다양한 기종의 토기류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물인 고배는 김해지역을 대표하는 외절구연고배와 함께 창녕계 고배, 함안계 고배 등 지역색이 강한 고배류들이 골고루 확인되었다. 이것은 주변지역과 폭넓은 교류관계를 유지했음을 의미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21호 목곽묘에서는 왜계토기로 인식되는 내만구연호도 확인되었다. 철기류는 대도·마구·철모·철촉 등과 유자이기·철점·철부 등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다. 몇몇 유구에서는 재갈, 대도 등 당시의 신분을 유추하기 충분한 유물이 부장된 예도 있다. 특히 25호 목곽묘의 경우, 대도와 철정-철촉-철제 갑옷의 부속구인 소찰편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구의 규모면에서는 우월한 신분층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지만 부장유물에서 보면 소유 형태의 차별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물 부장양상은 단위집단 내의 신분적 위계화와 연관지워 볼 수 있을 것이다.

석곽묘의 경우도 목곽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목곽과 마찬가지로 도굴의 피해가 심하다. 길이 514cm, 너비220cm인 27호 석곽묘는 규모면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전체적으로 도굴이 심하여 유물의 전체적인 부장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출토된 유물로 보아 마구류를 포함하여 비교적 많은 양의 철제유물이 부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석곽묘에서도 기대류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부장되어 있지만 유구의 규모면에서나 유물 부장양상 등에서 27호 석곽묘가 가장 두드러진 유구임 분명하다. 전체적인 유구의 규모나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능동유적은 중소규모 정도의 단위취락에 의해 조성된 집단묘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나’ 지구서 확인되는 木槨墓와 石槨墓가 동일묘역내에 불규칙적으로 혼재하고 있으나, 단 1

기의 무덤도 중복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5세기 이전 단계의 목곽묘와 석곽묘들이 심하게 중복되어 있는 김해지역의 양상과 비교한다면 주목되는 것이다. 이는 5세기 이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는 封墳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점은 향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통하여 봉분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파악해 본다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능동유적은 중소규모의 단위취락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묘역이다. 금관가야가 쇠락하면서 영남 각지에서 제작된 토기가 유입되는 등 김해지역이 점차 신라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변에서 확인된 윗덕정유적, 내덕유적 등과 함께 김해 장유지역을 근거로 한 중소규모 취락의 집단매장지이며, 이후 '가' 지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추가장이 가능한 횡구식과 횡혈식석실묘로 묘제가 전환되면서 집단묘역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능동유적에서는 삼국시대 토기가마 2기와 조선시대 기와가마 3기가 확인되었다.

토기가마는 고고지자기와 수습되는 유물로 보아 6세기 중엽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 지구의 고분군과는 시기적으로 차이를 가진다. 반지하식 등요의 형태인데 1호 토기가마의 경우 지상에 노출된 煙道部를 제외한 천정부의 구조까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인접한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토기가마 유적은 김해 봉황동유적⁶⁾과 김해 구산동유적⁷⁾이 있다. 봉황동유적내에서 확인된 토기가마는 대부분 유실되어 구조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 조성된 평요이다. 구산동유적에서 확인된 가마는 능동유적의 가마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등요이며 연소부 입구에 할석을 배치한 구조로 6세기 후엽에서 7세기 중엽경으로 편년된다. 능동유적에서 확인된 가마는 이른 시기의 평요에서 등요로 전환되어 구조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에 동시기의 가마가 확인되지 않아 구조적인 변천과정이 시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김해지역에서 토기가마 자료가 증가한다면 등요가마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기와가마는 '나' 지구와 '다' 지구에서 모두 3기가 조사되었다. 능동유적에서 확인되는 기와가마는 천정일부와 연도부를 제외하고는 벽체를 포함하여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요벽의 경화 상태와 소성실내 기와의 출토상태로 보아 여러 차례에 걸친 조업이 이루어진 기와요로 생각된다. 고고지자기 분석결과 15세기에 조성된 가마로 수습된 기와는 조선시대 전반기의 기와문양과 유사하다. 또한 3호 기와가마에서 수습된 명문기와에서는 '己酉 三月日'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기유년'은 육십간지의 46번째 해로서 고고지자기 변동이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다면 '己酉' 연대는 1429년(세종 11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려시대 선문과 격자문이 중호문으로 대체되면서 변형된 형태의 문양을 가진 기와들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15~16세기까지 사용된 가마로 추정된다.

김해지역에서 확인된 기와가마 유적은 김해 대청리유적⁸⁾, 후포와요지⁹⁾, 대성동·동상동유적¹⁰⁾이 있다. 대성동·동상동유적은 조선시대 후기로 편년되어지며 대청리유적과 후포와요지는 15세기에 조영된 가마들로 능동유적과 조영시기가 비슷하다. 후포와요지는 15세기 내외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소실과 소성실의 보강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조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대청리유적에서 확인된 가마의 형태와 규모는 능동과 매우 유사한데 거의 동시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焚口를 포함한 燃燒部의 형태와 불턱·燒成室의 경사도 등이 거의 같다. 능동유적에서

6) 慶南發展研究員 歷史文化센터, 2005, 『金海 加耶人 生活體驗村 造成敷地內 遺蹟 I -金海 鳳凰洞遺蹟-』

7)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9, 『金海 龜山洞遺蹟』

8) 우리文化財研究員, 2010, 『金海 大清里遺蹟』

9) 慶南文化財研究員, 2005, 『金海 後浦瓦窯址』

10) 慶南文化財研究員, 2007, 『金海 大成洞·東上洞 遺蹟』

조선시대 전기의 瓦窯가 확인됨으로써 김해지역의 조선시대의 瓦窯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능동유적의 전반적인 조사내용을 살펴보았다. 유적의 개별 유구의 연대를 살펴봄으로서 맺음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목곽묘와 석곽묘가 혼재해 있는 '나' 지구는 대개 5세기 중엽경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6세기 직전에 사용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즉 6~70년 가량의 사용되었던 집단묘역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 지구의 유구에서 확인된 유물은 대개 6세기 전엽경의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 지구 토기가마는 6세기 중엽, 그 외 '나' 지구와 '다' 지구에서 확인된 기와가마는 15세기대의 유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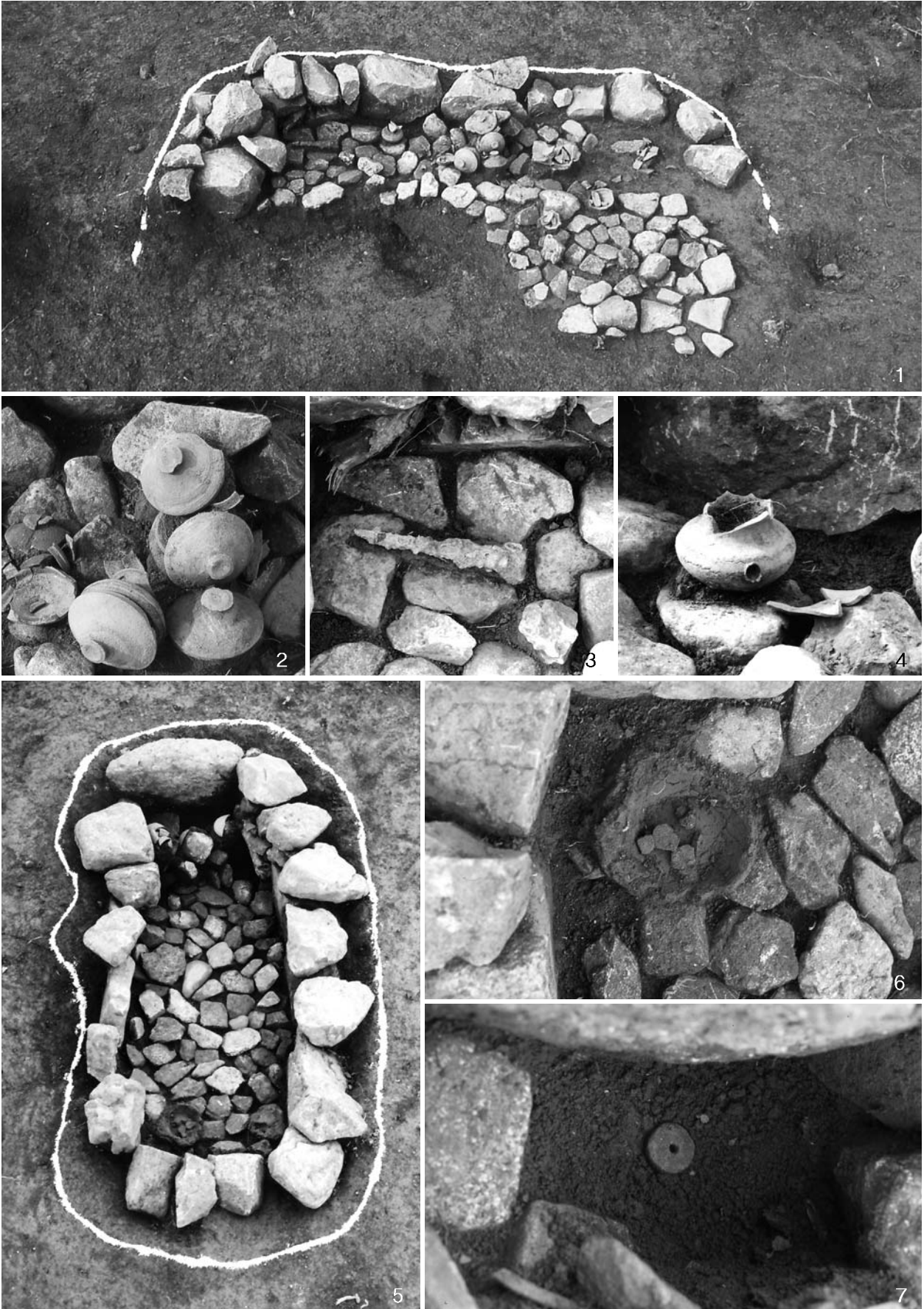
능동유적은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 장유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아파트단지로 조성이 되었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이렇게 지면에서나 능동유적의 흔적을 재현해보고자 나름 노력하였다. 이 한편의 학술서적이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맘으로 본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圖 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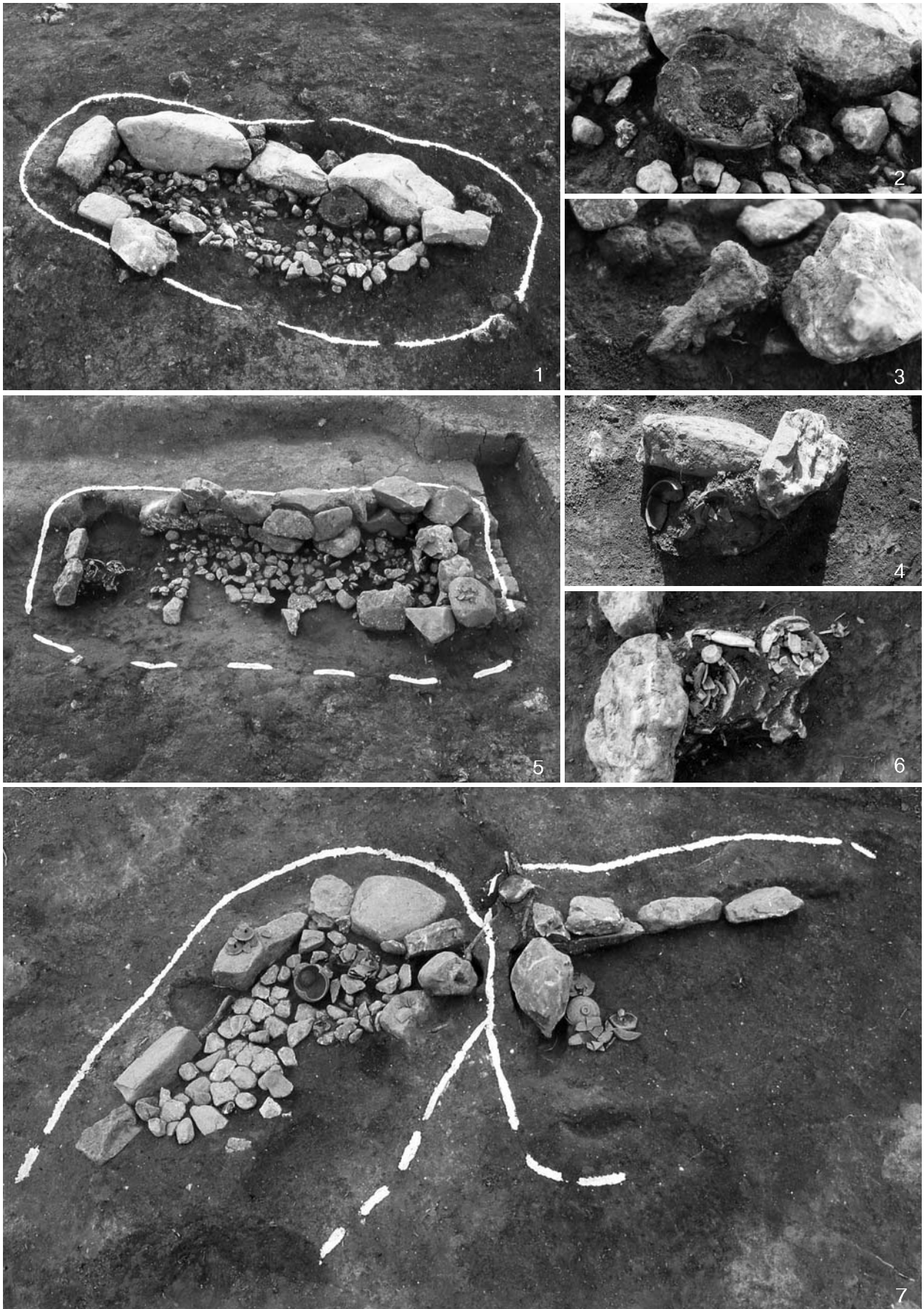
圖版 1. 김해 능동유적 원경(1)과 근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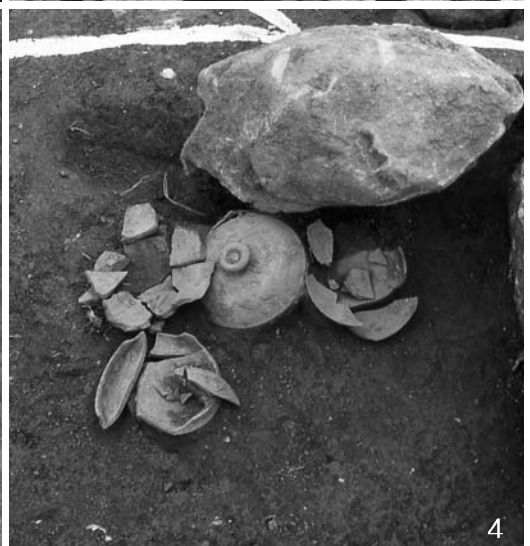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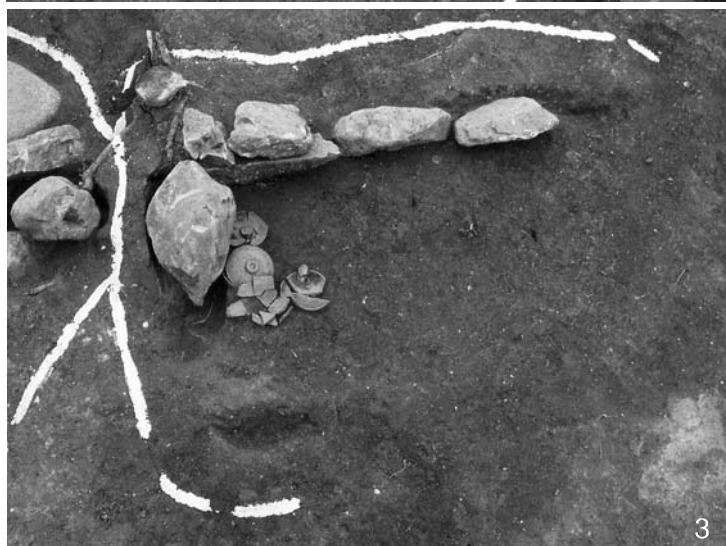
圖版 2. 가-1호 석실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가-2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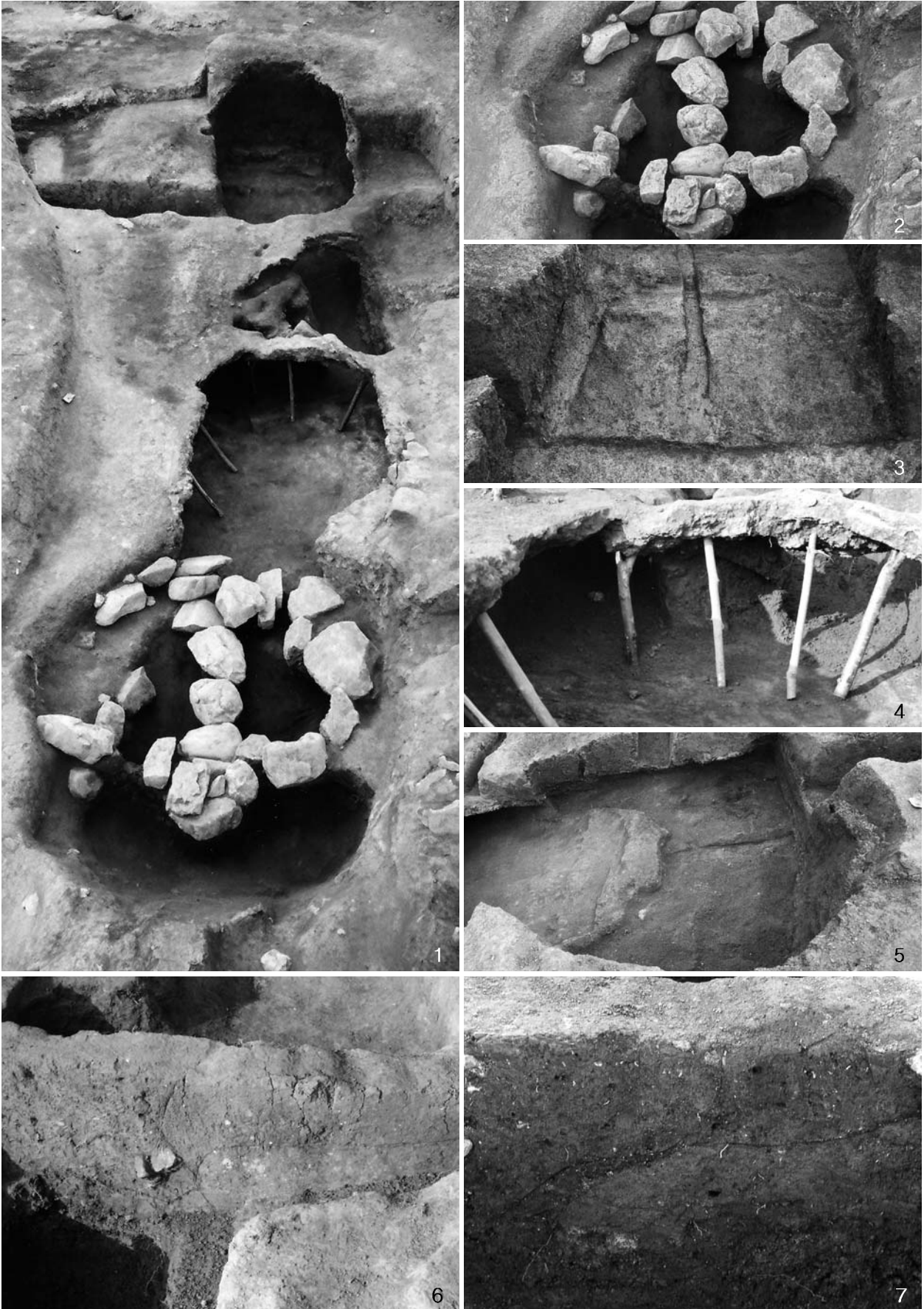
圖版 3. 가-3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가-4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圖版 4. 가-5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3), 가-6호 석곽묘 전경 및 출토유물(4), 가-7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 가-8·9호 석곽묘 전경(7)



圖版 5. 가-8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 가-9호 석곽묘 전경(3)과 출토유물(4), 가-1호 토광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圖版 6. 가-1호 토기가마 전경(1), 연소실(2), 소성실바닥(3), 소성실천정(4), 추정연도부(5), C단면(6), D단면(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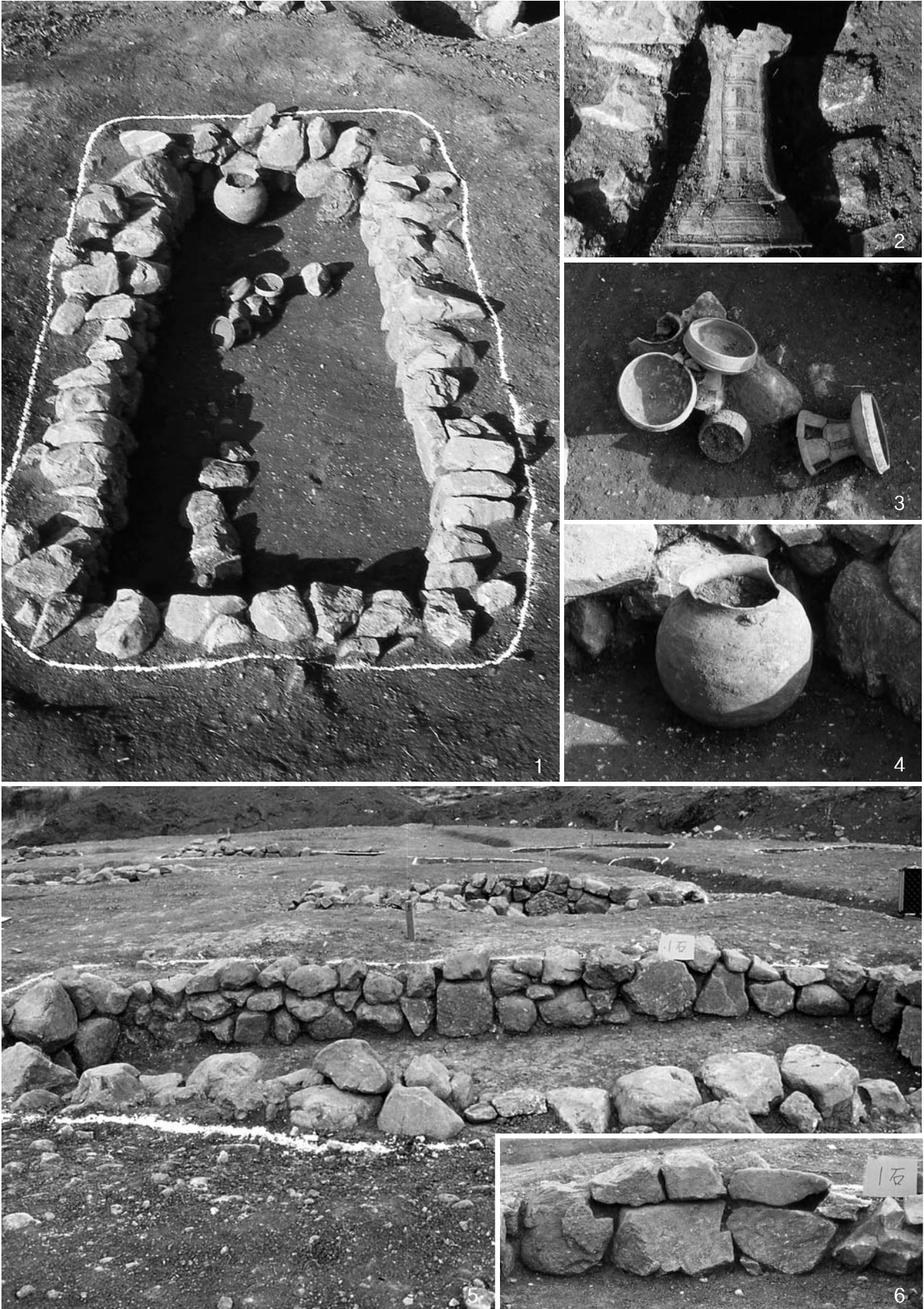
圖版 7. 가-2호 토기가마 전경(1), a단면(2), b단면(3), c단면(4), d단면(5), 장축토층(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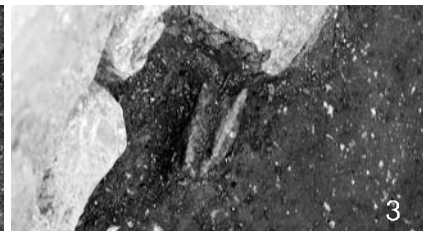
圖版 8. 1호 석열 전경(1~3), 2호 석열 전경(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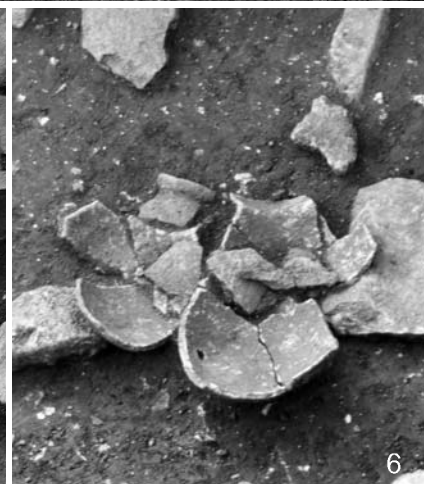
圖版 9. 4호 석열 전경(좌) · 4호 석곽묘(1), 4호 석열 전경(우) · 유적기준 토층(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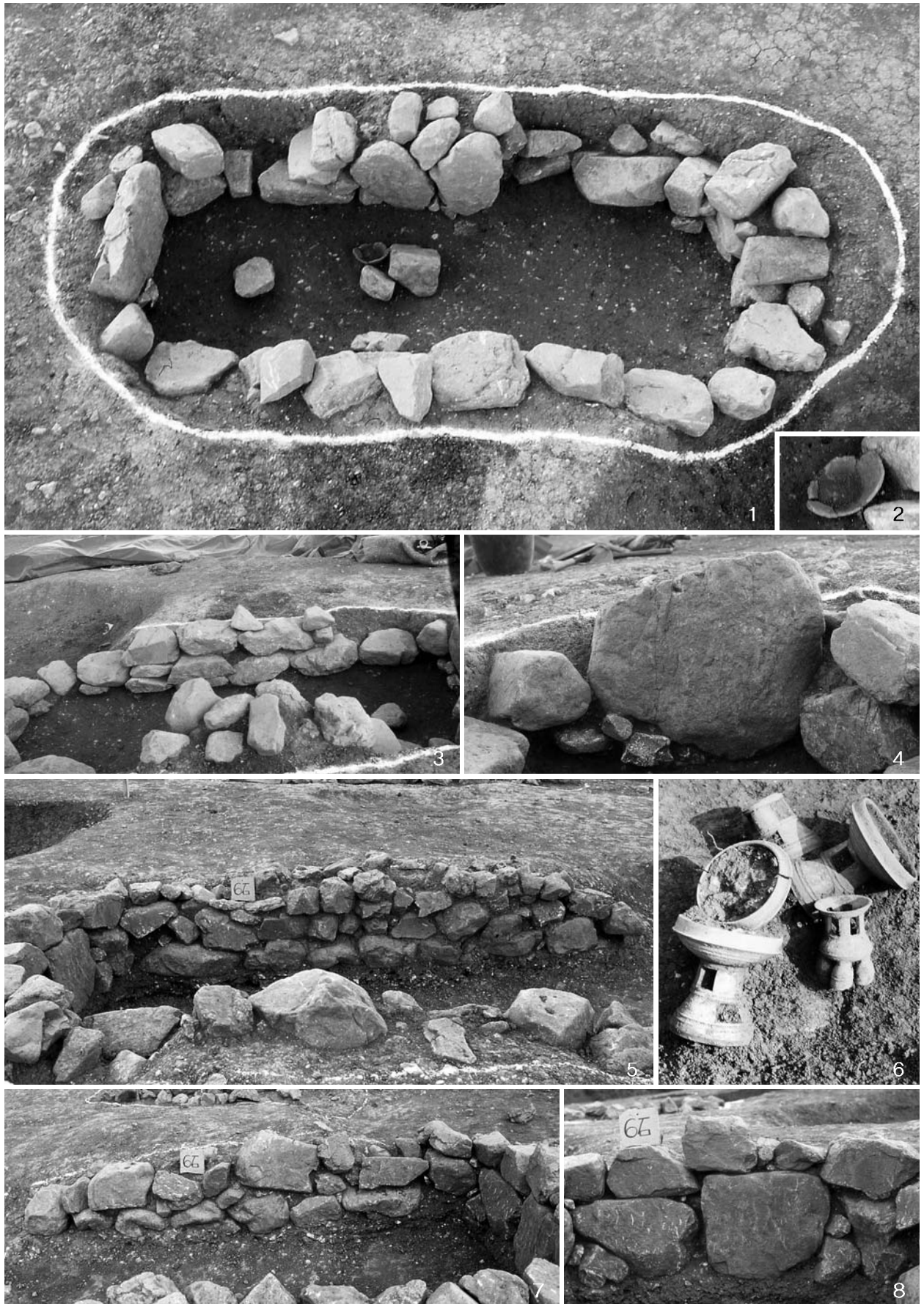
圖版 10. 나-1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및 동장벽(5), 남단벽(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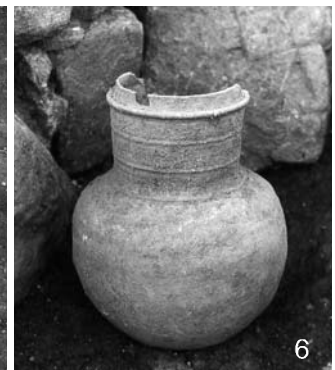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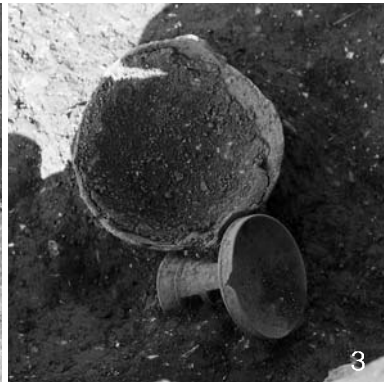
圖版 11. 나-2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나-3호 석곽묘 전경(5)과 서장벽(6), 북단벽(7), 출토유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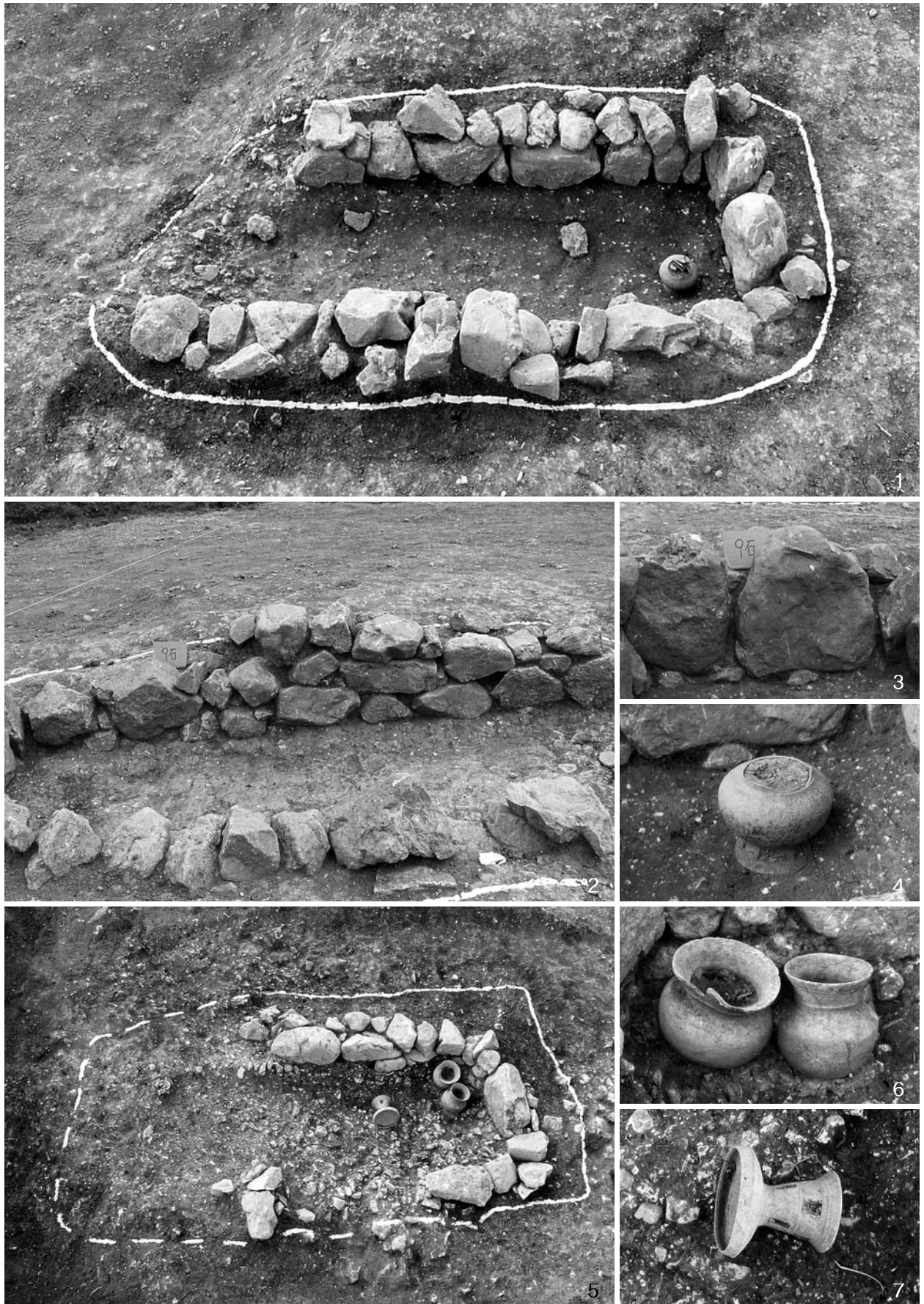
圖版 12. 나-4호 석곽묘 전경(1), 서장벽(2), 북단벽(3), 출토유물(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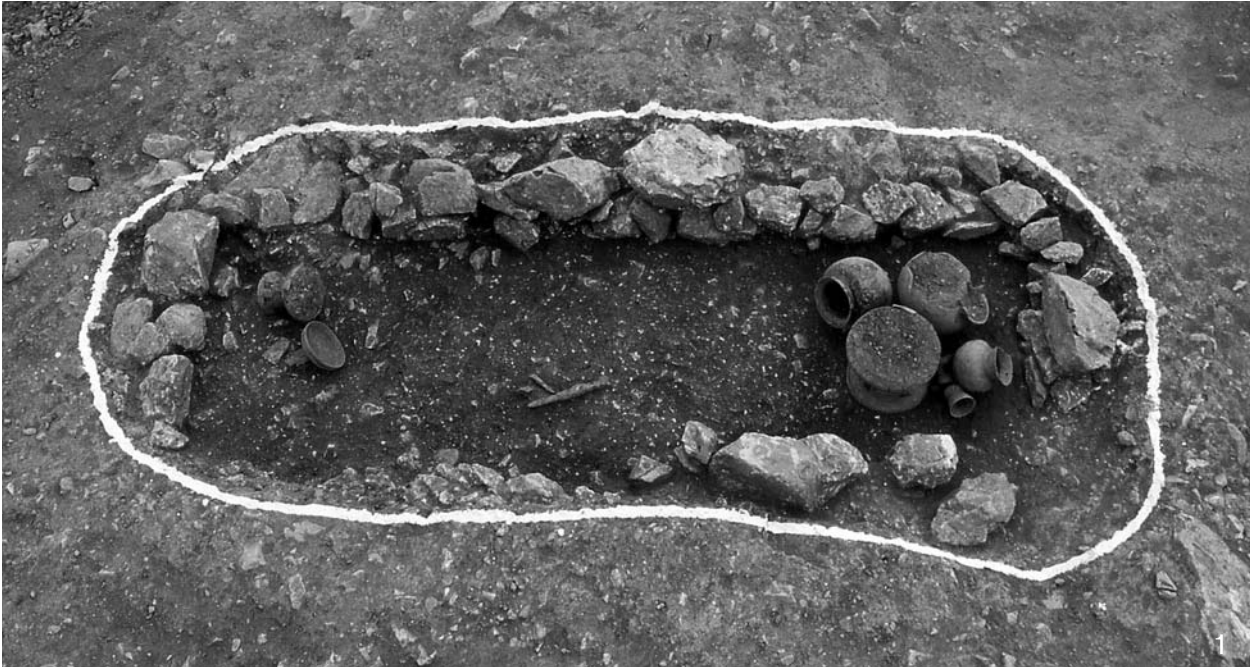
圖版 13. 나-5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 동장벽(3), 남단벽(4), 나-6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 동장벽(7), 남단벽(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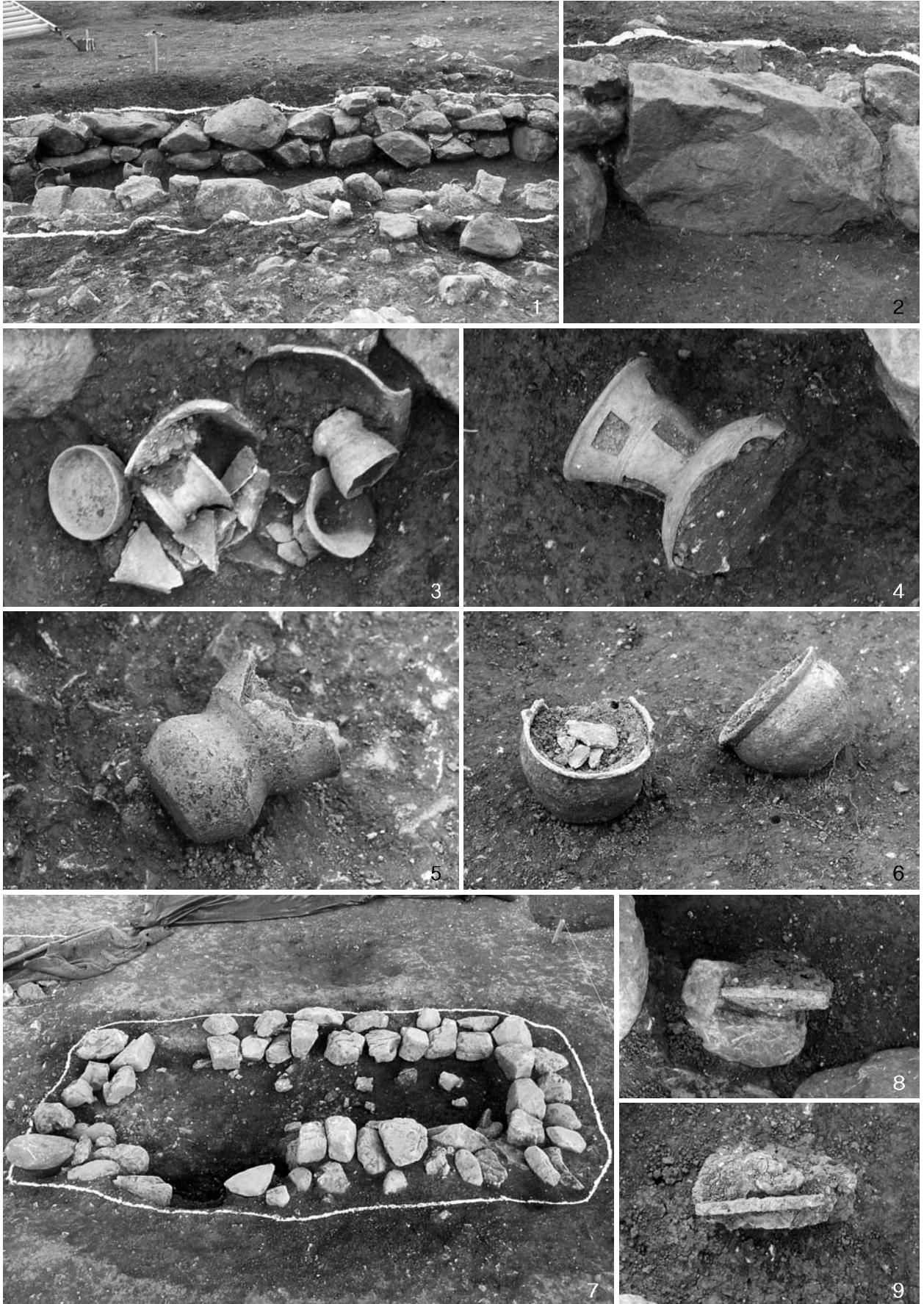
圖版 14. 나-7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나-8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圖版 15. 나-9호 석곽묘 전경(1), 동장벽(2), 북단벽(3), 출토유물(4), 나-10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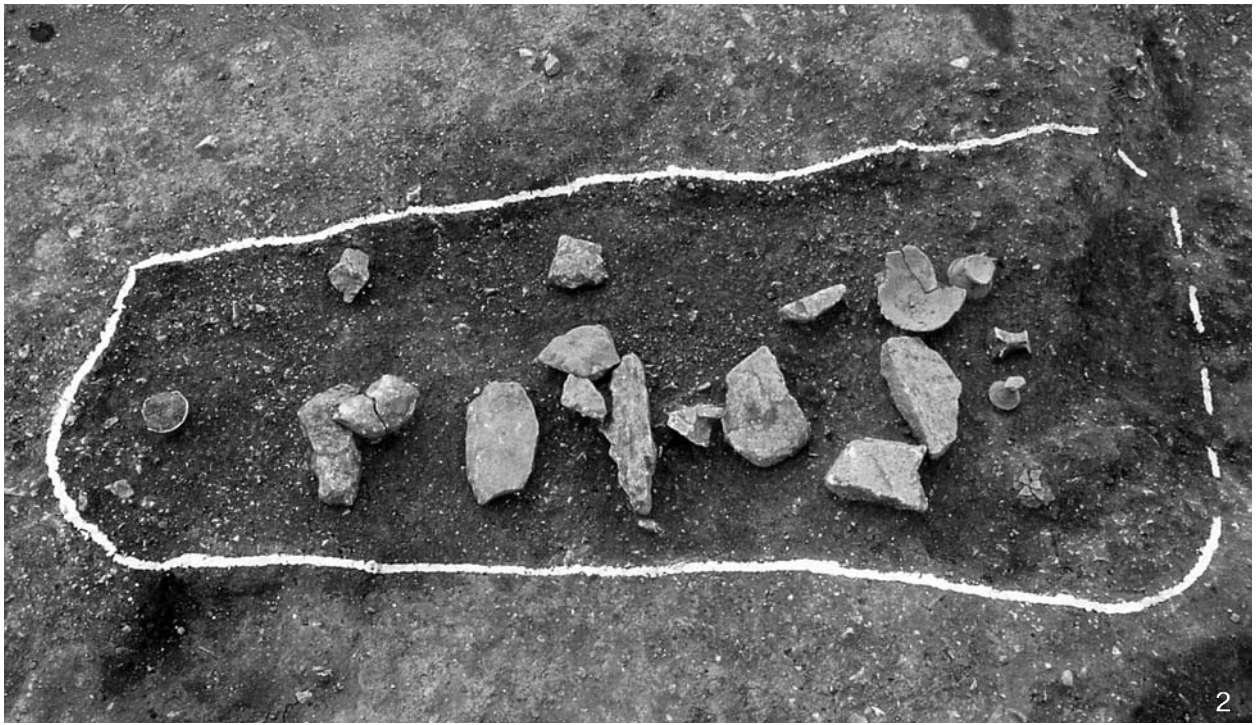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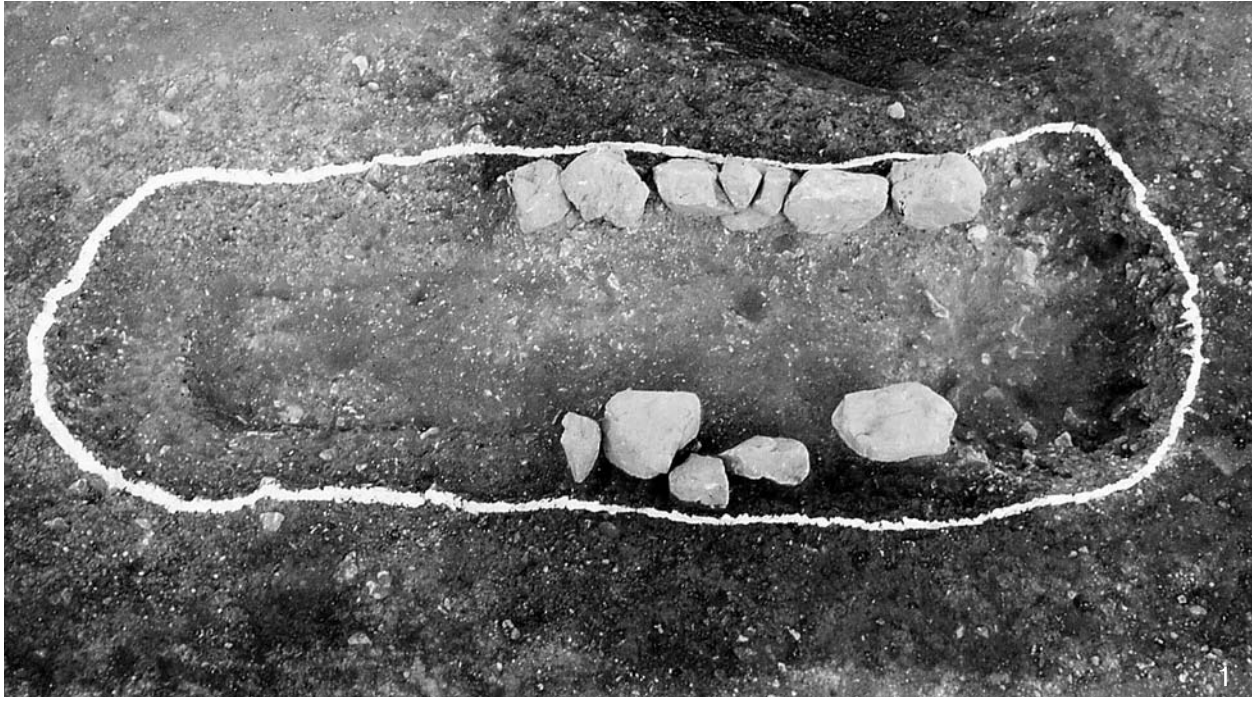
圖版 16. 나-11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나-12호 석곽묘 전경(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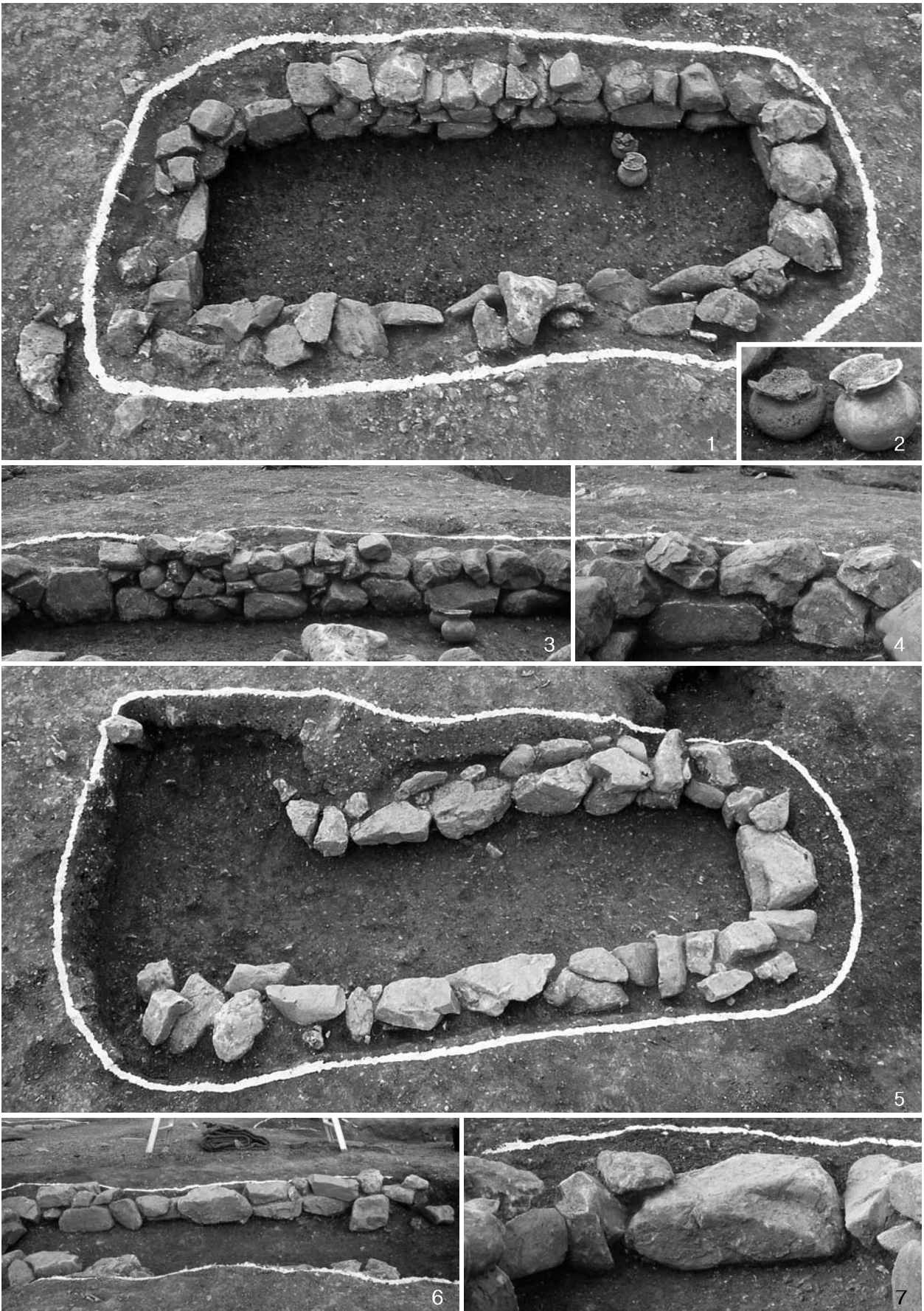
圖版 17. 나-12호 석곽묘 서장벽(1), 북단벽(2), 출토유물(3~6), 나-13호 석곽묘 전경(7)과 출토유물(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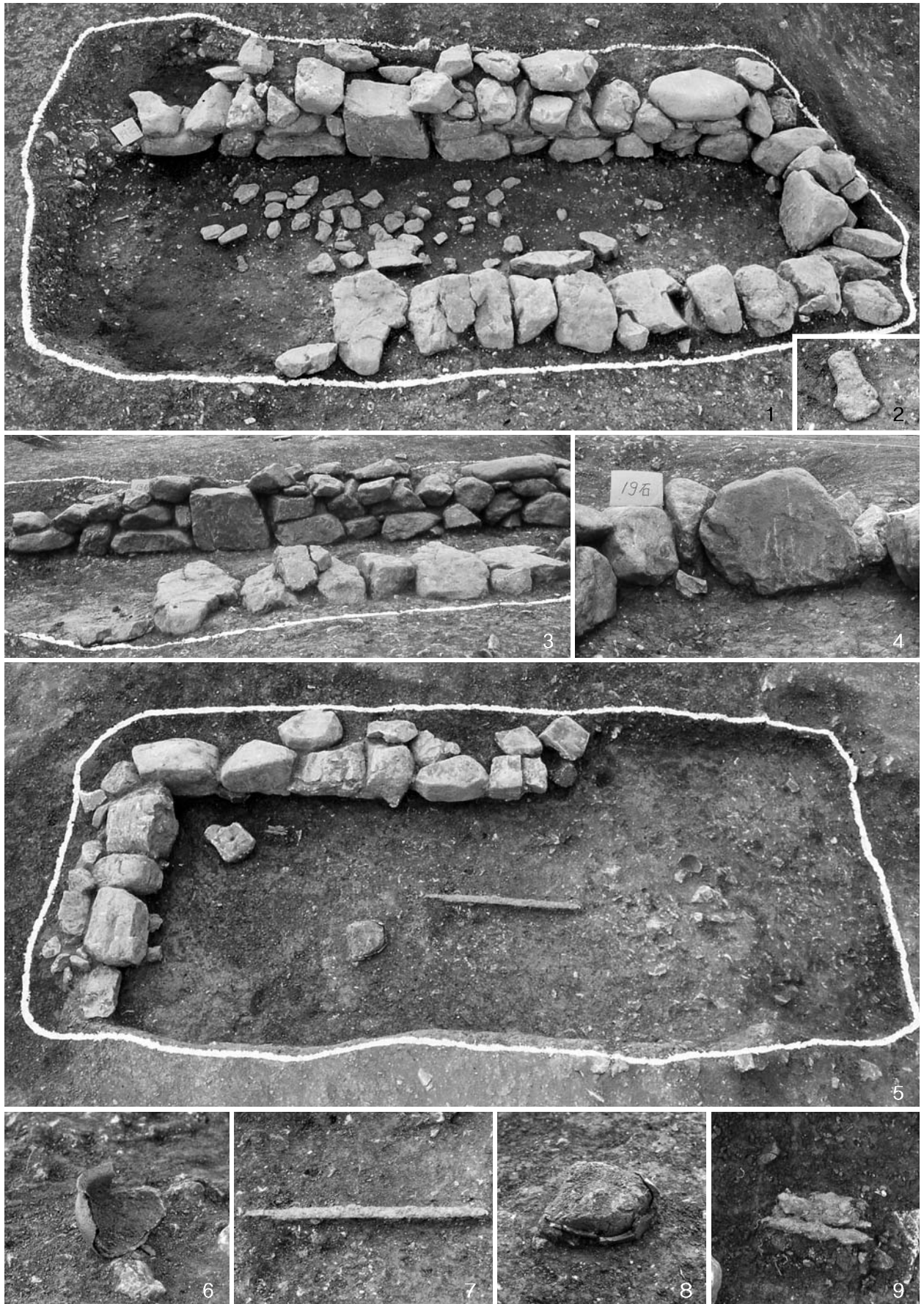
圖版 18. 나-14호 석곽묘 전경(1), 서장벽(2), 남단벽(3)과 출토유물(4~7)



圖版 19. 나-15호 석곽묘 전경(1), 나-16호 석곽묘 전경(2)과 출토유물(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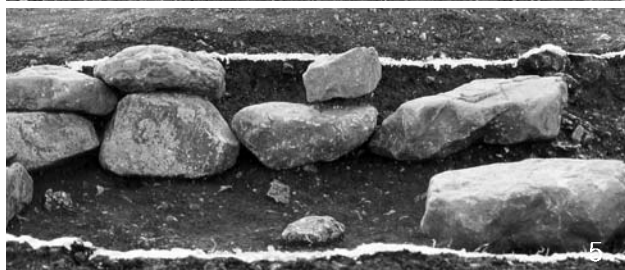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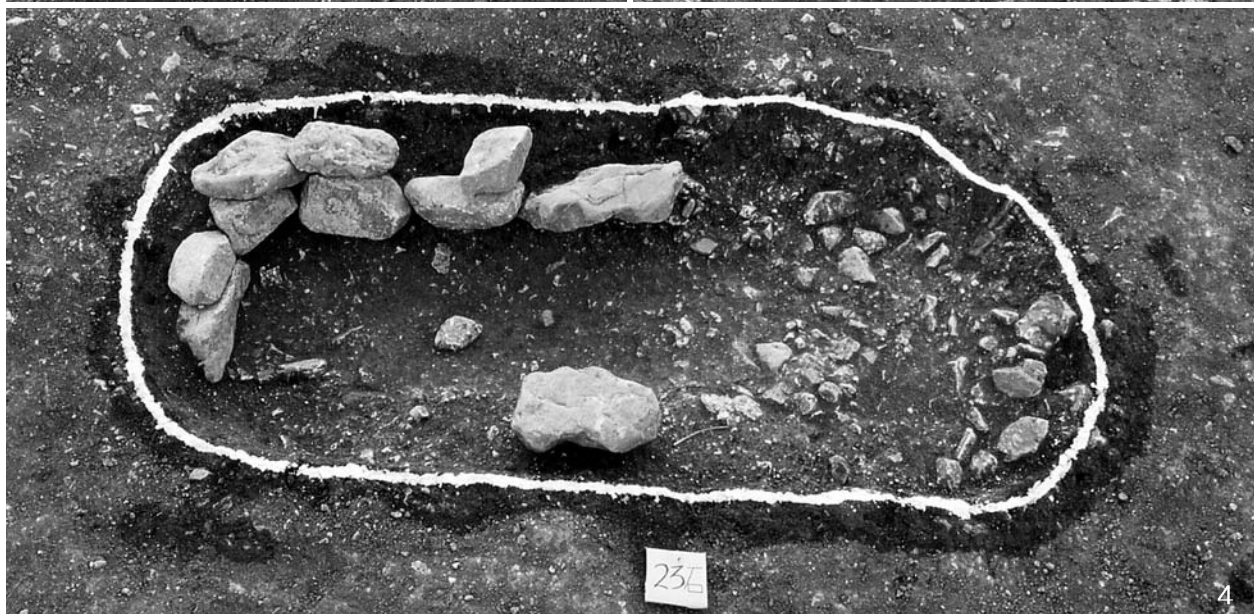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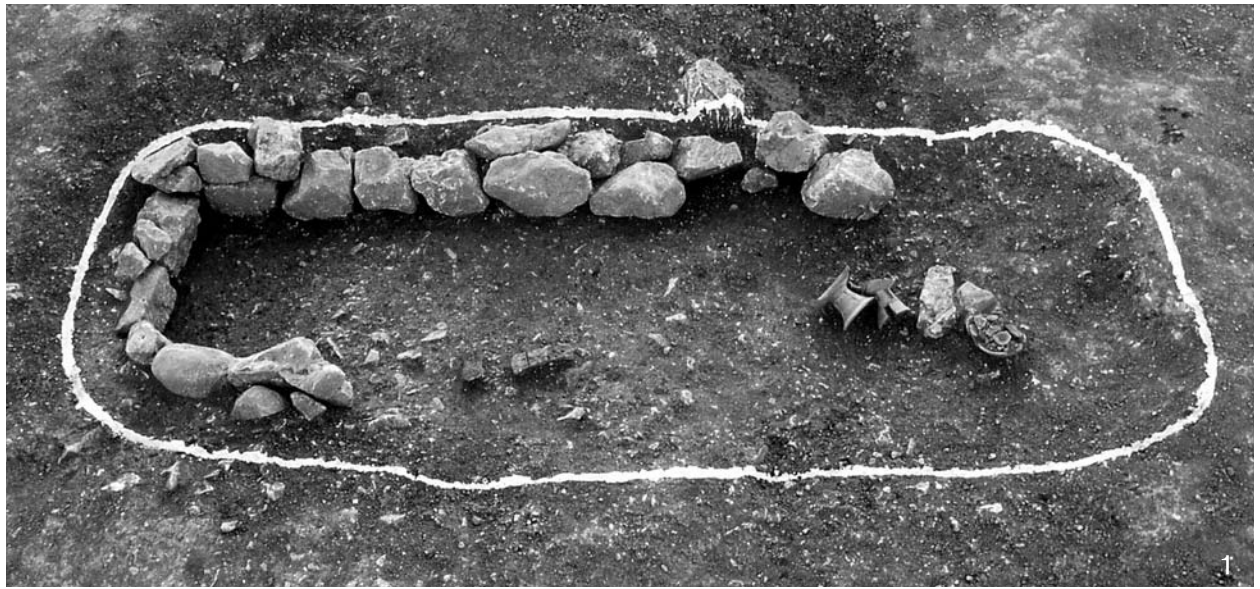
圖版 20. 나-17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 서장벽(3), 북단벽(4), 나-18호 석곽묘 전경(5), 동장벽(6), 북단벽(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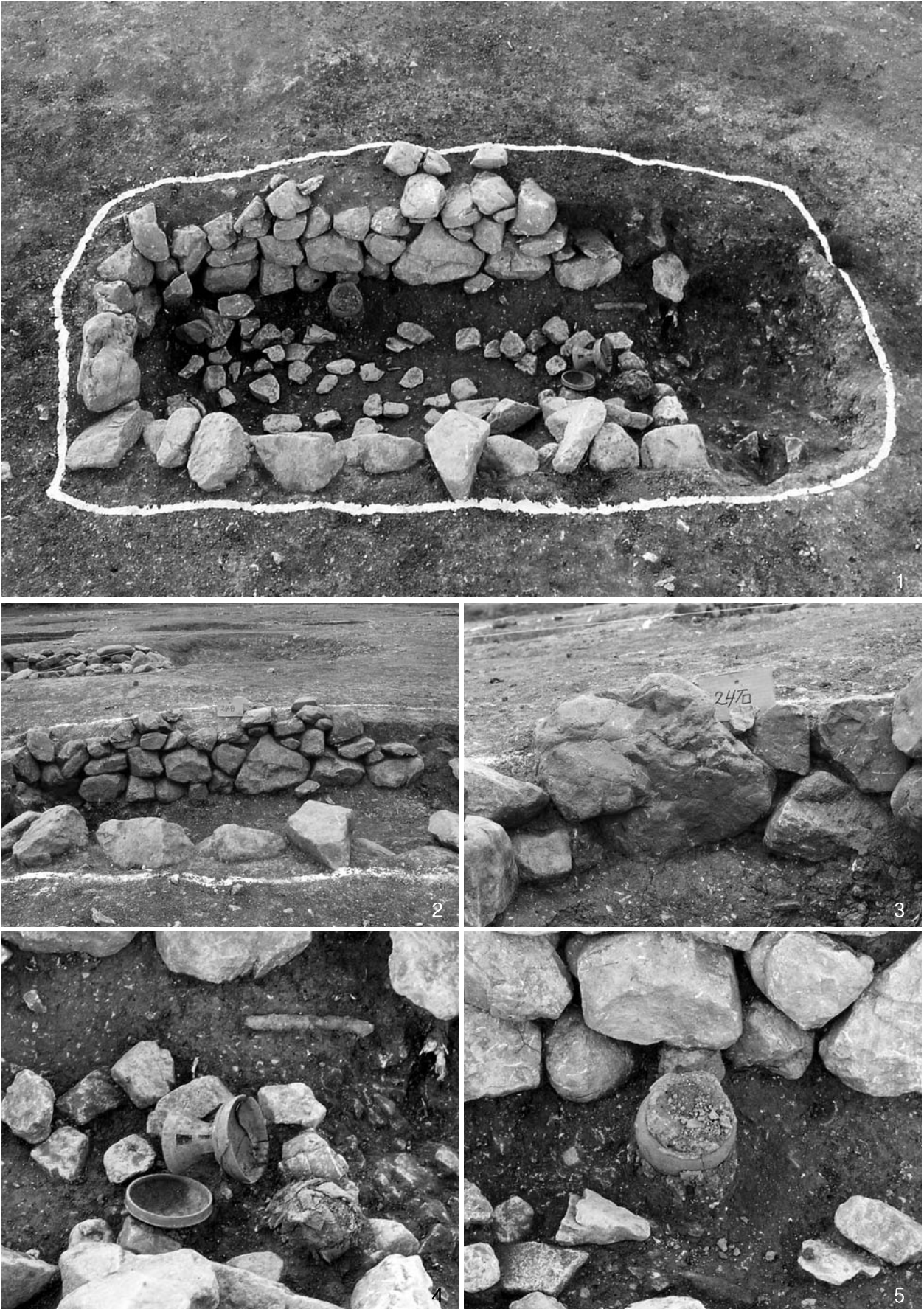
圖版 21. 나-19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 서장벽(3), 북단벽(4), 나-20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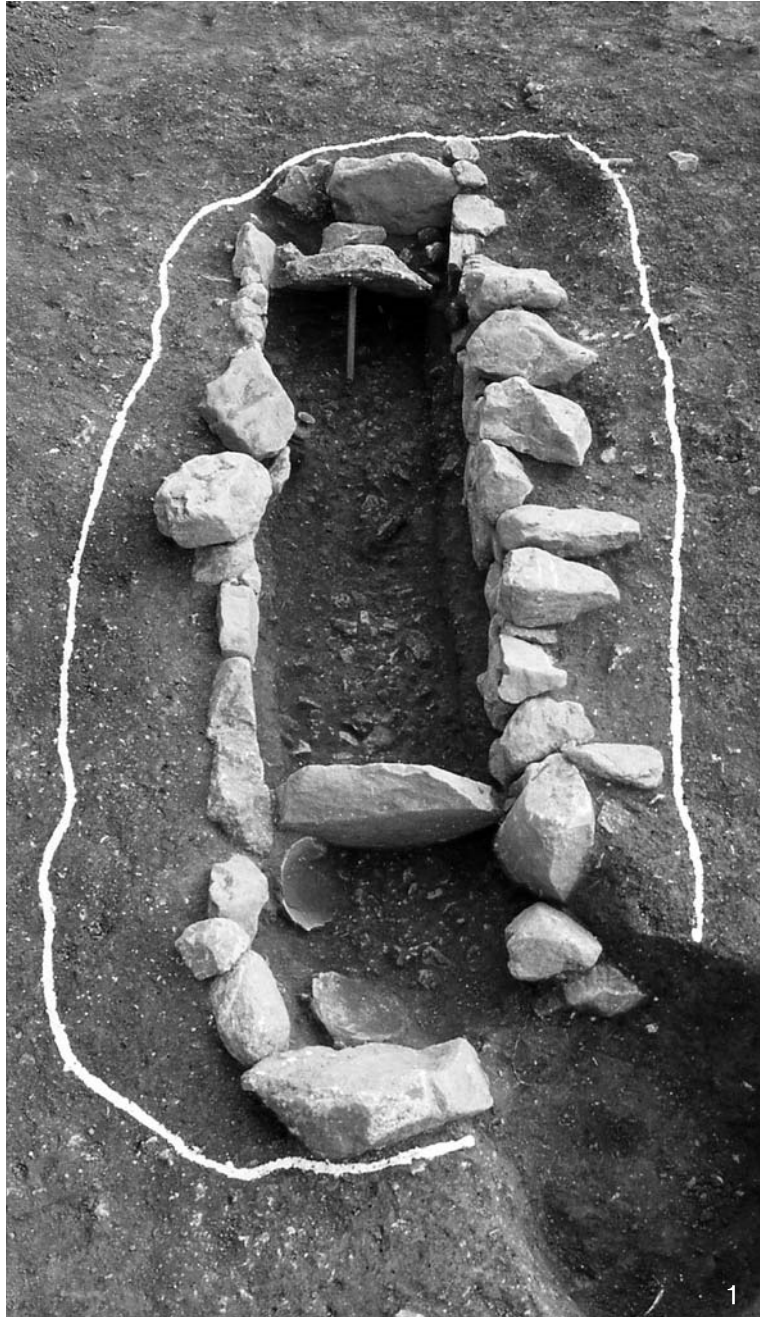
圖版 22. 나-21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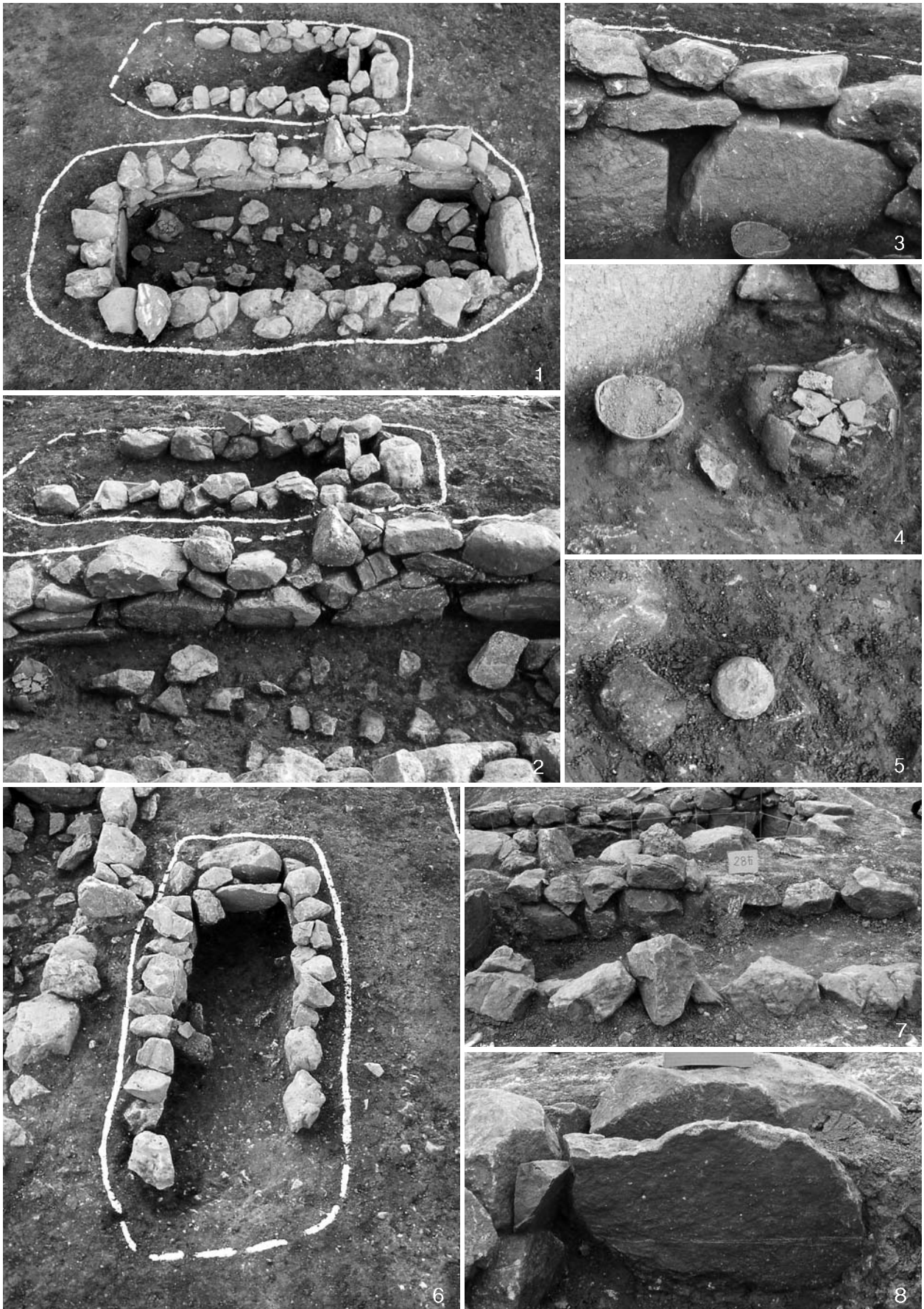
圖版 23. 나-22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3), 나-23호 석곽묘 전경(4), 서장벽(5), 남단벽(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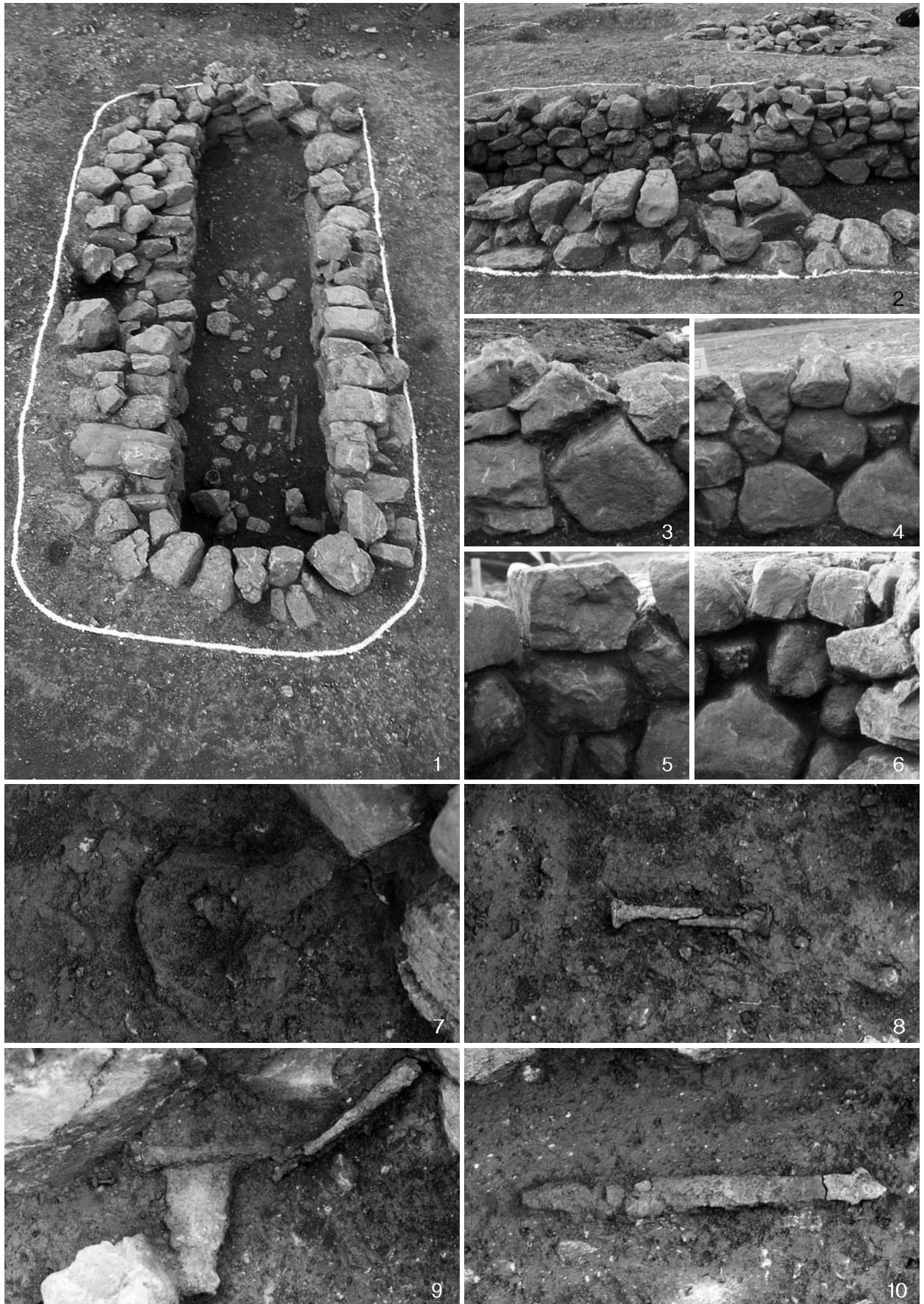
圖版 24. 나-24호 석곽묘 전경(1), 서장벽(2), 남단벽(3), 출토유물(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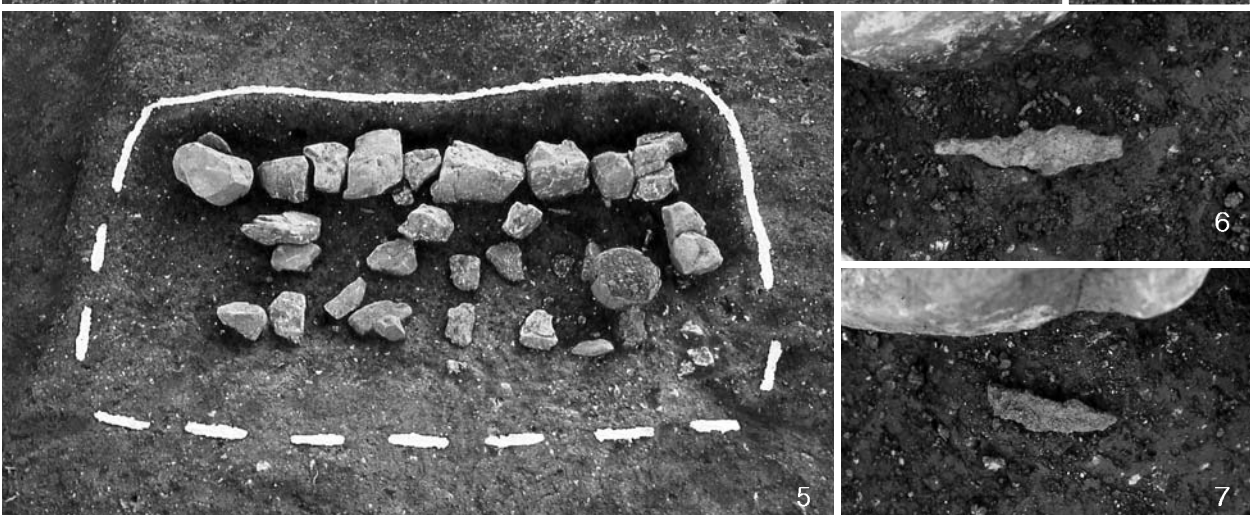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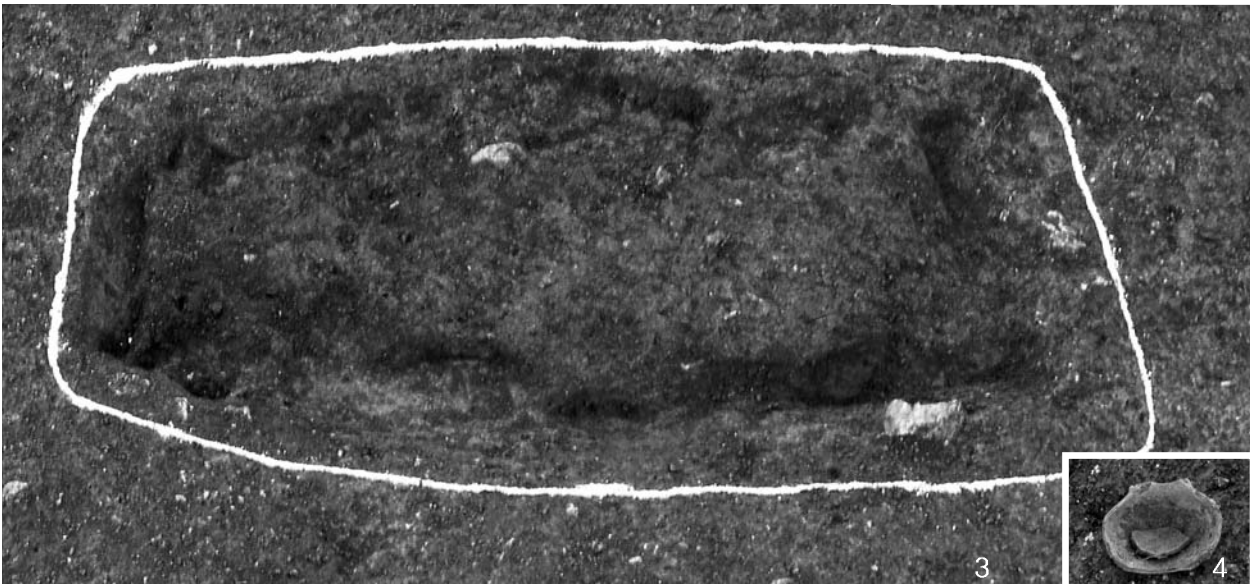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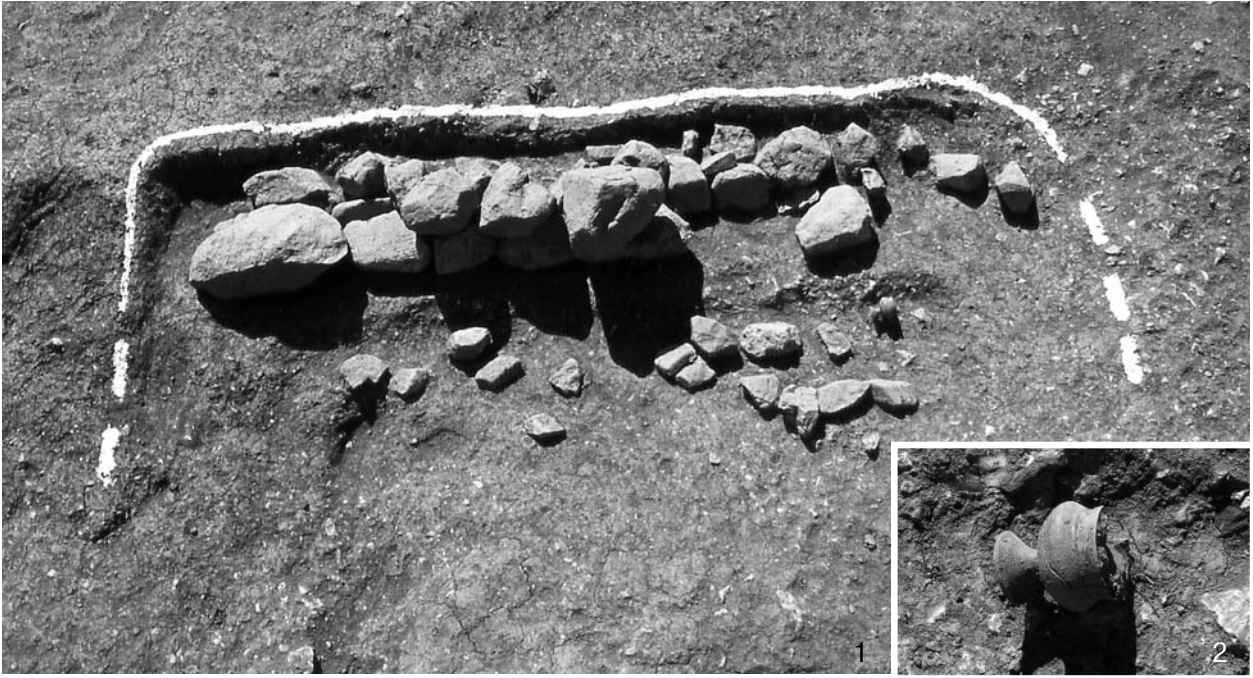
圖版 25. 나-25호 석곽묘 전경(1), 부장공간 내 유물(2), 출토유물(3), 서장벽(4), 남단벽(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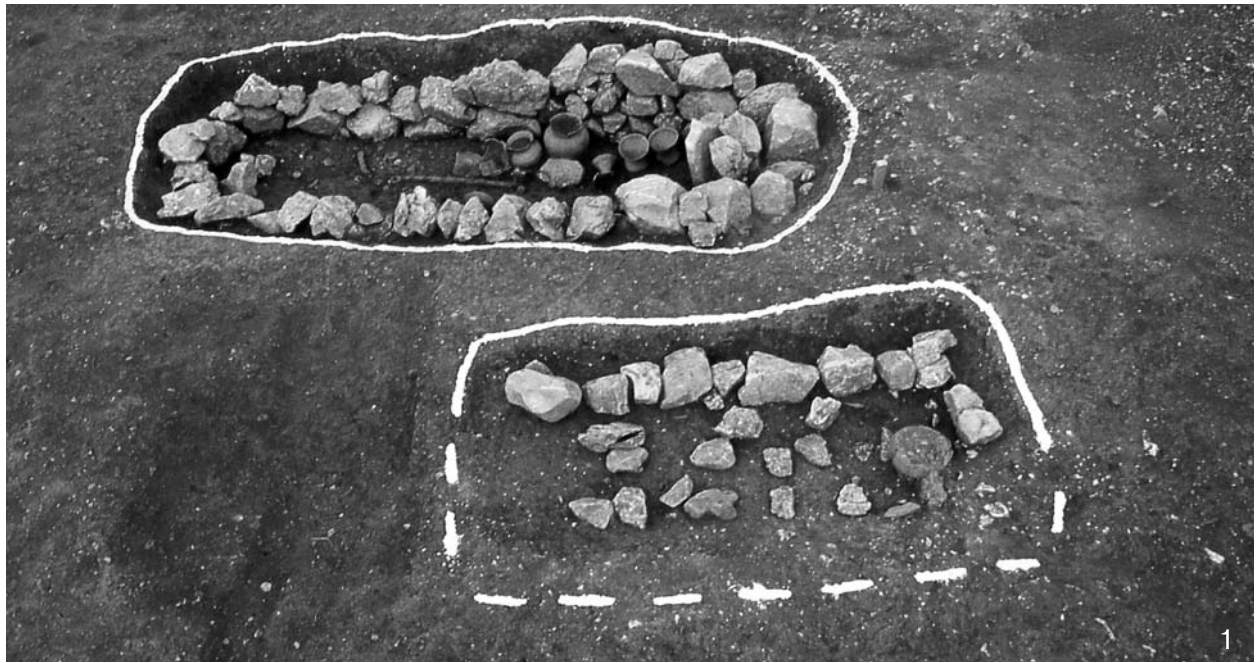
圖版 26. 나-26호 석곽묘 전경(1), 동장벽(2), 북단벽(3), 출토유물(4·5), 나-28호 석곽묘 전경(6), 서장벽(7), 남단벽(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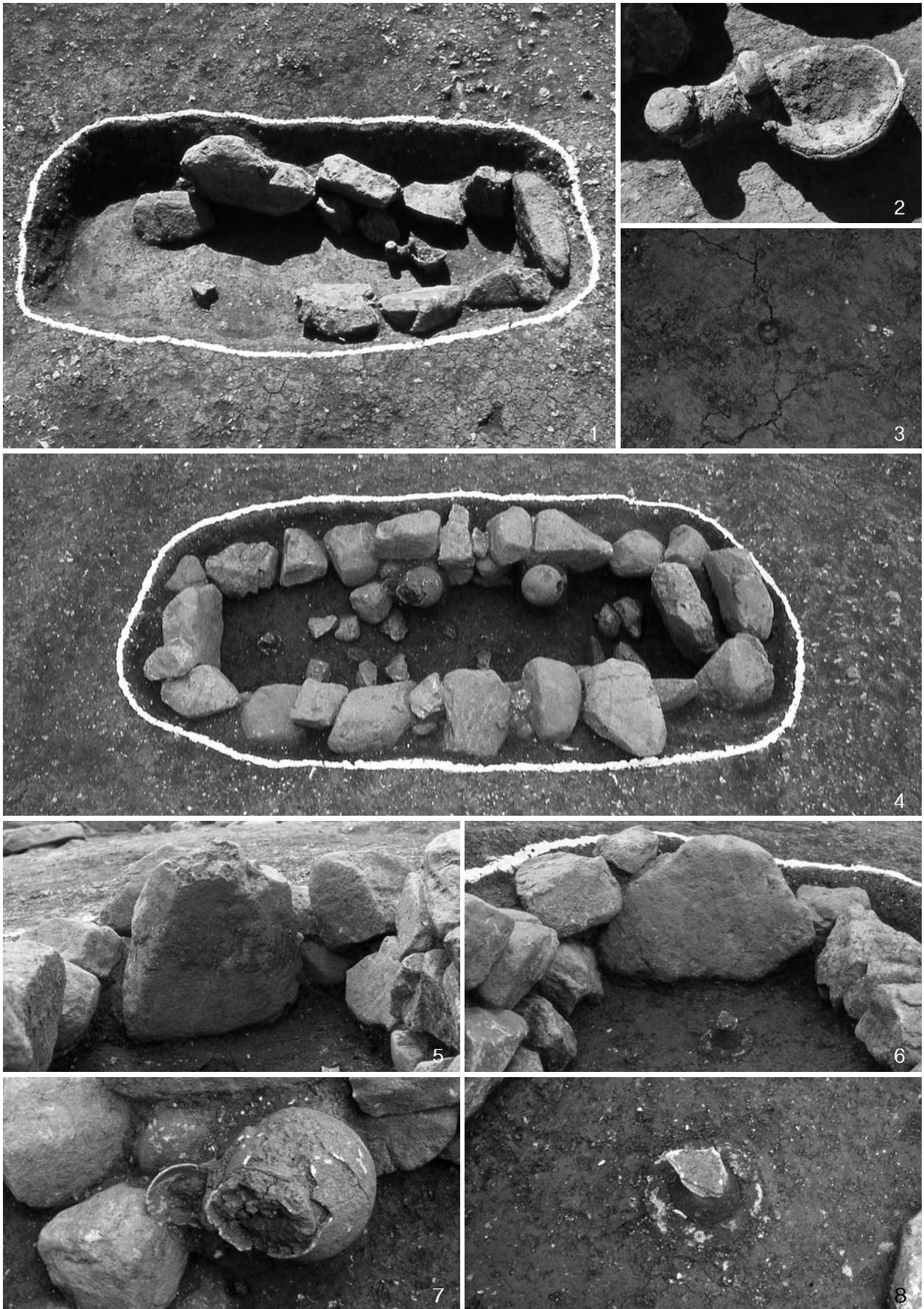
圖版 27. 나-27호 석곽묘 전경(1), 서장벽(2), 북단벽(3), 남단벽(4), 남동모서리(5), 남서모서리(6), 출토유물(7~10)



圖版 28. 나-29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 나-30호 석곽묘 전경(3)과 출토유물(4), 나-31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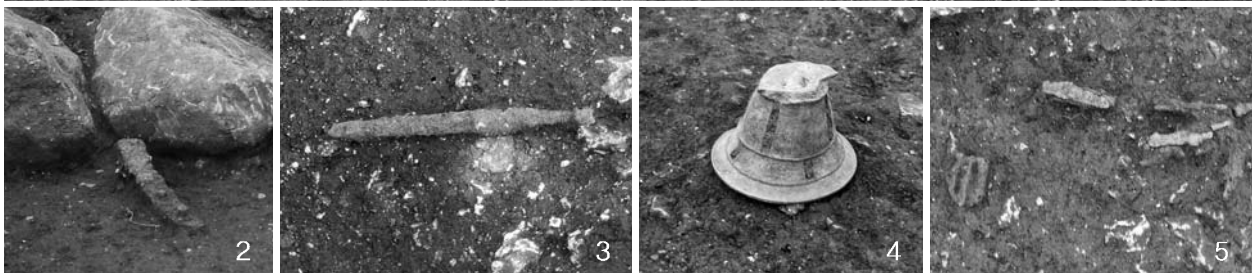
圖版 29. 나-31·32호 석곽묘 전경(1), 나-32호 석곽묘 전경(2)과 출토유물(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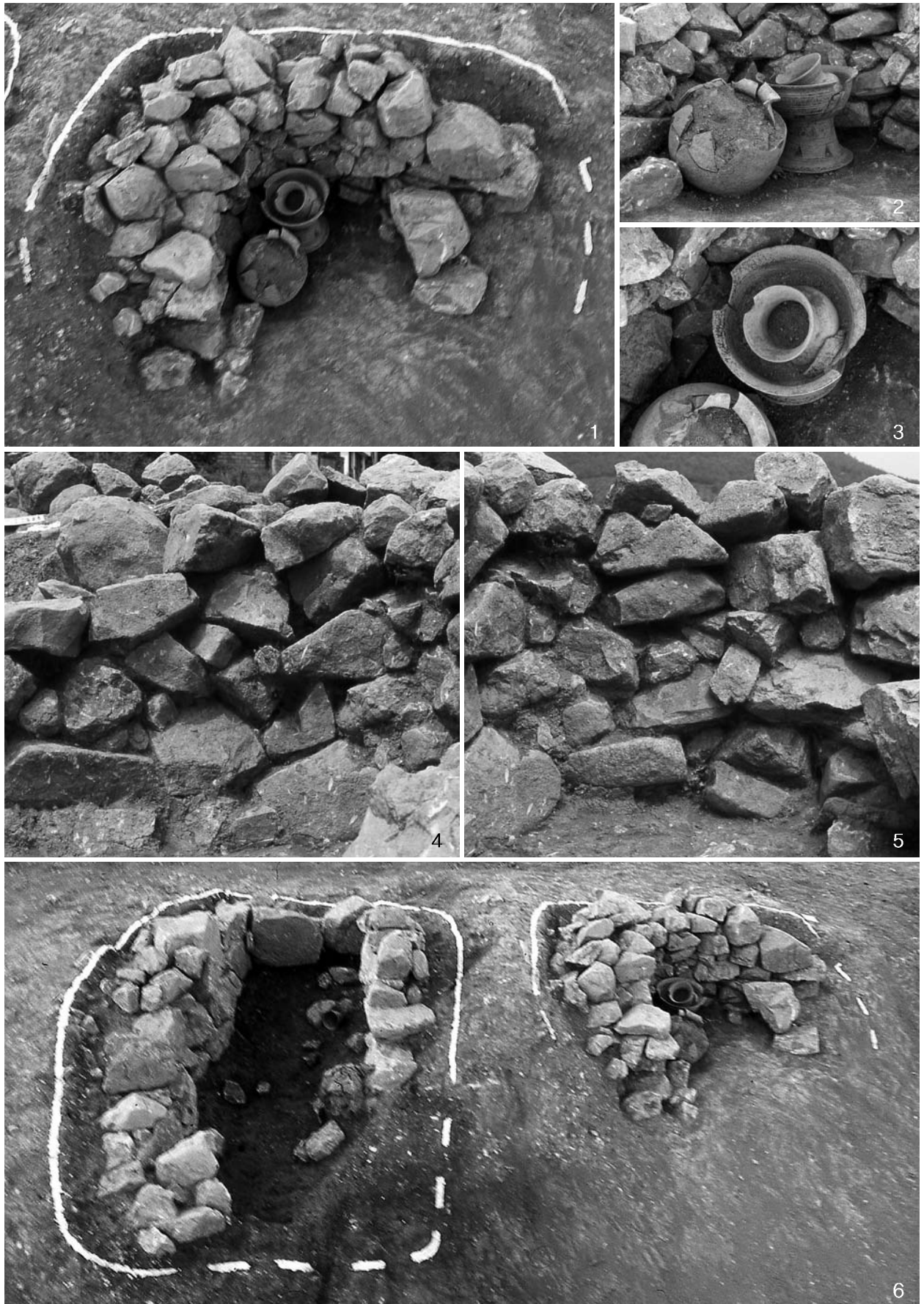
圖版 30. 나-33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3), 나-34호 석곽묘 전경(4), 남단벽 보강석(5), 북단벽(6), 출토유물(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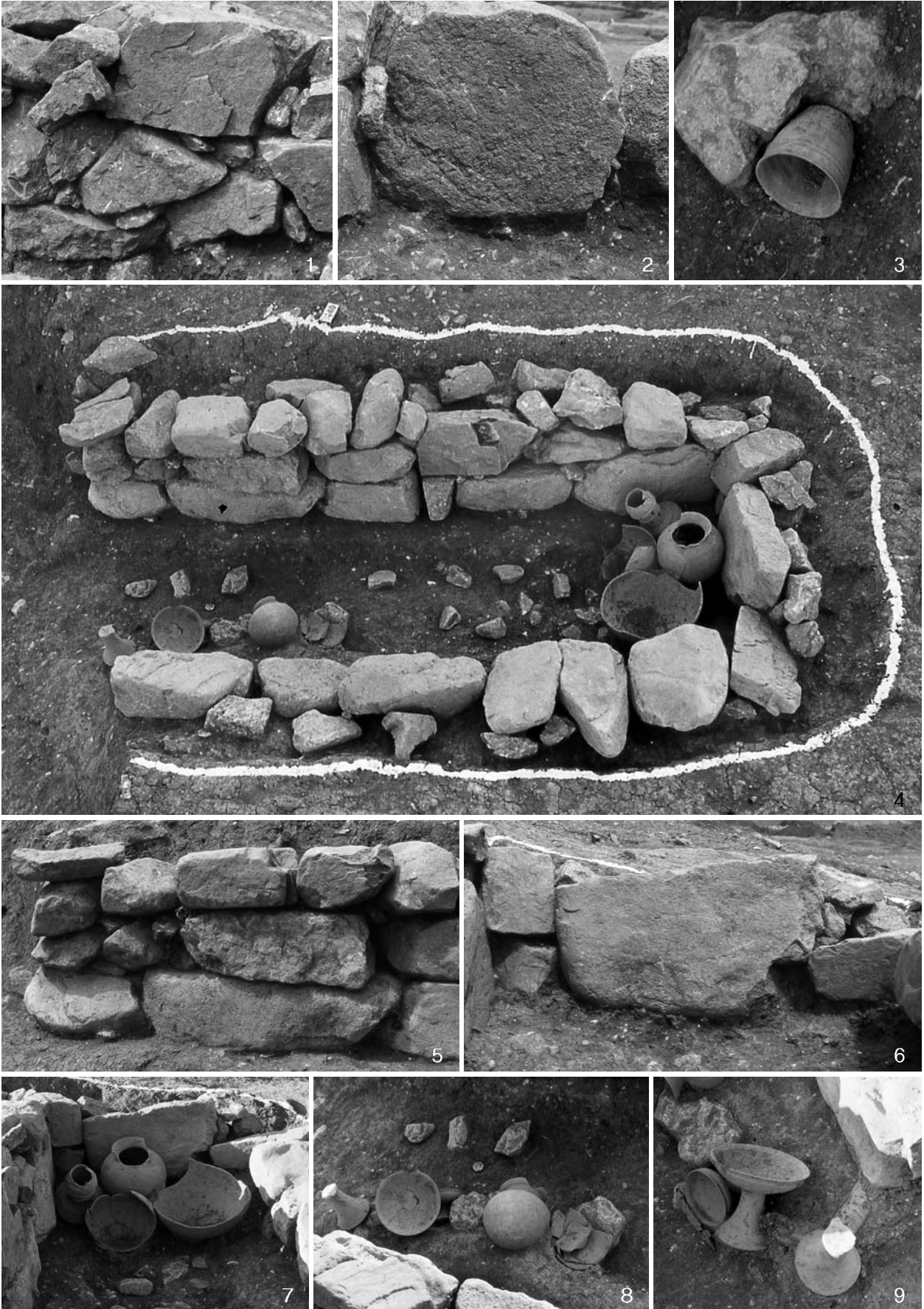
圖版 31. 나-35호 석곽묘 전경(1), 서장벽(2), 남단벽(3), 출토유물(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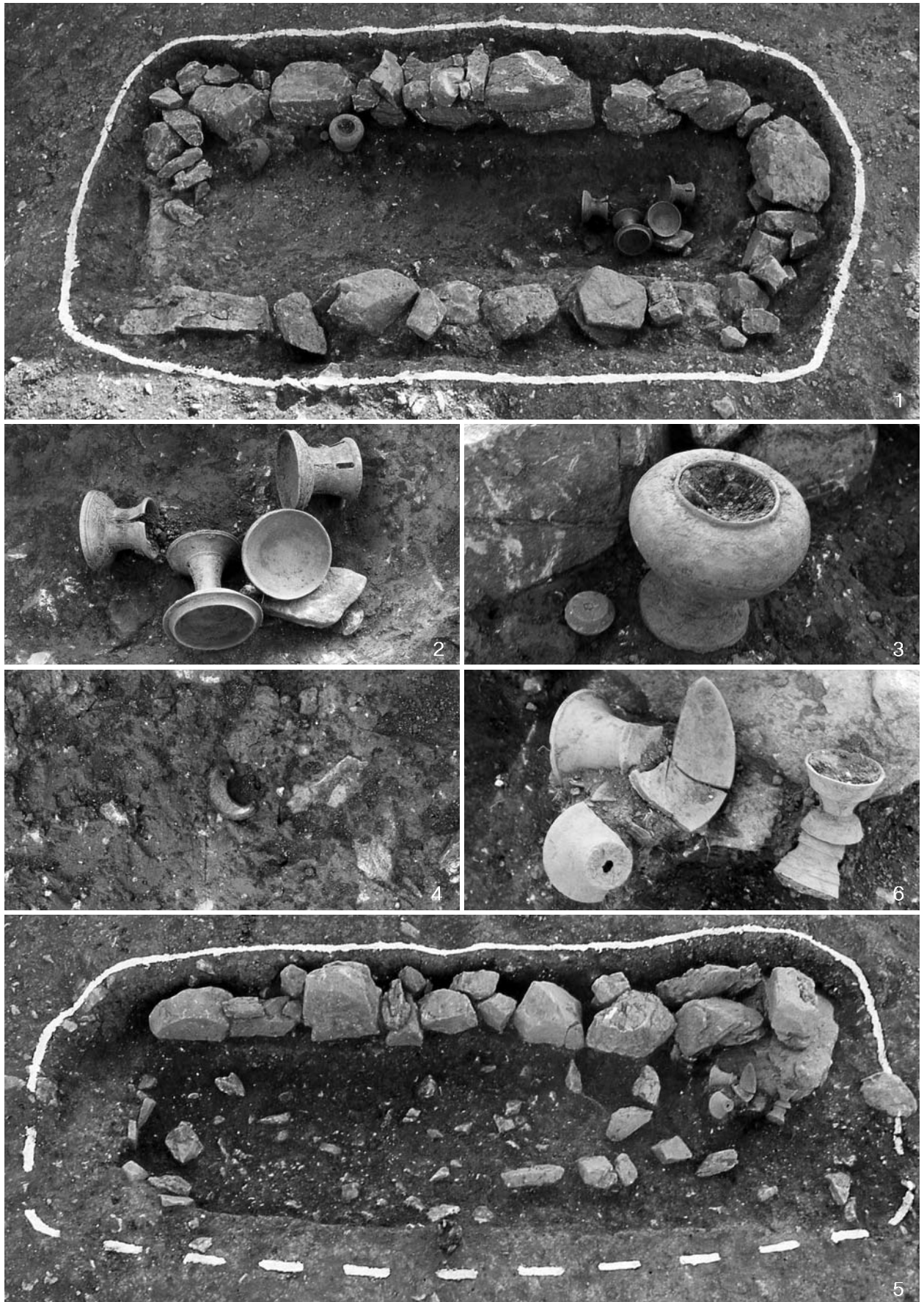
圖版 32. 나-36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5), 나-37호 석곽묘 전경(6)과 출토유물(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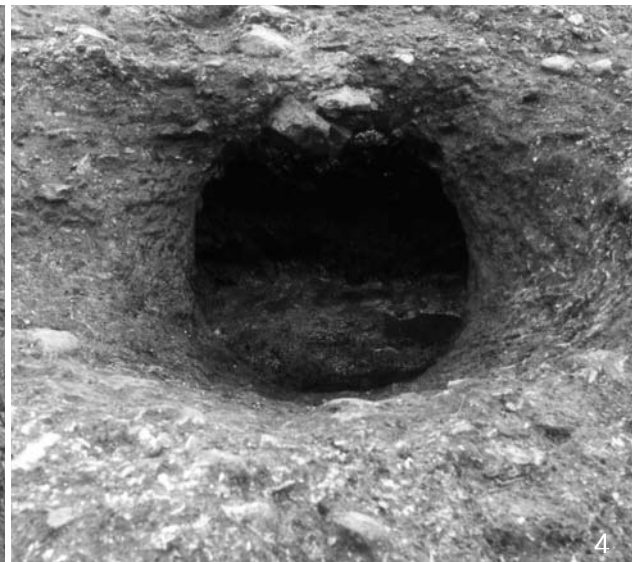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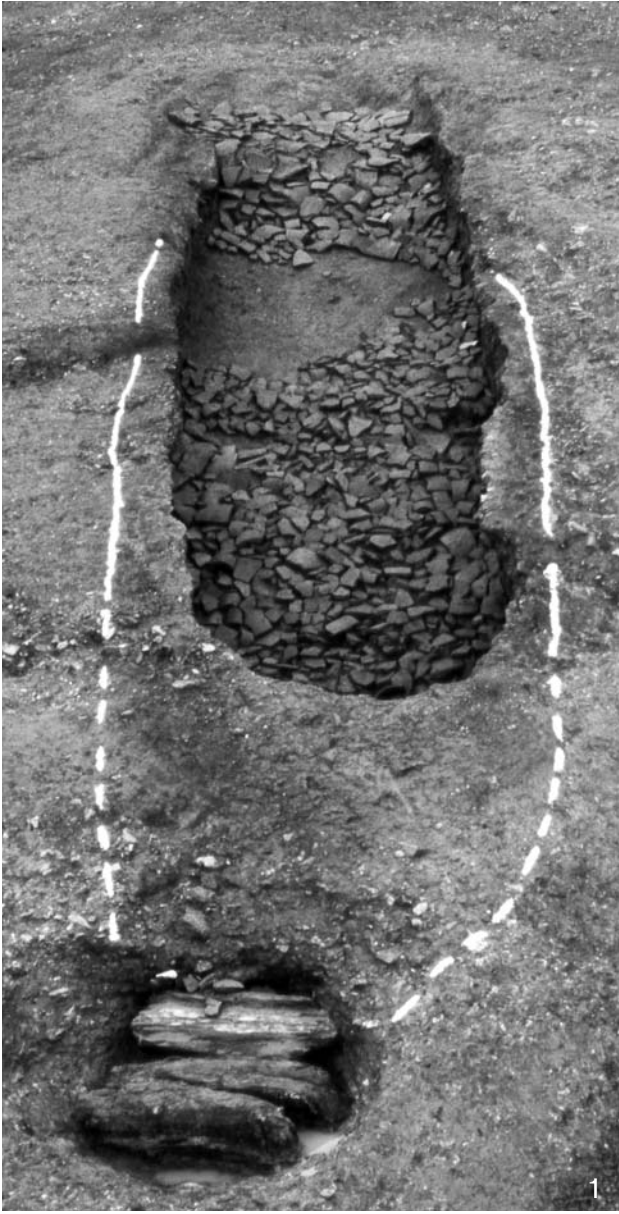
圖版 33. 나-38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3), 서장벽(4), 북단벽(5), 나-38·39호 석곽묘 전경(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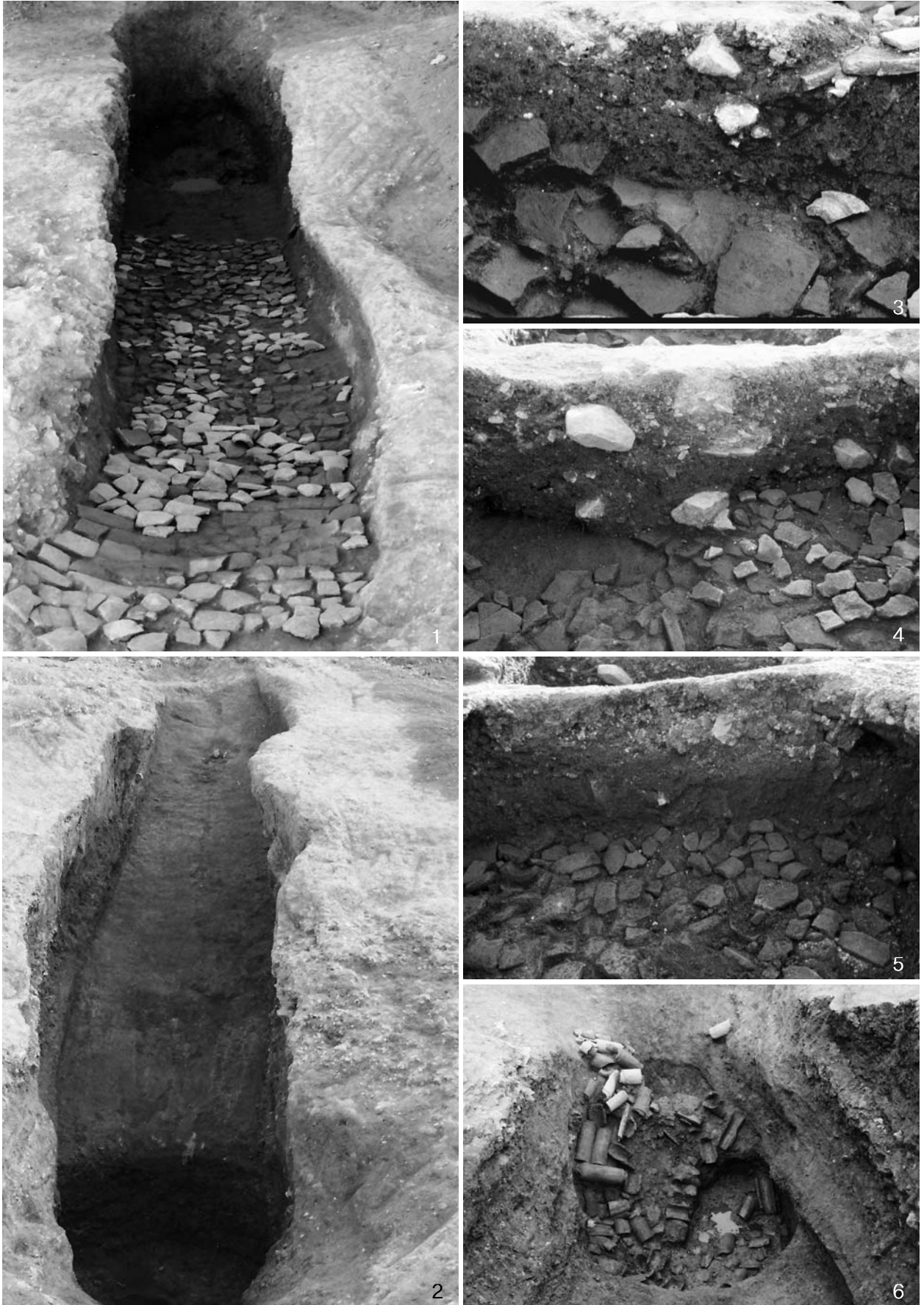
圖版 34. 나-39호 석곽묘 서장벽(1), 북단벽(2), 출토유물(3), 나-40호 석곽묘 전경(4), 서장벽(5), 북단벽(6), 출토유물(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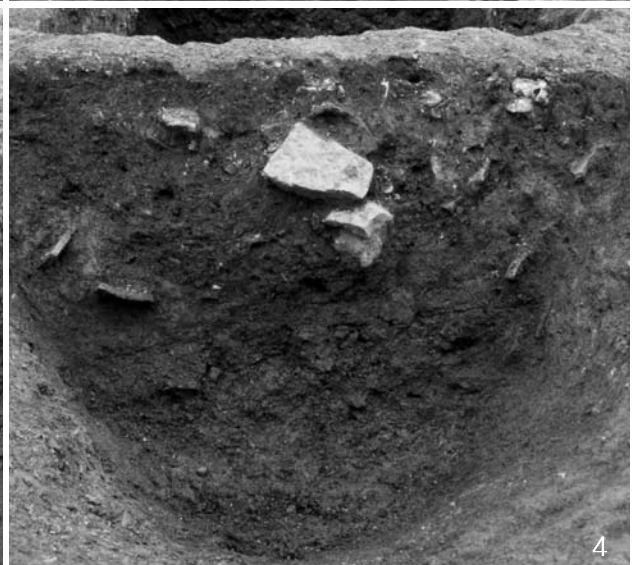
圖版 35. 나-41호 석곽묘 전경(1)과 출토유물(2~4), 나-42호 석곽묘 전경(5)과 출토유물(6)



圖版 36. 나-1호 기와가마 전경(1), 연소실천정 및 분구 막음목 제거 후 전경(2), 분구 막음목(3), 막음목 제거 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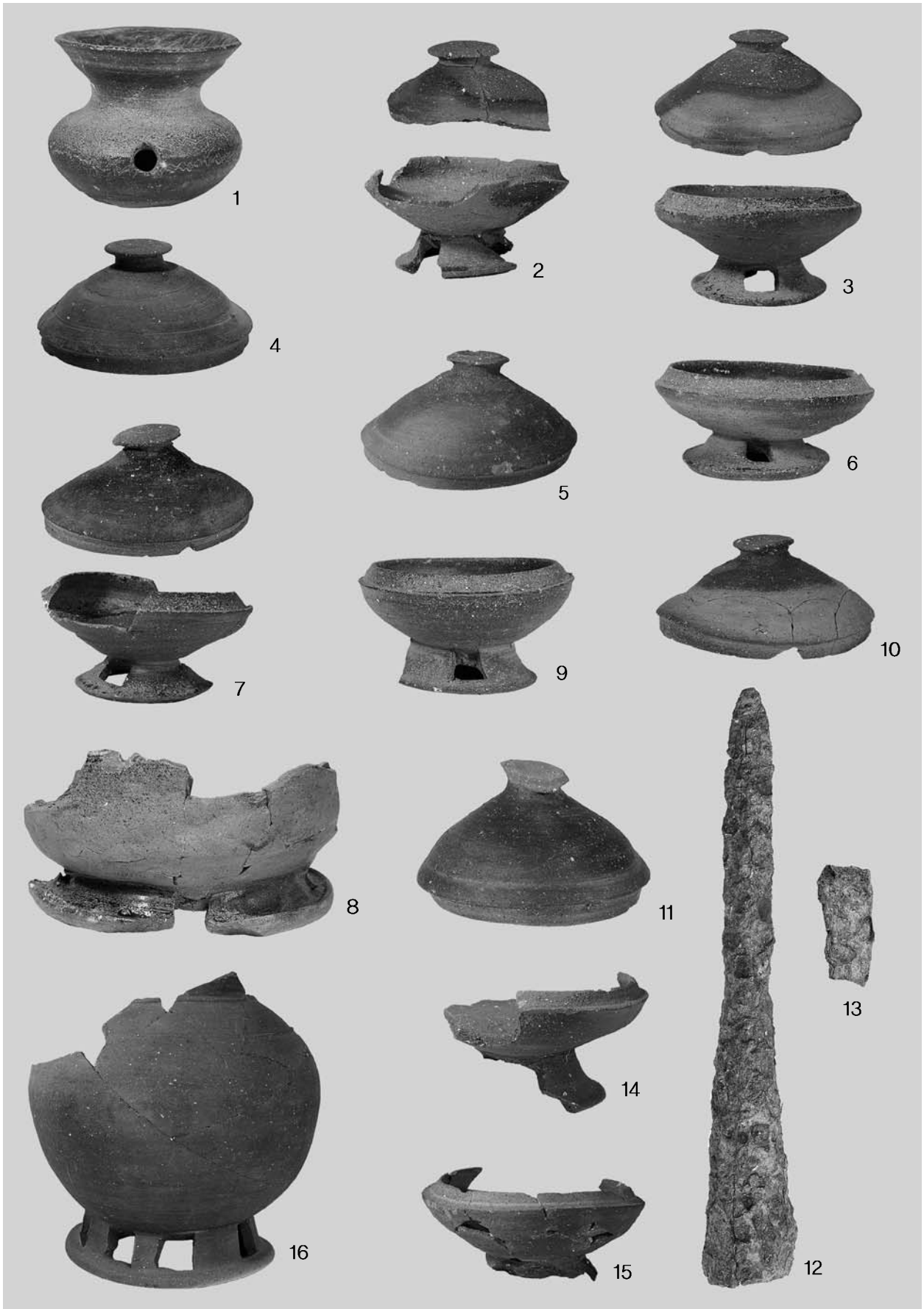
圖版 37. 나-1호 기와가마 전경 서-동(1), 완전 노출전경(2), A토층(3), B토층(4), C토층(5), 연소실 노출 서-동(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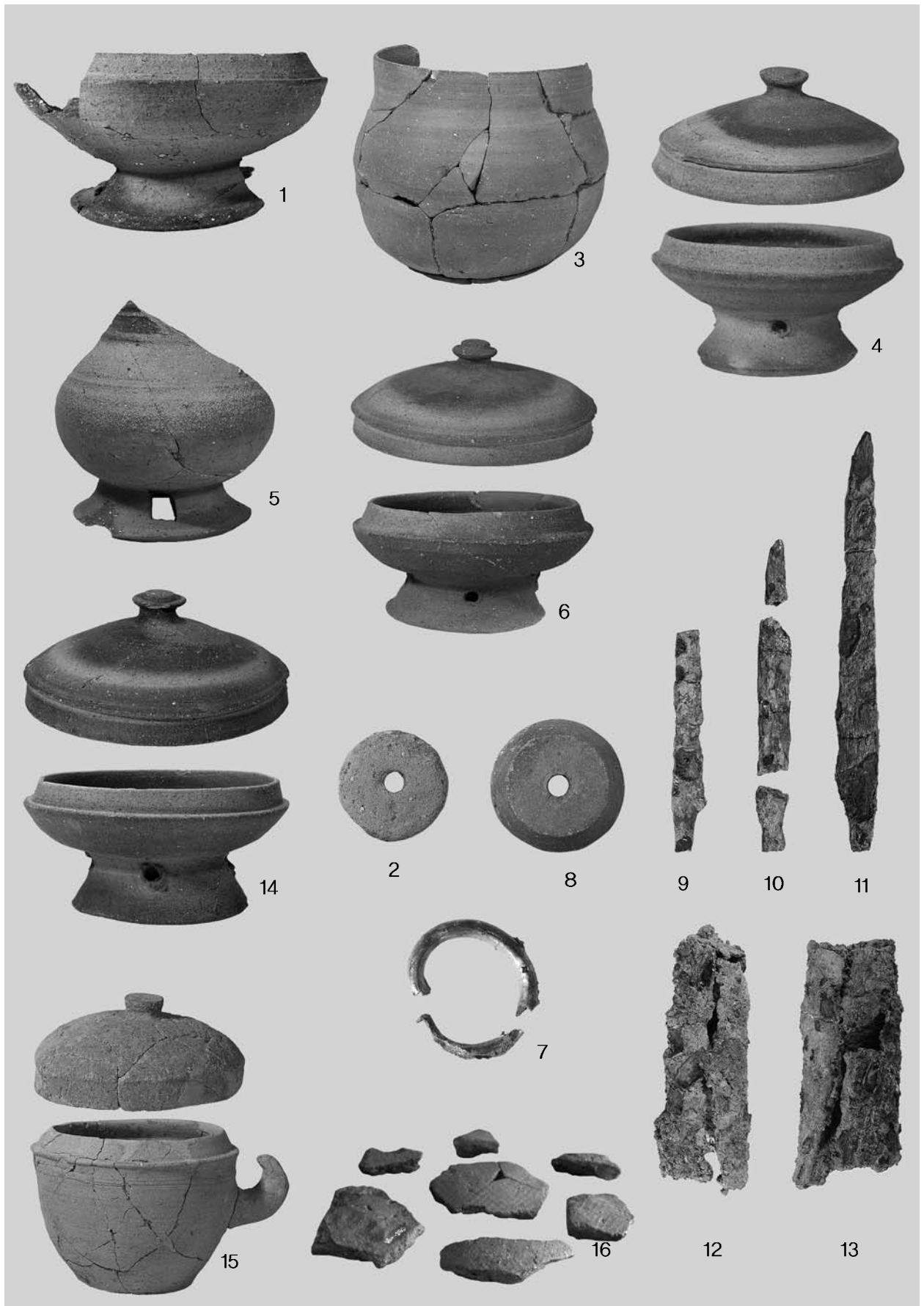
圖版 38. 다-2호 기와가마 전경(1), 소성실 전경(2), A토층(3), B토층(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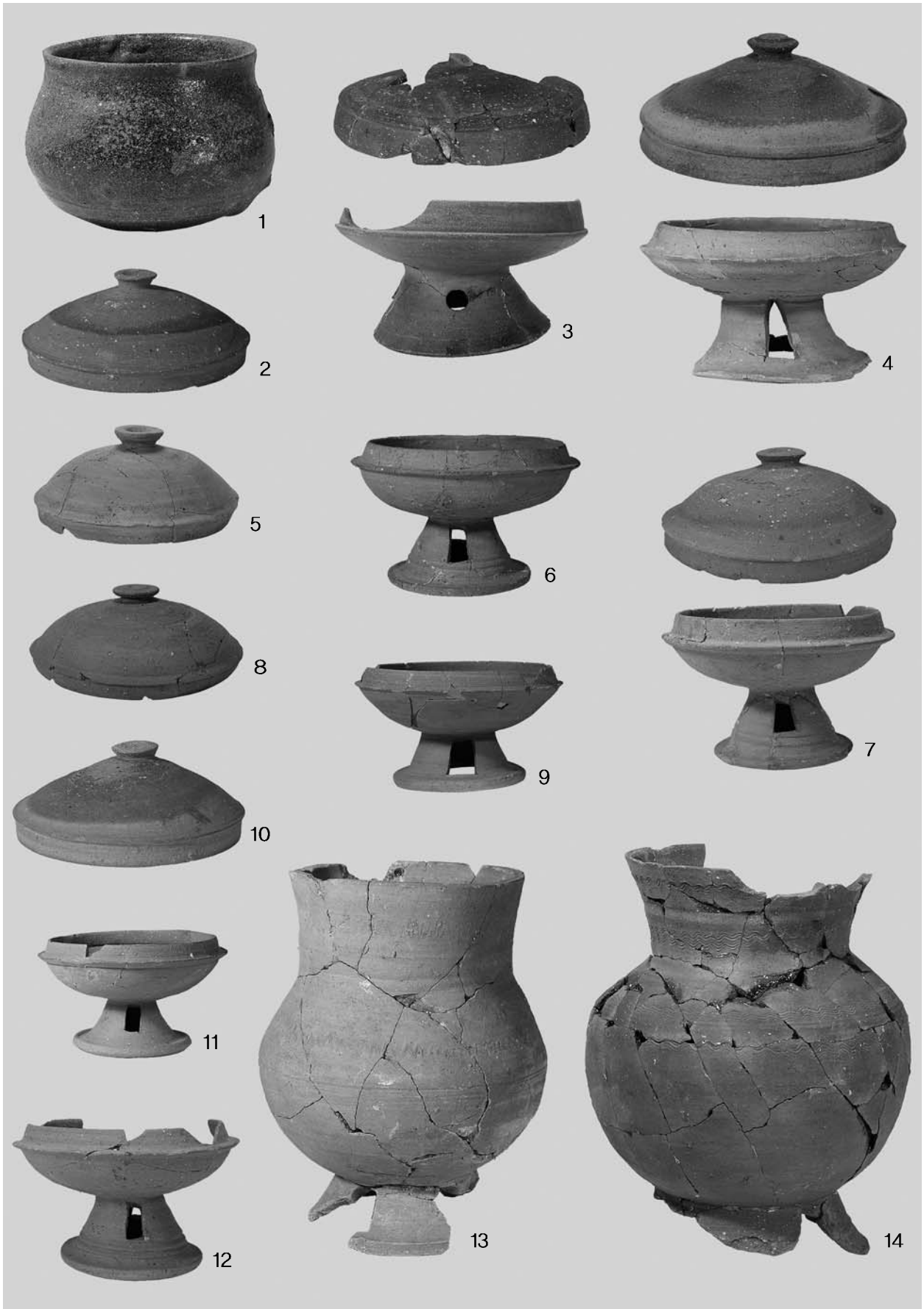
圖版 39. 다-3호 기와가마 전경(1), 소성실 전경(2), A토층(3), B토층(4), C토층(5), 연소부 노출(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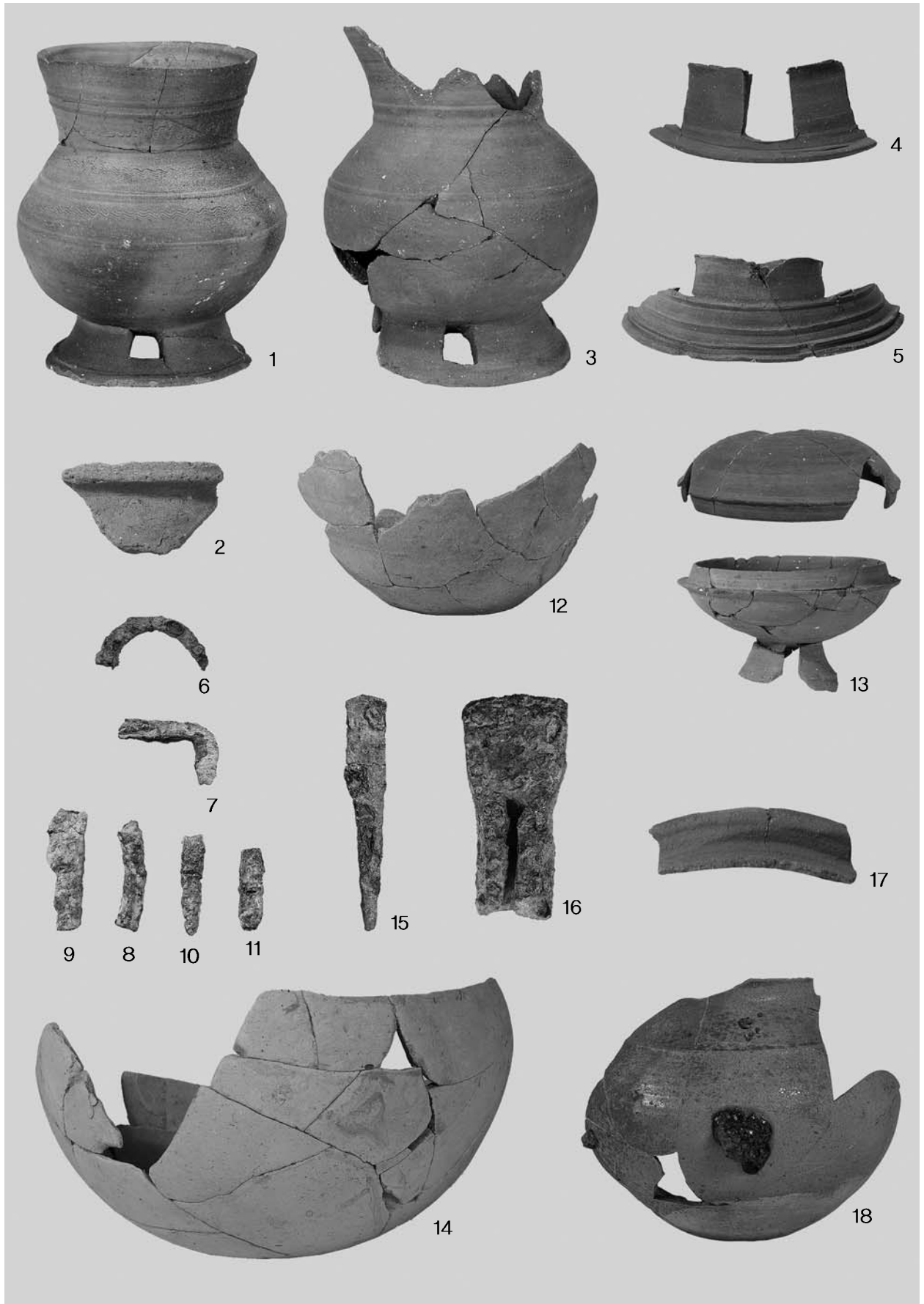
圖版 40. 가-1호 석실묘 출토유물



圖版 41. 가-2·3호 석실묘 출토유물



圖版 42. 가-3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43. 가-3~5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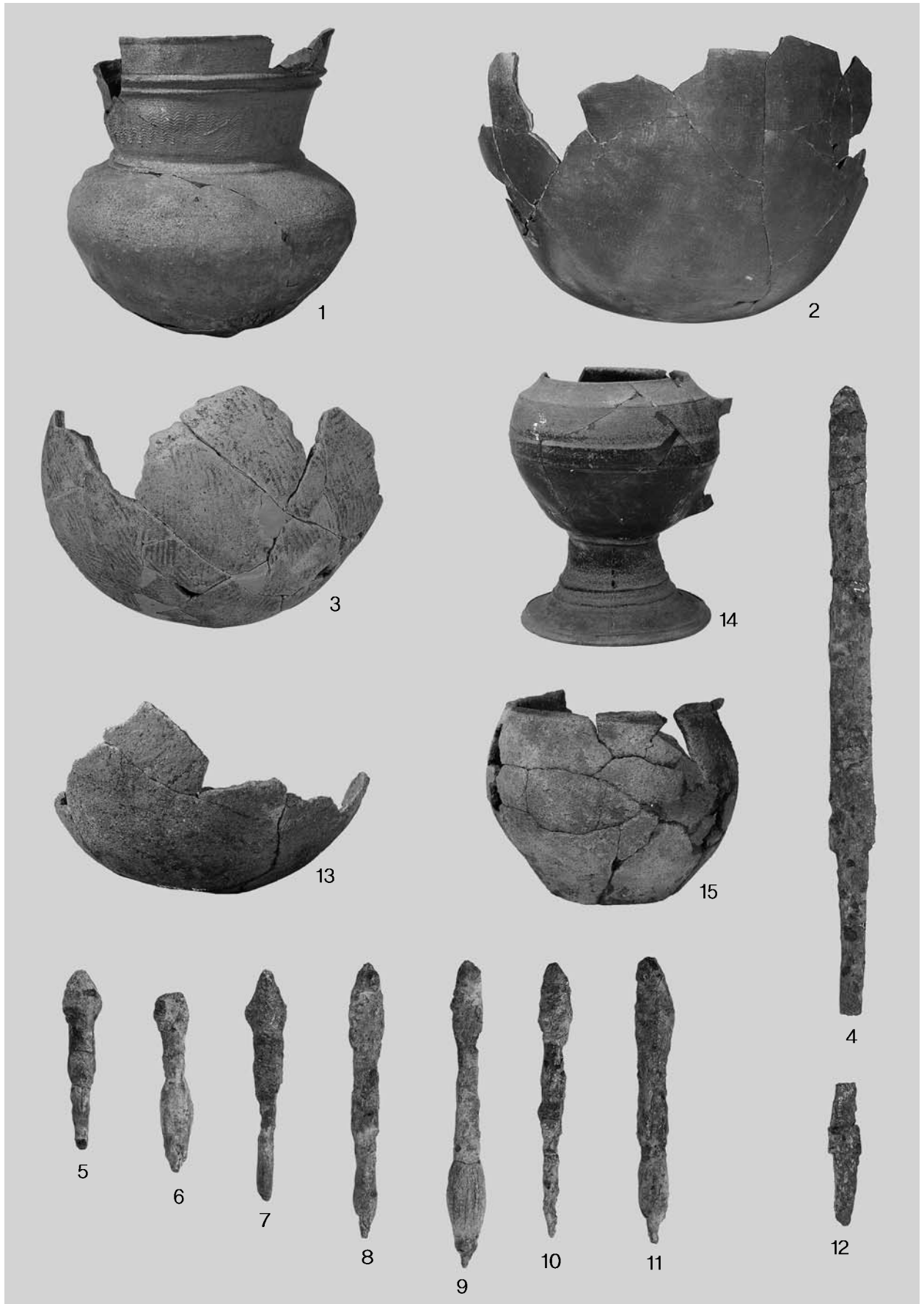
圖版 44. 가-5~8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45. 가-8·9호 석곽묘, 1호 토광묘, 1·2호 토기가마, 4호 석열, 나-1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46. 나-1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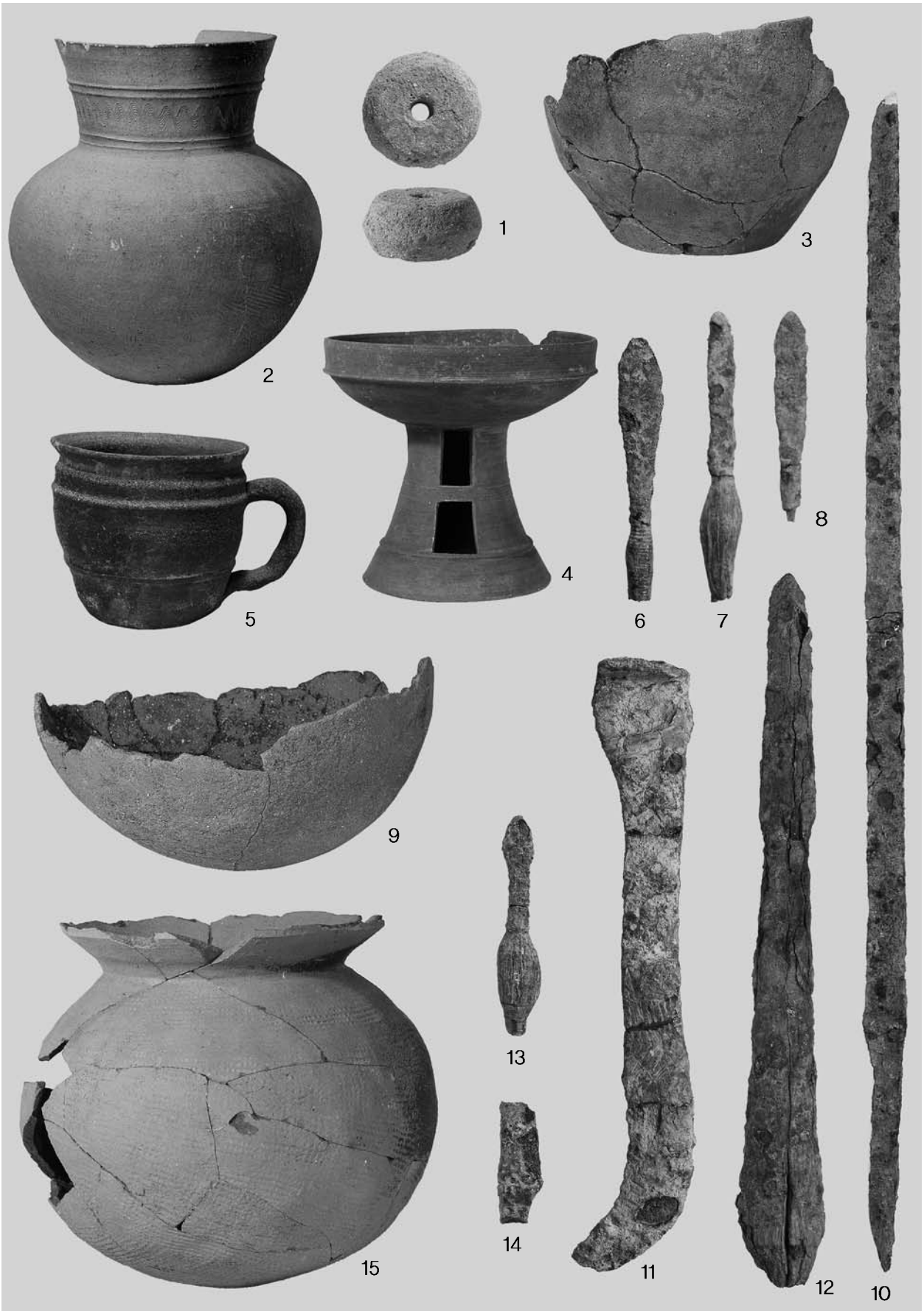
圖版 47. 나-1·2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48. 나-3·4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49. 나-4·5·6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50. 나-6·7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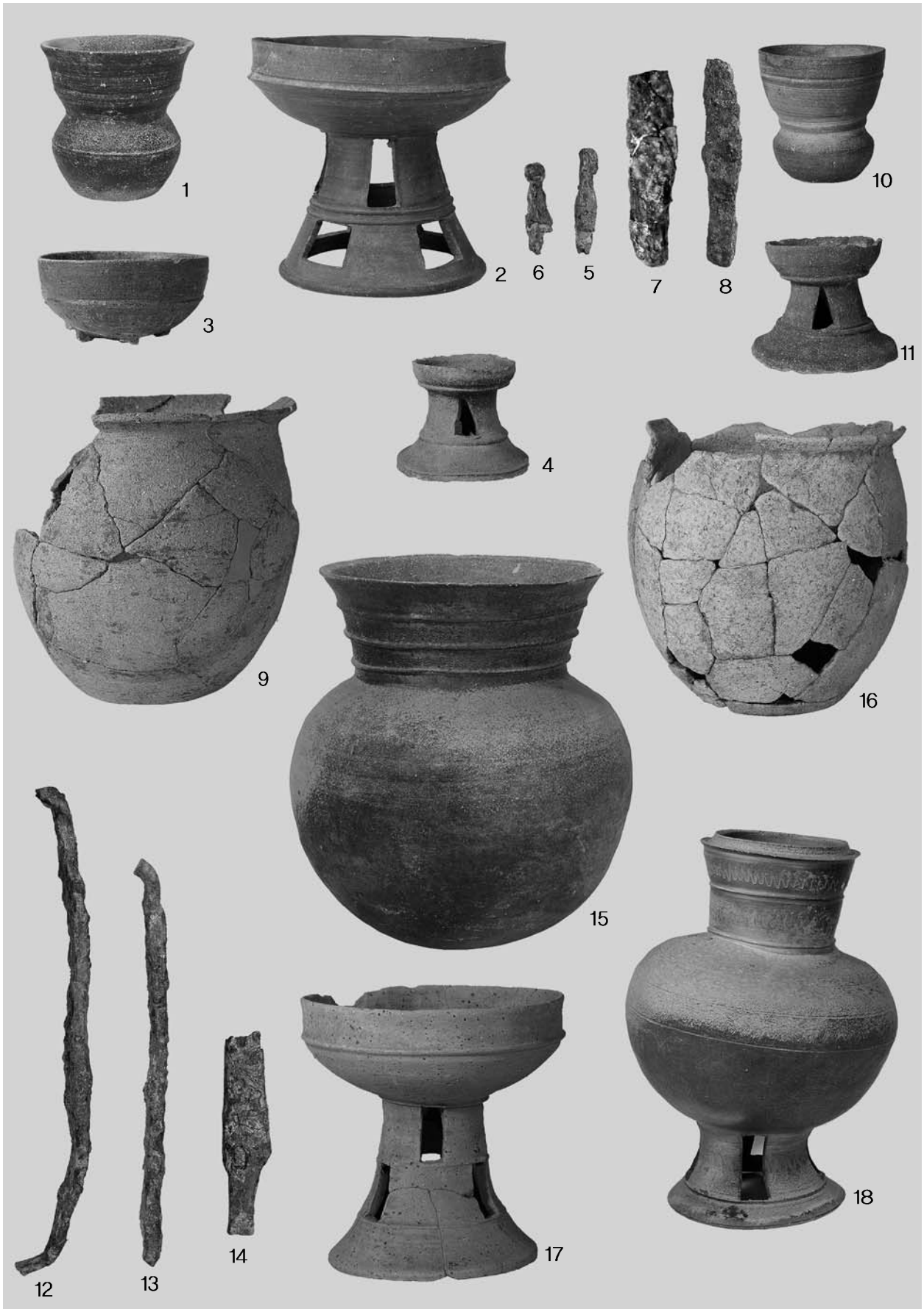
圖版 51. 나-7·8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52. 나·9·10·11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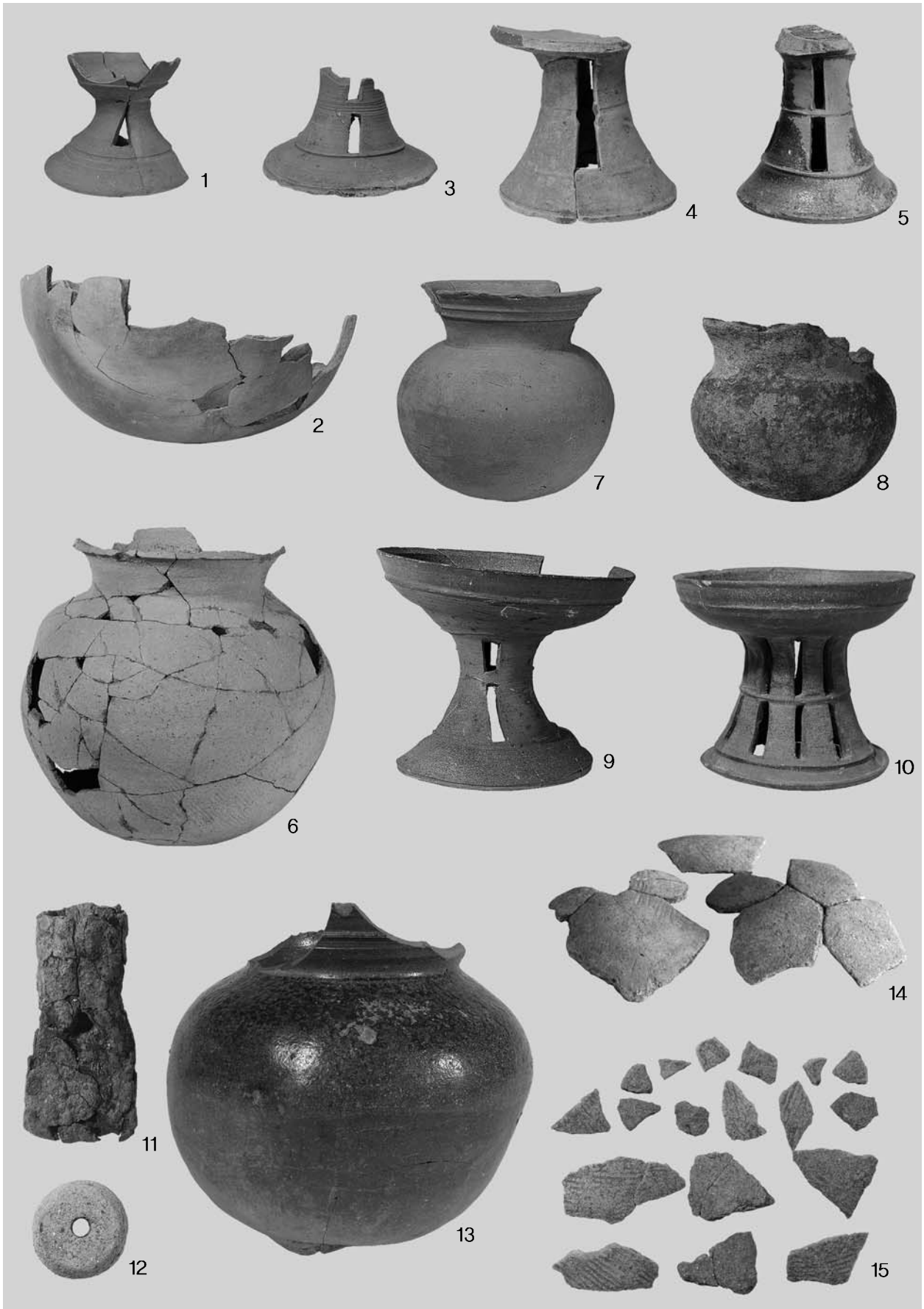
圖版 53. 나-11·12호 석각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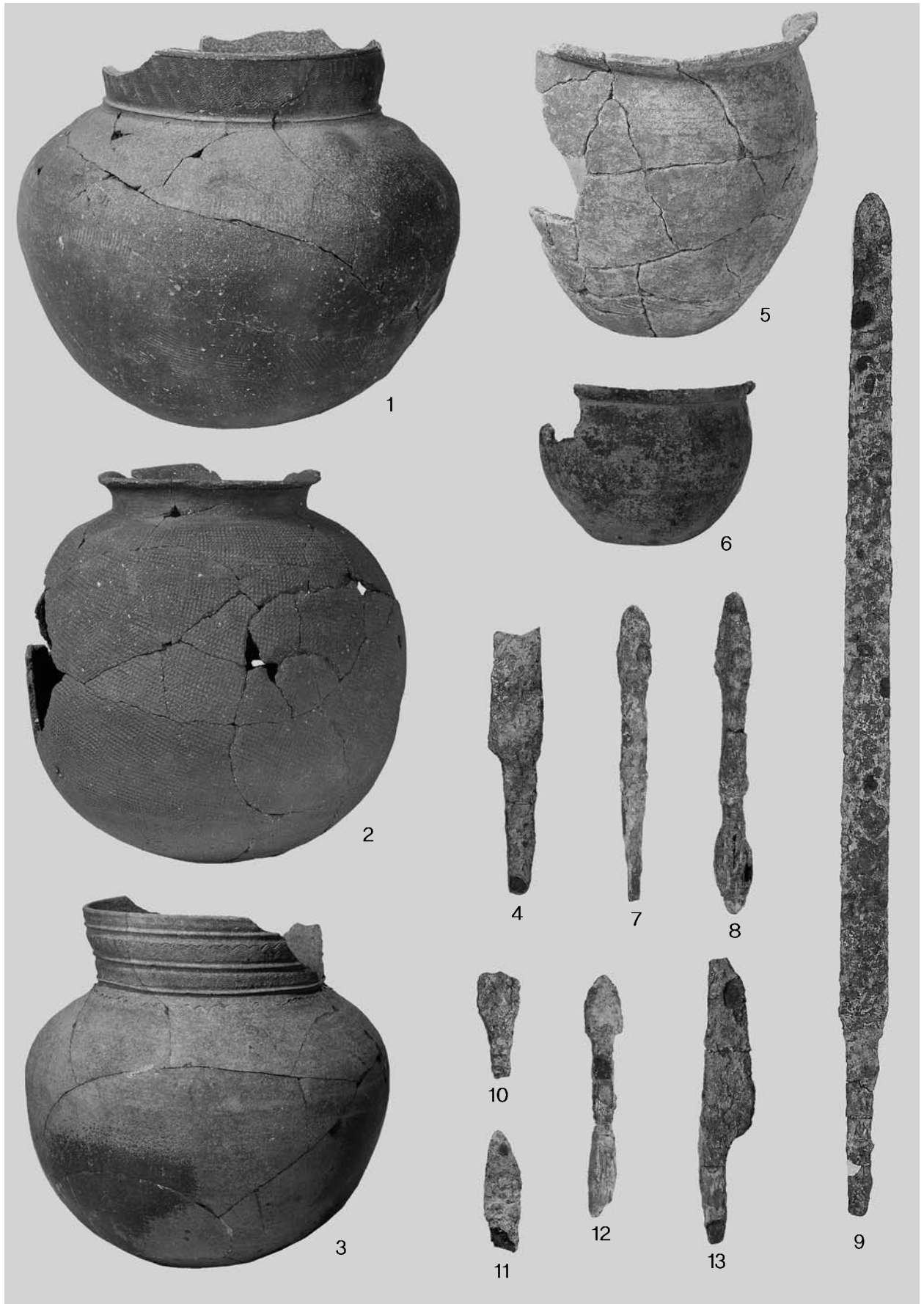
圖版 54. 나-12·13·14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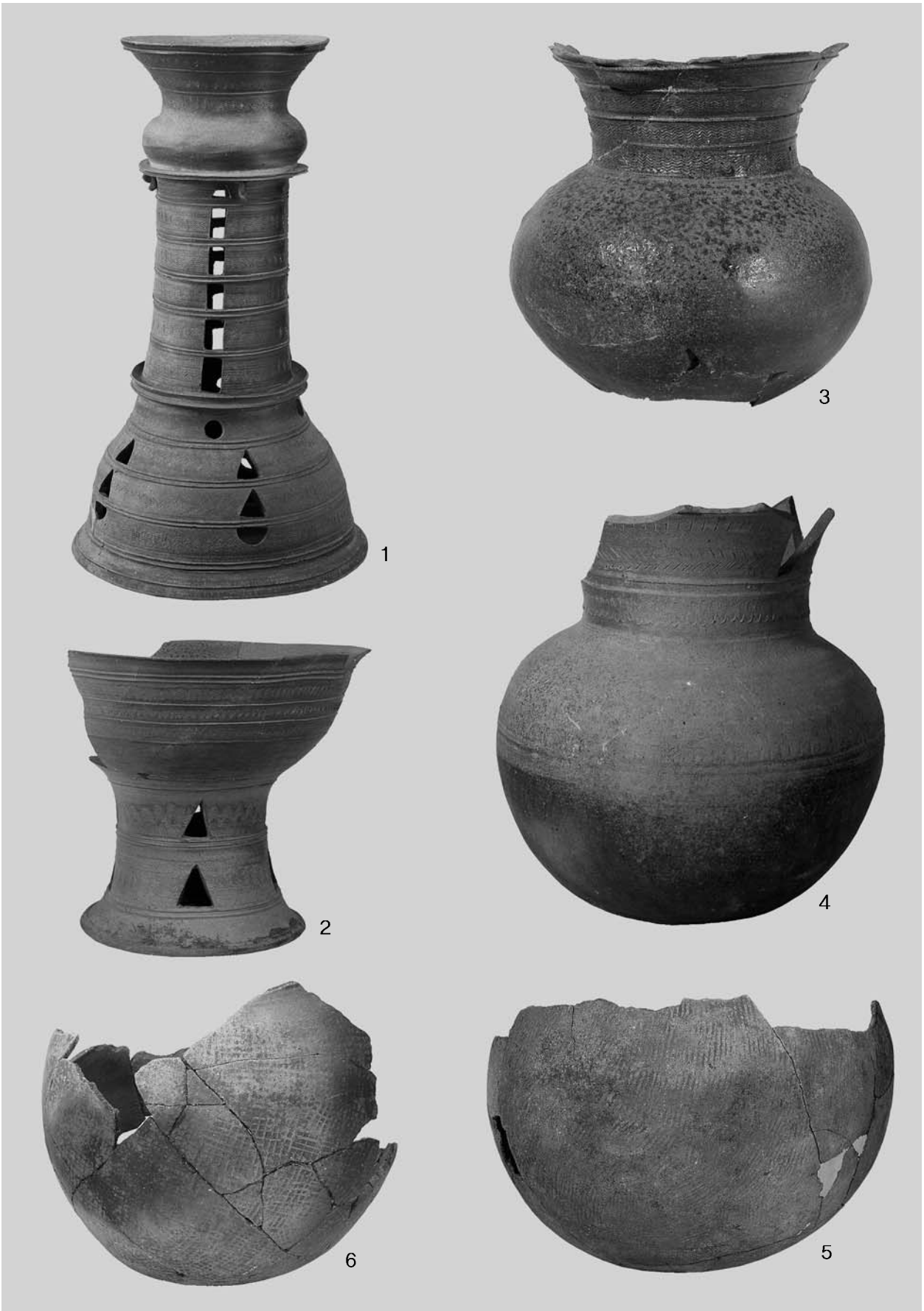
圖版 55. 나-14·15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56. 나-15·16·17·19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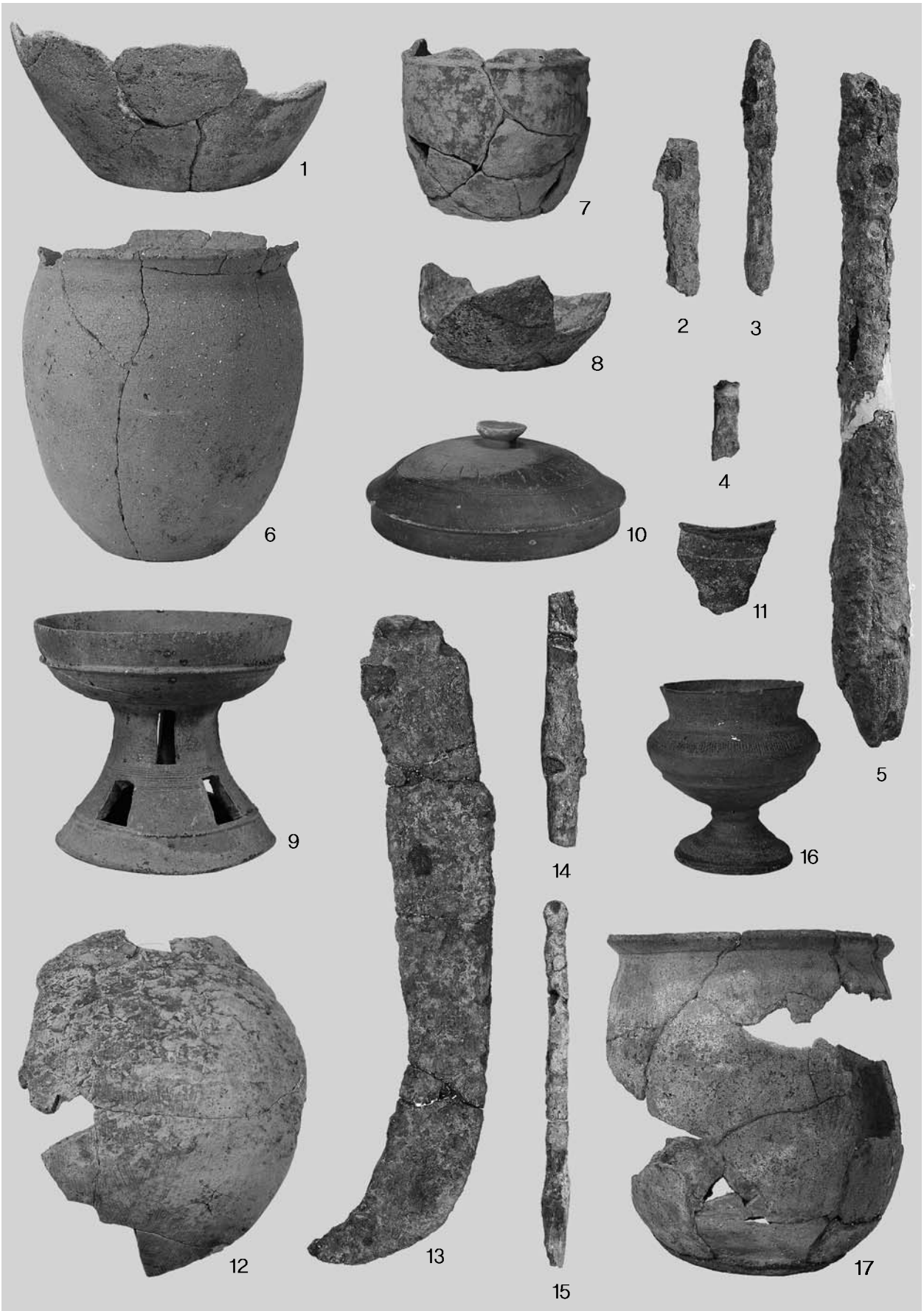
圖版 57. 나-19·20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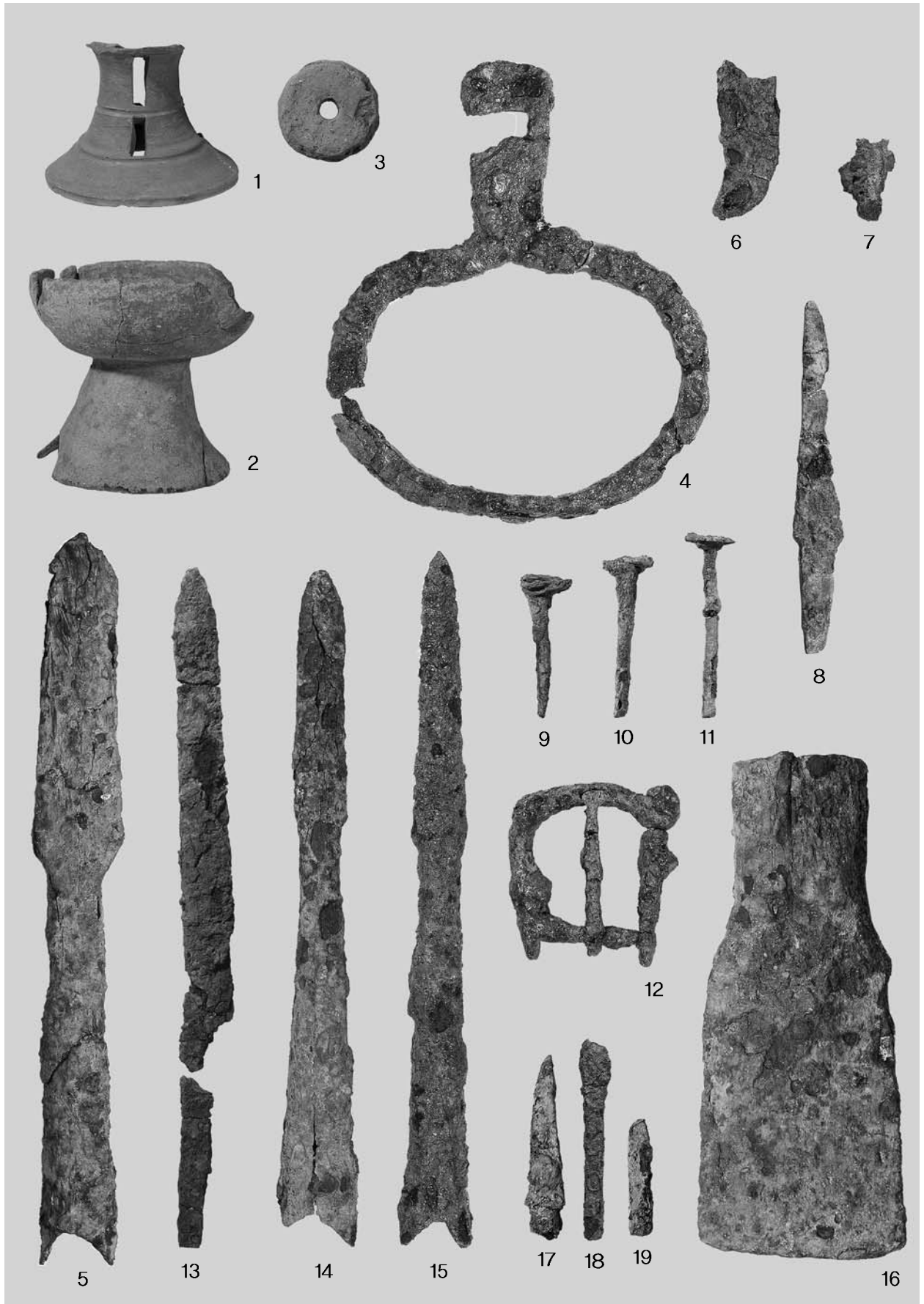
圖版 58. 나-21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59. 나-21·22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60. 나-22 · 24 · 25 · 26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61. 나-26·27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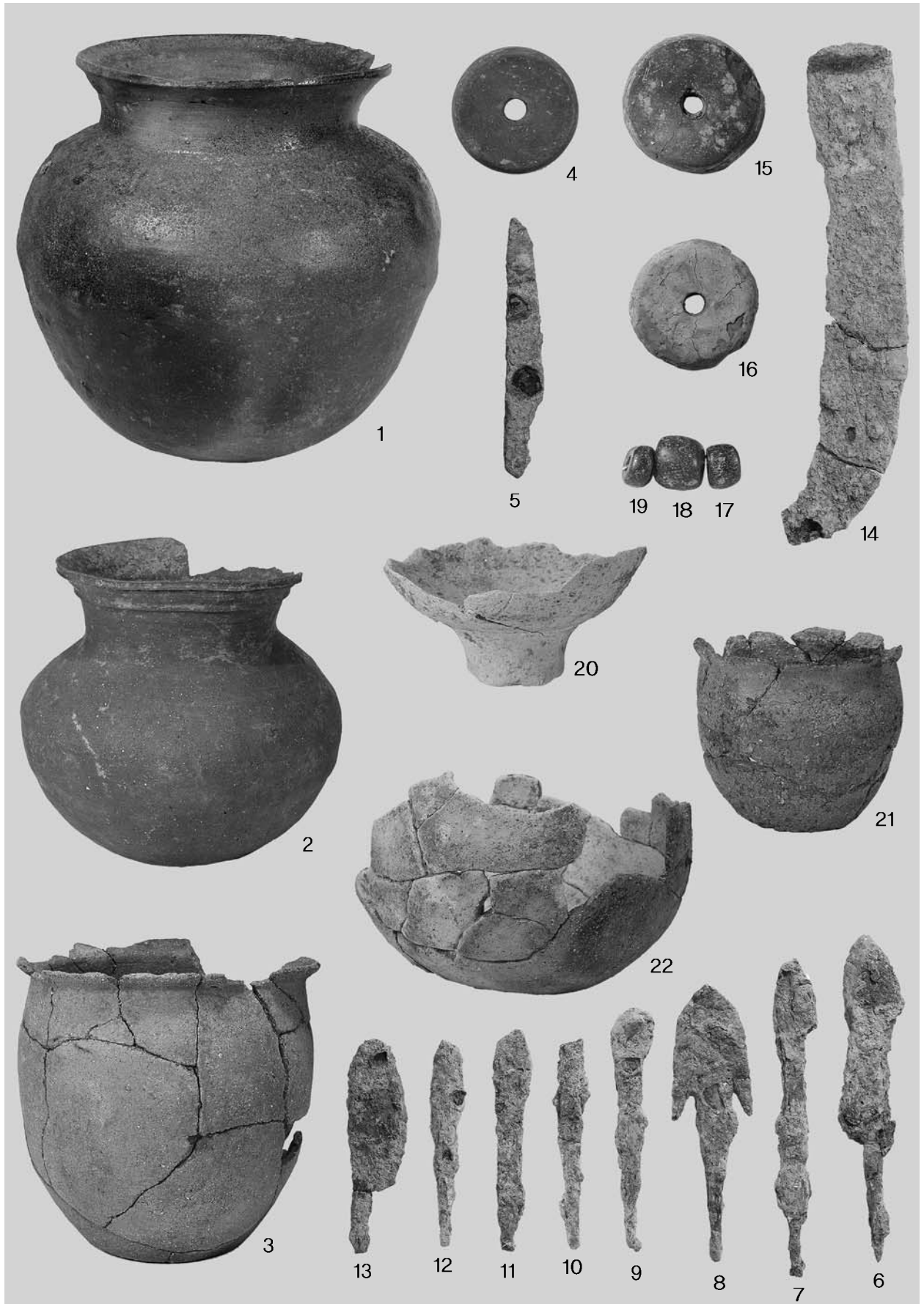
圖版 62. 나-27호 석각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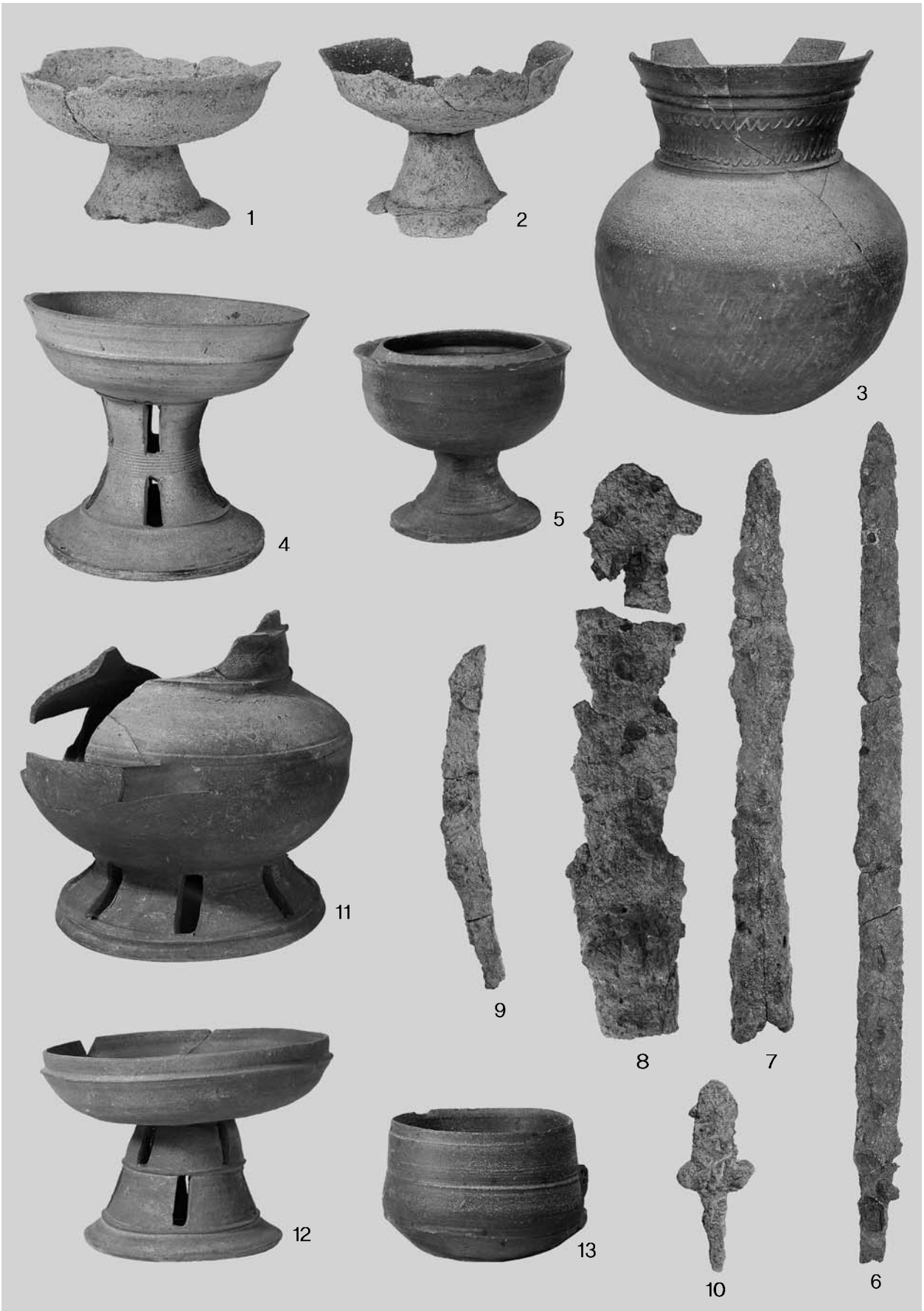
圖版 63. 나-27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64. 나-29·30·31·32호 석각묘 출토유물



圖版 65. 나-32 · 33 · 34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66. 나-34 · 35 · 36호 석각묘 출토유물



圖版 67. 나-36·37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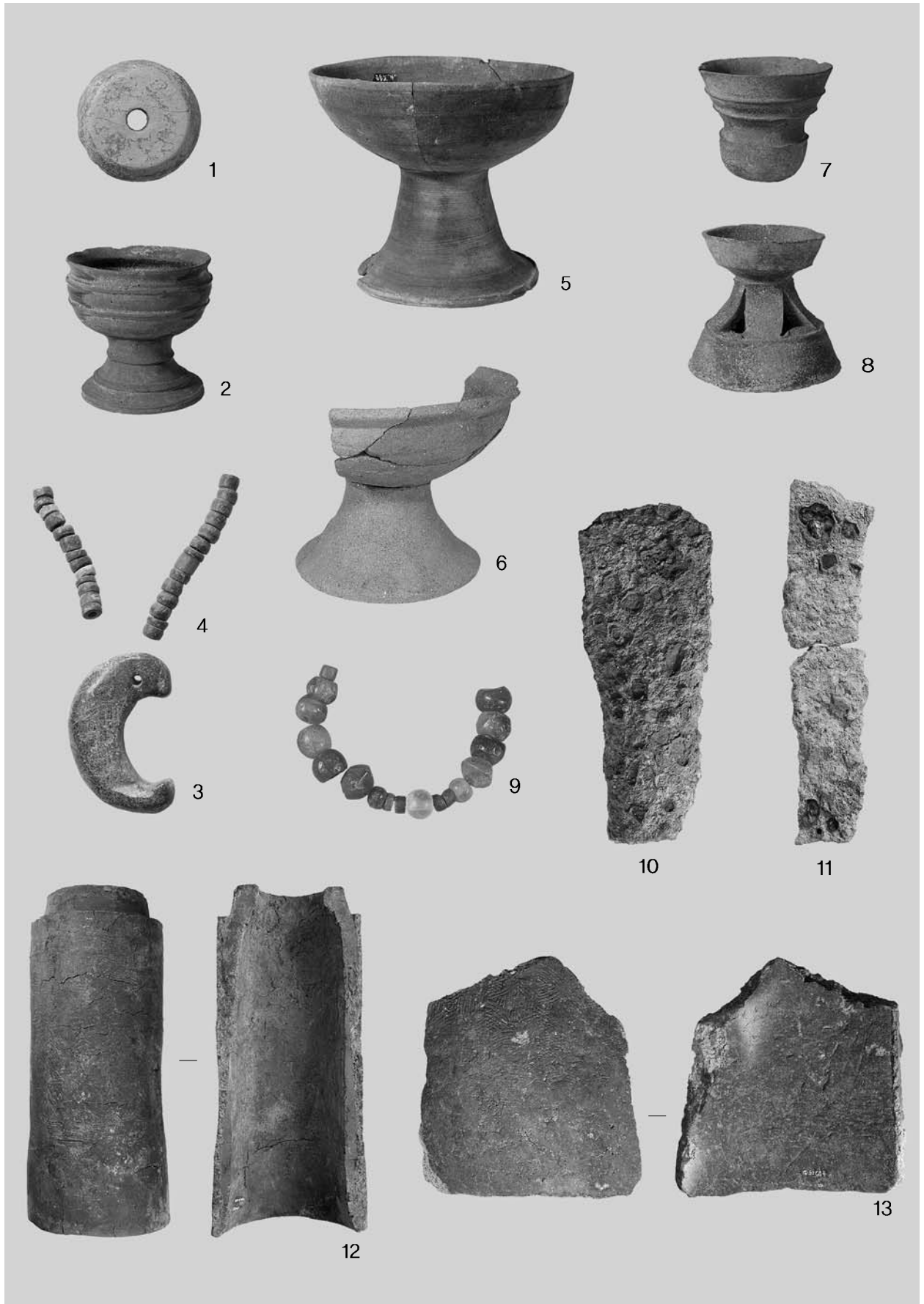
圖版 68. 나-37·38·39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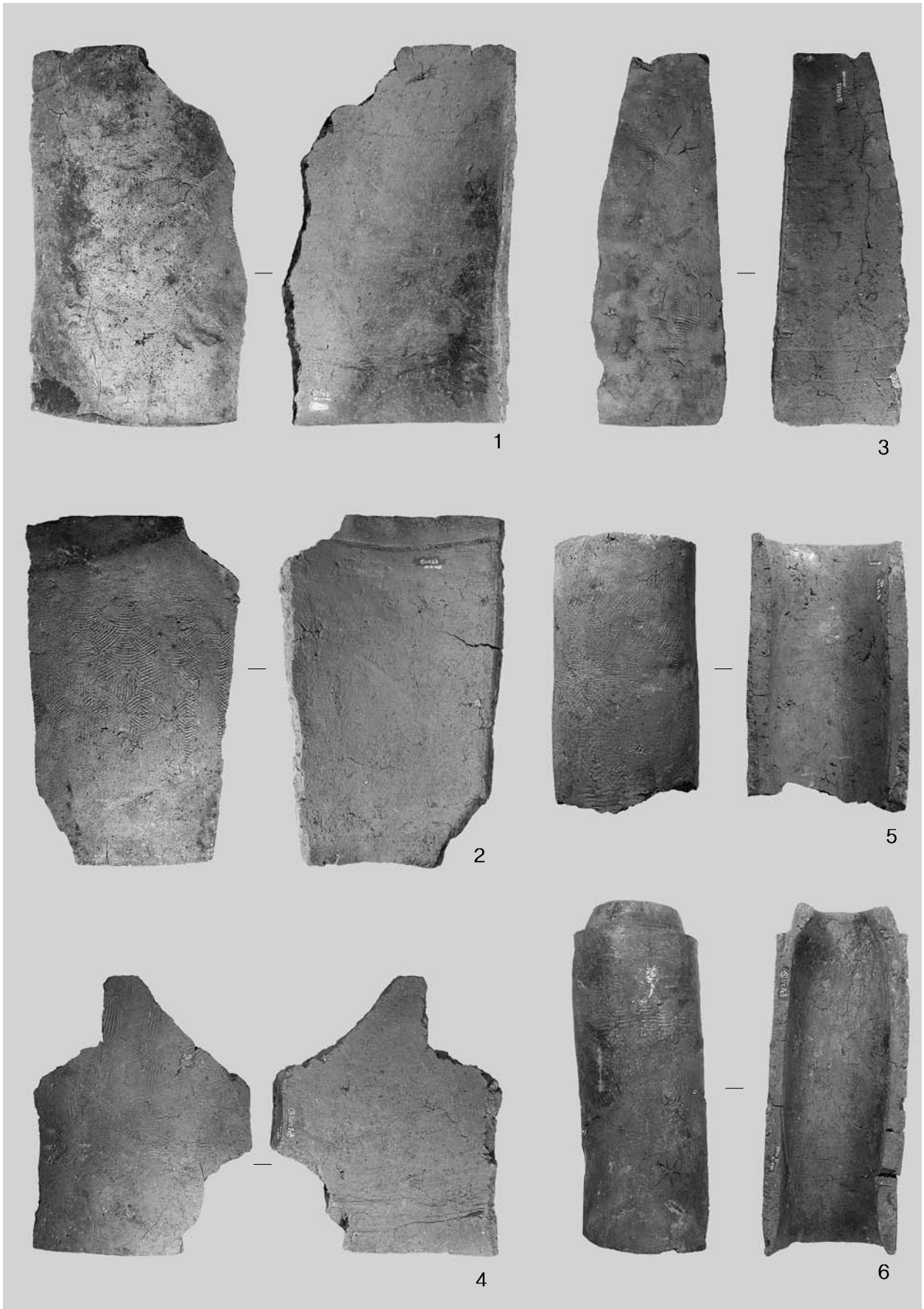
圖版 69. 나-40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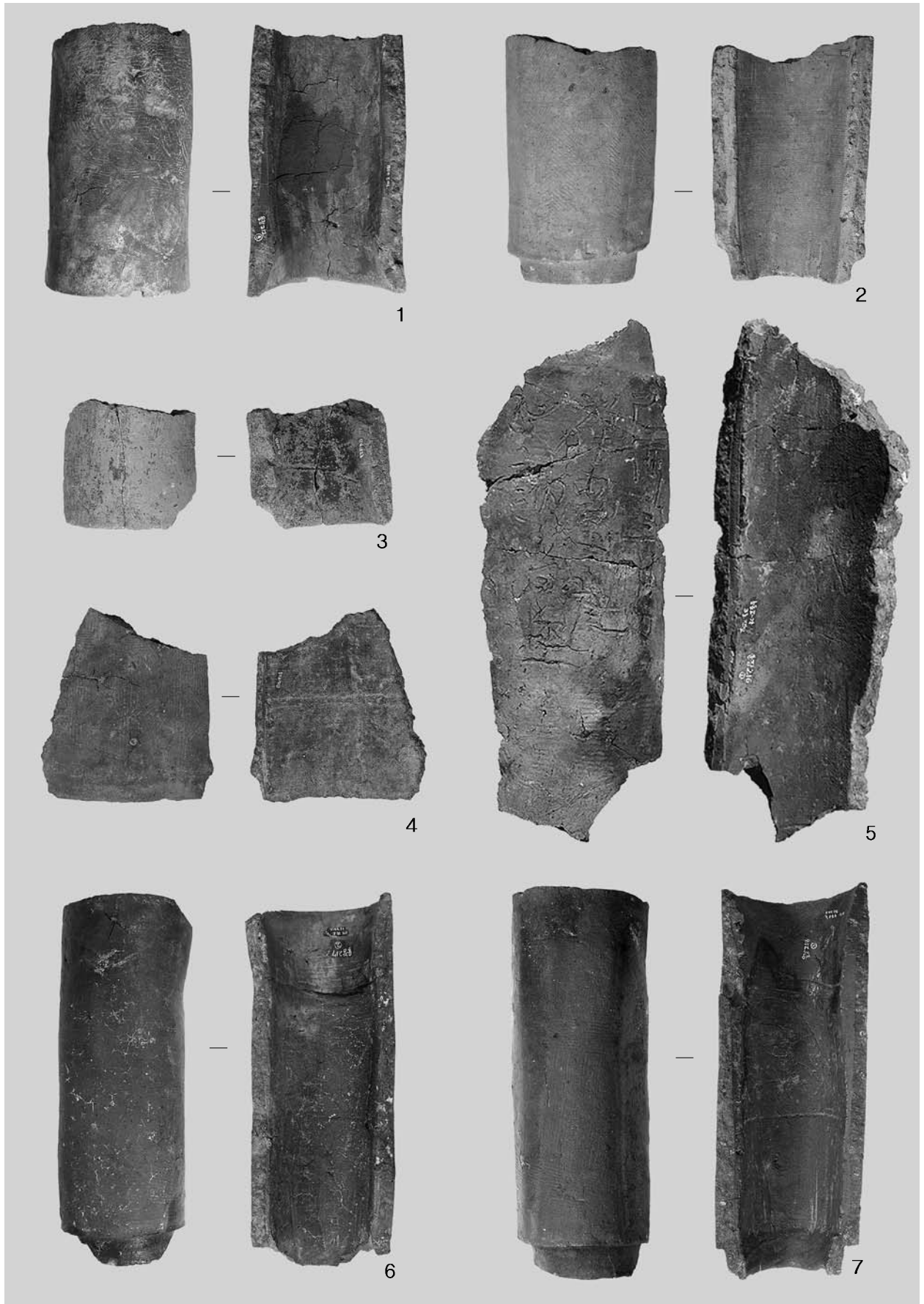
圖版 70. 나-40·41호 석곽묘 출토유물



圖版 71. 나-41·42호 석곽묘, 1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圖版 72. 1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圖版 73. 1·2·3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圖版 74. 2·3호 기와가마, '가' 지구 수습유물



圖版 75. '나 지구 수습유물



圖版 76. '나' 지구 수습유물

調查報告書抄錄

報告書名	김해 능동유적 II -석곽묘		發刊日	2012年 6月 30日	
發行機關	名稱	울산대학교 박물관			
	住所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2 울산대학교 박물관			
	TEL	052) 259-2635	FAX	052) 259-2632	
執筆・編輯者	전호태, 김영민, 우순희, 신준섭, 이아진, 윤효정, 백상화, 이다애				
調査緣由	김해 장유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				
調査期間	1차: 1996. 12. 2 ~ 1997. 2. 10				
	2차: 1997. 7. 16 ~ 1997. 9. 12				
現場調査者	전호태, 김영민, 이경인, 배순희, 천선행, 김현철, 남연의				
遺蹟所在地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일대				
遺蹟面積	13,200m ²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석곽묘	삼국시대	50	통형기대, 고배, 대부장경호, 철검, 재갈, 철촉 등		
석실묘	삼국시대	1			
토광묘	삼국시대	1			
토기가마	삼국시대	2			
기와가마	조선시대	3	암키와, 수키와 등		
석열	조선시대	4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7輯

김해 능동유적 II

-역괄도

인 쇄 2012년 6월 15일

발 행 2012년 6월 30일

편 저 울산대학교 박물관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2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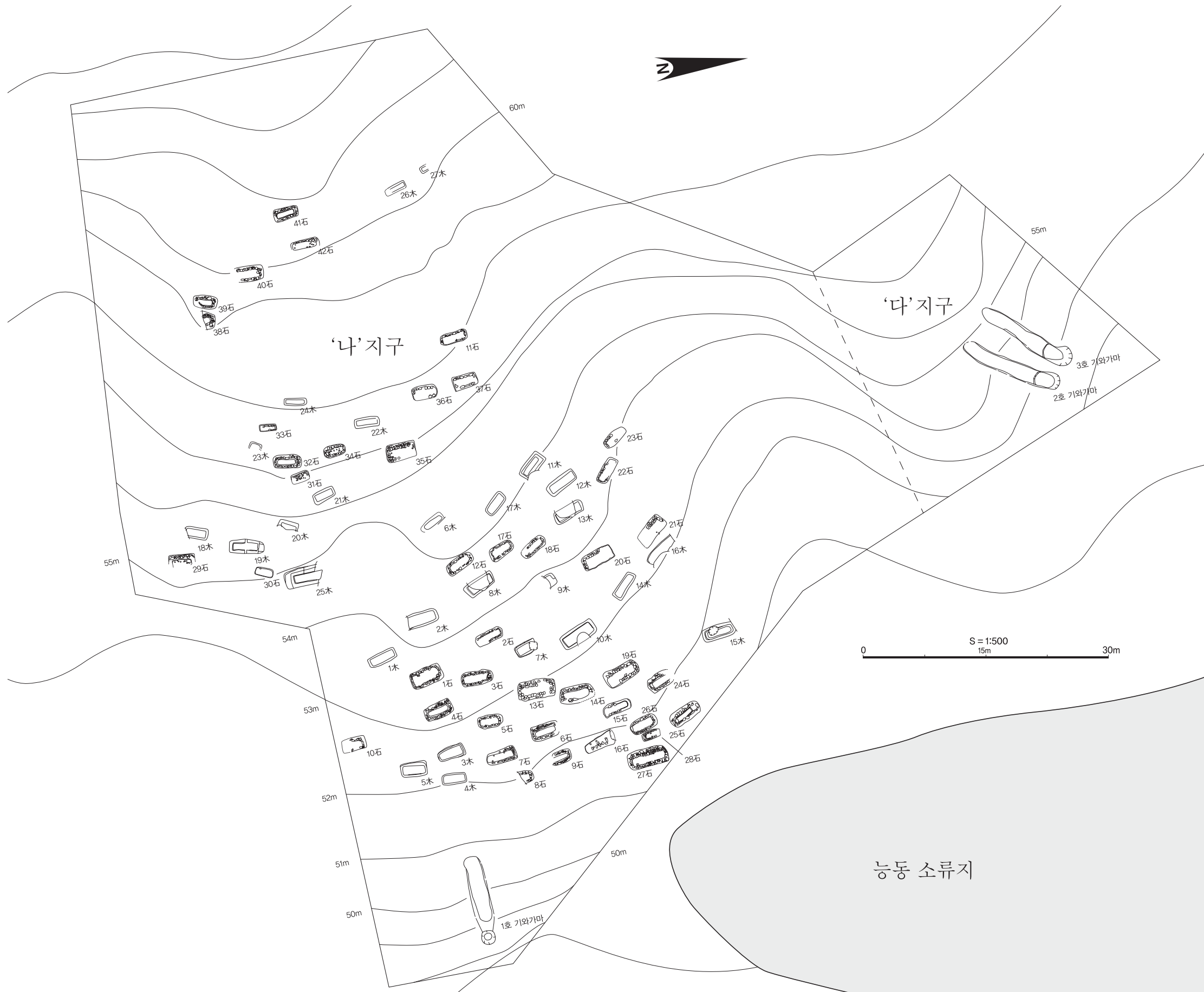
TEL: (052)259-2635, FAX: (052)259-2632

제 작 도서출판 삼창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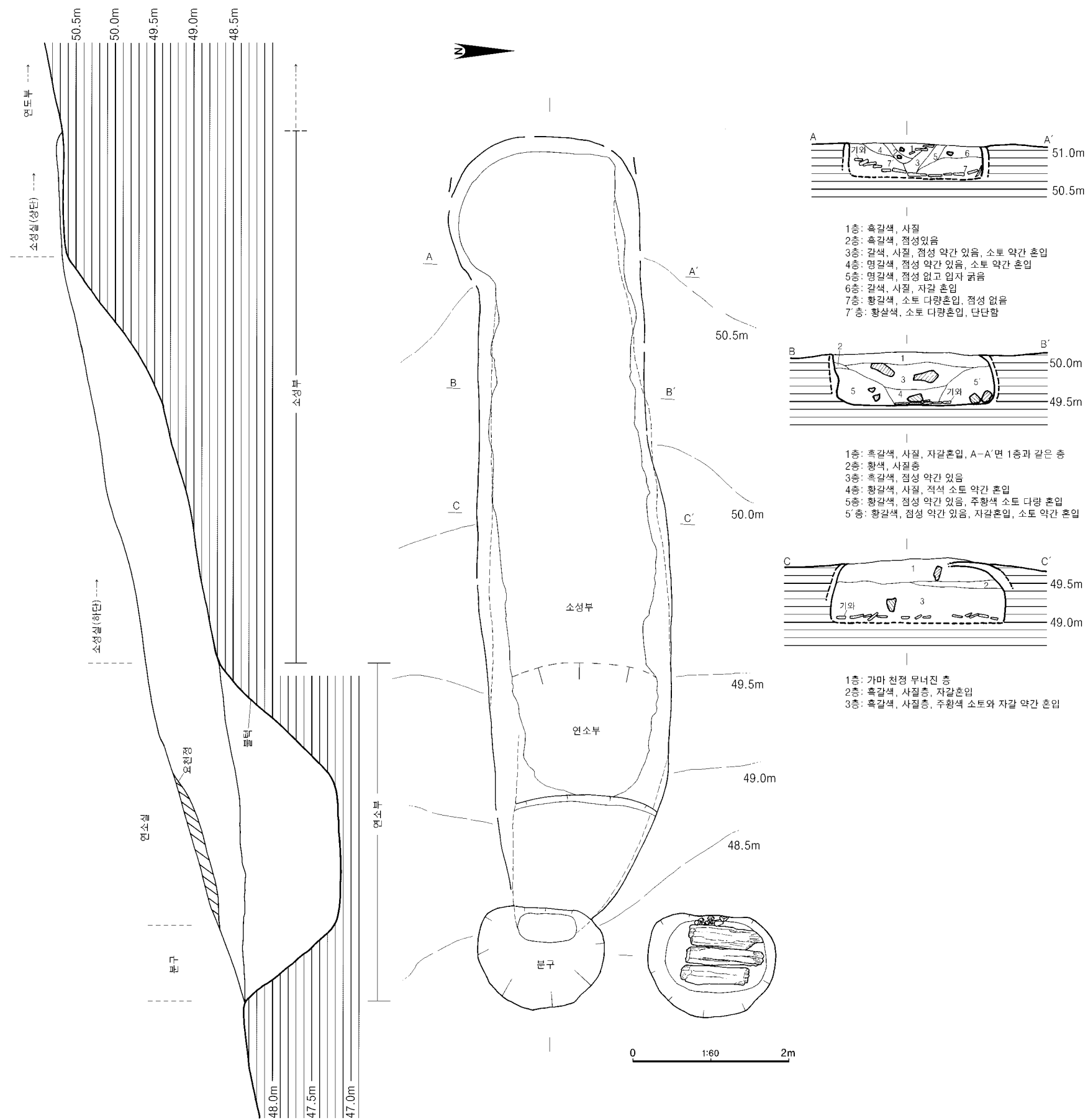
680-808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569-4

TEL: 052-277-1180, FAX: 0505-388-1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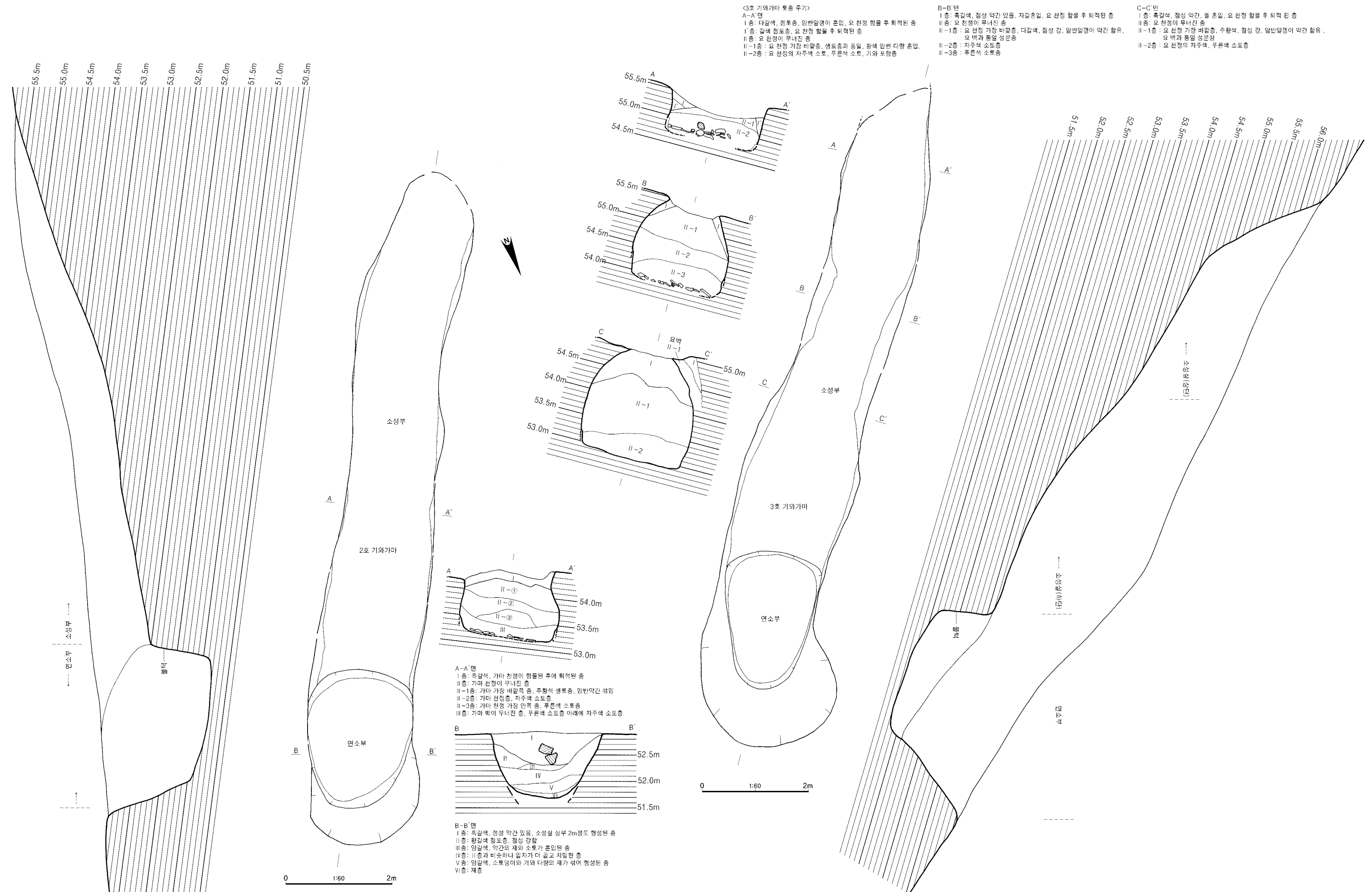
ISBN 978-89-962136-2-8 93910



圖面 4. 능동유적 '나·다' 지구 유구배치도(1/500)



圖面 97. 1호 기와가마



圖面 98. 2 · 3호 기와가마